

# 다산역학 연구 II

이을호 저 | 다산학연구원 편 <현암 이을호 전서>는 이을호(1910~1998)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집대성한 책이다. 선생은 한말韓末 격동기에 출생하여, 일제의 지배를 당하던 환경에서 민족자강운동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옥중에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를 접하고, 다산茶山의 지혜로 시대를 구하고자 정약용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 문화와 고유한 사상에서 형성된 지혜를 체계적으로 탐구하여 우리 민족이 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니 <현암 이을호 전서> 27책이 그것이다. 이는 단순한 저서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밝힌 새로운 보고寶庫로, 현대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올바른 미래 문화의 모델을 갈구하는 뜻있는 이들에게 더할 수 없는 지혜를 제공해 줄 것이다.



OLJE CLASSICS

# 다산역학 연구 II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제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게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 고전이나 문화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 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 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원을 발행하며 4천 원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정 기관,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http://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와 〈현암 이을호 전서〉 무료 전자책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도서 유통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원태 님께 감사드립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 주신 벗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흙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올재 후원하러 가기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 www.olje.or.kr ✉ oljeclassics@olje.or.kr

📱 @oljeclassics 📘 www.facebook.com/olje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한 벗들



## 다산역학연구 Ⅱ



# 다산역학연구 Ⅱ

3

이을호  
지음 · 다산학연구원  
편





## 다산역학연구 II

### 목 차

## 제6장 명청의 역학

제1절 내씨작중설 \_ 357

제2절 이씨절중론 비판 \_ 365

## 제7장 고금이석(古今異釋)

제1절 육덕명석문초(陸德明釋文鈔) \_ 388

제2절 곽씨거정박(郭氏舉正駁) \_ 397

제3절 왕채호이론(王蔡胡李論) \_ 402

제4절 다산잡론 \_ 412

제5절 자산역간(茲山易柬) \_ 425

## 제8장 다산역의 정수

제1절 역리사법 \_ 434

제2절 독역요지(讀易要旨) \_ 450

제3절 역례비석(易例比釋) \_ 468

제4절 패의론 \_ 473

## 제9장 다산역의 경학적 의의

제1절 역수학적(曆數學的) 고역(古易), 순천(順天)의 학 \_ 606

제2절 개과천선의 도 \_ 609

제3절 술수학의 비판 \_ 611

## 제10장 다산 역학의 사상사적 위상

제1절 묘합의 원리 \_ 620

제2절 한사상의 맥락 \_ 623

결 어 \_ 625

발 문 \_ 628

편집 후기 \_ 631

『현암 이을호 전서』 27책 개요 \_ 633



제6장

# 명칭의 역학

지금까지 보아 온 역학사상은 역수학적(曆數學的: 日月・四時・再閏) 상수학[象數學]으로 시원(始源)하였고 한대 순구가에 의하여 그의 근간이 전승되어 왔으나 위진시대에 이르자 왕필파는 노장을 수용하여 의리역학으로 변형시키었다. 송대에 이르자 주자의 패변도는 한대 상수학[推移]의 부흥에 기여하는 양하였으나 소강절의 선천지학(先天之學: 伏羲八卦圖)은 또다시 『주역』의 원류에 일대변조를 가져왔다. 왕필의 변질은 패상의 해석상의 문제에 그쳤지만 소자(邵子)의 변조는 역의 원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쳤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건강부회란 단어가 그를 위하여 마련됐다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소위 역수학적 고역(古易)의 수난은 이에 그치지 않고 명 말의 내지덕(來知德)에 의하여 더욱더 심화되었다.

내씨(來氏)는 명 말의 거유로서 이름[名]은 지덕(知德), 자는 의선(矣鮮), 호는 구옹(瞿壩), 명조(明朝) 가정(嘉靖) 4년생이요, 만력(萬曆) 32년에 수(壽) 80으로 몰(沒)하였다. 반생을 역경연구에 몰두하여 『역경집주(易經集註)』 16권을 저술하였으나 그의 창안인 착종설(錯綜說)은 끝내 왕필과 소강절을 잇는 제3의 천적(天賦)으로 지목되기에 이

르렀다. 저간의 소식을 다산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구용 내지덕에게는 『역경집주』 16권이 있다. 「역대전」 가운데서 오직 ‘착중(錯綜)’이란 두 글자만을 붙잡고서 스스로 학설을 만들어 음양이 변환하는 것을 ‘착(錯)’이라 부르고, 위아래가 뒤집히는 것을 중(綜)이라고 불렀다. 이 두 가지 뜻으로 『주역』의 취지를 해석해서 추이설과 괘변설을 단호한 말로 배격했다. 단사와 효사의 취지에 대해 글자 하나 구절 하나조차 우연히 일치하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찬탄하고 과장하는 품이 마치 깊은 탐구 끝에 홀로 깨달은 것이 있는 것만 같았다. 얕은 학식을 가진 몽매한 이들은 참된 진리가 있지 않나 의심적어하면서 종종 정확하다고 치켜세우는 바람에 또한 역학가의 큰 장애가 되고 말았다. 그가 상수를 논한 근본은 어김없이 소자의 선천의 학문을 따르면서 다소 그의 학설을 바꾼 것이었으면서, 정자·주자를 넘어서고 순상·우변을 쓸어버리려 했으니 실제로 하참은[下乘] 역학가일 뿐이다.<sup>1)</sup>

이로써 내씨는 그의 착중설로 추이괘변설(推移卦變說)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에 다산은 내씨의 착중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1) 「來氏易說駁」, 『易學緒言』 卷3, II~47, 14쪽(10-365). “罷庸來知德 有易經集註十六卷 專執大傳中錯綜二字 自立詁訓 陰陽變換曰錯 上下顛到曰綜 以此兩義 解釋經旨 而推移卦變之說 嚴詞斥黜 其于彖詞爻詞之旨 一字一句 不能偶合 特其自贊自夸 有若深究而獨悟者 故淺學蒙識 疑有真諦 往往宗之爲正學 亦易家之大部也 其論象數之本 仍遵邵子先天之義 而稍變其說 乃欲跨越程朱 掃蕩荀虞 實易家之下乘也”.

## 제1절 내씨착종설

내씨역설(來氏易說)	다산(茶山)의 착종설(錯綜說) 비판(批判)
<p>착(錯)이란 교착하고 (좌우로) 대대하는 것에 대한 이름이다. 종(綜)이란 높고 낮음이 (위아래로) 짜이고 모이는 것에 대한 이름이다[錯者 交錯對待之名 綜者 高低織綜之名].</p>	<p>착은 줄[繩]이요, 숫돌[礪]이며, 뒤섞임[雜]이요, 갈마든다[迭]는 말과 같으며, 뒤집힘[顛倒]이요, 교착(交錯)이다. 『예기』에서는 “예와 악이 교착한다”고 했고, 『시전』에서는 “동서로 가는 것을 교(交)라 하고, 기울어진 채로 가는 것을 착(錯)이라 한다”고 했다. …종(綜)이란 베를 짜는 것이요, 실을 주고받아 모으는 것이요, 다 모으는 것이며, 실마리를 찾는 것이다. 『열녀전』에서는 “미루어 가고 당겨서 오는 것이 종이다”고 했다. ○내씨는 대대를 착이라 하는데, 동서로 가는 것을 교라 하고[곧게 상대하는 것이다] 기울어진 채로 가는 것을 착이라 하니[비스듬하게 서로 가는 것이다] 본래의 뜻이 아니다. 내씨는 뒤집힌 것을 종이라고 하는데, 미루어 가는 것을 종이라 하고, 당겨서 오는 것을 종이라고 하니 본래 뜻이 아니다. 글자의 뜻에서 찾아보아도 본래 옳지 않은데 어떻게 억지로 이렇게 명명할 수 있겠는가[錯繅也 錯礪也 錯雜也 錯猶迭也 錯顛倒也 錯交錯也 禮記曰禮樂交錯 詩傳曰東西爲交 邪行爲錯…綜織縷也 綜持絲交也 綜總聚也 綜尋緒也 列女傳云 推而往 引而來 綜也 ○來氏以對待爲錯 而東西爲交(正相對) 邪行爲錯(斜相行) 則非其本義也 來氏以顛倒爲綜 而推往爲綜 引來爲綜 則非其本義也 求之以字義 本自不然 豈可強命之如是乎?]</p>
<p>64괘는 건·곤·감·리·대과·이·소과·중부 8괘가 서로 교착한 것일 뿐이다. (8괘를 제외한) 나머지 56괘는 모두 서로 뒤집혀 28괘가 된다[六十四卦 止乾坤坎離大過頤小過中學八卦相錯 其餘其五十六卦皆相綜而爲二十八卦].</p>	<p>건·곤·감·리·이·대과·중부·소과 등 8괘는 위아래를 뒤집어도 모두 본래 괘를 이룰 뿐, 반역(反易)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성인께서 이 8괘를 가리켜 전괘(顛卦)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효사를 지으면서 모두 뒤집힌 상징을 썼다. 「잡괘전」에서는 “대과는 넘어짐이다”라고 했고, 이괘의 효사에서는 “넘어져 길러 주기를 구하나 길하다”고 하고 “넘어져 길러 주기를 구하나 정도에 어긋난다”고 했다. 감괘에서 ‘깊은 구덩이[坎窩]’라고 한 것도, 이괘에서 ‘발자국이 교착한다’고 한 것도 모두 이런 뜻이다. 본괘에서 뒤집힌 상징을 취한 것이지, 서로 짝지은 괘에서 대대하는 체제를 관찰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씨의</p>

내씨역설(來氏易說)	다산(茶山)의 착종설(錯綜說) 비판(批判)
	<p>방법은 짝배[配卦]를 쌍으로 배열해서 그들의 대대관계를 관찰하고서, 탄성을 지르고 갈채를 보내면서 신묘하다고 지목한다. 그러고는 이괘(頤卦)의 사는 어떤 것은 그 상징을 대과의 사에서 취했고, 중부의 사는 어떤 것은 소과에서 취했다고 하는 등 뒤죽박죽 어지럽기만 하고 전혀 법도나 버리라고는 없다. 아울러 ‘서로 뒤집힌 괘’라고 하는 것도 모두 이런 사례를 썼다. 역이 본래 이해하기 어렵다지만 어려우면 치워 두면 될 뿐인 것을, 어찌자고 이렇게 마음대로 뒤집고 바꾸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인가[乾坤坎離頤大過中孚小過等八卦 顛倒上下 皆成本卦 不成反易 故聖人指此八卦曰顛卦 其作爻詞皆用顛倒之象 雜卦傳曰大過顛也 頤之詞曰顛頤吉 顛頤拂經 坎之坎窩 離之履錯 皆是此義 蓋於本卦之內 取其顛倒之象 非於相配之卦觀其對待之體 乃來氏之法 雙列配卦 觀其對待 叫奇喝采 指爲神妙 乃云頤卦之詞 或取象於大過 中孚之詞 或取象於小過 渾洞貿亂 全無法紀 並與所謂相綜之卦 而皆用此例 易固難解 難解則置之而已 何爲此舞弄翻變 以誣以誑哉?]</p>
<p>준괘와 몽괘의 경우 준이 이(離)에 대해 중(綜)이고, 몽이 감에 대해 중이라고 하더라도, 본래 두 괘의 괘이다. 그러나 하나는 위이고 하나는 아래이니 모두 2양4음으로 이루어진 괘다. …[如屯蒙之類 雖屯綜乎離 蒙綜乎坎 本是二卦 然一上一下 皆二陽四陰之卦也…].</p>	<p>내씨는 스스로 「팔괘상종도(八卦相綜圖)」를 지어 절괘·준괘·혁괘·풍괘를 감(坎)에 소속시키고, 여괘·경괘·몽괘·환괘를 이(離)에 소속시켰다. 혁·풍 두 괘는 본래 감체(坎體)가 없는데, 어째서 감의 소속이라고 하는 것인가? 몽·환 두 괘도 본래 이체(離體)가 없는데 어째서 이의 소속이라고 하는 것인가? 스스로 이치에 어긋나는 그림을 만들고서 성인의 경서를 인용해서는 ‘준괘는 이괘에 대해 중이고, 몽괘는 감괘에 대해 중이다’라고 하니 누가 이것을 알아주겠는가? ○경(經)에서는 “양괘는 음이 많고, 음괘는 양이 많다”고 했다. 그러므로 준괘·몽괘는 2양(二陽)의 괘가 될 수는 있지만, 4음(四陰)의 괘라고 부를 수는 없다. 내씨가 ‘2양4음의 괘’라고 한 것은 또한 소환한 것이다. 잡괘(雜卦)란 여러 사물을 연관 지어 성질을 기술한 괘이니, 곧 두 호괘[兩互之卦]라고 부르는 것이다. 준괘가 몽괘의 잡괘에서 둘씩 둘씩 서로 짝을 지은 데서 나타나는 것은 본래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제 꼭 이 두 구절을 인용해서 많은 괘들이 상종(相綜)하는 증거로 삼는다면 의미가 있다고 하겠는가[來氏自作八卦相綜圖 以節屯革豐爲坎之屬 以旅鼎蒙渙爲離之屬 夫革豐二卦 本無坎體 何以謂之坎屬 蒙渙二卦 本無離體 何以謂之離屬 自作非理之圖 而自引如聖經曰屯綜乎離 蒙綜乎坎 其誰知之 ○經曰陽卦多陰 陰卦多陽 故屯蒙爲二陽之卦 不可名之曰四陰之卦 其云二陽四陰之卦 亦疎矣 ○雜卦者雜物撰德之卦 卽所謂兩互之卦 屯見蒙雜之兩兩相配 本非異事 今必引此二句 爲諸卦相綜之證 其有意味乎?]</p>
<p>공자가 세상을 떠난 후 유자들은 문왕과 주공이 상징을 확립한 것이 모두 「서괘전」의 착종 관계 속에 감춰져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서괘전」을 『주</p>	<p>「서괘전」에서 준괘 다음에 몽괘가 오는 것은 (서로) 반대된다는 뜻이다. 감괘 다음에 이괘가 오는 것은 변역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내 선생의 말을 들어보지 않아도 아는 것이다. 수괘·송괘가 준·몽 다음에 오는 것과, 둔괘·대장괘가 함괘·항괘 다음에 오는 것은 전문(傳文)을 읽어 본다고 한들 결국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다. 법칙이 없는 것을 법칙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제 기필코 「서괘전」에</p>



내씨역설(來氏易說)	다산(茶山)의 착종설(錯綜說) 비판(批判)
<p>역』 상·하편의 순서로만 여기고 「설괘전」에서 그림 속에서 천리마를 찾는 격으로 해냈을 뿐이다[孔子沒後 儒不知文王周公立象皆藏于序卦錯綜之中 止以序卦爲上下篇之序 乃將說卦執圖求駿].</p>	<p>서만 상징을 확립한 취지를 찾으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씨의 학문은 착종이라는 두 가지 법칙만을 세우려는 것이다. 건괘의 초구효에서 통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며, 곤괘의 초육효에서 찾아 이것이 착법(錯法)이라고 하고, 준괘의 초구효에서 통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몽괘의 초육효에서 찾아 이것이 종법(綜法)이라고 한다. 감괘의 상징이 이괘에서 생기는 것은 착법으로 소통시키고, 진괘의 상징이 간괘에서 생기는 것은 종법으로 소통시킨다. 법칙이 이미 많이 변했기 때문에 말이 어찌다 들어맞는 경우가 생기면, 오래 누적하고 마음속으로 체험하고서는 마침내 독실하게 믿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바보가 도깨비불에 유혹되어 산길을 헤매면서 가시와 덤불에 시달리다가 한때 한 줄기 열린 길을 발견하고서, 이전에 자기가 어리석게 헤맨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애처롭지 않은가[序卦屯蒙相次 反對之義也 坎離相次 變易之義也 此不待來先生而知之 若夫需訟之次於屯蒙 遯大壯之次於咸恒 雖讀傳文 終不啻豁 蓋以無法爲法也 今必於序卦之中 求其立象之旨 何也 ○來氏之學 專立錯綜二法 乾初九有所不通 則求之於坤初六曰此錯法也 屯初九有所不通 則求之於蒙初六曰此綜法也 坎象生於離則錯以通之 震象生於艮則綜以通之法既多變 詞或偶合 積久內驗 遂篤自信 如一等癡人 爲鬼魅所引 枉入山蹊 彼荊冒榛 時得一線開通 不悟從來迷昧 豈不哀哉!]</p>
<p>왕필(王弼)이 상징[象]을 버린 이후로, 『주역』을 주해한 많은 유학자들은 모두 상징이 그 전수된 내용을 잃어버렸다고 여기고서, 그 상징을 말하지 않고 그 이치만을 말할 따름이었다. 그래서 역에서 상징을 취한 취지는 마침내 후대에 먼지 속에 묻히고 말았다 [自王弼掃象以後 註易諸儒皆以象失其傳 不言其象 止言其理 而易中取象之旨 遂塵埋於後也].</p>	<p>왕필이 상징을 버린 것은 참으로 망령되고 경솔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인의 경서 바깥에 따로 한 문호를 세우지는 않았으니, 이것은 경서에 어두웠다고는 할 수 있지만, 경서를 어지럽힌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씨는 그 상징에 통하고자 여러 학자들이 말한 것 바깥에 따로 착종이란 두 법칙을 세우고서, 외람되게도 주공이 상징을 확립한 것이 본래 이와 같았다고 하니 어찌 미혹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 해로움은 누가 더 심하고 그 죄는 누가 더 크겠는가? …[王弼掃象 誠爲妄率 然不於聖經之外 別立一門 此爲昧經 不是亂經 來氏欲通其象 乃於諸家所言之外 別立錯綜二法 猥云周公立象 本自如此 豈不惑歟… 其害孰甚 其罪孰大…].</p>
<p>상징[象]이란 사리가 비슷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일이 정말로 있다는 것도 아니고, 실제 이치가 정말로 있다는 것도 아니다[像者 乃事理之彷彿近似 可以想像者也 非真有實事也 非真有實理也…].</p>	<p>이 이치가 있으면 이 일이 있고, 이 일이 있으면 이 상징이 있다. 이 일이 없다면 또한 이 상징도 없다. 진실로 이 이치가 없다면 또한 이 일도 없다. 이제 내씨는 ‘비록 이 상징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이 일은 없다’고 하고 ‘비록 이 상징이 있다고 해도 본래 이 이치는 없다’고 한다. 이 몇 마디 말은 이미 혼탁해서 맑지 못하다. …본래 이 일도 없고 또한 이 이치도 없는데 헛된 상징을 가설해서 사람들을 겁준다면,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有此理 斯有此事 有此事 斯有此像 若無此事 亦無此像 苟無此理 亦無此事 今來氏之言曰雖有此像 實無此事 雖有此像 本無此理 卽此數語 已渾濁不清矣… 本無此事 亦無此理 而設空像以怖黔愚 有是理乎?]</p>

내씨역설(來氏易說)	다산(茶山)의 착중설(錯綜說) 비판(批判)
<p>괘변은 우변의 주장으로 후대 유학자들이 그를 따랐다. …이것은 중괘(綜卦)를 모르는 것이다. 수괘와 송괘가 서로 중(綜)이 되니, 감괘의 양효가 안에서 와서 중(中)을 얻은 것이다[卦變者 此虞翻之說也 後儒信而從之… 不知乃綜卦也 需訟相綜 乃坎之陽爻 來于內而得中也].</p>	<p>괘변에 대한 주장은 우변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공자의 「단전」이 저처럼 분명한데 어떻게 우변을 책망하겠는가? 순상(荀爽)·요규(姚規)·후과(侯果)·촉재(蜀才) 등은 모두 주이법을 사용했으니, 이것은 그 전수된 것이 반드시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것이지, 오늘날 사람들의 논의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다. 왕필은 괘변설을 취하지 않았지만, 비괘의 단사에서 이 이론을 쓰지 않을 수 없었고, 이전은 괘변설을 취하지 않았지만, 수·고·서합·함·항·손·익괘에서 이 이론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내씨는 어떤 사람이기에 급하게 괘변설을 물리치기를 이렇게 어렵지 않게 여긴단 말인가? 착중과 변화가 어느 상징이나 합치하는 것은, 이 법에 의지한 탓인데 이것이 공자의 본뜻이 아니라 말인가[卦變之說 不自虞翻始也 孔子象傳 明白如彼 何咎於虞翻也 荀爽姚規侯果蜀才之等 皆用推移 此其傳授 必自高遠 非今人之所得議也 王弼不取卦變 而責卦之象 不得不用此義 伊川不取卦變 而隨蠱噬嗑責恒損益 不得不用此義 顧來氏何人 悍然軋斥 若是其無難也 錯綜變化 無象不合 所恃者此法 奈非孔子之本旨]</p>
<p>진괘에 속하는 것들은 곤괘와 중(綜)의 관계이고, 감괘에 속하는 것들은 이괘와, 간괘에 속하는 것을 손괘와, 진괘에 속하는 것들은 태괘와 종의 관계이다. 이것이 복희의 팔괘가 한 번은 순하고 한 번은 거스르는 것으로, 저절로 서로 대대하는 것이지, 문왕이 안배한 것이 아니다 [乾所屬綜乎坤 坎所屬綜乎離 艮所屬綜乎巽 震所屬綜乎兌 乃伏羲之八卦 一順一逆 自然之對待也 非文王之安排也].</p>	<p>이 한 구절을 보면 내씨의 역학은 문호를 세우기에는 부족하다. 팔괘는 각각 정해진 짝이 있어서 서로 어지럽힐 수 없다. 진괘와 곤괘가 하나의 짝이요, 감괘와 이괘가 하나의 짝이며, 진괘와 손괘가 하나의 짝이요, 간괘와 태괘가 하나의 짝이다. 내씨는 진·곤·감·이괘에 대해서는 본래의 짝과 중(綜)을 이루게 하고, 진·손·간·태괘에 대해서는 다른 짝과 중을 이루게 하니, 천하에 이런 법칙이 있던 말인가? 스스로는 복희의 팔괘가 대대하는 방법이 이와 같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제 소요부의 선천팔괘의 방위도를 보면 진은 남쪽이고, 곤은 북쪽이며, 감은 서쪽이고 이는 동쪽이다. 진과 손은 상충하고, 간과 태는 상충한다. 음양의 대대에는 각기 저절로 상충하는 것이 있어서, 진과 태를 하나의 짝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간과 손을 하나의 짝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내씨의 역학은 세 분 성인의 옛 뜻에 대해 명하니 살피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요부의 선천학에 대해서 한 번 정밀하게 살펴본 적도 없으니 역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觀此一節 來氏之易 不足以立門戶也 八卦各有定配 不可相亂 乾坤一配也 坎離一配也 震巽一配也 艮兌一配也 來氏於乾坤坎離 綜之以本配 於震巽艮兌 綜之以他配 天下有此法乎 自以爲伏羲八卦對待之法如此 而今觀邵堯夫先天八卦方位之圖 則乾南坤北坎西離東 而震與巽相沖 艮與兌相沖 陰陽對待 各自相沖 未嘗以震兌爲一配 艮巽爲一配 卽來氏之易 不唯於三聖古義 茫然不省 而邵堯夫先天一部 亦未嘗精細一覽也 而可以知易乎哉]</p>
<p>오직 수괘와 송괘는 서로 중(綜)의 관계이기 때문에 「잡괘전」에서는 “수는 나아가지 않고, 송은 친하지 않다”고 했다. 둔괘는 대장괘와 종의 관계이기</p>	<p>역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교역(交易)으로 예를 들어 수뢰준(水雷屯)이 교역해서 뇌수해(雷水解)가 되는 경우다. 두 번째는 반역(反易)으로 수뢰준이 반역해서 산수몽(山水蒙)이 되는 경우다. 세 번째는 변역(變易)으로 수뢰준이 변역해서 화풍정(火風鼎)이 되는 경우다. 「서괘전」의 경우는 반역으로 차례를 삼았는데, 전도된 것이 다른 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역으로 차례를 삼았다.</p>

내씨역설(來氏易說)	다산(茶山)의 착종설(錯綜說) 비판(批判)
<p>때문에 「잡괘전」에서는 “대장은 그치고 둔은 물러간다”고 했다. …[惟需訟相綜 故雜卦曰需不進也 訟不親也 若遯則綜大壯 故雜卦曰大壯則止 遯則退也…]</p>	<p>즉 건·곤·감·리(離)·이(頤)·태와 중부·소괘의 순서가 이런 경우다. 교역이란 방법도 때로 사용했는데, 태·비·기제·미제의 순서가 이런 경우다. 그러므로 「대상전」에서는 특별히 ‘천지가 사귀다’고만 했는데, 사귀다[交]는 것이 곧 교역이다. 경(經)에서는 “교역하면서 양을 잃어버린다[喪羊于易]”, “교역하면서 소를 잃어버린다[喪牛于易]”고 했는데, 이것은 교역하면서 잃어버린다는 말이다. 삼역(三易)의 의미는 각각 이와 같지만 그들이 늘어나고 줄어들며, 나아갔다 물러가는 운행은 모두 12 벽괘가 군주가 되고, 재운[兩閏]의 괘가 추뉴가 된다. 50연괘가 모두 이들에게 명을 받아 각각 성과 명을 바꾸고 그 다음에 오르내리고 오고 가는 자취와 길흉희린의 실정을 살피고 음미할 수 있게 된다. 문왕과 주공의 말에서, 공자의 「단전」에서 살펴보면 그 의미가 역연하다. 그런데 내씨의 역학은 오로지 반대(反對)라는 한 방법만을 고집하면서 이 한 부의 경서를 이해하려고 하니 어찌 비뚤어진 것이 아니겠는가[易有三法 一曰交易 如水雷屯 交易爲雷水解是也 二曰反易 如水雷屯 反易爲山水蒙是也 三曰變易 如水雷屯 變易爲火風鼎是也 序卦則以反易相次 其顛倒而不成他卦者 乃以變易相次 即乾坤坎離頤大過中孚小過是也 交易之義亦時用之 泰否既濟未濟是也 故大象傳特云天地交交易者交易也 經曰喪羊于易 喪牛于易 謂失之於交易也 三易之義雖各如此 若其消長進退之運 唯十二辟卦爲之君主 而兩閏之卦爲之樞紐 於是五十衍卦 皆受命於是 而各正性命 夫然後升降往來之跡 吉凶悔吝之情 有所觀玩 考之於文王周公之詞 孔子彖傳之文 其義歷然 乃來氏之易 專執反對一法 欲以了此一部之經 豈不拗哉?]</p>
<p>팔괘의 소속에 대해 「상종도」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건에 소속된 것은 구·둔·비·관·박괘이고, 곤에 소속된 것은 복·임·태·대장·괘괘이며, 감에 소속된 것은 절·준·기제·혁·풍괘이고, 이에 소속된 것은 여·정·미제·몽·환괘이다.”[八卦所屬 自相綜圖云 乾之屬姤否否觀剝 坤之屬復臨泰大壯夬 坎之屬節屯既濟革豐 離之屬旅鼎未濟蒙渙]</p>	<p>이정조(李鼎祚)와 육덕명(陸德明)이 전한 옛 방법에서는 팔괘의 중괘(重卦)를 팔순괘(八純卦)라고 불렀다. 팔순괘 가운데 초효에서 오효까지 강유가 서로 변하는 것을 5세의 괘[五世之卦]라고 불렀다. 내의선은 이런 방법을 엮고서 이 상종도를 만들고는 마침내 5세의 괘를 건의 소속이네, 감의 소속이네라고 하니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박괘를 살펴봐도 건이라고는 없는데 어떻게 건의 소속이라고 한단 말인가? 혁괘와 풍괘에도 감이 없는데 어째서 감의 소속이라고 한단 말인가? 4세니 5세니 하는 것은 관찮겠지만, 그 무리가 아닌데도 ‘속한다[屬]’고 말할 수 있겠는가[李鼎祚陸德明所傳古法以八卦之重卦 名之曰八純卦 乃於八純卦 自一至五 剛柔相變 名之曰五世之卦 來矣鮮竊見此法 爲此相綜之圖 遂以五世之卦爲乾之屬坎之屬 豈不謬哉 觀剝無乾 何以謂之乾之屬 革豐無坎 何以謂之坎之屬 謂之四世五世 猶之可也 非其族矣 可云屬乎?]</p>

내씨역설(來氏易說)	다산(茶山)의 착종설(錯綜說) 비판(批判)
손괘와 익괘는 서로 종(綜)이 된다. 손괘의 육오효는 즉 익괘의 육이효인데, 뒤집혔을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상징은 모두 십봉의 거북[十朋之龜]인 것이다. …[損益相綜 損之六五 卽益之六二 特倒轉耳 故其象皆十朋之龜…].	내씨는 스스로 효변의 방법을 안다고 여기면서, 경을 풀이할 때는 본래 상징을 쓸 뿐이다. 그러므로 종법의 기묘함을 알 뿐 손괘의 육오효와 익괘의 육이효가 모두 중부(中孚)를 이룬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중부괘는 겹획한 대리(大離)이다. 이(離)는 거북이기 때문에, 대리는 십봉의 거북인 것이다. 종(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來氏自以爲知爻變之法 而及其釋經也 仍用本象 故但覺綜法奇妙 不知損之六五益之六二 皆成中孚 中孚者 兼畫之大離也 離則爲龜 大離者 十朋之龜也 綜者何物…].
중효(中爻)란 2·3·4·5 효가 합쳐진 괘이다[中爻者 二三四五所合之卦也].	「역대전」에서는 중효란 두 효괘로 (새로운) 괘를 만든 것이요, 또한 변해서 괘가 된 것이라고도 했다. …내씨는 곧장 효괘를 중효라고 여기기만 하니, 이미 큰 꿈에 빠진 것이다. 하물며 삼효는 이화(離火)이고, 사효는 진뢰(震雷)라는 말은 소강절의 천천괘도에서 처음 보인다. 문왕과 주공이 어떻게 거슬러 알고 허공에서 헤아려 이(離)를 삼효로 여겼겠는가[易大傳所云 中爻者 兩互作卦 而又變爲卦者也… 來氏直以互卦認之爲中爻 已屬大夢 況三離火四震雷 始見於邵康節先天卦圖 文王周公何以逆知懸度 而以離爲三耶…].
건괘의 초구효에 대해서 주에서는 양을 9라 하고 음을 6이라 한다. 「하도」·「낙서」에서는 5가 모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인이 수를 일으키는 것도 5에서 그쳤을 뿐이다. …[乾初九註云 陽曰九 陰曰六者 河圖洛書 五皆居中 故聖人起數止于五…].	「하도」·「낙서」는 문왕이 쓰던 것이 아니다. 5가 가운데 있다는 것도 (문왕의) 말이 아니다. …문왕이 쓰던 것은 5에만 그치지 않는다. 30년 동안 산속에서 연구하면서 오히려 9·6이 효변의 이름인 줄도 모르고서 ‘양은 모두 9라 하고, 음은 모두 6이라 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소양이 7이고, 소음이 8인 것은 음양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인가 [河圖洛書 非文王之所用 則五皆居中 非所言也… 文王所用 不止於五也 三十年研究山中 尙不知九六爲爻變之名 乃曰陽皆言九 陰皆言六 卽少陽七少陰八 不足謂之陽陰乎]
또 함괘의 소남과 소녀가 서로 감동하는 정 of 경 우, 주공이 상징을 세워 말하기를 ‘엄지발가락’이라 하고, ‘장단지’라 하고, ‘다리와 등’이라고 하고, ‘광대뼈·뺨·혀’라고 했다. 이것은 남녀가 서로 감동하는 지극한 정으로 상징을 세운 것이다[又如咸卦 少男少女相感之情 周公立象 曰拇曰腓 曰股脢 曰輔頰舌 此則以男女相感之至情而立象也].	내씨는 스스로 효변의 방법을 안다고 하면서 여러 효변의 상징을 오히려 본괘의 상징으로 살피고 있으니, 역을 안다는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인가? 효가 변해서 진족(震足)의 체가 있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의 상징을 얻은 것이요, 효가 변해서 손고(巽股)의 체가 있기 때문에 장단지의 상징을 얻은 것이다. 한낱 남녀의 정으로 사체와 백해의 상징을 취하는 것일 뿐이라면 역사(易詞)는 곧장 터무니없는 오랑캐의 말이 되고 마는데, 이라고도 괜찮단 말인가[來氏自以爲知爻變之法 而諸爻變象 仍以本卦之象觀之 知易者如是乎 爻變有震足之體 故得有拇象 爻變有巽股之體 故得有腓象 徒以男女之情 任取四體百骸之象 則易詞直一倭說矣 羌話矣 而可乎?]

내씨역설(來氏易說)	다산(茶山)의 착종설(錯綜說) 비판(批判)
<p>착괘(錯卦)해서 상징을 세우는 경우, 예를 들어 이괘(履卦)에서는 호랑이를 말했는데, 하괘(下卦)인 태를 교착하면 간괘가 된다. 종괘(綜卦)해서 상징을 세우는 경우, 정괘와 곤괘는 서로 종의 관계를 이루어 손은 시음이 되는데, 곤괘에서는 태가 되고, 정괘에서는 손이 되므로 고쳐서 음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有將錯卦立象者 如履卦言虎 以下卦兌錯艮也 有因綜卦立象者 如井與困相綜 巽爲市邑 在困爲兌 在井爲巽 則改爲邑矣].</p>	<p>진은 동방 청룡의 상징이요, 태는 서방 백호의 상징이다. 누가 간이 호랑이가 된다고 했던 말인가? 진실로 착괘하는 방법으로 괘의 상징을 얻고자 한다면 진은 소가 되고 감은 꿩, 진은 닭, 간은 양이 된다. 팔괘의 물상(物象)은 모두 상반되는 것을 쓰는 것인데, 천연덕스럽게 ‘이것이 주역의 변화하는 방법이다’고 한다면, 주역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震者東方青龍之象 兌者西方白虎之象 夫孰云艮爲虎耶 苟以錯卦之法 求得卦象 則乾將爲牛 坎將爲雉 震可爲鷄 艮可爲羊 八卦物象 悉以相反者爲用 而天然命之曰此周易變化法 周易其堪乎…].</p>
<p>건괘를 착괘해서 곤괘가 되면 곧 암말이 이롭다. 그러나 태괘를 착괘해서 간괘가 되면 바뀌어 호랑이로 말한다[乾錯坤 卽利牝馬 兌錯艮 革以虎言之].</p>	<p>곤괘는 건괘와 짝을 이루기 때문에 암말이 된다. 건괘는 태괘와 짝을 이루기 때문에 숫양이 된다. 이것은 모두 괘의 묘용을 설명하는 것이 실정과 이치에 합치하는 것이다. 진실로 착법을 쓴다면 곧장 수말이 되어야지 어째서 암말이 된단 말인가? 내 선생은 소략하다 [坤爲乾配 故得爲牝馬 艮爲兌配 故得爲羝羊 此皆說卦妙用之合於情理者 苟以錯法 則直當爲牡馬 何以爲之牝馬 來先生疏矣].</p>
<p>소축괘에서 ‘구름’을 말한 것은 중효의 이괘를 착괘해서 감괘가 되었기 때문이다. 간괘에서 ‘마음을 태운다’고 했는데, 중효가 감괘로서 물[坎水]인데 어떻게 마음을 태울 수 있겠는가? 착괘해서 이괘가 되면 불과 연기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小畜言雲 因中爻離錯坎故也 艮曰薰心 中爻坎水 安得薰心 以錯離 有火煙也].</p>	<p>소축괘에서 ‘뽕뽕한 구름’을 말한 것은 곤괘에서 ‘암말’을 말한 것과 같다. 곤괘는 건괘의 짝이기 때문에 암말이 되는 것이다. 손괘가 뽕뽕한 구덩이이기 때문에 뽕뽕한 구름이 되는 것이다. 내 선생은 거친 마음이짐으로 한 번 살펴보았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착괘의 상징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내씨는 이미 중효를 쓰고 있는데, 중효란 호체이다. 산을 겹쳐서 된 간괘에는 본래 대리(大離)가 있다. 무엇 하러 괴상한 방법으로 괘를 뒤집어[綜之] 이괘의 불을 취하겠는가[小畜言密雲 如坤卦言牝馬 坤爲乾配 故爲牝馬 巽爲稠坎 故爲密雲 來先生巖心瞥看 指爲錯象 ○來氏既用中爻 中爻者互體也 兼山之艮 本有大離 何必崎嶇然綜之以取離火?]</p>
<p>‘잠긴 용’에 대한 주에서는 “이것은 효가 변해서 손괘가 진괘로 교착한 것이니, 또한 용의 상징이 있다”고 했다[潛龍註云 此爻變巽錯震 亦有龍象].</p>	<p>착법(錯法)이란 이와 같으니, 믿을 수 있겠는가? 믿을 수 없겠는가 [錯法蓋如此矣 可信乎 叵信乎?]</p>

내씨역설(來氏易說)	다산(茶山)의 착종설(錯綜說) 비판(批判)
“서리를 밟았다. 단단한 얼음이...”에 대한 주에서는 “서리는 일음의 상징이고, 얼음은 육음의 상징이다”고 했다[履霜堅氷 註云 霜一陰之象 氷六陰之象].	살핀 것이 이와 같으니, 효변은 어디에 쓴다는 것인가[審如是也 覈變何用]?
‘용이 싸운다’는 것에 대한 주에서는 “육양이 용이니, 곤괘를 교착한 것이다. 변해서 간괘가 되고, 뒤집어서 진괘가 되더라도 또한 용의 상징이 있다”고 했다[龍戰註云 六陽爲龍 坤之錯也 變艮綜震 亦龍之象也].	교착시켜 감괘가 되면 핍이 될 수 있고, 뒤집어서 진괘가 되면 개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한다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라고는 없을 것이다[錯之則坎可爲雉 綜之則震可爲犬 天下無難事也].

이상으로 내씨착종설(來氏錯綜說)의 허구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이를 비판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다산의 역리사법에 따른 준엄한 척도의 결과인 것이다.

## 제2절 이씨절중론 비판

후암(厚菴) 이광지(李光地: 1642~1718)는 청대의 거유로서 강희(康熙) 연간에 제명(帝命)으로 『주역절중(周易折中)』을 저술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인즉 다산역의 척도에서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저간의 소식을 다산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강희황제가 대학사(大學士) 이광지(李光地)에게 『주역절중(周易折中)』을 편찬하도록 명하고 제호(題號)를 어찬(御纂)이라고 붙였는데 모두 22권이다. 그 책의 예(例)는 주자(朱子)의 『주역본의』를 맨 앞에 세워 원주(原註)로 삼고 그 다음으로 정자(程子)의 『역전(易傳)』을 기록하였다. 또 그 다음으로 『집설(集說)』에서는 이정조(李鼎祚)와 육덕명(陸德明)의 책 중에서 한(漢)나라와 위(魏)나라 이래 선유들의 설을 모았으며, 『영락대전(永樂大全)』 중에서는 송(宋)나라와 원(元)나라의 여러 유학자들의 설을 취하였으며, 또 명유(明儒)들이 말한 것을 또한 덧붙여 넣었다. 또 그 다음으로 『안(案)』이라고 말한 것은 이광지(李光地)의 자저(自著)이다. 경을 해석한 말미에 또 『계몽부론(啓蒙附論)』 1권과 『서괘잡괘명의(序卦雜卦明義)』 1권을 첨부하였다. 종합하건대 용촌(榕村)의 학문은 괘변(卦變)을 믿지 않았고, 효변(爻變)도 알지 못했으며, 호체(互

體)도 쓰지 않았고, 물상(物象)을 쓰지 않았다. 비록 스스로는 주자(朱子)를 독실하게 믿었다고 말하지만 궤변을 믿지 않았으니 이미 주자의 학문이 아니다. 비록 스스로는 고금(古今)을 드넓게 종합하였다고 말하지만 한위(漢魏)의 유자들이 말하는 것과 송원(宋元)의 유자들이 말하는 궤변과 물상의 흔적은 모두 도태되어 버렸다. 오직 빈말과 베끼 말을 취하였을 뿐이었고, 의리의 논리를 부연한 것도 조잡할 뿐이었다. 대체로 왕필(王弼)의 적전(嫡傳)이라지만, 『영락대전(永樂大全)』의 심원함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부론』에 그려진 여러 그림들도, 모두 산수가의 지류일 뿐, 『주역』과는 조금의 상관도 없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중역학의 공의(公議)라고 하니, 미혹과 장애가 심하다.<sup>2)</sup>

## 1. 총설

주역경전의 구성에 있어서는 경과 전을 나누고[經傳分離] 전을 경에 붙이는[以傳附經] 등 두 가지 틀이 있는데 고경(古經)은 전자에 속하고 왕필본은 후자에 속한다. 그리하여 이씨(李氏)는 전자인 경과 전을 나누는[經傳分離] 고경을 따랐으니 다산은 그게 옳다 하고 전 10편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생성되었는가에 따라서 이를 수정하게 한다.

다만 10편은 「단전」 상·하, 「상전」 상·하, 「계사전」 상·하 여섯 편이 되고, 「대상전」·「설괘전」·「서괘전」·「잡괘전」이 네 편이 된다. 「문언전」은 「단전」·「상전」의 문장과 순서에 따라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따로 한 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sup>3)</sup>

2) 「李氏折中鈔」, 『易學緒言』 卷3, II~47, 22~23쪽(10-382~383). “康熙皇帝命大學士李光世撰周易析中而題之曰御纂 共二十二卷 其書之例 進朱子本義以爲原註 退程子之傳錄于其次 又次以集說者 就李鼎祚陸德明書中採其漢魏以來先儒之說 就永樂大全中採其宋元諸儒之說 而明儒所言 因亦附入 又次以案說者 李光世自著也 解經之末 又有啓蒙附論一卷 序卦雜卦明義一卷 總之格致之學 不信卦變 不知爻變 不用互體 不用物象 雖自以爲篤信朱子 而不信卦變 則已非朱子之學 雖自以爲博綜古今 而漢魏儒說及宋元儒說 其有卦變物象之跡者 悉行闕太 唯取其空言附說 敷衍義理之論者 以爲組雜 大較王弼之嫡傳 其不及永樂大全遠甚 附論所繪諸圖 又皆算數家之支流 與周易一部 毫髮無涉 今人往往以爲易學之公議 則惑深矣”.



「문언」은 고대 역고(易詁)로서 전 10편 중에서 이를 제외하였다.

또 위진시대에 왕필이 호체·납갑·비복설을 깨트린 것[破互體納甲飛伏之說]을 이씨가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였지만 다산은 오히려 이를 폐기할 것을 권한다.

『역』은 왕필에게서 망했는데, 이처럼 높이고 있으니 그의 학문을 알 만하다. 납갑(納甲)과 비복(飛伏)이 싫어할 만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패변과 물상을 어찌 버리는 것이 마땅하단 말인가?<sup>3)</sup>

또 왕응린(王應麟)의 건초구복설(乾初九復說)과 곤초육구설(坤初六姤說)이 효변을 모르기 때문임을 다음과 같이 설한다.

효변의 의미를 모르면 그 폐단은 구(姤)를 복(復)이라 여기고, 복을 구라고 여기게 된다. 말하는 의리가 모두 활이 풀려 뒤집어 지듯이 본뜻과는 이렇게 다르다.<sup>5)</sup>

더욱이 이씨의 곤직방(坤直方)의 수리적(數理的) 해석은 점입가경이다.

건괘의 여섯 효는 모두 양운(陽韻)이니 ‘직방대(直方大)’를 한 구절로 써서는 안 된다. 도대체 기하가(幾何家)의 선(線)과 면(面)과 체(體)가 『주역』과 무슨 관계인가?<sup>6)</sup>

수학(數學)에는 소위 선면체(線面體)가 있어서 선(線)의 곧음[直]이

3) 같은 책, 23쪽(10-383). “但十篇者 上彖下象上象下象上繫下繫爲六篇 大象說卦序卦雜卦爲四篇 其所謂文言者 應與彖象之文 牽連爲序 不可別爲一篇”.

4) 같은 곳, (10-383~384). “易亡於王弼 而尊之如此 其學可知 納甲飛伏 固可惡也 卦變物象 豈宜棄之”.

5) 같은 곳, (10-384). “不知爻變之義 則其弊也 以姤爲復 以復爲姤 所說義理 皆與本旨角弓反張如此”.

6) 같은 책, 같은 곳. “坤卦六爻 都是陽韻 不可作直方大句 幾何家之線面體 何干於周易”.

아니고서는 면(面)의 사방[方]을 만들지 못하고 면의 사방이 쌓여서 체(體)를 성립시키는 것이지만 이것이 도대체 『주역』의 직방대(直方大)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도시 이씨의 독단은 너무도 엉뚱하다.

준괘의 “사슴을 쫓되 우인이 없다[屯卽鹿無虞]”의 즉록(卽鹿)은 “괘상으로 보면 간은 산이고 진은 발이니 산기슭의 상징이다. 산기슭은 산의 발이기 때문이다[以卦象則艮山震足 麓之象也 麓者山足也]”라 하여 주자의 녹(鹿)은 녹(麓)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鹿當作麓說]을 취하고 있다.

대정소정(大貞小貞)은 위료옹(魏了翁)의 해석이 옳다 하고 몽괘의 모독하면 일러 주지 않는다[蒙瀆則不告]는 유염(兪琰)의 인거(引據)가 좋다고 하였다.

상을 깎되 발에서부터 한다[剝牀以足]는 유염·이광지(李光地)의 해석이 옳고 턱을 늘어뜨린다[朶頤]는 항안세(項安世)의 설이 좋다.

## 2. 「단전」

「설괘」 ‘강래(剛來)’구에 대하여 이광지가 “「단전」에서 강유·왕래·상하를 말한 것은 모두 빈 상징이다[彖傳中有言剛柔往來上下者 皆虛像也]”라 한 데 대하여 다산은 그의 비리(非理)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태괘(泰卦)와 비괘(否卦)는 교역(交易)의 관계에 있다. ‘소왕대래(小往大來)’와 ‘대왕소래(大往小來)’라고 한 것은 천지(天地) 비괘와 지천(地天) 태괘가 서로 교역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사시(四時)의 괘와 재운(再潤)의 괘는 변화를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교역으로써 상을 취하거나 혹은 변역(變易)으로써 상을 취한다. 용촌(榕村)이 오직 태괘와 비괘의 효사(爻詞)만을 가지고 괘변(卦變)의

뜻을 격파하고자 하였으니 이를 수가 있겠는가? 천지 사이에는 사물이 소종래(所從來)도 없이 홀연히 눈앞에 나타나는 일이 없다. 이미 ‘강래(剛來)’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상체(上體)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 것이 되며, 이미 상체(上體)로부터 아래로 왔다고 하였다면 그것은 어떤 한 괘가 지금 있는 괘의 구체(舊體)됨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한 괘가 있다고 하였으니 곧 12 벽괘만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것을 일러 괘변(卦變)이라고 한 것이니 괘변설은 결코 선유들이 조작해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우번(虞翻)과 촉재(蜀才)가 모두 이 괘변설을 수용하였으니 어찌 어찌 일필구(一筆句)로 단정하여 무고하게 속이는 것으로 돌리겠는가? 왕필이 힘써 괘변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비괘(賁卦)의 주에 이르러서는 어쩔 수 없이 괘변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천(伊川)이 괘변을 취하지 않았으나 수괘(隨卦)와 고괘(蠱卦)와 서합괘(噬嗑卦)와 비괘(賁卦)와 함괘(咸卦)와 항괘(恒卦)와 손괘(損卦)와 익괘(益卦)의 「단전」에 이르러서는 괘변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용춘이 어찌 억지로 단정하였는가? 이와 같이 63괘가 모두 괘변을 취하지 않았는데 오직 비괘(賁卦)의 한 괘에서만 우연히 이러한 상이 있는 이러한 이치는 없다. 56괘가 모두 괘변을 취하지 않았는데 오직 수괘(隨卦)와 고괘(蠱卦)와 서합괘(噬嗑卦)와 비괘(賁卦)와 함괘(咸卦)와 항괘(恒卦)와 손괘(損卦)와 익괘(益卦)의 경우에 만 우연히 이런 상이 있겠는가? 이러한 이치는 없다. 경(經)에 말하길 “왕래는 모두 허상(虛象)이니 성인이 관찰한 것은 허상(虛象)에 근본한 것이다”고 하였다. 귀신이나 도깨비가 맞지 않은데 눈으로 허상을 보겠는가? 슬프다 『주역』이여! 정현을 한 번 만남에 이미 큰 재앙이었다. 그런데 우번과 순상이 근근이 넘어지는 것을 막았는데 왕필이 일어났다. 왕필이 일어나자 『주역』은 또다시 큰 재앙을 만났던 것이다. 이정조(李鼎祚)와 주회암(朱晦菴)이 면면히 맥을 이었으나 이광지가 다시 일어났다. 제왕의 세력을 끼고 유종(儒宗) 자리에 의거해서 이렇게 이미 망해 버린 『주역』을 (다시) 없애 버렸으니, 홀로였더라면 어떻게 이룰 수 있었겠는가?<sup>7)</sup>

7) 같은 책, 25~26쪽(10—388~389). “泰否者交易也 小往大來 大往小來者 天地地天之交易也 四時兩間之卦無所受變 故多以交易取象 或以變易取象 榕村單執泰否之詞 以擊卦變之義得乎 天地間物無無所從來 而忽現於目前者 既云剛來 明自上體下來 則明有一卦爲今卦之舊體 既有一卦 則唯十二辟卦可以當此 此之謂卦變 卦變非先儒之設造也 虞翻蜀才咸有所受 安得一筆句斷 歸之於誣乎 王

우번(虞翻)·순상(荀爽)에 의하여 근근이 무너지는 것을 막았었고 [僅僅扶顛 이정조·주희암에 의하여 면면히 맥을 이었던[綿線延脈] 『주역』이 정현·왕필에 의하여 액운을 만나게 되었더니 이제 또다시 이광지에 의하여 큰 액을 만나게 되었음을 탄식한다. 이광지의 역학은 널리 고금에서 취하였지만[廣取古今] 오히려 역리사법(易理四法)을 도태시켰기 때문이다.

‘수괘는 강이 와서 아래가 유하다[隨剛來而下柔]’는 설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이미 복희가 괘를 이름 붙인 처음[伏羲名卦之初]에 ‘괘는 비괘로부터 왔고, 강은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낮은 땅에 이르르게 된 것이니, 이것을 수(隨)라고 한 것이다[卦自否來(䷋)剛自至高巔墮到至卑之地 斯之謂隨也]’라 하여 고역(古易)의 실상을 밝히고 있다.

‘임괘는 8월에 흉함이 있다[臨八月有凶]’는 구에 대한 이씨설(李氏說)을 평(評)하여 이르기를

고금의 혼탁한 주장을 모아 순상·우번의 바른 뜻을 공격하고 스스로 무리한 의론을 펼치니 안타깝다.<sup>8)</sup>

라 하여 그의 무리한 역설(易說)을 애석하게 여기기도 하고 ‘건괘는 서남쪽이 이롭다[蹇利西南]’는 구(句)에 대하여서는 “용춘은 물상을 취하지도 않고, 아울러 곤간(坤艮)의 학설을 배척하니 결국 무엇을

彌力掃卦變而於貞卦之註 不得不遵義 伊川不取卦變 而臨蟲噬嗑貞咸恒損益之傳 不得不勉從 榕村何得硬定如是 六十三卦皆無卦變 而唯貞一卦 偶有此象 無是理也 五十六卦皆無卦變 而唯臨蟲噬嗑貞咸恒損益 偶有此象 無是理也 經云往來 都是虛象 則是聖人所觀 本虛象也 不中鬼魅而眼見虛象乎 哀哉 周易一遭鄭玄 其大厄矣 虞翻荀爽僅僅扶顛而王弼起矣 再遭王弼 既大厄矣 李鼎祚朱晦菴 綿線延脈 李光地又作矣 挾帝王之勢 據儒宗之位 以滅此既亡之周易 抑獨何哉”.

8) 같은 책, 27쪽(10-391). “集古今昏濁之說 以擊荀虞之正旨 而自演其無理之義 惜哉”.

역이라 여긴단 말인가[榕村不取物象 並斥坤艮之說 畢竟何物爲易]?”라 하여 역(易)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극언하기도 한다. ‘해괘는 서남쪽이 이롭다[解利西南]’는 구(句)에 대한 이씨설(李氏說)을 평하여 이르기를

『역』의 의리는 모두 괘상에서 말미암는데, 괘상을 버리고 의리를 본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본받는다는 것인가? 전모(典謨)인가? 『춘추(春秋)』인가?<sup>9)</sup>

라 하여 ‘괘상을 버리고 의리를 보는[舍卦象而看義理]’ 태도를 나무라기도 한다.

### 3. 「계사전」

「계사전」에서도 이씨는 많은 지적을 받는다.

‘효란 변화를 말한 것이다[爻者言乎變者也]’는 구에 대해서는 순구가의 대표적인 우변의 설을 인용함으로써 그런 대로 ‘거의 요체에 도달했다[幾乎幾乎達於局輿]’는 평(評)을 받았지만 ‘천수가 다섯이고 지수가 다섯이다[天數五地數五]’는 구에 대해서는 공환(龔煥)의 설을 인용함으로써 “1·6은 수, 2·7은 화, 3·8은 목, 4·9는 금이 어떻게 시괘의 방위이겠는가? 용춘은 공환의 설이 가장 그림의 뜻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어째서 시괘에 대해서는 부합하지 않는 것인가[一六水二七火 三八木四九金 豈蓍卦之方位乎 榕村謂龔說極合圖意 雖合圖意 柰於蓍卦不合]?”란 평을 받는다.

9) 같은 책, 28쪽(10-393). “易凡義理 皆由卦象 舍卦象而看義理 折又何法 典謨者乎 春秋者乎”.

‘대연의 수 50[大衍之數五十]’이란 구에서는 공영달의 “(시책) 하나를 걸어서 셋을 상징한다는 것은 천수 가운데 양의의 사이에 나아가 그 하나를 나눠 걸어서 삼재를 상징한다[掛一以象三者 就兩儀之間於天數之中 分掛其一以象三才也]”를 비판하여 이르기를

하나를 걸 때에 천수(天數)에서 한 시책을 취하면 양의의 책수는 모두 지수(地數)를 이룬다. 넷씩 세면 남는 것은 반드시 2가 아니면 4이다. 2와 4는 기수가 아닐 뿐 아니라, 넷씩 세어 마지막에 4를 나머지 수로 삼는 것도 불합리하다[기수란 우수가 아니요, 또한 나머지 수이다]. 반드시 지수에서 한 시책을 취한 뒤라야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 어째서인가? 지수에서 한 시책을 취하면 양의의 책수는 모두 기수가 된다. 넷씩 세면 반드시 나머지는 1 아니면, 3이 된다.  $1 \cdot 3$ 은 기수이니, 또한 넷씩 세고 난 나머지 기수인 것이다.<sup>10)</sup>

라 하여 그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나아가 주자의 설도 그의 잘못을 지적한다. 주자는 이르기를

주자의 「시괘고요」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49개의 시책을 좌우 양손에 나눠 배치한다. 왼손은 하늘을 상징하고, 오른손은 땅을 상징하니, 이것이 양의를 상징한 것이다. 오른손에서 한 시책을 취하여 왼손 새끼손가락 사이에 걸어 두니 사람을 상징한 것이다. 넷씩 센 뒤에는 반드시 나머지 수가 남는데, 1이거나 2, 3이거나 4이다.”<sup>11)</sup>

10) 「繫辭傳」, 『易學緒言』 卷3, II ~ 47, 30쪽(10-396). “掛一之時 取一策於天數之中 則兩儀之策 皆成地數 四四揲之 畢竟殘餘 不二則四 不唯二四非奇數也 四揲之末 而四爲零數 亦不合理 奇者不偶也 又零數也 必取一策於地數之中 然後此事乃成 何也 取一於地數之中 則兩儀之策 皆成奇數 四四揲之 畢竟殘餘 不一則三 一三者奇數也 又四揲之零奇也”.

11) 같은 책, 30~31쪽(10-396~397). “朱子著卦考誤曰四十九策 分置左右兩手 左手象天 右手象地 是象兩儀也 於右手之中取一策 懸於左手小指之間 所以象人 四四之後 必有零數 或一或二 或三或四”.

그러나 다산의 논리는 이와는 다르다.

공영달(孔穎達)의 방법에 따르면 천수 가운데서 한 시책을 취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머지는 2이거나 4이다. 주자의 방법은 오직 좌우 손으로 천지를 나누고, 책수의 기우를 천지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지책(地策)에서 하나를 취하기 때문에 그 취한 것이 혹은 양책에 있기도 하고, 음책에 있기도 하다. 우수를 양에서 취하면 나머지는 2 아니면 4이고, 우수를 음에서 취하면 나머지는 1 아니면 3이다. 1과 3은 진실로 기수이지만 기수는 또한 나머지 기수이다. 2와 4는 기수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경에서 “기수를 늑에 되돌린다”고 한 구절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sup>12)</sup>

또 공영달의 전운(前閏)과 후운(後閏)의 간격이 32개월[前後閏三十二月]이라는 설도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5년에 윤달이 2번이라면 62개월이다. 64괘는 건·곤 두 괘로 천지를 상징한다. 나머지 괘는 62괘이니, 중부·소과가 윤달을 상징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지 않겠는가!<sup>13)</sup>

#### 4. 「설괘전」

‘그옥이 신명을 도와 시초를 내었다[幽贊於神明而生蓍]’는 구에 대한 공영달·향안세의 논은 한결같이 신령해서 말할 수 없으므로[神不能言] 신의(神意)를 촌탁(付度)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시(生蓍)의 방법

12) 같은 책, 31쪽(10-397). “案孔氏之法 取一於天數之中 故畢竟殘餘或二或四 朱子之法 唯以左右分天地 不以策數之奇偶爲天地 故雖取一於地策之中 而乃其所取 或在陽策 或在陰策 偶取於陽則零者二四 偶取於陰則零者一三 一三固奇(奇數也又零奇也) 二四非奇 經云歸奇於扚 不可解也”.

13) 같은 책, 같은 곳. “五歲再閏 則六十二月也 六十四卦 以乾坤二卦象天地 則餘卦六十二卦也 中孚小過以象閏月 不亦可乎”.

을 사용한다는 설은 다산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삼천양지설(參天兩地說)에 대하여서는 주자의 ‘기수가 셋이면  $3 \times 3$ 은 9이고, 우수가 셋이면  $3 \times 2$ 는 6이고, 우수가 둘이고 기수가 하나이면 7이고, 기수가 둘이고 우수가 하나이면 8[三奇則三三而九 三偶則三二而六 兩二一三則爲七 兩三一二則爲八]’이라는 설이 가장 분명하다 이르고 이씨의 장황한 수리(數理)는 건강부회한 것이라 한다.

용춘의 학문은 산수에 조예가 깊지만 이것으로 『역』을 풀이한 것은 모두 건강부회한 것이다. 장씨의 학설과 공씨의 학설은 본시 이치가 있는 것이지만, 세 점에서 중심을 찾는다든가 주장은 용춘이 멋대로 지은 글이다. 기하가들은 매번 둥근 그림을 그리면서 먼저 중심에 한 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원의 둘레 바깥에 한 점을 만든다. 여기에서 규(規)로 재는데, 원의 크기는 바깥점의 원근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하면 점이 두 개일 뿐인데, 어째서 세 점에 중심을 찾는다곤 하는 것인가?  $0 \cdot 9 \cdot 6 \cdot 7 \cdot 8$ 이 모두 3에서 통일된다는 것도 건강부회다.  $1 \cdot 4 \cdot 4$ 는 9이고,  $2 \cdot 4$ 는 6이며,  $2 \cdot 5$ 는 7이고,  $4 \cdot 4$ 는 8이다. 무엇이 불가능하단 말인가? 어째서 꼭 3에서 통일된다고만 해야 하는가?<sup>14)</sup>

라 하여 이씨의 수리를 비판한다.

먼저 괘를 세운 다음[先立卦而後]에 효를 낳으므로[生爻] ‘강유를 발휘해서 효를 낳는 것[發揮於剛柔而生爻]’은 당연하고 ‘지나간 것을 세는 것이 순이고, 다가올 것을 아는 것이 역[數往者順 知來者逆]’이니 역유역수(易有逆數)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14) 『說卦傳』, 『易學緒言』 卷3, II ~47, 32~33쪽(10-402~403). “榕村之學 深於算數 而以之解易則皆傳會也 張說孔說 固自有理 而三點求心之說 是榕村舞文也 幾何家每作圓圖 先作中心一點 次作外圍一點 於是打規而圓形大小 由於外點之遠近 則兩點而已 何謂三點以求心乎 ○九六七八 皆統一以三者 亦傳會也 一四四爲九 二與四爲六 二與五爲七 四與四爲八 何所不可 必謂之統於三也”.



『역』에는 역수(逆數)가 있지 본래 순수(順數)가 없다는 것은 경문에 환히 드러나 있다. 지나간 것을 셈하는 것을 순(順)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본래 대설(帶說)이다. 이제 이 한 구절을 붙잡고서 선천도의 증거로 삼으려 하는 것은 본래부터 짝 막힌 것이다. 주자가 왕자합에게 보낸 편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예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 순(順)이요, 지금의 시점에서 다가올 해를 맞이하며 예측하는 것이 역(逆)이다. 만일 오늘 다시 어제를 센다면 이 또한 역수(逆數)이다. 진씨[陳埴]의 설명은 잘못이다.<sup>15)</sup>

## 5. 산수역론

다산은 이광지의 학을 평하여 이르기를

용촌의 학문은 산수에 조예가 깊지만 이것으로 『역』을 풀이한 것은 모두 견강부회한 것이다.<sup>16)</sup>

라 한 것을 보면 용촌역학(榕村易學)을 일명 산수역학(筭數易學)이라 이름짓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다산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너무나도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먼저 소씨선천도에 대한 이광지의 소론을 보면 주자의 천명표장한 공적이 돋보인다.

소자의 선천도는 소자 당시에 이천(伊川) 정자(程子)는 보지를 못했고, 구산(龜山) 양씨(楊氏)는 보기는 했으되 믿지 않았으며, 오직 명

15) 같은 책, 33쪽(10-404). “易有逆數 本無順數 經文昭然 數往者順 本是帶說 今把此一句 以證先天之圖 本係窒塞 朱子答王子合書可考也 然且自古流來 以至今日 是順也 自今迎受 以測來年 是逆也 若自今日復數昨日 是逆數 陳說非也”.

16) 같은 책, 32쪽(10-402). “榕村之學 深於筭數 而之以解易則皆傳會也”.

도(明道) 정자(程子)만이 약간 그의 글을 보고서 ‘가배법(加倍法)’이란 한마디로 개괄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당시에 소자를 알았던 이는 명도 한 사람일 뿐이었다. (송나라가) 남침한 뒤에 임률(林栗)과 원추(袁樞) 등의 무리들이 소자를 공격한 것이 매우 많았다. 상산(象山) 육씨(陸氏) 또한 선천도는 성인이 『역』을 지은 본뜻이 아니라고 여겼다. 오직 주자와 채씨(蔡氏)만이 천발표장(闡發表章)해서 소자의 역학이 비로소 세상에 밝게 드러나게 되었다. 500년 동안 다시 이론이 있기는 했지만 (그 위상을) 빼앗기지 않았다.<sup>17)</sup>

이렇듯 소씨선천도에 대한 회의적 반응 속에서 굳이 주자는 왜 이를 천발표장(闡發表章)하였을까. 이씨는 다음과 같이 이를 밝힌다.

돌이켜 보면 주자의 뜻은 공자 이후로 많은 유학자들이 전수를 받지 못하고, 방외(方外)의 선비들이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류는 단(丹)이나 만드는 보잘것없는 술수가 되었다가, 강절(康節)에 이른 뒤에야 역도(易道)로 돌이키게 되었다. 지금 『참동계』와 같은 여러 책을 보면 6괘의 월후(月候)는 곧 납갑법이요, 12벽괘의 주세(主歲)는 괘기(卦氣)의 부류이며 진·복에서 시작하는 것은 선천과 우연히 일치하는 것일 뿐이다. 아마도 선천의 학을 전수했다는 근거로는 부족할 것이다. 오직 양응은 『태현경』을 지었는데, 그의 방법은 3방(三方)에서 시작해서, 9주(九州)에서 거듭되고, 다시 72부(七十二部)에서 거듭되고, 다시 81가(八十一家)에서 거듭되는 것이다. 이것은 선천의 학에서 태극의 의상과 괘를 가일배(加一倍)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유행하는 순서도 중선중(中羨從)에서 시작해서, 경수랑(更辟廊)을 지나, 감심성(減沈成)에서 끝난다. 이것도 선천의 학에서 복에서 시작해서 건에서 끝나고, 구에서 시작해서 곤에서 끝나는 순서와 비슷하다. 처음에는 9·9를 쓰고, 책은 6·6을 쓰는 것도 선천의 학에

17) 「啓蒙集說」, 『易學緒言』 卷3, II~47, 35쪽(10-407). “邵子先天圖 邵子之時 伊川程子則未之見 龜山楊氏見而未之信 惟明道程子稍見其書 而括以加倍之一言 然則當時知邵子者 明道一人而已 南渡之後 如林栗袁樞之徒 攻邵者尤衆 雖象山陸氏 亦以爲先天圖非聖人作易本旨 獨朱子與蔡氏 闡發表章 而邵學始顯明於世 五百年來 雖復有爲異論者 而不能奪也”.

서 괘가 8·8을 쓰고 책은 7·7의 수를 쓰는 것과 비슷하다. 내 생각에는 강절이 양웅의 책을 읽고 마음으로 『역』을 지은 근본을 깨달은 것일 것이다. 그러나 양웅의 시대에 『역』의 전수가 사라졌더라도 양웅 또한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모방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강절이 『태현경』에 심복하고서 천지의 마음을 본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이것이 그의 학문이 제발 되고 힘을 얻은 곳이기 때문이다.<sup>18)</sup>

주자의 소씨역 표장은 역도(易道)의 사술화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나 사실상 소씨역이 양웅(楊雄) 『태현경(太玄經)』과의 수리적 근사치에서 그의 표장의 당위성을 엿볼 수가 있다. 양자의 관계를 다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정백자(程伯子)가 ‘강절의 방법은 가일배(加一倍)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은 그의 친근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지 깊이 인정한 것이 아니다. 양웅의 『태현경』은 3·3씩 더하고, 소자의 선천의 학은 4·4씩 더한다. 복희와 문왕의 역은 64괘에서 그칠 뿐이고, 이것을 넘어서면 모두 쓰지 않았다. 지금의 유학자들이 일생동안 연구하는 것은 오직 소강절의 가일배법에 있다. ‘잠룡(潛龍)’ 두 글자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앓기만 하면 하도(河圖)와 낙서(洛書)를 말하니 이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sup>19)</sup>

18) 같은 책, 같은 곳(10-407~408). “顧朱子之意 以爲孔子之後 諸儒不能傳受 而使方外得之 故其流爲丹竈小術 至康節然後返之於易道 今以參同契諸書觀之 其六卦月侯 蓋卽納甲之法 其十二辟卦主歲 蓋卽卦氣之流 所爲始於震復者 與先天(偶司爾) 似未足爲先天傳受之據 惟易雄作太玄 其法始於三方 重於九州 又重於二十七部 又重於八十一家 則與先天極微象卦加倍之法相似也 流行之序 始於中義從 中於更辟廊 終於減沈成 則與先天始復終乾始姤終坤之序相似也 首用九九 策用六六 則與先天卦用八八 策用七七之數相似也 意者康節讀易雄之書 而心悟作易之本與 然非易雄之時易傳未泯 則雄亦無自而依攸之 故康節深服太玄 以爲見天地之心 蓋其學所啓發得力處也”.

19) 같은 책, 같은 곳. “程伯子謂康節之法 不過加一倍者 悟其淺近也 非深許之也 揚雄太玄經 乘以三三邵子先天 乘以四四 而義文之易 止於六十四卦 過此以往 皆非所用 今之儒者一生研究 唯在加一倍法 卽潛龍二字 未嘗微通 而坐談河洛何益矣”.

후천도 방위론에 있어서 소자는 “건이 3남을 동북에서 통솔하고, 곤이 3녀를 서남에서 통솔한다[乾統三男於東北 坤統三女於西南]”라 하여 건동북(乾東北) 곤서남설(坤西南說)을 내세웠는데 이광지는 “선천에 따르면 동남쪽이 양의 방위이고, 서남쪽이 음의 방위이다[大抵先天 則以東南爲陽方 西北爲陰方]”라 한 데 반하여 다산은 이르기를

문왕의 괘들의 위치는 건은 서북쪽에 머문다. 어째서 건이 동북에서 통솔한다고 하는 것인가? 손은 동남쪽에 머무는데 어째서 곤이 서남쪽에서 통솔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만일 양괘는 모두 동북쪽에 머문다고 한다면 건이 어떻게 양괘가 아니겠는가? 음괘가 모두 서남쪽에 머문다고 한다면 손이 어떻게 음괘가 아니겠는가? 문왕은 미혹된 이가 아닌데, 북쪽을 양이라 하고, 남쪽을 음이라 여기는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선천의 주장을 하는 이들은 견강부회하는 것이 대부분 이런 부류이다.<sup>20)</sup>

동서남북의 방위가 음양과 더불어 착잡(錯雜)하게 혼돈되어 있다. 또 이씨(李氏)는 하락미분방도(河洛未分方圖)에 대하여

「하도」의 수는 55이고, 「낙서」의 수는 45이니, 합치면 100이다. 100이란 전수를 비스듬히 경계를 지어 가운데를 나누면 1에서 10까지를 누적시켜 55가 되고, 1에서 9까지를 누적시켜 45가 된다. 이 둘이 서로 사귀어 「하도」와 「낙서」의 수가 두 삼각형을 이룬다.<sup>21)</sup>

라 하였다. 그러나 다산은 이 설의 모순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20) 같은 책, 36쪽(10-409). “文王卦位 乾居西北 何謂乾統於東北乎 巽居東南 何謂文統於西南乎 若云陽卦皆居東北 則乾豈非陽卦乎 若云陰卦皆居西南 則巽豈非陰卦乎 文王不迷 以北爲陽 以南爲陰 有是理乎 凡爲先天之說者 其牽強多此類”[“여통호서남(女統於西南)의 ‘여(女)’는 문맥을 고려하면 ‘곤(坤)’이 되어야 한다].

21) 「啓蒙附論」, 『易學緒言』卷3, Ⅱ~47, 36쪽(10-409). “河圖之數五十有五 洛書之數四十有五 合爲一百 以一百之全數 爲斜界而中分之 則自一至十者 積數五十有五 自一至九者 積數四十有五 二者相交而成河洛數之兩三角形矣”.

용춘의 학문은 모두 산수학의 찌꺼기를 「하도」의 겹겹질에 뒤집어씌워 역리의 근본이라고 명명한 것일 뿐이다. 실제로 세 성인의 옛 역은 산수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산수의 학문은 또한 「하도」·「낙서」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거만하게 겹이나 꾸미는 사람이 도서를 만들거나 좋아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이면서 명성이나 낚시질하려 하는 것이니, 성인께서 하늘을 이어받은 법칙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낙서」의 셈은 9에 이르고, 「하도」의 셈은 10에 이르니, 「낙서」의 아홉 가지 수는 「하도」에 들어 있는 것이다. 또한 어째서 두 번을 헤아려 100이 된다는 것인가? 직각 사각형에서 가운데를 나누어 두 삼각형을 만들면 반드시 대각선이 뽕족해지는 법이니, 선을 그어 가운데를 분할하는 것이 바로 용춘의 방법이다. 「하도」와 「낙서」의 경계에서 선을 긋는다면 그 선은 공평하게 나누지 못한다. 공평하게 나누지 못하면 두 삼각형을 이룰 수 없다. 어째서인가? 「낙서」의 경계는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삼각형을 만들 수 있지만, 「하도」의 경계는 이미 절반을 넘었기 때문에 삼각형을 이룰 수 없다. ▽삼각형의 바깥에 다시 두 작은 각이 혹처럼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 이치가 이와 같은데, 어떻게 삼각형이 상대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인주를 속이고 사방에 내보이는 것이 가능하겠는가?<sup>22)</sup>

## 이어서 이르기를

총괄하자면 용춘의 여러 그림들은 「하락동정도」 넷, 「하도가감지원」·「낙서승제지원」·「낙서호승성백도」·「낙서구고도」·「하락미분방도」·「하락삼각도」·「하도십위지점수」·「낙서구위지역형」·「천원

22) 같은 책, 같은 곳(10-409~410). “榕村之學 全把算數之糟粕 蒙以河圖之面皮 名之曰易理之根本 其實三聖古易 與算數家 毫髮無涉 算數之學 又與河洛 毫髮無涉 偃傲飾外之人 好作圖書 以欺愚蒙 以釣名聞 于聖人紹天之法 無所當矣 洛書算之至九 河圖算之至十 則洛書九數 包在河圖之中 又何以兩數之爲百乎 凡直角方形 中分爲兩三角形者 必自對角之尖 打線中割 乃榕村之法 於所謂河洛之界 打之爲線 則其線不得平分 不得平分 則不得爲兩三角形 何也 洛界不及其半 猶可作三角形 河界既踰其半 不能爲三角形 ▽三角之外 又贅生兩小角矣 其實理如此 而詐稱三角形之相對 以欺人主 以示四方可乎”.

지방도」·「인위천지심도」 등 형형색색이지만 산수의 겉면을 총괄해서 「하도」·「낙서」의 껍질에 뒤집어씌운 것으로 『주역』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sup>23)</sup>

이러한 잡다한 도서(圖書)는 도시 『주역』과는 무관한 자가 아닐 수 없다.

후천괘체용도(後天卦體用圖)에 대한 이광지설을 또 다산은 다음과 같이 평한다.

용촌(榕村)이 하늘과 땅과 물과 불로써 조화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옳다. 바람과 산을 하늘과 땅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겼다고 한 것과 우레를 불과 땅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겼다고 한 것과 연못을 물과 땅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겼다고 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은 잘못된 것이니 괘를 그은 본뜻이 아니다. 우레와 바람은 하늘과 불에서 나온 것이며, 산과 연못은 물과 흙에서 생겼으니 곧 형체가 드러나서 쉽게 알 수 있는 사물인데도 어그러져 잘못됨이 이와 같으니 하물며 그 나머지는 어떻겠는가?<sup>24)</sup>

라 하고 선후천도서학(先後天圖書學)의 잡다성을 비판하여 이르기를

이 아래로도 「선천변후천도」·「선천배하락도」·「후천배하락도」·「선후천괘생서괘잡괘도」·「대연원방지원」·「대연구고지원」·「노

23) 같은 책, 같은 곳(10—410). “總之榕村指圖 有所謂河洛動靜圖四首 河圖加減之原 洛書乘除之原 洛書互乘成百圖 洛書句股圖 河洛未分方圖 河洛三角圖 河圖十位之點數 洛書九位之羣形 天圖地方圖 人爲天地心圖 形分絕色 總於筭數之面 蒙以河洛之皮 於周易一部 無相須也”[천도(天圖)의 도(圖)는 원(圓)이 되어야 한다].

24) 같은 책, 37쪽(10—411). “榕村以天地水火 爲造化之元者 得之矣 然以風山爲天地之交 以雷澤爲火地水地之交 則鳴戾不正 非畫卦之本旨也 雷風之出於天火 山澤之生於水土 卽所須顯易知之物 而舛誤如此 況其餘乎”.

양합방법」·「노음합구고법」·「대연영일추책법」이 있다. 그의 주장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모두가 건강부회해서 괘를 가지고 희롱하는 것이니, 마치 어린아이들이 다투면서 쌍륙자(雙陸子)로 3층 탑을 쌓거나, 또한 풀었다가 사아옥(四阿屋)을 만들거나, 또한 변화시켜 육화진(六花陣)을 만들면서 하루는 보내는 것과 같을 뿐이다. 성인의 경전의 지극하고 위대한 훈계의 본뜻과는 한 글자 반 구절조차도 우연히 소통되지 못하고, 또한 잡다하게 구고산법(句股算法)으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니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sup>25)</sup>

라 하여 산수학의 희롱을 열거한다.

건책곤책도(乾策坤策圖)에 관한 이씨(李氏)의 산수적(算數的) 해석에 대하여서도 다산은 이르기

어두워지거나 밝아지는 시간의 도수는 추위와 더위에 따라 각각 다른데, 18도를 고정된 변하지 않는 도수라고 고집한다면 이미 건강부회한 것이다. 설령 교묘하게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복희와 문왕이 사려한 것이었겠는가? 건책은 4·9가 쓰인 것이요, 곤책은 4·6이 쓰인 것이다. 괘에는 6효가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이와 같은 것인데, 하필이면 억지로 그 법상을 찾아서 어리석은 이들을 속인단 말인가?<sup>26)</sup>

‘상편은 양이고 천도이고, 하편은 음이고 인사이다[上篇陽也天道也 下篇陰也人事也]’란 설에 대하여서도 다산은 그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이르기

25) 같은 책, 같은 곳(10-411~412). “此下又有先天變後天圖 先天配河洛圖 後天配河洛圖 先天卦生序 卦雜卦圖 大衍圓方之原 大衍句股之原 老陽合方法 老陰合句股法 大衍迎日推策法 細研其說 皆傳合牽強 以卦爲戲 如孩兒們鬪累雙陸子作三層塔 又解作四阿屋 又變爲六花陣 以爲鎖日之資而已 於聖經聖傳至訓大戒之本旨 則一字半句不可偶通 又雜以句股算法 以眩人目 將何用矣”.

26) 같은 책, 같은 곳(10-412). “朦朧之度 寒暑各殊 堅以十八度爲恒定不易之數 已是牽合 設令巧合 斯豈義文之所處哉 乾策者四九之所用也 坤策者四六之所用也 卦有六爻 故其數如許 何必強求其法象 以欺愚蒙哉”[‘몽경(朦朧)’의 ‘경(景)’은 ‘영(影)’으로 써야 한다].

경에서는 “양괘는 음이 많고 음괘는 양이 많다”고 했다. 이것은 팔괘로 말한 것이지만 이 사례는 중괘(重卦)에까지 미루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양의 괘가 있고, 일음의 괘가 있으며, 이양의 괘가 있고, 이음의 괘가 있으며, 삼양삼음의 괘가 있다. 비록 고른 것 같지만 또한 내·외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삼양의 괘가 있고, 삼음의 괘가 있다. 양괘와 음괘는 각각 정해진 구분이 있어서 서로 어지럽힐 수 없다. 그런데 용춘은 역지로 상편의 괘를 양괘라고 여기고 하편의 괘를 음괘라고 여긴다. 이것이 이미 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니, 그의 어지럽고 잡다한 주장은 탐구하기에 충분치 못한 것이다.<sup>27)</sup>

사상상교위십육사도(四象相交爲十六事圖)에 대한 사상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사상(四象)이라는 것은 설사(揲四)의 명칭인데 그 형상하는 것은 천지수화(天地水火)이다. 천지수화(天地水火)는 태양과 태음과 소양과 소음이 아니다. 태양과 태음과 소양과 소음은 9와 6과 7과 8의 명칭이다. …소선생의 가일배법은 반드시 포희가 사용한 것이 아니다. 가령 그 말과 같다면 지금 이 4획의 괘는 하(下) 4획이지 중(中) 4획이 아니다. 용춘이 『역학계몽』의 글 속에서 우연히 그 모양이 비슷한 것을 발견하고는 드디어 호괘(互卦)의 뿌리로 삼는다는 교묘한 말을 한 것이다. 어찌 본디의 이치가 실제로 그러하겠는가?<sup>28)</sup>

호괘원도(互卦圓圖)에 대해서도 “이 그림은 따로 개발한 것은 없지만 초학자를 위해 우선 그대로 둔다[此圖別無開發 爲蒙學姑存之]”라고 하고 끝으로 이르기를

27) 같은 책, 37~38쪽(10—412~413). “經云陽卦多陰 陰卦多陽 此雖以八卦而言之 然其例仍可推之於重卦 故有一陽之卦 有一陰之卦 有二陽之卦 有二陰之卦 三陽三陰 雖若均適 亦有內外之別 故有三陽之卦 有三陰之卦 陽卦陰卦 各有定分 不可相亂 榕村硬以上篇之卦爲陽卦 以下篇之卦爲陰卦 卽此已非知道 其樹籙雜說 不足究也”.

28) 같은 책, 38쪽(10—413). “四象者 揲四之名 而其所象者 天地水火也 天地水火 非太陽太陰少陽少陰 太陽太陰少陽少陰者 九六七八之名… 邵先生加一倍法 未必爲泡藏所用 設如其言 今此四畫之卦 是下四畫也 非中四畫也 榕村於啓蒙紙面 偶見其形似 遂作巧言 以爲互卦之根 豈本理實然乎”.



「잡괘전」의 순서는 끝내 윤리가 없다. 16호괘의 소속으로 순서를 정한 것도 희미하게나마 비슷할 뿐이다. 용촌이 건강부회하고 의리를 왜곡하는 것은 이와 같으니 종일토록 완미하고 탐구해 보아도 결국 궤환한 지점이라고는 없다. 우선 의심스러운 채로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이다.<sup>29)</sup>

라 하였다. 어쨌든 이광지의 역학은 이로써 산수적(算數的) 건강부회로 일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

29) 같은 책, 41쪽(10-420). “雜卦序次 終無倫理 其以互卦十六之所屬而爲次者 亦依倚髣髴而已 榕村傳會牽合 曲成義理如右 而終日玩究 終無快活處 且當闕疑”.



제7장

# 고금이석(古今異釋)



한대 이후 명청에 이르기까지 역리론의 변수(變數)는 너무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다산은 그의 고역의 기본이 되는 역리사법으로 종시 일관 이들의 변수를 비판한다. 육덕명(陸德明)·곽경(郭京)·왕응린(王應麟)·채서산(蔡西山)·호옥재(胡玉齋)·이후재(李厚齋) 등의 역리론을 차례대로 논평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절 육덕명석문초(陸德明釋文鈔)

육덕명(陸德明, 550~630)은 당대(唐代)의 경학자(經學者)로서 『경전석문(經典釋文)』을 저술하였고 그중에서 그의 팔순(八純)·유혼(游魂)·귀혼(歸魂) 등 괘를 논평하자면 다음과 같다.

### 1. 팔순오세지괘(八純五世之卦)

괘명(卦名)	일세(一世)	이세(二世)	삼세(三世)	사세(四世)	오세(五世)
건(乾)	구(姤)	둔(遯)	비(否)	관(觀)	박(剝)
곤(坤)	복(復)	임(臨)	태(泰)	대장(大壯)	쾌(夬)
진(震)	예(豫)	해(解)	항(恒)	승(升)	정(井)
손(巽)	소축(小畜)	가인(家人)	익(益)	무망(無妄)	서합(噬嗑)
감(坎)	절(節)	준(屯)	기제(既濟)	혁(革)	풍(豐)
이(離)	여(旅)	정(鼎)	미제(未濟)	몽(蒙)	환(渙)
간(艮)	비(賁)	대축(大畜)	손(損)	규(睽)	이(履)
태(太)	곤(困)	취(萃)	함(咸)	건(蹇)	겸(謙)

## 다산은 이르기를

이는 한·위 시대의 점법[漢魏占法]으로서 매양 일획(一畫)이 처음 변하면[始變] 곧 1세(一世)라 칭하고 이획(二畫)이 침변(浸變)하면 곧 2세(二世)라 칭하고 3에 이르고 4에 이른 후 5에 이르니 그 법이 도대체 신기할 것도 없거니와 아무 데도 쓸 곳이 없다. ...대체로 괘변이나 효변의 의의가 혼미불명하다.<sup>1)</sup>

고 하면서 이는 학역자(學易者)들에게 무익할 뿐 아니라 속유(俗儒)들의 안목을 현혹시킬 따름이라고 하였다.

## 2. 유혼팔괘(游魂八卦)

팔괘(八卦)	건(乾)	곤(坤)	진(震)	손(巽)	감(坎)	이(離)	간(艮)	태(兌)
유혼(游魂)	진(晉)	수(需)	대과 (大過)	이(頤)	명이 (明夷)	송(訟)	중부 (中孚)	소과 (小過)

이 유혼설(游魂說)도 한위(漢魏) 이래 점법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문왕의 괘사[文王卦詞]나 주공의 효사[周公爻詞]와는 무관한 역가(易家)의 유희잡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평을 내리고 있다.

본시 유혼(游魂)의 예는 하괘는 전변(全變)하고 상괘는 반변(半變)하였으니 예컨대 건(乾)의 유혼이 진(晉)이라 함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괘는 전변하여 곤이 되고 상괘는 반변하여 이(離)가 된 것이다. 또 감(坎)의 유혼이 명이(明夷)라 함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괘는

1) 『易學緒言』 卷4, Ⅱ~48, 1쪽(10~424). “此創漢魏占法 每一畫始變 卽稱一世 二畫浸變 卽稱二世 至三至四 以至于五 其法了無神奇 絕無用處…蓋卦變爻變之義 迷昧不明”.

전변하여 이(離)가 되고 상괘는 반변하여 곤이 된 것이다. 다른 괘들도 다 이 예에 준하므로 비록 그 의례(義例)가 균정(均正)하여 착란의 여지가 없기는 하지만 종일 완구(玩究)해도 별의미가 없으니 이는 한적한 사람들의 소일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다산은 논평한다.

이에 곁들여서 귀혼8괘(歸魂八卦)를 보면 다음과 같다.

팔괘(八卦)	건(乾)	곤(坤)	진(震)	손(巽)	감(坎)	이(離)	간(艮)	태(兌)
귀혼(歸魂)	대유 (大有)	비(比)	수(隨)	고(蠱)	사(師)	동인 (同人)	점(漸)	귀매 (歸妹)

귀혼(歸魂)의 예는 하괘는 본체(本體)를 그대로 취하고 상괘는 반변을 취한 자로서 건의 반변으로는 이(離)를 취한 즉 대유(大有䷍)가 되고 진(震)의 반변은 태(兌)가 되므로 수(隨䷐)가 된다. 다른 괘들도 다 이에 준한다. 그러나 유혼(游魂)이란 「역대전」에 “정과 기는 사물이 되고 혼은 떠돌아다녀 변이 된다[精氣爲物 游魂爲變]”라 하였지만 귀백의 예는 없다. 자못 괘는 내괘(內卦, 下卦)를 주(主)로 하고 외괘(外卦, 上卦)를 객(客)으로 하므로 내괘는 그대로 있으니 마치 출유(出遊)한 혼(魂)이 본래 몸에 되돌아 온[反於本身] 것처럼 되었기에 귀혼이라 명명한 듯하다. 어쨌든 별로 묘미가 없는지라 이를 취하지 않는다고 다산은 잘라 논평한다.





괘효사(卦爻詞)	석문초(釋文鈔)	논평(論評)
송(訟) (節) 질척중(窒惕中)	“성실함이 있으나 막혔다”가 한 구절이고, “두려우나 중도에 맞으면 길하다”가 한 구절이다[有孚窒一句 惕中吉一句].	“막히고 두려우나 중도에 맞다”가 한 구절이고, “길하지만 끝까지 함은 흉하다”가 한 구절이다. 중(中)과 흉(凶)은 험운이다[窒惕中一句 吉終凶一句 中凶叶韻].
사(師) (句) 정장인(貞丈人)	장인(丈人)에서 구절을 끊어야 한다. 엄숙하고 장중하다는 칭호다[絕句丈人 嚴莊之稱].	사정은 군사적인 일로 와서 점을 치는 사람이다. 지금 ‘사(師)’에서 구절을 끊고, ‘정장인’에서 구절을 끊는 것은 옳지 않다[師貞者 軍旅之事來筮者也 今云師絕句 貞丈人絕句 非也].
비(比)	『자하역전』에서는 “땅은 물을 얻어 부드럽고, 물은 땅을 얻어 흐른다. 그러므로 비라고 한다”고 했다[子夏傳云 地得水而柔 水得地而流 故曰比].	사물이 서로 친해서 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는 물이 땅 위에 있는 것만 한 것이 없다. 그래서 비괘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하역전』에서 말한 것은 우할한 것 같다[物之親比而不相離者 莫如水在地上 故名曰比卦 子夏傳所言似疎].
태(泰) 재성(財成) 이기휘(以其彙)	순씨는 재(財)를 재(裁)로 썼다. 휘(彙)는 유(類)라는 뜻이다. 휘(彙)는 옛날 위(偉) 자로서 아름답다[美]는 뜻이다. 고문에서는 위(偉)으로 썼다. 동씨는 인(寅)으로 쓰고 낳다[生]는 뜻이라고 했고, 정씨는 부지런하다[勤]는 뜻이라고 했다[荀 財作裁 彙 類也 彙 古偉字 美也 古文作萑 董作寅 出也 鄭云勤也].	살피건대, 건은 옷이고 곤은 수레이니, 모든 패상을 마름질하고 도와준다. 휘(彙)는 털과 가시이다. 털과 가시가 있는 것은 고슴도치이다. 고문에서 위(萑)라고 쓴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초(震草)와 손초(巽草)는 같은 종류끼리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상징을 취한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니, 다른 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 휘(彙)란 (같은) 종류[類]인 것이다[案 乾衣坤輿 則裁輔皆卦象也 彙 毛刺 彙者 蟬也 古文作萑 有所以也 然震草巽草 以類相連 故取象在是 不可他解 彙者類也].
포황(苞荒)	포황(苞荒)으로도 쓴다. 황(荒)은 거칠다[穢]는 뜻이다. 물이 넓다[水廣]는 뜻이기도 하고, 또한 크다[大]는 뜻이기도 하다. 정씨는 강(康)으로 읽고, 비었다[虛]는 뜻이라고 했다[苞荒 荒 穢也 水廣也 又大也 鄭讀爲康 云虛也].	살피건대, 태괘의 구이효는 명이(明夷)다. 이(夷)란 사방의 거친 지역을 통틀어 이름 붙인 것이다. 본래는 건천(乾天)인데, 지금은 이명(離明)이 된 것은 사방의 거친 지역을 비취 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황(四荒)을 포괄하는 상징이다[案 泰之 九二明夷也 夷者 四荒之總名 本以乾天 今爲離明 以照四夷 此是包四荒之象].
편편(翩翩)	편편(翩翩)으로도 쓴다. 가볍게 올라가는 모양이다. (고문에서는) 편편(偏偏)으로 썼다[翩翩 輕 <sup>2)</sup> 舉貌 偏偏].	하늘을 날고 또 나는 것을 편편(翩翩)이라 한다. 패상이 묘합한 것이니 다른 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飛而又飛曰翩翩 卦象妙合 不可他解].

2) 원문은 ‘경(經)’인데 『경전석문』의 원문에 근거하면 ‘경(輕)’의 잘못이다.

괘효사(卦爻詞)	석문초(釋文鈔)	논평(論評)
동인(同人) 불극즉반(不克則反) 반즉득길야(反則得吉也)	어떤 판본에서는 “돌아오면 얻고, 얻으면 길하다”고 썼다 [一本作反則得 得則吉也].	옛 경서에서 글자와 구절이 다른 것은 이처럼 많기 때문에, 널리 취사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古經異字異句 若是其多 不可不博取也].
대유(大有) 비기방(匪其彭)	(『자하역전』에서는) 방(彭)을 방(旁)으로 썼다. 배부르고 팍찬 모양이다. 방(彭)과 방(旁)은 서음(徐音)이 같다[彭作旁 彭亨驕滿貌 彭旁徐音同].	‘비기방(匪其彭)’, ‘주리社(疇離社)’ 등 몇 구절은 법도상 당연히 의심스러운 채로 그냥 두어야지 억지로 풀이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 『역전(易箋)』을 지으면서 억지로 소통시켜 풀이했는데, 지금은 후회한다[匪其彭 疇離社等數句 法當闕疑 不可強解 昔作易箋 強爲之疏釋 至今悔之].
명변석(明辨皙)	절(章舌反)로 읽는다. 절(晰)과 음이 같다. 철(哲)로도, 체(體)로도, 서(逝)로도, 석(折)으로도 쓴다[章舌反 晰同音 哲 體 逝 折].	석(皙) 자와 앞에 나오는 해(害)·패(敗), 이 세 글자는 협운이다. 입성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皙字上與害敗三字叶韻 不可作入聲讀].
겸(謙) 자목(自牧) 위겸(撝謙)	목(牧)의 또 다른 음은 무(茂)다. 위(撝)는 지휘하다[指撝]는 뜻이다. 뜻은 휘(麾)와 같다. 위(撝)는 이(離)와 같다[牧一音茂 撝指撝也 義與麾同 撝猶離也].	목(牧) 자와 아래에 나오는 득(得)·복(服)·즉(則)·복(服)·국(國) 등의 글자는 협운이다. 무(茂)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위(撝)는 들어 올리는 것이다. 여러 설 명들은 모두 잘못이다[牧字下與得服則服國等字叶韻 不可作茂音 撝者升舉也 諸說皆非].
예(豫) 개우석(介于石)	음은 계(界)이고, 작은 나뭇잎(纖介)이란 뜻이다. 고문에서는 개(砢)로 썼다. 정씨는 가는 돌(磨砢)이라고 했다. 마씨는 개(枿)라고 쓰고, 작은 돌에 닿는 소리라고 했다[音界 纖介 古文作砢 鄭云磨砢也 馬作枿 云觸小石聲].	살피건대, 두 가지 사이에 놓인 것을 개(介)라고 한다. 『설문』에서는 조(爪)라고 썼는데, 사람이 두 가지 사이에 놓인 것을 상징했다. 그러므로 개(介)란 사이에 끼여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으면 이것을 소개(紹介)라고 한다. ‘개우석’은 임괘의 초효가 강(剛)으로서 감의 험난함 속에 끼여 있으니, 올라가서 해(解)가 되어야 그 몸이 벗어나 난리를 피해 즐거움을 바랄 수 있다는 뜻이다. 개(介)는 입성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案居於兩間謂之介 說文作爪 象人介于兩間 故曰介者 間廁也 人在兩間 謂之紹介…介于石者 臨之初剛 介乎坎險之中 升而爲解 其身解脫 逃難欲豫也 介不可入聲讀].

괘효사(卦效詞)	석문초(釋文鈔)	논평(論評)
합잡(盍簪)	(『자하역전』에서는) 빠르다[疾]는 뜻이라고 했고, (정씨는) 빨리 하다[速]는 뜻이라고 했는데, 비창(埤蒼)의 풀이도 (정씨와) 같다. 대(貸)·잡(摺)·장(臧)·종(宗)으로 쓰기도 한다[疾也速也 埤蒼同 貸 摺 臧 宗].	살피건대, 잡(簪)이란 머리에 꽂는 비녀다[按簪者 首筓也].
고(蠱) 유자고(有子考)	고(考)에서 구절을 끊어야 한다[以考絕句].	유자(有子)에서 구절을 끊어도 통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有子絕句 未嘗不通].
서합(噬嗑) 석육(腊肉)	음은 석(昔)이다. 벌에 쪼이고 불에 말린 것을 석육(腊肉)이라고 한다. 완전히 마른 것을 석(腊)이라고 한다[音昔 晞於陽而燬於火曰腊肉 全乾曰腊].	석(腊)이란 들짐승의 고기를 말린 것이다. 들짐승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냥해서 잡으면 벌에 쪼이고 불에 말려 제수 용품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어쩌다 죽이기는 했지만 미처 말리지 못한 것은 선석(鮮腊)이라고 한다[腊者野獸肉之乾者也 野獸難得 故畋而得之 晞之燬之 以待祭祀之用 其或新殺而未晞者謂之鮮腊].
건자(乾肺)	치[緇美反]로 읽는다. 뼈가 붙어 있는 (살을) 자(肺)라고 한다. 살평상[實]이니, 음식을 담아 두는 것이다. 포(脯)라고도 하는데, 음은 보(甫)다[緇美反 有骨謂之肺 實也 含食所遺也 一曰脯也 音甫].	글자의 뜻이 분명치 않은 것은 괘상으로 결정해야 한다. 건(乾)은 이괘의 상징이고, 자(肺)는 강희의 상징이니, ‘뼈가 붙어 있다’는 뜻으로 풀이해야 한다[凡字義不明者 當以卦象決之 乾者離之象也 肺者剛畫之象 當作有骨解].
미광대야(未光大也)	본래 ‘대(大)’ 자는 없었다[本亦無大字].	‘광(光)’ 자는 앞에서 나온 행(行)·강(剛)·당(當) 등의 글자와 험운이다. ‘대(大)’ 자는 없는 것이 마땅하다[光字上與行剛當等字叶韻 宜無大字].
비(賁) 파여(皤如)	노인의 모습이다. 음은 반(槃)이다. 발을 옆으로 움직이는 것을 파(皤)라고 한다. 번(蹠)으로도 쓰는데, 음은 번(煩)이다. 파(派)로도 쓴다[老人貌 音槃 足橫行曰皤 蹠 音煩 派].	파(皤)와 한(翰)이 험운이다. 음은 반(槃)이 옳은 것 같다[皤與翰叶韻 音槃似是].
잔잔(戔戔)	쌓인 모습이다. 설우(薛虞)는 예의가 많은 것이라고 했다. 음은 전(淺)이다. 뒤섞여 쌓은 모습이라고도 하고, 길으로 드러난 모습이라고도 하며, 잔잔(殘殘)이라고도 쓴다[委積貌 <sup>3)</sup> 薛虞云禮之多也 音戔 猥積貌 顯見貌 殘殘].	살피건대, 이 괘상은 잔잔(殘殘)이 옳은 것 같다[按此卦象殘殘似是].

괘효사(卦爻詞)	석문초(釋文鈔)	논평(論評)
복(復) 무지(無祗)	음은 지(支)다. 말하다[辭], 크다[大], 병(病)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지(祗)로서, 편안하다[安]는 뜻이기도 하며, 다(多)로도 쓴다[音支 辭也 大也 病也 祗 安也 多].	살피건대, 글자는 마땅히 비슷한 것을 변별해야 한다. 지(祗) 자는 화(禾)를 부수로, 저(祗) 자는 의(衣)를 부수로 하니 모두 잘못이다. 이 경에서는 ‘시(示)’를 부수로 해야 하니, 지(祗)로 써야 하고, 많다[多]는 뜻으로 풀어야 한다[按字宜辨似祗字從禾 祗字從衣 皆非也 此經當從示作祗 訓之爲多].
대축(大畜) 강건(剛健X句) 독실휘광(篤實輝光X句) 일신기덕(日新其德)	‘일신(日新)’에서 구절을 끊고, ‘기덕(其德)’은 아래 구절과 이어야 한다[日新絕句 其德連下句].	‘대축(大畜)’에서 구절을 끊고, ‘강건하고 독실하다[剛健篤實]’에서 구절을 끊고, ‘빛나는 것이 날로 새롭다[輝光日新]’에서 구절을 끊어야 하니, 정씨의 의론이 옳다[大畜絕句 剛健篤實絕句 輝光日新絕句 鄭義是].
감담(坎窩)	구덩이 가운데 또 구덩이가 있는 것이다. 담(窩)은 구덩이의 바닥이다. 구덩이 속의 작은 구덩이다. 옆으로 들어간 것[旁入]이라고도 한다[坎中更有坎 窩坎底也 坎中小坎 一曰旁入].	살피건대, 사(詞)를 통해 상징을 찾아보면, 두 개의 감괘에 두 음이 있으니, 그 가운데 음옳하게 파인 곳이 담이다[按以詞求象 坎二卦二陰 其凹陷處爲窩].
준주(樽酒X句) 궤이(簋貳X句) 용부(用缶X句) 상왈준주궤(象曰樽酒簋)	예전에는 ‘준주궤(樽酒簋)’에서 구절을 끊고, ‘이용부(貳用缶)’에서 구절을 끊었다[舊讀樽酒簋絕句 貳用缶絕句].	살피건대, 주(酒)·부(缶)·유(鬲)·구(卣) 네 글자는 서로 이어 가면 운이 된다. 이렇게 구절을 끊어야 잘못이 없을 것이다[按酒缶鬲卣四字相承爲韻 以此絕句 乃無誤也].
명이(明夷) 기자(箕子)	(촉본에서는) 기(箕)를 기(其)로 썼다. (유향은 금역에서) 기자(箕子)를 해자(蓼滋)로 썼다고 했다. (주담은) 기(箕)는 해(蓼)로, 자(子)는 자(滋)로 혼고했는데, 산만하게 버리가 없어 따질 수가 없다[箕作其 箕子作蓼滋 訓箕爲蓼 詰子爲滋 漫衍無經 不可致詰].	한·위 여러 학자들의 『역』은 대부분 ‘해자(蓼滋)’로 여기는 병폐에 빠졌는데, 정현은 그 가운데 심한 경우였다[漢魏諸家之易 多犯蓼滋之病 鄭玄其甚者也].
취(萃) 일악(一握)	악(渥)으로도 쓴다. (정씨는) 악(渥)은 “부(夫)가 셋인 것을 옥(屋)이라 한다”고 할 때의 옥(屋)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다[作渥 渥當讀爲夫三爲屋之屋].	정씨가 『역』을 주해하면서 망치고, 건강 부회하며, 뒤섞는 것은 모두 ‘부가 셋인 것을 옥이라 한다’는 부류와 같다[鄭之易注 破碎牽掣 皆夫三爲屋之類].

3) 원문은 ‘견(見)’인데, 『주역주소』의 원문에 근거하면 ‘모(貌)’의 잘못이다.

괘효사(卦爻詞)	석문초(釋文鈔)	논평(論評)
진(震) 수니(遂泥)	네[乃計反]로 읽는다. 수(遂)는 대(隊)로도 썼다. 니(泥)의 음은 너[乃低反]라고도 한다 [乃計反 遂作隊泥 音乃低反].	수(遂)는 간혹 대(隊)로도 쓴다. 대(隊)는 간혹 추(墜)로도 쓴다. 글자가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천둥치는 불덩이가 땅에 떨어지면 간혹 돌덩이가 되기도 한다[遂或作隊 隊或作墜 字相通也 雷火墜地 或爲石出也].
기제(既濟) 약제(禱祭)	박한 제사다[祭之薄者].	한(翰)을 비(飛)라고 여기면서 닭의 호칭으로는 여기지 않고, 약(禱)을 제사로 여기면서도 데친 나물로 여기지를 얹으니, 우황하다[以翰爲飛 不以爲鷄號 以禱爲祭 不以爲淪菜 踈矣].
「대전(大傳)」, 역유태극(易有大極)	대(大)의 음은 태(泰)다. 태극(大極)은 원(元)이요, 북신(北辰)이다[大音泰 太極元也 北辰也].	마음이 북신을 태극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믿지 않는다. 그러나 글자의 뜻에서 찾아보면 진실로 착오란 없다. 원래 극(極)이란 옥극(屋極)이다. 가운데 솟아서 사방에서 모여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극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황극(皇極)은 가운데 자리 잡고서 팔주(八疇)가 모이는 것을 받아들이고, 상읍(商邑)은 가운데 자리 잡고서 네 방향의 극이 된다. …뒤섞인 어두운 기나, 텅 빈 현묘한 이치를 극이라고 명명한 적은 없었다. …이로써 보자면 북극은 꼭지가 되고 남극은 배꼽이 되는 것이니, 북신이 태극이라는 것은 또한 마땅하지 않는가[馬融以北辰爲太極 今人愕然不信然求諸字義 實無錯誤 原夫極者屋極也 中隆而受四聚者謂之極 故皇極居中 以受八疇之聚 商邑居中 以爲四方之極 …未有以混淪溟滓之氣 冲漠玄妙之理 名之曰極者也…由是觀之 北極爲之蒂 而南極其臍也 北辰之爲太極 不亦宜乎!]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역(古易)의 잔영(殘影)이 약간은 보존되어 있기도 하지만 기준이 혼미하여 다산의 논평의 대상이 되는 자가 많다. 그중 뚜렷한 자가 바로 팔순(八純)·유혼(游魂)·귀혼(歸魂) 등 팔괘(八卦)가 아닐 수 없다. 다음에 좀 더 추적해 보기로 하자.

## 제2절 곽씨거정박(郭氏舉正駁)

곽경(郭京)은 당(唐) 사호참군(司戶參軍)을 지낸 학자로서 생년대(生年代)는 미상이지만 소주인(蘇州人)이라 한다. 저술로서는 『역거정(易舉正)』 3권이 있다. 그는 일찍이 왕보사(王輔嗣)·한강백(韓康伯) 등의 주역주(周易註) 수사본(手寫本)을 얻어 전수받았다. 이에 그의 역리(易理)를 다산의 논평과 대비하여 일표(一表)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괘명(卦名)	곽경(郭京)	다산(茶山)
곤(坤) 초육(初六)	「상전」에서 ‘견빙(堅氷)’이란 두 글자는 잘못 집어넣은 것이다[象誤增堅氷二字].	이상(履霜)과 견빙(堅氷)도 끌어당겨 서로 이어서 이상견빙(履霜堅氷)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곽씨는 문장의 체제를 알지 못한다 [履霜堅氷 亦牽連說 郭氏不知文例].
준(屯) 육삼(六三)	「상전」에서 “하이종금야(何以從禽也)”라고 했는데, 하(何) 자를 빼야 한다[象何以從禽也 脫何字].	‘짐승을 탐내는 것[從禽]’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만일 ‘하(何)’ 자를 덧붙인다면 ‘짐승을 탐낼 수 없는 것을 깊이 한스럽게 여긴다’는 뜻이 되는데, 어떻게 경계로 삼을 수 있겠는가[從禽非美事 若加何字 是以不能從禽爲深恨也 何以爲戒].

패명(卦名)	곽경(郭京)	다산(茶山)
비(比) 구오(九五)	「상전」은 “앞의 짐승을 잃으니 거슬리는 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을 취한다”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구절이 서로 뒤바뀌었다[象失前禽 舍逆取順도 今互倒其句].	“위중정야(位正中也)”·“실전금야(失前禽也)”·“상사중야(上使中也)”는 본래 그 자체로 협운이다. 금(禽)의 음은 공(公)·공(工)과 서로 가깝기 때문이다. …만일 괘씨의 설명대로라면 빠져 버린 운(韻)을 어떻게 할 것인가[位正中也 失前禽也 上使中也 本自叶韻 禽音與公工相近故也…若如郭說 柰落韻何]?
비(賁)  감(坎) 습감(習坎) 구(姤) 구사(九四) 진(蹇) 구삼(九三) 곤(困) 초육(初六)	괘사는 “형불리유유왕(亨不利有攸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불(不)’ 자를 ‘소(小)’ 자로 잘못 쓰고 있다. 「단전」의 ‘천문(天文)’이란 글자 앞에서 ‘강유교착(剛柔交錯)’이란 네 글자가 빠졌다[亨不利有攸往 今不字誤作小字 天文上脫剛柔交錯四字]. 앞에 ‘감(坎)’ 자가 빠졌다[上脫坎字]. 효사에서 ‘실(失)’로 써야 할 것을 ‘무(無)’로 썼다[以失字作無字]. 효사에서 ‘정(正)’ 자로 써야 할 것을 ‘반(反)’ 자로 썼다[以正字作反字]. 「상전」의 ‘유곡(幽谷)’이란 글자 뒤에 ‘유(幽)’ 자가 한 번 더 들어가 있다[象幽谷下多一幽字].	이런 종류들은 모두 변론할 것도 못 된다. ‘습감(習坎)’의 앞에 ‘감(坎)’ 자를 덧붙이려고 하는 것도 또한 천루한 것이다. (동인괘의 괘사에서) “사람과 함께 하되 들에서 한 다[同人于野]”거나, (중부괘의 괘사에서) “믿음이 돼지와 물고기에 미치면 길하다[中孚豚魚吉]”, (사괘의 괘사에서) “사는 바르니 장인이야 길하다[師貞丈人吉]” 등은 모두 곧장 괘사를 말했을 뿐, 단사의 첫머리에 반드시 패명을 실으려던 것은 아닐 것이다[此類皆不足辨 習坎之上 欲加坎字 亦其淺陋處 同人于野 中孚豚魚吉 師貞丈人吉 皆直下詞句 未必彖詞之頭 必戴卦名].
정(鼎) 단(象)  진(震) 단(象)	「단전」에 ‘이대형(而大亨)’이란 세 글자가 (쓸데없이) 많다[多而大亨三字]. 「단전」의 ‘출가(出可)’ 앞에 ‘불상비창(不喪匕鬯)’이란 한 구절이 빠져 있다[出可上脫不喪匕鬯一句].	대형(大亨)의 뜻은 주자가 이미 밝혔으니, 의심할 것이 못 된다[大亨之義 朱子已明之 不足疑也].
점(漸) 상(象)  풍(豐) 상(象)  중부(中孚) 단(象)	‘선풍속(善風俗)’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풍(風)’ 자가 빠져 있다[善風俗 今脫風字]. ‘지행야(志行也)’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지(志)’ 자가 빠져 있다[志行也 今脫志字]. 신급(信及)의 뒤에 돈어(豚魚)라는 두 글자가 (쓸데없이) 많다[信及下多豚魚二字].	성호는 “중부괘의 「단전」에서 어(魚)와 허(虛)가 서로 운을 이룬다. 아마도 잘못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어(魚)와 허(虛)가 협운인데 어떻게 삭제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그의 논지가 파탄이 난 곳이니 주장 하나를 붙잡고서 단안을 내릴 수 있던 말인가[星湖日中孚彖傳 魚與虛爲韻 抑恐無誤 ○魚虛叶韻 何可刪也 此其破綻處 執一臆 可以爲斷案]?



괘명(卦名)	곽경(郭京)	다산(茶山)
소과(小過) 단(彖)	‘가소사(可小事)’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가(可)’ 자가 빠져 있고, ‘사(事)’ 자 아래에 잘못 ‘길(吉)’ 자가 덧붙여져 있다[可小事今脫可字 而事字下誤增吉字].	성호는 “소과괘의 「소상전」에서 상(上)과 항(亢)은 운자이니 또한 잘못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또한 그의 논의가 파탄난 곳이다[星湖曰小過小象傳 上與亢爲韻 亦恐無誤 ○此又破綻處].
소과(小過) 육오상(六五象) 기제(既濟) 단(彖)	‘지(止)’ 자를 잘못 ‘상(上)’ 자로 썼다[止字誤作上字]. “기제형소 소자형야(既濟亨小 小者亨也)”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앞에 있어야 할) ‘소(小)’ 자가 빠져 있다[既濟亨小 小者亨也 今脫一小字].	
계사(繫辭)	“이다예(二多譽) 사다구(四多懼)”란 구절의 주에서 “구는 가깝다는 뜻이다[懼近也]”고 했는데, 지금은 잘못해서 ‘근야(近也)’라는 두 글자를 본문으로 여기고 있다[二多譽 四多懼 註云懼近也 今誤以近也二字爲正文].	그의 거짓은 이미 분명하기 때문에, 비록 이치에 가까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서술할 만한 것이 못 된다[其僞既明 雖有近理者 不足述也].
잡괘(雜卦) 몽(蒙)	‘치이저(稚而著)’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치(稚) 자를 잘못 잡(雜) 자로 썼다[稚而著 今稚字誤作雜字].	
태(泰) 육사상(六四象) 수(隨) 단(彖)	‘반(反)’ 자를 ‘실(失)’ 자로 잘못 썼다[以反字作失字]. ‘대형(大亨)’ (뒤에) ‘이(利)’ 자가 빠졌다[大亨脫利字].	대장괘는 대태(大兌)로서 본래 양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효사에서 ‘양을 잃었다[喪羊]’고 한 것인데, 어떻게 양(羊)을 우(牛)로 바꾸겠는가[大壯者大兌也 本是羊象 故詞曰喪羊 何得以羊易牛?]
무망(無妄) 단(彖)	‘건(健)’ 자 앞에 ‘유(逾)’ 자가 빠졌다[健字上脫逾字].	
무망(無妄) 육이상(六二象) 이(離) 상(象)	‘구(求)’ 자를 ‘미(未)’ 자로 썼다[求字作未字]. ‘계명(繼明)’ 앞에 ‘명조(明照)’ 두 글자가 빠졌다[繼明上脫明照二字].	
대장(大壯) 육오(六五)	우(牛) 자를 모두 양(羊) 자로 썼다[牛字 皆作羊字].	

괘명(卦名)	곽경(郭京)	다산(茶山)
명이(明夷) 상육(上六)  견(蹇) 구삼상(九三象) 구(姤) 단(象)  정(井) 단(象)	회(晦) 자 앞에 지(至) 자가 빠졌고, ‘불명(不明)’ 두 글자를 잘못 덧붙였다[晦字上脫至字 而誤增不明二字]. ‘정(正)’ 자는 모두 ‘반(反)’ 자로 썼다[正字皆作反字]. ‘물용취(勿用取)’ 앞에 ‘여장(女壯)’ 두 글자가 빠졌다. ‘물용취(勿用取)’ 아래 ‘여(女)’ 자를 잘못 덧붙였다[勿用取上脫女壯二字 勿用取下誤增女字]. ‘불개정(不改井)’ 아래에 “무상무득(無喪無得)”, “왕래정정(往來井井)”이란 두 구절이 빠졌다[不改井下脫無喪無得往來井井兩句].	모두가 개인적인 생각일 뿐 서술할 만한 것이 못 된다[皆是私意 不足述 <sup>4)</sup> ].
간(艮) 구사(九四) 여(旅) 초육(初六) 손(巽) 단(象)  환(渙) 단(象) 절(節) 단(象)	한(限) 자를 신(身)으로 잘못 썼다[限字誤作身]. ‘사천(御踐)’의 ‘사(斯)’를 사(斯)로 잘못 썼다[御踐之衡 誤作斯]. ‘신명(申命)’ 아래에 “명내행야(命乃行也)”란 구절이 빠졌다[申命下脫命乃行也一句]. ‘대천(大川)’ 아래에 ‘이정(利貞)’ 두 글자가 빠졌다[大川下脫利貞二字]. ‘이통(以通)’ 아래에 “연후내행야(然後乃亨也)”란 구절이 빠졌다[以通下脫然後乃亨也一句].	“사기소취재(斯其小取災)”에서 ‘사(斯)’를 ‘사(儔)’로 고친다면, 읽을 수가 없게 된다[斯其小取災 若改斯爲儔 則不可讀].
상계(上繫) 구장(九章)  하계(下繫) 오장(五章)  설괘(說卦)  서괘(序卦)	“기 지신지불위호(其知神之不爲乎)”에서 불(不) 자를 소(所) 자로 잘못 썼다[其知神之不爲乎 不字誤作所字]. “불견리부동(不見利不動)”에서 ‘동(動)’ 자를 ‘권(勸)’ 자로 잘못 썼다[不見利不動 動字誤作勸字]. “민불보야(民不輔也)”에서 ‘보(輔)’ 자를 ‘여(與)’ 자로 잘못 썼다. “건이거지(乾以居之)”에서는 ‘거(居)’ 자를 ‘군(君)’ 자로 잘못 썼다[民不輔也 輔字誤作與字 乾以居之 居字誤作君字]. “시생필몽(始生必蒙)”에서 ‘시(始)’ 자를 ‘물(物)’ 자로 잘못 썼다. “몽자몽매야(蒙字蒙昧也)”에서 ‘매(昧)’ 자가 빠졌다. “비자친비야(比字親比也)”에서 ‘친(親)’ 자가 빠졌다[始生必蒙 始字誤作物字 蒙字蒙昧也 脫昧字 比字親比也 脫親字].	“몽(蒙)은 몽(蒙)이다”, “비(比)는 비(比)이다”에서 위 글자는 모두 괘명이고, 아래 글자는 괘의이다. 일찍이 문장을 이루지 않음이 없었는데 곽경이 사사로운 뜻으로 각각 하나의 글자를 보충했으니 잘못된 것이다[蒙者蒙也 比字比也 皆上字卦名也 下字卦義也 未嘗不成文 郭以私意各增一字 陋矣].

이상 곽씨(郭氏)의 역학은 위서(僞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유포되어 후학들을 현혹시키므로 성호(星湖)를 위시로 하여 다산은 이를 논평하되 “일컬고 서술하기에 부족하다[不足稱述]”의 일구(一句)로 대신하고 있다.

---

4) 원문은 ‘미(迷)’인데 문맥상 ‘술(述)’이 되어야 한다.

## 제3절 왕채호이론(王蔡胡李論)

### 1. 왕응린정주론(王應麟鄭注論)

왕응린(王應麟, 1223~1296)은 남송(南宋)의 학자로서 자는 백후(伯厚)요, 호는 심령거사(深寧居士)다. 그가 저술한 『정현주역주(鄭玄周易註)』의 서문에 의하면

정강성(鄭康成)은 비씨(費氏)에게 배워 주석 9권이 있는데, 대부분 호체(互體)를 논하였다. 호체(互體)로써 『역』을 구한 것은 좌씨(左氏) 이래로 있었다. 괘효의 2효에서 4효까지, 3효에서 5효까지 두 체가 서로 사귀어 각각 하나의 괘를 만든다. 이것이 ‘괘 하나가 4괘를 머금는다’는 것이다.<sup>5)</sup>

라 하여 정씨의 호체설(互體說)을 강조하지만 다산의 견해는 오히려 왕필의 청탈(淸脫)함만 못하다고 이른다.

---

5) 「王蔡胡李評」, 『易學緒言』 卷4, Ⅱ~48, 9쪽(10-440). “鄭康成學費氏易 爲註九卷 多論互體 以互體求易 左氏以來有之 凡卦爻二至四三至五 兩體交互 各成一卦 是謂一卦含四卦”.

왕백후는 남은 부스리기들을 모아 이 책을 만들었으니, 그의 뜻은 수고로웠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현의 역설에는 추이·효변의 의미는 없고, 그가 말하는 물상 또한 「설괘전」을 근본으로 하지 않았다. 혹은 별자리의 형상을 가리켜 두(斗)네, 정(井)이네라고 했고 혹은 (간지의) 진(辰)이나 사(巳)를 가리켜 용이네, 뱀이네 한 것일 뿐이다. 흩어진 문장들인지라 제대로 갖추라고 책망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진실로 그 본래의 바탕과 진실한 아름다움이라면 빛나는 한 조각이나 옛 그릇에 남겨진 문장들에서 얻어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여기에만 그치겠는가? 호체설이 비록 옛 법이라고는 하지만 추이가 분명치 못하면 효변도 드러나지 않으니, 호체를 말한 것도 옳매이지만 하고 (뜻을) 펼치지 못해 귀하게 여길 것은 못 된다. 나는 『옥해(玉海)』에서 이 책의 내용을 보고, 옛것이기에 기록해서 보존해 두기는 하지만, 내용의 비루함은 도리어 왕보사의 청탈(淸脫)함만 못하니, 이것이 드러내 놓고 물리치는 이유인 것이다. 글자를 고친 것도 많고, 거의 완전한 구절이 없으니, 어떻게 역사에 빠진 글의 사례라고 하겠는가?<sup>6)</sup>

라 하여 역리사법 중 오직 호체설만을 논했을 뿐 추이·물상·효변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므로 오히려 왕보사(王輔嗣)의 탈사법적(脫四法的) 의리역(義理易)만도 못한 듯하다고 논평한다.

## 2. 채서산괘일론(蔡西山卦一論)

채서산(蔡西山, 1135~1198, 蔡元定)은 남송(南宋) 학자로서 자는 계통(季通), 학자들은 그를 서산선생(西山先生)이라 불렀다. 의리와 상수

6) 같은 책, 10쪽(10-442). “王伯厚蒐輯零落 以爲此篇 其志苦矣 然鄭玄易說 無推移爻變之義 其言物象亦不以說卦爲本 或指星象 曰斗曰井 或指辰巳 曰龍曰蛇 雖散亡之文不足責備 而苟其本質誠美 則古光片羽 古器蔡文 必有可得而見者 豈止是哉 互體之說 雖是古法 而推移不明 爻變不著 則所言互體 亦拘攣不伸 不足以爲貴也 余從玉海 見得此篇 以其古物也 故錄而存之 然弁陋如此 反不如王輔嗣之淸脫 此其所以見黜也歟 改字甚多 幾無完句 亦豈史闕之義也哉”.

를 곁했고 주자와 더불어 『역학계몽』을 저술하여 주자학의 간성(干城)이 되었다.

「시괘전」에서

대연의 수는 50이니 쓰는 것은 49이다. 이를 나누어 둘을 만들어 양의를 상징하고, 하나를 걸어서 삼재를 상징하며, 넷으로 세어 사시를 상징하고, 남는 것을 늑에 돌려 윤달을 상징하니, 5년에 윤달이 두 번이기 때문에 두 번 늑한 뒤에 거는 것이다.<sup>7)</sup>

라 하였는데 이는 역수학적(曆數學的) 역리(易理)의 기본이 되는 자로서 그의 해석에는 여러 가지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주자의 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연(大衍)의 수가 50이라는 것은 하도(河圖)의 중궁(中宮)에 있는 천수(天數) 5에 지수(地數) 10을 곱하여 얻은 것이다. 점을 치는데 이르러 다만 49를 쓴다는 것은 모두 이치와 형세의 자연스러움에서 나온 것이지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더하거나 뺀 것이 아니다. ‘양(兩)’은 천지(天地)를 말하고, ‘괘(掛)’는 왼손의 작은 손가락 사이에 끼우는 것이다. ‘삼(三)’은 삼재(三才)를 말한다. ‘설(揲)’은 (넷씩) 털어서 셈하는 것이다. ‘기(奇)’는 네 개씩 털은 나머지이다. ‘늑(扚)’은 왼손의 셋째 손가락 사이에 끼우는 것이다. ‘윤달(閏)’은 한 달[月]의 남은 날을 모아서 달을 이룬 것이다. 5년 가운데 두 번 (남은) 날을 모아서 두 번 달을 이루기 때문에, 5년 가운데 윤달이 있는 다음에 다시 나머지를 더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한 번 건 뒤에 왼쪽·오른쪽 시초를 각각 한 번씩 세고, 한 번 늑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다섯 번 가운데 두 번 늑을 하고, 그 뒤에 따로 한 번 거는 것이다.<sup>8)</sup>

7) 『주역』, 「시괘전」, “大衍之數五十 其用四十有九 分而爲二以象兩 掛二以象三 揲之以四以象四時 歸奇於扚以象閏 五歲再閏 故再扚而後掛”.

## 또다시 주자는 이르기를

원손 작은 손가락에 한 번 끼우는 것은 1년을 상징하고, 오른손의 시초를 네 개씩 덜어 내어 셈하는 것은 2년을 상징하고, 오른쪽의 시초를 늑하는 것은 3년에 윤달이 한 번임을 상징하고, 왼쪽의 시초를 네 개씩 덜어서 셈하는 것은 4년을 상징하고, 왼쪽의 시초를 늑하는 것은 5년에 두 번의 윤달을 상징한다.<sup>9)</sup>

## 또 이르기를

일변(一變)하는 사이에 두 번 늑해서 윤달을 상징한 뒤에, 앞에서 걸고 늑했던 시책을 두고 다시 현존하는 시책을 둘로 나누고, 하나를 거는 것이 제2변이 된다.<sup>10)</sup>

도시 시괘의 원리는 역수학적(曆數學的) 오세재운(五歲再閏)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상증하는 설우설좌(揲右揲左) 늑우늑좌(扐右扐左)의 방법론적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채서산(蔡西山)은 상기 주자지의(朱子之義)에 부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두 번 늑한 뒤에 끼우는 것은 두 번 늑한 뒤에 다시 남아 있는 것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니 이것이 제2변이다. 다시 나누고, 다시 끼

8) 『周易本義』, 「繫辭 上」 9장. “大衍之數五十 蓋以河圖中宮天五 乘地十而得之 至用以筮則又止用四十有九 蓋皆出於理勢之自然 而非人之知力所能損益也 兩謂天也 掛懸一於左手小指之間也 三三才也 揲間而數之也 奇所揲四數之餘也 扐勒於左手中三指之兩間也 閏積月之餘日 而成月者也 五歲之間再積日而再成月 故五歲之中凡有再閏然後別起積分 如一掛之後左右各揲而一扐 故五者之中凡有再扐然後 別起一掛也”.

9) 「王蔡胡李評」, 『易學緒言』 卷4, II ~ 48, 10 ~ 11쪽(10-442~443). “掛一一歲 揲右二歲 扐右三歲一閏 揲左四歲 扐左五歲再閏也”.

10) 같은 책, 11쪽(10-443). “一變之間 凡兩扐以象閏 然後置前掛扐之策 復以見存之策 分二掛一 而爲第二變也”.

우고, 다시 네 개씩 덜면서 세는데 ‘둘로 나눈다’고 말하지 않고, ‘네 개씩 덜면서 쉰다’고도 말하지 않으면서, 유독 ‘하나를 끼운다’고만 말한 것은 제2변에서 끼우지 않으면 안 됨을 밝힌 것이다.<sup>11)</sup>

오세재윤을 상증한다는 기본적 입장에는 서로 다를 바 없지만 그의 방법론적 해석의 차이를 다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2변·3변하는 방법은 모두 제1변과 같다. 그러므로 옛 경문에서도 중복해서 서술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를 끼우는’ 일만을 뽑아서 제1변의 마지막에 중복해서 서술하는 이러한 문장의 체제는 세상에 없다.<sup>12)</sup>

그렇다면 왜 서로 착오가 생긴 것일까.

앞에서 말한 ‘하나를 끼운다’고 한 것은 네 개씩 세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아래에서 ‘두 번 늑한 다음에 끼운다’고 했으니, 앞에서 끼운 것은 임시로 끼운 것이고, 아래에서 끼운 것이 정괘(正卦)가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환하다. 이제 두 번 늑한 뒤에 끼운다고 하는 것을 제2변에서 끼우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것은 한·진 이래로 서술의 전수 과정에 잘못이 있었던 것인데, 주자가 임시로 보존해 두고서 바로잡지 못한 것이다.<sup>13)</sup>

한·진 이래 잘못된 전술(傳述)을 주자가 시정하지 않았을 따름이라고 한다. 그 잘못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1) 같은 책, 같은 곳. “再扐而後掛者 再扐之後 復以所餘之著 合而爲一 爲第二變 再分再掛再揲也 不言分二 不言揲四 獨言掛一者 明第二變 不可不掛也”.

12) 같은 책, 같은 곳. “二變三變之去 皆與第一變同 故經文不復疊述 獨拈其掛一之事 而疊言於第一變之末 天下無此文例也”.

13) 같은 책, 같은 곳. “上云掛一 在揲四之前 而下云再扐而後掛 則上掛之爲權掛 而下掛之爲正卦 灼然無疑 今乃以再扐而後掛 爲第二變之掛可乎 此漢晉以來 傳述有誤 朱子姑存之 不及是正也”.



‘하나를 끼운다’에서 ‘두 번 네 개씩 떨어져 세고 두 번 늑한다’까지는 5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금년과 내년의 세율(歲律)은 모두 같은데, 네 개씩 떨어져 세는 것과 늑하는 것의 일의 종류가 판연하게 다르니, 정말로 그 수를 충족시켜 5년의 수에 배당하려면 본래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윤(閏)이란 윤달이지, 윤세(閏歲)가 아니다. 두 번 늑하는 것은 두 윤달에 배당하려는 것인데, 지금은 두 해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지 두 번 실시하는 것과 비교하면 평등할 뿐, 윤달의 상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오세(五歲)’라고 말한 것은 62괘의 수인 것이다. 건괘와 곤괘를 제외하면 괘의 수는 62이니, 오세재윤(五歲再閏)이란 62개월인 것이다.<sup>14)</sup>

이로써 설시(揲蓍)의 기본 원리는 역수학적(曆數學的) 오세재윤(五歲再閏)에 근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 3. 호옥재역학론(胡玉齋易學論)

호옥재(胡玉齋)는 원대(元代) 역학자(易學者)로서 생졸연대는 미상이요, 명은 방평(方平), 자는 사증(師曾)이라 한다. 저서로는 『역학계몽통석(易學啓蒙通釋)』 등이 있다. 그는 소씨역(邵氏易)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소자의 「경세인역도(經世演易圖)」에서는 태양을 건, 태음을 태, 소양을 이, 소음을 진이라고 여겼는데, 이 네 괘는 양의(陽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사상이 된다. 소강(少剛)은 손, 소

14) 같은 책, 같은 곳(10-443~444). “掛一及再揲再扚 非五歲之象也 今年明年 歲律皆同 而揲法扚法 事類判殊 苟充其數 以當五歲之數 本不齊正 況閏者閏月也 非閏歲也 再扚所以當兩閏月 而今以爲兩歲之象 則只可與再揲平等 而不可作閏象看也 故曰五歲云者 六十二卦之數也 除了乾坤 則卦之數六十而五歲再閏 則六十二月也”.

유(少柔)는 감, 태강(太剛)은 간, 태유(太柔)는 곤이라고 했으니, 이 네 괘는 음의(陰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땅의 사상이 된다. 「원괘획편(原卦畫篇)」에 자세하게 보인다. 아래도 같다.<sup>15)</sup>

이라 하였다. 그러나 소씨(邵氏)의 학이 본래 건강부회로 이름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수용한 호씨(胡氏)의 역학(易學)이 또한 어찌 건강부회를 면할 수 있을까. 이에 다산의 직언(直言)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역대전」에서는 “하늘의 도를 세워 음과 양이라 하고, 땅의 도를 세워 유와 강이라 한다”고 했다. 하늘에 속하는 것은 기(氣)는 있으되 질(質)은 없기 때문에 음과 양으로 말한다. 땅에 속하는 것은 형(形)이 있고 질(質)이 있기 때문에, 유와 강으로 말한다. 8괘의 덕을 논한다면 하늘·불·우레·바람이니, 음양의 기가 있는 것들이다. 땅·산·물·뭇은 유와 강의 형이 있는 것들이다. 소자는 이것을 붙잡고서 선천팔괘를 만드는 증거로 삼았다. 그래서 진에서 태를 지나 건이 되는 것이 천도(天道)이기 때문에 음양으로 표시하고, 손에서 간을 지나 곤이 되는 것인 지도(地道)이기 때문에 유강(柔剛)으로 표시한 것이다. 본래 물건의 이치로 헤아려 보아도 이미 모두가 들어맞지 않는다. 게다가 소자의 선천횡배도(先天橫排圖)에서는 태가 태양, 간이 태음, 손과 감이 소양, 이와 진이 소음이다. 그런데 지금 이 「경세도」에서 배열한 것은 두 태(太)와 두 소(少)의 이름일 뿐이어서, 낱낱이 서로 반대되는 것은 또 무슨 이치인가? 소자의 선천학은 정처 없이 황홀하기만 한 것이 이와 같다.<sup>16)</sup>

15) 같은 책, 같은 곳. “邵子經世演易圖 以太陽爲乾 太陰爲兌 少陽爲離 少陰爲震 此四卦自陽儀中來 故爲天四象 少剛爲巽 少柔爲坎 太剛爲艮 太柔爲坤 此四卦自陰儀中來 故爲地四象 詳見原卦畫篇 下同”.

16) 같은 책, 11~12쪽(10-444~445). “易大傳曰 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蓋以屬乎天者有氣而無質 故以陰陽言之 屬乎地者 有形而有質 故以柔剛言之 若論八卦之德 則天火雷風 是有陰陽之氣者也 地水山澤 是有柔剛之形者也 乃邵子執此以作先天八卦之證案 謂自震而兌而乾 是爲天道 故標之以陰陽 自巽而艮而坤 是爲地道 故標之以柔剛 揆之本物之理 已皆不合 況邵子先天橫排之圖 兌爲太陽 艮爲太陰 巽坎爲少陽 離震爲少陰 而今此經世圖所列二太二少之名 悉悉相反 抑又何理 邵子先天之

또다시 호옥재는 그의 효변설에 일효변(一爻變)뿐 아니라 이효변(二爻變), 삼효변(三爻變), 사효변(四爻變) 나아가서 오효변(五爻變), 육효변(六爻變)까지를 시인한 데 대하여 다산은 이를 반박하여 이르기를

육효가 모두 변하는 것은 괄의 단사로 점칠 수 있으니, 건곤에만 어떻게 ‘용구(用九)’, ‘용육(用六)’이란 말을 쓸 수 있겠는가? ‘용구’와 ‘용육’은 이미 따로 말을 붙여 두었으니, 나머지 괄에서 육효가 다 변하는 것 또한 지괄(之卦)로 점치는 것은 부당하다.<sup>17)</sup>

라 하기도 하고 또 이르기를

괄을 실시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하나는 효 하나가 홀로 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효가 잡다하게 변하는 것이다. 『주역』에서는 오직 효 하나가 변하기 때문에 『주역』의 경문에는 6효의 효사가 있을 뿐이다. 만일 『계몽』의 설명대로라면[두 효가 변하면 본괄에서 변한 두 효의 효사로 점을 치지만, 여전히 상호를 위주로 한다] 한 괄의 효사에는 64개의 말이 붙어 있어야 마땅하니, 이는 마치 초역(焦易)의 배열과 같으니, 어떻게 6개의 말로 64가지 변화에 호응할 수 있겠는가? 초역은 본래 하·상 시대의 옛 법이다. 그러므로 정둔회예(貞屯悔豫)가 『좌전』에 보이는 것이 증거이다. 두 효가 모두 움직이면 상호로 점을 친다는 데 아마도 이런 이치는 없을 것이다.<sup>18)</sup>

라 하여 일효(一爻) 이상의 효변설은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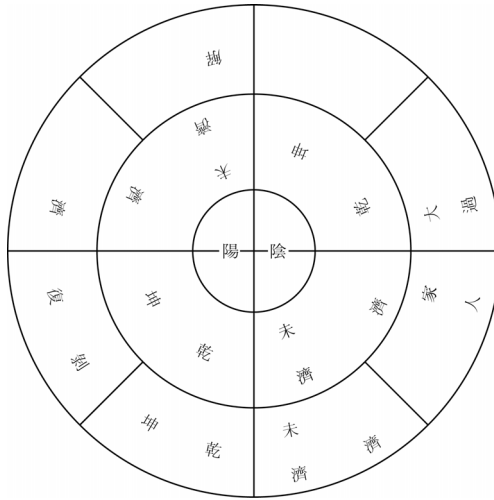
學 其恍忽無定如此”.

17) 같은 책, 13쪽(10-447~448). “六爻盡變者 可占之卦之彖詞 則乾坤獨有用九用六之詞哉 用九用六 既別有其繇 則他卦之六爻盡變者 亦不當占之以之卦也”.

18) 같은 책, 12쪽(10-446). “著卦有二法 一是一爻單變 一是諸爻雜變 周易惟一爻有變 故易經惟有六爻之詞 若如啓蒙之說 二爻變則以本卦二變 爻辭占仍以上爻爲主 則一卦爻詞 當有六十四繇 如焦易之列 豈得以六繇 應六十四變乎 焦易本是夏商之舊法 故貞屯悔豫 見於左氏 斯可驗也 二爻俱動 而占以上爻 恐無是理”.

#### 4. 이후재호괘론(李厚齋互卦論)

후재(厚齋)는 인물 미상이나 호괘지의(互卦之義)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산은 이후재(李厚齋)의 호괘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이씨(李氏)는 이르기를



64괘 가운데 서로 호괘가 되는 것은 16개에 불과하다. 제3권에 쓴 것이 이것이다. 16괘 가운데 서로 호괘를 이루는 것은 4개에 불과하다. 제2권에서 쓴 건·곤·기제·미제가 이것이다.<sup>19)</sup>

이에 대하여 성호(星湖) 이익(李瀾)은 이를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9) 같은 책, 15쪽(10—451). “六十四卦中爲互卦者 不過十六卦 第三圈所書是也 十六卦中爲互卦者 不過四卦 第二圈所書乾坤坎離未濟是也”.

그 자리와 순서가 가지런하니 그 뜻을 속일 수 없다. 「잡괘전」의 순서와 비교해 보면 많은 것이 일치하지 않지만, 제3권의 16괘를 제외하고 나면 48괘 가운데 12괘만이 일치하지 않고, 그 나머지는 모두 이것과 일치한다. 어떻게 우연히 그런 것이겠는가? 『역』의 오묘함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괘 가운데 원래 이런 뜻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니, 『역』을 읽는 이는 마땅히 자세히 살펴야지, 이것과 저것을 옮기고 바꾸는 것을 꼭 의심할 것까지는 없다.<sup>2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은 이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로 비판하여 자신의 호괘설을 분명히 한다.

「역대전」에서는 “여러 사물을 연관 지어 성질을 기술하는[雜物撰德] 것은 중효(中爻)가 아니면 갖추지 못한다”고 했다. 중효란 2·3·4·5효이다. 두 호괘를 만드는 법은 오직 네 개의 중효에서만 볼 수 있다. 그래서 「역대전」에서 “여러 사물을 연관 지어 성질을 기술한다”고 할 때의 ‘잡(雜)’이란 호(互)인 것이다. 옛날에는 원래 호괘를 잡괘라고 한 것이 바로 증거이다. 그러나 「잡괘전」의 여러 괘들의 순서는 어떤 경우에는 종류별로 모으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차이 나는 것을 섞기도 해서, 반은 어긋나고 반은 일치하는 등 자세히 살필 수 없다. 또한 이미 그림을 만들었으니 제3층 건(乾) 자의 아래는 제4층의 건·대과·구·괘괘로 이어받는 것이 마땅하고, 제3층 곤(坤) 자의 아래는 제4층의 곤·이·복·박괘로 이어받은 뒤에서 네 괘가 각각 네 괘를 거느리게 되어 그 의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지금 이씨의 그림은 「잡괘전」과 구차하게 합치하고자 하지만 네 괘로 네 괘를 거느리는 체제는 오히려 어지러우니, 이것과 저것이 모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sup>21)</sup>

20) 같은 책, 같은 곳(10—451~452). “其位次齊整 其義不可誣也 較之於雜卦之序 多所不合 然除第三圈十六卦 其四十八卦中 惟十二卦不合 其餘合 此豈偶然哉 易之奧 未易可曉 而卦中元有此義則分明 讀易者宜諦看 不必以彼此移換爲疑也”.

21) 같은 책, pp.15~16(10—452~453). “大傳曰雜物撰德 非其中爻不備 中爻者二三四五也 兩互作卦之

## 제4절 다산잡론

### 1. 사천지신명론(事天地神明論)

복서(卜筮)의 의미에 대해서는 고대 예서(禮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그의 근본은 천지신명을 섬기는 데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옛날 사람들은 천지신명(天地神明)을 섬김으로써 상제(上帝)를 섬기었다[『중용』에서 “교사(郊社)의 예는 상제(上帝)를 섬기는 것이다”고 한 것 또한 이런 뜻이다]. 그러므로 점을 쳐서 그 명(命)을 따랐던 것이다.<sup>22)</sup>

이라 하여 복서의 의의는 상제를 섬기며 그의 명령을 듣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세에 와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

---

法 惟中四爻是觀 而大傳謂之雜物巽德 則雜者互也 古者原以互卦謂之雜卦 斯其證也 然雜卦傳諸卦序次 或似類聚 或又差錯 半違半合 不可詳也 且既作圖 則第三層乾字之下 當以第四層乾大過姤夬承之 第三層坤字之下 當以第四層坤頤復剝承之 然後四卦之各攝四卦 其例明著 今李氏之圖 欲與雜卦傳苟合 而其以四攝四之例 却又晦亂 彼此俱不及矣”.

22) 「卜筮通義」, 『易學緒言』 卷4, II ~ 48, 17 亨(10—455). “古人事天地神明 以事上帝中庸曰 郊社之禮 所以事上帝 亦此義) 故卜筮以聽命”.

지금 사람들은 평소에는 신(神)을 섬기지 않다가 오로지 일을 당했을 때만 점을 쳐서 그 일의 성패(成敗)를 찾으려 했으니 하늘을 업신여기고 신(神)을 모독함이 심하다.<sup>23)</sup>

라 하여 단지 어떤 일에 부딪혀 그의 성패만을 묻는 문복행위(問卜行爲)는 결과적으로 천지신명을 모독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산은 스스로 『주역』을 주소(注疏)하는 것은 결코 문복(問卜)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서의 의의를 천명하고자 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가 『주역』의 상을 풀이한 것은 경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역예(易例)에 이미 밝아 점을 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점의 증험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됨에 빠짐이 적지 않으니 이것이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 중에 올바른을 지키려는 자는 마땅히 점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sup>24)</sup>

정도를 지키는 자는 마땅히 복서를 폐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험(占驗)에 깊이 빠지는 행위는 옛날의 참 뜻을 망각한 사술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선왕의 시대에 신명(神明)을 공경히 섬겼기 때문에 복서(卜筮)를 만들어, 백성들이 믿도록 만들었고, 당시의 백성들은 날마다 귀신을 공경했다. 춘추 시대 이후로 이런 뜻이 점점 어두워졌으니, 『좌전』에서 점친 여러 사례는 이미 옛 뜻이 아니었다. 진·한 이후로는 복서가 점점 사술(邪術)에 빠져들어 선왕의 본 뜻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왕제」에서는 “귀신에 가탁해서 당시

23) 같은 책, 같은 곳. “今人平居 既不事神 若唯臨事卜筮 以探其成敗 則慢天瀆神甚矣”.

24) 같은 책, 같은 곳. “余疏釋易象 爲明經也 若有人謂易例既明 可以行筮 則不唯占驗不合 而其陷溺不少 此余之所大懼也 今人守正者 宜廢卜筮”.

에 복서를 점쳐 중인을 의혹하게 하는 이들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왕제」는 한대 초기에 지은 것이다]. 오늘날 법도를 세우자면 마땅히 「왕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sup>25)</sup>

여기서 사술이란 한대(漢代)의 술수학(術數學)을 가리키고 있음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점복(占卜)에는 입군(立君)·건도(建都)·제사(祭祀)·정전(征戰)·입관(立官)·건후(建侯)·혼가(婚嫁)·질병(疾病)·장지(葬地)·입빈(立賓)·일원(日月)·수지(須至)·태산(胎產) 등 그 목적이 다양하지만 그 복서의 총의(總義)는 다음과 같을 따름이다.

복서(卜筮)의 방법을 총괄해 보면 그 처음에는 천명(天命)을 받아 백성을 인도하는 데 사용한다. 일이 비록 바르지만 성패(成敗)를 쉽게 분간할 수 있는 것은 점치지 않는다. 비록 분명하지만 의리(義理)가 진실하지 않는 것은 점치지 않는다. 오직 의리를 상고해 보아 비록 바를지라도 그 성패(成敗)와 이둔(利鈍)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 점을 친다.<sup>26)</sup>

라 하여 그 뜻이 비록 바르다 하더라도 성패리둔(成敗利鈍)이 불분명한 자에 한하여 문복(問卜)함에도 불구하고 후세에 이르러서는 일종의 점술(占術)로 타락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춘추 시대에는 이러한 점치는 방법이 이미 문란해져 자신의 운명을 점치는 것은 영화로운 봉록과 지위와 명성을 도모하는 데

25) 같은 책, 같은 곳(10-456). “先王之世 敬事神明 故設爲卜筮 使民信時日敬鬼神 春秋以降 此義漸晦 左傳歸筮 已非古義 秦漢以下 卜筮輒論於邪術 非復先王之本意 故其在王制曰假於鬼神 時日卜筮 以疑衆者繇(王制者 漢初所作) 今人立法 當以王制爲正”.

26) 같은 책, 19쪽(10-459-460). “總之卜筮之法 其始也稟天命 以前民用也 事雖正而成敗易分者不卜 利雖明而義理不允者不卜 唯考諸義而雖正 其成敗利鈍有不明者 於是乎有占也”.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 도모함을 점칠 때에도 의리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변별하지 않았다. 천명을 받으려는 취지가 마침내 어두워져서 천명을 엿보려는 뜻이 앞서니 현혹시키는 술수와 교묘하고 지리한 설들이 그 틈에 번갈아 어지럽히지만, 그것이 하늘과 신을 모독하는 잘못임을 깨닫지 못한다.<sup>27)</sup>

그러므로 그의 「역론」 2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역』은 왜 지어졌는가? 성인이 하늘의 명령을 청하여 그의 뜻에 따르기 위해 지었다. 무릇 일이 공정한 선함에서 나와 반드시 하늘의 도움으로써 이루게 하고 복을 내릴 만한 것이라면 성인이 다시 청하지 않는다. 일이 공정한 선함에서 나왔으나 때와 형세가 이롭지 않음이 있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성인은 다시 청하지 않는다. 일이 공정한 선에서 나오지 않아 천리를 어기며 인륜의 기강을 해치는 것이면 비록 반드시 그 일이 성공하여 눈앞의 복을 얻을지라도 성인은 다시 청하지 않는다. 오직 일이 공정한 선에서 나왔으나 성패와 화복을 거슬러 보고서 헤아릴 수 없을 경우, 이때에 청하는 것이다.<sup>28)</sup>

청명(請命)의 네 가지 경우를 예시한 후 오직 한 가지 경우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한다. 이렇듯 복서란 성인(聖人)이 상제의 뜻을 헤아리는 방법으로써 그것은 결코 성패화복(成敗禍福)을 점치는 복술(卜術)이 아님을 강조한다.

27) 같은 책, 같은 곳(10-460). “春秋之世 此法已濫 卜其身命者 不出於榮祿位名之慕 卜其謀議者 不揆夫義利逆順之辨 稟命之義參晦 而探命之志先躁 則眩惑妖幻之術 狹膾支離之說 得以交亂於其間 而不自覺其陷入於慢天瀆神之咎矣”.

28) 「易論」 2, 1~11, 2쪽(2-205). “易何爲而作也 聖人所以請天之命而順其旨者也 夫事之出於公正之善 足以必天之助之成而予之福者 聖人不復請也 事之出於公正之善 而時與勢有不利 足以必其事之敗 而不能受天之福者 聖人不復請也 事之不出於公正之善 而逆天理傷人紀者 雖必其事之成而微目前之福 聖人不復請也 唯事之出於公正之善 而其成敗禍福 有不能逆觀而課縵度之者 於是乎請之也”.

## 2. 역리문답(易理問答)

지금까지 보아 온 바와 같이 다산의 역리는 소위 그의 역리사법(추이·물상·호제·효변)에 근거하고 있음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다산은 그의 역리사법을 척도로 하여 한위 이래 명칭에 이르는 사이에 변형변질(變形變質)된 역학을 비판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혹자[甲乙丙]의 질문의 형식으로 다산의 역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게 한 후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자설(自說)을 재확인한다. 그중에서 중요한 쟁점 몇만을 추려서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갑자(甲者)가 설괘전에서 물상을 점치는 것[說卦卜物象]은 “원래 성인이 뜻에 따라 상징을 취한 것으로 변화가 일정함이 없으니, 어느 하나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原來 聖人隨意取象 變化無方 不可執一]”라고 한 주장에 대하여 이르기를

역이란 해와 달이다[글자가 일(日)과 월(月)을 부수로 삼는다]. 해와 달은 음양이고, 음양이란 네 계절이다. 일양이 생기면 자월(子月)이 되고, 2·3·4·5효가 쌓여 육양(六陽)이 되면, 이것이 사월(巳月)이 된다. 일음이 생기면 오월(午月)이 되고 2·3·4·5효가 쌓여서 육음(六陰)이 되면 이것이 해월(亥月)이 된다. 이것이 12벽괘가 배당되는 이유이고, 역이 역이랄 수 있는 이유도 이것일 뿐이다.<sup>29)</sup>

라 한 후 부연하여 설명하기를

---

29) 「周易答客難」, 『易學緒言』 卷4, II~48, 22쪽(10-465). “易者日月也(字從日月也) 日月都陰陽也 陰陽者四時也 一陽生則爲子月 二三四五積爲六陽 是爲巳月 一陰生則爲午月 二三四五積爲六陰 是爲亥月 此十二辟卦之所以配之 而易之所以爲易 斯而已”.

그러므로 주공은 건괘(乾卦)의 괘사에서 먼저 그 뜻을 드러내었다. 건(乾)은 어떤 괘인가? 이는 오직 6진(震)이 쌓인 것일 뿐이다. 곤(坤)은 하나의 진(震)을 얻어서 복괘(復卦)가 되고[복괘의 하괘인 진] 복(復)은 하나의 진(震)을 얻어서 임괘(臨卦)가 되며 [임괘 2, 4 호괘 진] 임(臨)은 하나의 진(震)을 얻어서 태괘(泰卦)가 되고[태의 3, 5 호괘 진] 태(泰)는 하나의 진(震)을 얻어서 대장괘(大壯卦)가 되니[대장 상괘 진뢰] 진(震)이 되는 것은 하나의 양으로 인해서이다. 이미 하나의 양을 얻으면 음이 아니더라도 6개의 진(震)이 된다[일양이 괘주(卦主)가 된다]. 그러므로 대장(大壯)이 하나의 진(震)을 얻으면 그 괘는 괘(夫)가 되며, 괘(夫)가 하나의 진(震)을 얻어서 마침내 건괘(乾卦)를 만든다. 건(乾)이라는 것은 여섯 개의 진(震)이 쌓인 것이다. 「설괘전」에서는 ‘진(震)은 용(龍)’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여섯 마리의 용(龍)이다. 괘(夫)가 진을 얻어 건괘를 이룬다. 다만 양을 얻을 뿐, 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진괘의 위 두 획을 취하지 않는다] 양이 하나뿐이고 음이 없는 것을 향양(尙陽)이라고 한다[예를 들면 오랜 가뭄[久旱]이 향한(尙旱)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건의 상구효를 향룡(尙龍)이라고 하는 것이다[상구효는 즉 괘(夫)가 얻어 건을 이루는 것이다]. 「설괘전」과 일치하지 않는가!<sup>30)</sup>

다시 을자(乙者)의 “원래 『주역』은 의리를 위한 책으로 복서(卜筮)와는 무관한 것이다[原來 周易是義理書 不干卜筮]”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르기를

8괘를 논한다면 건곤은 육자(六子)의 부모가 된다. 중괘(重卦)에서는 건은 단지 4획의 괘일 뿐, 소장하는 본체와 반대되는 형체는 다른 여러 벽괘와 다르지 않다. 점법 또한 그렇다. 괘(夫)가 되

30) 같은 책, 같은 곳. “故周公於乾卦之詞 首發其義也 乾者何卦也 是唯六震之積耳 坤得一震以成復卦(復下震) 復得一震以成臨卦(臨二四互震) 臨得一震以成泰卦(泰三五互震) 泰得一震以成大壯(大壯上震雷) 震之爲震以一陽也 既得一陽 雖非陰而亦震也(一陽爲卦主) 故大壯而得一震 其卦夫也 夫得一震 乃成乾卦 乾也者六震之積也 說卦震爲龍 斯之謂六龍也 夫之得震而成乾也 只得其陽 不取其陰 不取震之上二畫 獨陽無陰 謂之尙陽 如久旱之爲尙旱 故乾之上九 謂之尙龍也(上九即夫所以成乾者) 其不合於說卦乎”.

는 때에 아래의 건은 말이 되고 위의 태는 벗어나 잃어버린다. 나아가면 건이 되고, 말은 스스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위가 건이고 아래가 곤이면 마침내 두 말을 이루게 된다. 어떤 이는 다른 말을 끌어다 잇는 것이 새옹지마의 고사와 같다고 하지만, 태괘에서 건이 된 것이니 말이 말미암아 갈 곳이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서쪽에서 서북쪽이 된다고 하니, 이와 같이 상징을 취하면 또한 그 득실을 점칠 수 있을 것이니 괘사가 밝게 넘쳐나는 것을 어찌서 걱정하겠는가? …복서에 근본을 두고 의리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그대가 『예기』나 『논어』처럼 읽고자 한다면 거리가 멀 것이다.<sup>31)</sup>

라 하여 역(易)은 의리서(義理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서(卜筮)와 의리(義理)가 함께 곁들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어 병자(丙者)는 다산의 일효일변설(一爻一卦說)이 육위(六位)의 재덕설(才德說)과는 무관하다고 한 데 대하여 다산은 꽤 없는 효란 존재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세 획을 채우지 못하면 한 괘를 이룰 수 없고, 이미 괘를 이루지 못하면 말·소·양·돼지 등은 상징으로 취할 수가 없고, 건과 순, 운행과 정지에서 덕을 살필 수가 없으니, 어떻게 길흉과 휴구(休咎)가 있을 수 있겠는가?<sup>32)</sup>

효변에 따른 괘형(卦形)의 변화에 대해서는 선태설(蟬蛻說)을 주장한다.

31) 같은 책, 22~23쪽(10-466~467). “若論八卦 乾坤爲六子之父母 其在重卦 乾只是四月之卦 其消長之體反對之形 與諸辟卦無異也 占法亦然 方其爲大時 下乾爲馬 上兌爲脫失 進之爲乾 馬將自歸 而上乾下坤 遂成兩馬 或者牽連他馬 如塞翁故事 然且自兌而乾 則馬所由往 或者自西而西北也 如是取象亦可以占其得失 何患乎卦詞之晃羊乎…本之卜筮而義理寓焉 子欲讀之如禮記論語 遠矣哉”.

32) 같은 책, 23쪽(10-468). “不滿三畫 不成一卦 既不成卦 卽馬牛羊豕 無所取象 健順行止 無所考德 又安有吉凶休咎哉”.

분명히 괘형(卦形)이 변하고 괘명(卦名)이 바뀌지만[건괘의 초구 효를 건의 구(乾之姤)]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바뀐 것이다] 그 성기(性氣)와 재덕(才德)은 여전히 본괘(本卦)의 옛것을 가지고 있다. 비유하건대 나방이 날개가 생겨도 오히려 누에의 성(性)을 가지고 있고, 매미가 허물을 벗었어도 어찌 굽병이의 바탕이 없겠는가?<sup>33)</sup>

다시 갑자(甲者)는 “당신은 여러 괘가 각각 본래 상징을 갖고 있다 [子謂諸卦各有本象]”라 하였지만 “효가 이미 변했다면 본래 상징도 변한다[爻之既變 本象變幻]”고 하는데 어떻게 “육효에서 모두 귀매를 말하는 데서 육효가 합쳐서 한 괘를 이루고, 효가 각각 괘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六爻咸言歸妹 可見六爻合成一卦 爻各成卦]”란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하여 다산은 이르기를

나방과 날개, 매미와 허물은 앞에서 이미 비유를 했다. 원래 이 괘는 비록 귀매(歸妹)라는 이름을 가지지만, 실상은 군주를 세우기 위해 점을 칠 수도 있고, 국도를 옮기려고 점을 칠 수도 있으며, 전쟁을 점칠 수도 있고, 제사를 점칠 수도 있으며, 날을 점치고 손님을 점칠 수도 있고, 희생용 소를 점칠 수도 있으며, 비 오는 것과 갠 날씨를 점칠 수도 있고, 천지 사이에 모든 일과 물건을 점칠 수도 있다. 귀매의 상징이 있기는 하지만, 또한 여러 상징 가운데 하나일 뿐, 꼭 귀매를 이 괘의 주된 상징[主象]이요 다른 일이 모두 객(客)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 성인이 우연히 그 한 상징을 점쳐서 귀매라고 명명한 것이다. 이로 인해 귀매의 일이 혹은 늘 같고 혹은 변하는 것에 따라 그 여섯 효를 풀이하면서 애오라지 여러 괘의 공통적인 사례로 삼은 것일 뿐인 것이다. …그대가 귀매라는 한 가지 일로 이 한 괘의 쓰임새를 다 달성했다고 한다면 그 『역』이란 비좁은 것이다.<sup>34)</sup>

33) 같은 책, 같은 곳. “誠以卦形雖變而名雖易(乾初九爲乾之姤 其名易也) 若其性氣才德 仍有本卦之舊 譬如蛾之既羽 尚有蠶性 蟬之既蛻 豈無蟬質”.

라 하여 괘상(卦象)의 다양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다시 을자(乙耆)는 문기를 “그대 말대로라면 역사(易詞)에는 심오한 의리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역이란 꼭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 다산은 대답하기를

『역』의 도는 크게는 천지의 이치를 담고 있고 (음양) 두 기에 따라 사계절을 질서 지을 수 있으며, 작게는 벼룩이 뛰고 파리가 나는 것까지 살펴 알 수 있게 한다. 높이면 소장굴신의 이치를 징험하여 진퇴출처의 소이를 알 수 있고, 낮추면 말과 소와 개와 닭을 얻거나 잃는 일까지 헤아릴 수 있다. 멀게는 귀신에 이르러 천명을 상고하여 바람과 비와 가뭄과 장마의 일을 알 수 있고, 가깝게는 부자와 군신과 부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으며, 이목구비와 사지와 온몸의 움직임도 그 징조를 미리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역』의 괘효사에서 문장을 만들 때, 혹은 넓고 크게 하고 혹은 작고 침예하게 하고 혹은 진중엄존(典重嚴尊)하게 하고 혹은 비비협애(卑鄙狹隘)하게 하고 혹은 심오하여 유취(幽趣)가 있고 혹은 천근하여 고상한 논의가 없고 혹은 황홀하여 다양하게 변하게 하고 혹은 줄렬할 정도로 곧아 일정함을 지키도록 하여, 뒤섞어 하나로 귀결시키지 않는다. 대체로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끌어다가 저것을 추론하게 하고 왼쪽을 비교해서 오른쪽을 깨닫게 하며, 서로를 참고하여 서로 통하고 글을 요약하여 못 상황을 다스리기를 기대하였을 뿐이다. 그도가 이와 같은데도 뒤에 『역』을 말하는 자들은 오직 큰 것만을 귀하게 여기고 유원(幽遠)한 것만을 힘쓰는 반면 그 자질구레하고 비근(卑近)한 뜻을 풀이하길 흐르는 큰 강처럼 끝없이 이어가니 이것이 『역』이 어두워지고 성인의 평범하고 실질적인 가르침도 고묘하고 신기하며 영환(靈幻)한 법으로 귀착되어 깨닫는 곳으로 이끌 도리가 없어진 까닭이다.<sup>34)</sup>

34) 같은 책, 24~25쪽(470~471). “蛾羽蠅蛺 前應知喻之矣 原來此卦 雖以歸妹爲名 其實可以占立君 可以占遷國 可以占戰 可以占祭祀 可以占日占賓 可以占牲牛 可以占雨晴 可以占天地之間萬事萬物 其有歸妹之象 亦其萬象之中諸象之一 非必歸妹爲此卦之主象 而他事皆客也 聖人偶占其一象 以之命名曰歸妹 因以歸妹之事 或常或變 釋其六爻 聊以爲諸卦通例耳…子欲以歸妹一事 遂了此卦之用 隘矣哉易也”.

이렇듯 역사(易詞)는 다양하므로 꼭 심오한 내용만을 지닌 것이 아  
 님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지금 상하 두 편의 64개와 384개의 효사로서 한결같이 천인성  
 명의 이치로 귀착시키고자 하여 진퇴(進退)와 존망(存亡)의 의리  
 를 저절로 머물게 하고자 한다면 많은 견해가 서로 어긋나고 맞  
 지 않아서 서로 합치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점을 쳐서 만날  
 때 역사(易詞)를 버리고 그 상(象)을 완미하면 두 편의 64괘 384  
 효가 모두 대의(大義)이다. 어찌 높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36)</sup>

다시 병자(丙者)의 “역사(易詞)의 많은 문장은 다분히 복서용(卜筮  
 用)이 많으나 개중에는 점사(占辭) 아닌 것도 있으니 무슨 까닭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여 이르기를

좋은 질문이다. 이 또한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시』를 읽지 않  
 으면 『역』을 읽을 수 없으니, 역사(易詞) 가운데는 원래 비(比)·  
 흥(興)의 체제를 순수하게 쓴 것이 있었다. …물상을 열람해서 스  
 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처신할 줄을 아는 것은 군자의 의리다. …  
 『역』을 잘 사용하는 이는 물상의 변화를 살펴서 그 몸을 처신하  
 니. 이 또한 역도(易道) 가운데 하나이다.<sup>37)</sup>

35) 같은 책, 25쪽(10-471~472). “易之爲道 大可以彌綸天地 順二氣而序四時 小可以察蚤蠅之飛躍 向  
 之可以驗消長屈伸之理 而知所以進退出處 卑之可以稽馬牛犬雞之得喪 遠之可以達鬼神考天命 而識風  
 雨旱澇之故 邇之可以處父子君臣夫婦之變 而耳目口鼻四肢百體之動 亦可以前知其微 故易詞立文 或廣  
 大弘敞 或細小尖碎 或典重嚴尊 或卑鄙猥隘 或深奧而有幽趣 或淺近而無高論 或恍忽而多變 或出直而  
 守常 錯綜雜糅 不一其歸 蓋欲使學者 引此而推彼 比左而悟右 期乎其參互會通 以約文而馭衆情而已矣  
 其爲道如是也 而後之說易者 唯大之尊之 幽遠之爲務 并其瑣小卑近之旨 而訓之爲河漢而無極也 此易  
 所以晦 而聖人平實之教 歸於高妙神奇靈幻之法 而莫之提悟者也”.

36) 같은 책, 26쪽(10-473). “今欲以二篇六十四卦三百八十六爻之詞 一以歸之於天人性命之理 而欲以自  
 寓其進退存亡之義 則多見其鉅細相懸而不相投合也 若夫筮而遇之 舍其詞而玩其象 則二篇六十四卦三  
 百八十六爻 皆大義也 何不尊之有”.

37) 같은 책, 같은 곳. “善哉問也 是亦一例也 不讀詩 無以讀易 易詞之中 原有純用比興之體者…覽物象而  
 自反 知所以自處其身者 君子之義也…善用易者 觀物象之變以處其躬 斯亦易道之一也”.

라 하여 관상칙궁(觀象飭躬)도 역례(易例)의 하나임을 시인한다.

또다시 갑자(甲者)는 성인(聖人)의 작역(作易)은 엄정전중(嚴正典重)하여 호체(互體) 도체설(倒體說)과 같은 교밀(巧密)한 취상(取象)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다산은 대답하기를

성인이 『역』을 만들 때에 오직 상징만을 취하였으니 상징이란 본뜨는 것이며, 본뜸은 비슷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곧 상징이라고 여기는 것은 위아래로 두루 통하는데, 본래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대의 말처럼 나무를 억지로 말뚝으로 고정시킬 수 있겠는가?<sup>38)</sup>

라 하고 이어서 설명하기를

중괘(重卦)는 처음 가설하면서 팔괘를 벌려놓고 거듭했다. 괘가 이미 거듭되자 성인께서 또 살피시고는 “두 괘가 효 가운데 있다”고 하셨다. 준괘의 경우를 시험 삼아 논하자면 2효에서 4효까지는 실제로 곤괘로서 구차하게 비슷한 것이 아니요, 3효에서 5효까지는 실제로 간괘로서 구차하게 비슷한 것이 아니니, 어떻게 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39)</sup>

라 하여 양호취상(兩互取象)은 당연하다 이른다.

또 이어서 을자(乙者)가 빈 중이 이가 되고 강한 중이 감이 된다 [虛中爲離 剛中爲坎] 하여 복위체(伏位體)로 존재한다는 다산설을 증거가 없어 믿을 수 없다[無徵不信]고 주장함에 대하여 다산은 이를 그

38) 같은 책, 같은 곳(10-474), “聖人作易 唯象是取 象也者像也 像也者似也 唯依似彷彿 便以爲象 周流上下 本無定形 豈能本強槁定 如子所言也”.

39) 같은 책, 같은 곳. “重卦之始設也 雖陳八卦而重之 及卦既重 聖人又從而觀之 曰是有二卦交中矣 試論屯卦 自二至四 實有坤卦 非苟依似而彷彿也 自三至五 實有艮卦 非苟依似而彷彿也 曷爲不取哉”.



의 천·지·수·화 사정괘설(四正卦說)로 대응하여 말하기를

천·지·수·화는 역의 네 기둥이다. 풍·뇌·산·택은 모두 역  
기에서 변화를 받는다. 병렬해서 여덟을 만들어 평등하게 볼 수  
는 없는 것이다.<sup>40)</sup>

라 하여 천지수화야말로 역의 기본이 됨을 설파한 후

『역』에는 두 가지 관찰할 것이 있으니 하나는 덕(德)이요 하나  
는 위(位)다. 덕이란 건곤이요, 위란 감리다. 강획(剛畫)은 하늘에  
근본 하고, 유획(柔畫)은 땅에 근본한다. 육획의 덕은 건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1·2·3은 이괘의 유중(柔中)이고, 4·5·6은  
감괘의 강중(剛中)이다. 육획의 위(位)는 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 그러므로 상순(上純)과 하순(下純)은 그 상징이 더욱 드러나  
고 성인이 이것을 써서 역사를 지었다. 어떻게 오직 순체(純體)  
에만 복감(伏坎)과 복리(伏離)가 있다고 하겠는가? 만일 순수하지  
않다면 유이(柔二)는 이(離)가 될 수 있고, 강오(剛五)는 감이 될  
수 있다. 정신과 골자가 2·5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비  
록 일치하지 않더라도 모두 감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sup>41)</sup>

라 한다.

마지막으로 병자(丙者)는 이르기를 “용구(用九)·용육(用六)에서 육  
효가 다 변하는 것[六爻盡變]은 건곤에 한한다 하여 곽박(郭璞)·초공  
(焦贛)의 전괘진변설(全卦盡變說)과 다르니 그대의 설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하여 다산은 대답하기를

40) 같은 책, 27쪽(10-475). “天地水火 易之四維也 風雷山澤 皆於是乎受變 不可以并列爲八而平等看之也”.

41) 같은 책, 같은 곳. “易有二觀 曰德曰位 德者乾坤也 位者坎離也 凡剛畫本天 凡柔畫本地 凡六畫之德  
不外於乾坤也 一二三者 離卦之柔中也 四五六者 坎卦之剛中也 凡六畫之位 不外於坎離也 故上純下純  
其象益著 而聖人用之以撰繫詞也 豈唯純體有伏坎伏離哉 如其不純 凡柔二者可離也 凡剛五者可坎也 其  
精神骨子在於二五 故餘雖未合 皆可以爲坎離也”.

『주역』에는 이런 법이 없다. 여러 효가 어지럽게 움직이면 물상이 어지럽게 뒤섞여 주공이나 공자와 같은 지혜를 갖고 있어도 조화시켜 제재할 수 없다. …초·괘의 방법은 교활하지만 비좁고 제멋대로여서 세 성인의 옛 뜻을 다 잃어버렸다. 이것을 써서 점을 치려고 하면 반드시 두 사람의 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방기(方技)와 잡류(雜流)의 학문이라고 명명하고서, 자신의 학설을 주장하는 것이 괜찮겠는가? 『주역』의 역사를 취해서 초공·괘박의 방법으로 찾는다면, 이것은 중니의 당에 올라 배우의 장난을 보려는 것이니 그림자나 메아리나마 얻을 수 있겠는가?<sup>42)</sup>

라 하여 『주역』에는 전괘진변법(全卦盡變法)은 전무함을 강조한다.

---

42) 같은 책, 27쪽(10-476). “周易無此法也 諸爻亂動 則物象雜糅 雖以姬孔之智 亦無以化而裁之矣… 焦郭之法 狹狹恣肆 全失三聖之舊義 如欲用此以爲占 須取兩家之書 自命以方技雜流之學 而任自叫囂焉 可也 若取周易之詞 而求之以焦郭之法 是猶升仲尼之堂 而求見俳優之戲 豈能得影響哉”.

## 제5절 자산역간(茲山易柬)

다산은 신유교옥 때 그의 중형(仲兄) 손암(巽庵) 정약전(丁若銓)과 함께 유배되어 자신은 강진으로 중형은 흑산도로 내려왔다. 자산(茲山)은 흑산(黑山)의 별칭이다. 다산은 주역초고(周易初稿)인 갑자본(甲子本)이 완성되자 흑산도 중형에게 보내 일일이 인가를 받았다. 중형의 서한 중에 특히 『주역』에 관한 대목을 초록하여 여기에 「자산역간(茲山易柬)」이라 일렀다. 주로 다산역의 핵심문제들에 대한 손암의 추인(追認)은 다음과 같다.

역리사법(易理四法) 중의 하나인 추이설(推移說)은 14벽괘(十四辟卦)와 50연괘(五十衍卦)와의 관계를 논한 것이다. 손암은 벽괘지리(辟卦之理)에 대한 다산설의 소종래(所從來)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벽괘(辟卦)의 이치는 최근에 정확한 것임을 더욱 깨달게 되었다. 벽괘(辟卦)는 8괘가 확대된 것이다. 건괘(乾卦)와 곤괘(坤卦)는 큰 건(乾)과 큰 곤(坤)이다. 임괘(臨卦)와 둔괘(遯卦)는 큰 진(震)과

큰 손(巽)이다. 관괘(觀卦)와 대장괘(大壯卦)는 큰 간(艮)과 큰 태(兌)이다. 중부괘(中孚卦)와 소과괘(小過卦)는 큰 이(離)와 큰 감(坎)이다. 복괘(復卦)와 박괘(剝卦)와 구괘(姤卦)과 괘괘(夬卦)는 진(震)과 간(艮)과 손(巽)과 태(兌)가 건(乾)과 곤(坤)과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비괘(否卦)와 태괘(泰卦)는 건(乾)과 곤(坤)이 서로 합한 것이다. 8괘가 중첩되어 64괘가 된다면 다시 8괘의 형태를 가지고 임금을 삼아 그 나머지 50괘로 하여금 모두 와서 변화를 받게 하는 것은 그 이치가 딱 들어맞아 의심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이른바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이어서 사람의 힘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43)</sup>

라 하고 또 다산의 천지수화 4정괘설(四正卦說)을 뒷받침하는 뜻에서 10벽괘설(十辟卦說)과 건곤감리(乾坤坎離) 4정괘설(四正卦說)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0벽괘[건곤을 제외하고 센 것이다]는 건곤의 형을 빌려서 벽괘를 이루지 않은 것은 없다. 유독 이 소과와 중부는 건에서나 곤에서 말미암지 않았고, 특별히 감리를 좇아서 변질된 것이다. 이는 마치 건곤이 다른 질을 빌지 않고, 그 본체 가운데서 거듭해서 건괘와 곤괘가 된 것과 같다. 이것이 수화(水火)가 천지와 적대되는 이유인 것이다.<sup>44)</sup>

라 하여 천지수화의 상적(相敵)관계를 설파한 후 이를 더욱 부연하여 설명하기를

43) 「姤山易東」『易學緒言』卷4, Ⅱ~48, 28쪽(10-477). “辟卦之理 近者愈覺的確 辟卦者 八卦之大者也 乾坤者大乾大坤也 臨遯者大震大巽也 觀大壯者大艮大兌也 中孚小過者大離大坎也 復剝姤夬者 震艮巽兌之合乾坤而成者也 否泰者乾坤之自相合者也 夫八卦之重而爲六十四 則復以八卦之形而爲之君辟使其餘五十皆來受變者 其理自然無可疑者 是所謂自然而然 不容人力也”.

44) 같은 책, 같은 곳. “十辟卦(除乾坤計之) 莫不借乾坤之形 而方能成辟 獨此小過中孚 不于乾不于坤 而特特從坎離變質者 正如乾坤之不借他質 自其本體中重之而爲乾坤也 此其所以水火之敵對於天地也歟”.

각각 스스로 형을 이루고 화화(和化)를 받지 않는 것은 형세가 균형을 이루고 본체가 대적해서 고하 존비의 등급이 없다. 그러므로 그 3획의 때부터 진·손·간·태가 두 획을 이으니, 혹은 연결되고 혹은 끊겨서 건곤과 형이 비슷하지 않은 것이 없다. 유독 이 감리 두 괘는 그 중획에서 변해 건곤과 조금도 닮지 않은 것이 마치 문과 출입구를 나누어 스스로 한 집을 이룬 것과 같다. 그러므로 중괘에 이른 뒤에 무리를 따라서 건곤의 형에 의지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벽괘가 되어 건곤과 대적하는 것이니, 이것이 벽괘 가운데 끝내 감리의 형이 없는 이유이다.<sup>45)</sup>

그리하여 다산의 사정괘설에서 특히 소과·중부 두 가지 재운의 괘[小過中孚再閏之卦]의 발명을 극구 칭찬하여 다음과 같이 이른다.

무릇 그대가 『역』에 있어서 한밤중의 셋별이라 이를 만한데 소과괘(小過卦)와 중부괘(中孚卦)의 뜻을 펼친 곳에 이르면 그 공이 더욱 크다. 내가 그대의 형이 된 것으로도 족하다.<sup>46)</sup>

이렇듯 아우 다산의 역론(易論)에 전폭적으로 찬동한 손암(巽庵)은 역리를 상학(象學)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건곤육자설(乾坤六子說)도 “실리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상징이 있다[雖非實理而實有是象]”라 하였고 팔괘방위(八卦方位)도 “또한 실리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상징이 있다[亦非實理而實有是象]”라 하고 소씨의 ‘건은 남쪽, 곤은 북쪽, 이는 동쪽, 감은 서쪽[乾南坤北離東坎西]’ 설을 반대함으로써 다산의 견해에 동조한다. 총체적으로 다산역(茶山易)을 평하여 이르기를

45) 같은 책, 같은 곳(10-477~478). “蓋各自成形 不受和化者 勢均體敵 了無高下尊卑之等 故自其三畫之時 而震巽艮兌之連二畫 或連或絕 莫不肖形於乾坤 獨此坎離二卦 則變其中畫 其於乾坤 畧不相肖 有若分門割戶 自成一家者然 故至於重卦之後 而亦不欲隨衆依附於乾坤之形 而自立爲辟 以敵乾坤 此其所以辟卦之中 終無坎離之形也”.

46) 같은 책, 같은 곳(10-478). “大抵君之於易 可謂長夜曙星 而至於發出小過中孚之義者 其功尤大矣 吾爲君之兄 亦足矣”.

『주역사해(周易四解)』는 어느 것인들 장관이 아니겠는가마는 「시괘전(蓍卦傳)」에 이르면 더욱 절기한 문자들이다. 9와 6의 변론에 이르러서는 오묘하고 기이하여 말 한마디 글자마다 신귀가 준 것 같아서 형용할 수 없다. 미용(美庸)은 어떤 영심묘오(靈心妙悟)로 여기까지 이르러 사람들로 하여금 미친 듯이 울부짖고 어지럽게 춤추게 하는지 모르겠다.<sup>47)</sup>

라 하여 다산역의 묘리(妙理)를 극구 칭찬한다. 그렇다면 한송(漢宋) 이래 제역(諸易)의 시비를 재단한 다산의 척도는 무엇이었던가. 그것이 다름 아닌 ‘『주역사해』는 어느 것인들 장관이 아니겠는가[周易四解 孰非壯觀]’라 이른 역리사법(易理四法)임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이에 그의 장관에 접하여 그의 정수를 음미해 보기로 하자.

47) 같은 책, 30쪽(10-481). “周易四解 孰非壯觀 而至於蓍卦傳 尤是絕奇文字 至於九六之辨 妙妙奇奇 言言字字 殆如神授鬼指 不可名狀 不知美庸以何靈心妙悟至此也 令人直欲狂叫亂舞也”.

제8장

# 다산역의 정수





지금까지 역(易)의 시원론(始源論)으로부터 한위이래(漢魏以來) 송원 명청(宋元明清)에 이르기까지의 역학(易學)의 변천과정(變遷過程)에서 다산은 그의 역리론을 척도로 하여 오로지 비판적 태도로 임하였다. 여기서 집약된 다산의 역리론의 척도는 역수학적 역리사법이었음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다산은 자신의 역리사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역』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으니 첫째는 추이(推移)이고, 둘째는 물상(物象)이고, 셋째는 호체(互體)이고 넷째는 효변(爻變)이다.<sup>1)</sup>

---

1) 『周易四箋』 卷1, Ⅱ ~37, 2쪽(9-5). “易有四法 一曰推移 二曰物象 三曰互體 四曰爻變”.

# 제1절 역리사법

## 1. 추이

동지에 하나의 양이 처음 생겨나니 그 괘는 복괘(復卦)이며[즉 천근(天根)이다] 임괘(臨卦)가 되고 태괘(泰卦)가 되어[대장괘(大壯卦)가 되고 괘괘(夬卦)가 되어] 건괘(乾卦)에 이르게 되면 여섯 양이 곧 이루어진다. 하지에 음이 처음 생겨나니 그 괘는 구괘(姤卦)가 되며[즉 월굴(月窟)이다] 둔괘(遯卦)가 되고 비괘(否卦)가 되어 [또 관괘(觀卦)가 되고 박괘(剝卦)가 되어] 곤괘(坤卦)에 이르게 되면 여섯 음이 완성된다. 이것이 이른바 사시(四時)의 괘이다[한 괘가 한 달에 배당된다]. 소과괘(小過卦)란 큰 감괘(坎卦)이며[감괘의 3획이 겹친 것이다] 중부괘(中孚卦)는 큰 이괘(離卦)이다[이괘의 3획이 겹친 것이다]. 감괘(坎卦)는 달이고 이괘(離卦)는 해이므로[「설괘전」의 글이다] 나머지를 쌓아 윤달로 삼는다[달과 해에서 운행 도수의 차이를 쌓아서 윤달로 한다]. 이것이 이른바 재운(再運)의 괘이다. 사시의 괘를 경방은 12벽괘라고 하였는데 이제 그것에 견주어 건(乾)과 곤(坤) 두 괘를 제외하고 별도로 재운의 괘를 취해 12벽괘를 채운다. 12벽괘의 강획(剛畫)과 유획(柔畫)을 나누어 펼치면 50연괘(衍卦)가 되니[즉 군분(羣分)의 괘이다] 이것이 이른바 대연지수(大衍之數)는 50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이른바 추이(推移)라고 한다.<sup>2)</sup>

추이법(推移法)에 얹힌 몇 가지 문제점들을 다산은 그의 추이표직설(推移表直說)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64괘 중 특히 건곤이괘(乾坤二卦)를 부모지괘(父母之卦)라 하였지만 그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건도 곤으로 말미암아 변화(變化)한 자로서 건에 앞서는 자는 괘(夫)요 곤도 건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로서 곤에 앞서는 자는 박(剝)이다. 이렇듯 건곤이라고 해서 다른 괘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둘째, 그렇다면 건곤은 어떻게 변화된 자일까. 건은 곤으로부터 비롯하여 복(復)·임(臨)·태(泰)·대장(大壯)·괘(夫)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곤기(坤基)가 선립(先立)한 연후에 복일양(復一陽)이 시기(始起)하므로 이를 천근(天根)이라 하되 천근이 성장하여 급기야 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곤도 또한 건으로부터 비롯하여 구(姤)·둔(遯)·비(否)·관(觀)·박(剝)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복(復)에서 괘(夫)까지 구(姤)에서 박(剝)까지 무릇 10괘를 얻게 되는데 한유(漢儒)들은 이를 십벽괘(十辟卦)라 이른다. 진퇴(進退) 소장(消長)하여 주이복시(周而復始)하므로 여기서 사시지상(四時之象)이 나타난다.

셋째, 재윤지괘(再閏之卦)인 소과(小過) 중부(中孚)는 감리(坎離)에서 연유하여 다시 감리(坎離: 大坎大離)가 된 자이다.

천지수화(天地水火)는 혼돈 상태의 우주(宇宙)가 나누어져 각각 독

2) 같은 책, 같은 곳(9-5~6). “冬至一陽始生 其卦爲復(即天根) 爲臨爲泰(爲大壯爲夫) 以至於乾 則六陽乃成 夏至一陰始生 其卦爲姤(即月窟) 爲遯爲否(又爲觀爲剝) 以至於坤 則六陰乃成 此所謂四時之卦也 (一卦配一月) 小過者大坎也(兼畫坎) 中孚者大離也(兼畫離) 坎月離日(說卦文) 積奇爲閏月與日取積分以爲閏 此所謂再閏之卦也 四時之卦 京房謂之十二辟卦 今擬除乾坤二卦 別取再閏 以充十二辟卦 十二辟卦 分爲剛柔 衍之爲五十衍卦(即群分之卦) 此所謂大衍之數五十 此之謂推移也”.

자적 형질(形質)을 갖춘 자로서 서로 화화(和化)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건곤감리(乾坤坎離)를 역(易)의 사정괘(四正卦)라 이른다.

통틀어 말하자면 사시지괘(四時之卦)가 십이(十二)요, 재운지괘(再閏之卦)가 이(二)로서 이를 합하여 14벽괘가 되고 이들이 연지(衍之)하여 오십연괘(五十衍卦)가 되므로 대연지수오십(大衍之數五十)이라 이른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추이(推移)가 이루어진다.

① 일양지괘(一陽之卦)는 다 박(剝)·복(復) 두 괘(卦)의 승강(升降)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일음지괘(一陰之卦)는 다 구(姤)·괘(夬) 두 괘(卦)의 승강(升降)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위에서도 (朱子卦變圖) 지적한 바 있듯이 다산은 일음일양지괘외(一陰一陽之卦外)에 거기에 함축(含蓄)되는 오음오양지괘(五陰五陽之卦)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서 다산은 “오는 것은 일음일이고 괘주가 된다고 하였다(역례에는 적은 것이 괘주가 된다)[言其來者一陽一陰 爲卦主也(易例少者爲卦主)]”라 이른다. 이양이음지괘(二陽二陰之卦)에서 사양사음지괘(四陽四陰之卦)를 취하지 않은 까닭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임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② 이양지괘(二陽之卦)는 다 임(臨)·관(觀)·소과(小過)의 승강(升降)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음지괘(二陰之卦)는 다 둔(遯)·대장(大壯)·중부(中孚)의 승강(升降)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위의 주자괘변도(朱子卦變圖)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여기서 중부(中孚) 소과(小過)를 벽괘(辟卦)로 내세운 다산의 역학상(易學上)의 공적은 지대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다산은 삼양삼음지괘(三陽三陰之卦)를 다름에 있어서도 이를 태래(泰來)·비래(否來)의 둘로 나누었으니 “삼양지괘(三陽之卦)는 다 태괘(泰卦)에서 오고 삼음지괘(三陰之卦)는 다 비괘(否卦)에서 온

다” 일렀다. 그 이유로서는 “태괘(泰卦)로부터 온다 이른 것은 이양(二陽)이 하괘(下卦)에 있고 남은 일양(一陽)이 상괘(上卦)에 있는 자는 모두 태괘(泰卦)에서 온 것이요 비괘(否卦)로부터 온다 이른 것은 이음(二陰)이 하괘(下卦)에 있고 남은 일음(一陰)이 상괘(上卦)에 없는 자는 모두 비괘(否卦)에서 온 것이다.” 이러한 추이법(推移法)의 본지(本旨)는 한유(漢儒) 순상(荀爽)·우번(虞翻) 이래 주자괘변도(朱子卦變圖)에 의하여 역세상승(歷世相承)되어 오기는 하였지만 이를 일음일양(一陰一陽)·이음이양(二陰二陽)·삼음삼양(三陰三陽)으로 정리하고 거기에 중부소과재윤지괘(中孚小過再閏之卦)의 의의를 천명한 것은 다산의 공적이라 이르지 않을 수 없다.

## 2. 물상

「설괘전」에 말하길 “건(乾)은 말이고, 곤(坤)은 소이고, 감(坎)은 돼지이고, 이(離)는 꿩이다”라는 부류가 이것이다. 문왕과 주공이 역사(易詞)를 지어 순서할 때에 그 한 글자 한 문장마다 모두 물상을 취하였다. 「설괘전」을 버리고 『역』을 해석한다는 것은 육률(六律)을 버리고 음악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것을 물상이라고 한다.<sup>3)</sup>

여기서는 소위 십익(十翼)의 하나인 설괘전(說卦傳)의 내용을 절대 시하는 저의가 깔려 있음을 얼른 간취할 수가 있다. 설괘전(說卦傳)의 저작에 관해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거니와 여기서는 자못 다산이 왜 설괘물상(說卦物象)을 중요시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3) 같은 책, 같은 곳(9-6). “說卦傳所云 乾馬坤牛坎豕離雉之類是也 文王周公之撰次易詞 其一字一文 皆取物象 舍說卦而求解易 猶舍六律而求制樂 此之謂物象也”.

다산은 먼저 설괘물상표(說卦物象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괘대 (卦 大)	상 (象)	괘덕 (卦德)	인륜 (人倫)	인품 (人品)	원취 (遠取)	근취 (近取)	물색 (物色)	기물 (器物)	잡물 (雜物)
일건천 (一乾天)	☰	건(健)	부(父)	빈(賓)	마(馬)	수(首)	대적 (大赤)	금옥 (金玉)	빙(氷)
이곤지 (二坤地)	☷	순(順)	모(母)	중인 (衆人)	우(牛)	복(腹)	흑(黑)	부(釜)	포(布)
삼진뢰 (三震雷)	☳	동(動)	장남 (長男)	군자 (君子)	용(龍)	족(足)	창(蒼)	궤(簋)	가(稼)
사손풍 (四巽風)	☴	입(入)	장녀 (長女)	주인 (主人)	계(雞)	고(股)	백(白)	승(繩)	취(臭)
오감수 (五坎水)	☵	함(陷)	중남 (中男)	도(盜)	시(豕)	이(耳)	적(赤)	궁(弓)	혈(血)
육이화 (六離火)	☲	려(麗)	중녀 (中女)	무인 (武人)	치(雉)	목(目)		갑주 (甲冑)	옹(壺)
칠간산 (七艮山)	☶	지(止)	소년 (少男)	소인 (小人)	구(狗)	수(手)		절(節)	문궤 (門闕)
팔택택 (八兌澤)	☱	열(說)	소녀 (少女)	무(巫)	양(羊)	구(口)		병(瓶)	강로 (剛鹵)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소위 설괘물상(說卦物象)의 창안과 소위 「설괘전」의 저술과는 구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다산은 소위 「설괘전」의 서사(序詞)는 공자(孔子)의 저작이라 하더라도 설괘물상(說卦物象) 자체의 창안은 이미 아득한 고대(古代) 포희획괘(庖犧畫卦) 당초부터 있어 왔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선유들은 「설괘전(說卦傳)」을 공자가 지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깊고 면밀하게 탐구한 논의가 아니다. 물상(物象)을 취하지 않았다면 8괘는 원래 만들 필요조차 없다[다만 괘(卦)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설괘(說卦)’라는 것은 포희가 괘를 처음

그릴 때 천문을 우러러 살피고[감(坎)과 이(離)는 달과 해가 된다] 땅의 이치를 굽어 살피며[간(艮)과 태(兌)는 산과 연못이 된다] 멀리 사물에서 취하고[건(乾)과 곤(坤)은 말과 소가 된다] 가까이 사람의 몸에서 취하여[간(艮)과 진(震)은 손과 발이 된다] 그 상(象)을 음미하여 그것을 이름 지으니 이름이 신명과 부합하는 것인데 공자를 기다려야 할 것인가?<sup>4)</sup>

라 한 설괘(說卦)는 「설괘전」이 아니라 설괘물상(說卦物象) 그 자체를 이르고 있음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설괘전」에 있어서의 공자저술(孔子著述)의 한계와 범위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옛날에 성인이 『역』을 지을 때 그옥이 신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시책을 낳았다’는 것으로부터 ‘『역』은 거꾸로 셈한다’는 구절까지 공자의 전문이다. 또 ‘만물이 진(震)에서 나온다’는 것에서 ‘이미 만물을 이룬다’는 구절까지도 공자의 전문이다.<sup>5)</sup>

라 하여 설괘(說卦)에 대한 보충설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물상(物象)의 이름이나 괘덕(卦德)의 분류와 같은 것들은 포희(庖犧) 때에 비롯하여 하우(夏禹) 은상시대(殷商時代)를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설괘전」의 물상의 이름과 괘덕의 구분은 하나라와 상나라 시대에 고치지 않은 것이다[說卦物象之名 卦德之分 夏商之所不改也]”란 이를 두고 이른 말로서 왜냐하면

4) 같은 책, 7쪽(9-15-16). “先儒謂說卦爲孔子所作 非深密體究之論也 不取物象 則八卦元不必作(徒卦無所用) 說卦者 庖犧畫卦之初 仰觀天文(坎離爲月日) 類察地象(艮兌爲山澤) 遠取諸物(乾坤爲馬牛) 近取諸身(艮震爲手足) 玩其象而命之名 以與神明相契者也 而俟孔子哉”.

5) 같은 책, 같은 곳(9-16). “昔者聖人之作易也 幽贊於神明而生蓍 止易逆數也 此孔子傳文也 又自萬物出乎震 止既成萬物也 此孔子傳文也”.

하나라의 『역』은 간괘(艮卦)를 맨 앞에 두고 ‘연산(連山)’이라고 한다[간(艮)은 산이다]. 상나라의 『역』은 곤괘(坤卦)를 맨 앞에 두어 ‘귀장(歸藏)’이라고 하였다[곤(坤)는 감추는 것이다]. 이것으로써 그것이 그러함을 알 수 있다.<sup>6)</sup>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괘(說卦)에서 지적된 설괘방위(說卦方位)의 서차(序次)도 당우(唐虞: 堯舜) 시절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서경』 「요전」의 희씨(羲氏)와 화씨(和氏)의 직분을 언급한 곳에 나오는 동작(東作)과 남와(南訖)와 서성(西成)과 삭역(朔易)은 4방의 괘 방위와 꼭 들어맞는다. 「순전」에 나오는 순수(巡守)하는 차례도 마찬가지이다. 「설괘전」이라는 글이 이전 시대에서부터 진실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離)가 동쪽 감(坎)이 서쪽을 상징한다는 설은 옛 경서에 근거가 없다.<sup>7)</sup>

라 하여 소위 복희팔괘방위설(伏羲八卦方位說: 乾南坤北離東坎西)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고대설괘방위도(古代說卦方位圖)를 다음과 같이 재확인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설괘방위도(說卦方位圖)는 소위 문왕팔괘방위도(文王八卦方位圖)와 동일하지만 이를 송유(宋儒)들처럼 문왕팔괘방위도(文王八卦方位圖)라 지칭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다산의 송역(宋易)에 대한 부정적 미의(微意)가 스며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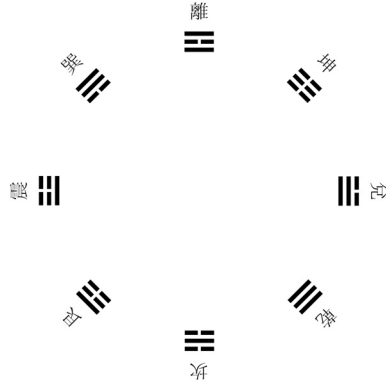
그렇다면 설괘(說卦)에 아무런 정문(正文)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6) 같은 책, 같은 곳. “夏易首艮而名曰連山(艮爲山) 商易首坤而名曰歸藏(坤以藏) 以是知其然也”.

7) 같은 책, 같은 곳. “堯典羲和之職 東作南訖 西成朔易 恰與四方卦之方位相順 舜典巡守之序亦然 可見說卦之書 自前世而固有也 離東坎西之說 於古經無據”.



것인가. 그럴 때는 “역사를 헤아려서 그 범례를 증험한다[稽之易詞  
驗其例]” 하면 역사(易詞)에 그의 좌증(左證)이 있을 것이다.



<說卦方位圖>

방위표(方位表)	오행(五行)	사시(四時)	사덕(四德)
정동진출(正東震出)	목(木)	춘(春)	인(仁)
동남손제(東南巽齊)	목(木)		
정남리상견(正南離相見)	화(火)	하(夏)	의(義)
서남곤치역(西南坤致役)	토(土)		
정서태열언(正西兌說言)	금(金)	추(秋)	예(禮)
서북건전(西北乾戰)	금(金)		
정북감로(正北坎勞)	수(水)	동(冬)	지(智)
동북간성언(東北艮成言)	토(土)		

“『춘추좌전(春秋左傳)』 『국어(國語)』 등에서 복사(卜史)가 괘덕(卦德)을 논한 대목이 있을 것이니 이를 방취(旁取)하면 된다”고도 한다. 그리고 역사(易詞)에서 물상(物象)을 취(取)하되 더러는 겸호이괘(兼互二卦)에 의하여 명명(命名)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 3. 호체

중괘(重卦)가 이미 만들어져서 6체(體)가 서로 연속되면 2효에서 4효까지, 3효에서 5효까지 각각 한 괘를 이루게 된다. 이것을 일러 호체(互體)라고 한다.<sup>8)</sup>

라 한 것을 보면 호체(互體)란 팔괘(八卦)가 중괘(重卦)로 된 후 일상 획(一上畫)을 제외한 알맹이 2·3·4·5획이 상호(相互) 2·3·4 또는 3·4·5를 형성하여 또 다른 괘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호체의 기본형에 지나지 않고 호체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를 예시(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大體) 또는 대호체(大互體)라 이르는 자로서 이는 감(坎)·이(離) 두 괘(卦)만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무릇 중괘(重卦)에서 일지사(一至四) 일지오(一至五) 일지상(一至上)의 경우 강중자(剛中者)는 감(坎)이 되고 허중자(虛中者)는 이(離)가 되는 까닭에 십이벽괘(十二辟卦)를 제외하고는 모든 괘(卦)가 다 이 감이(坎離)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겸호(兼互) 또는 겸체(兼體)라 이르는 자로서 중괘(重卦)를 통관(通貫)하여 일괘(一卦)를 마련한 후 그 위(位)를 천인지(天入地)로 삼분(三分)하여 또 다른 팔괘(八卦)를 만든 것이니 육획(六畫)의 중괘(重卦)가 또다시 삼획(三畫)의 팔괘(八卦)를 이룬 셈이다. 그러므로

6획으로 나누어서 3등급으로 만들어 삼재(三才)의 자리에 해당 시키고(하늘과 사람과 땅이다) 삼재(三才)를 겸하여 둘로 하면 건(乾)과 곤(坤)과 임(臨)과 둔(遯)과 소과(小過)와 중부(中孚)와 관

8) 같은 책, 2쪽(9-6). “重卦既作 六體相連 自二至四 自三至五 各成一卦 此之謂互體也”.

(觀)과 대장(大壯) 등의 8괘도 엄연히 또한 3획으로 이루어진 8괘가 된다.<sup>9)</sup>

라 한 것이다.

도호(倒互) 또는 도체(倒體)도 호체(互體)의 하나로서 불취반대(不取反對)하는 팔괘(八卦) 중(中) 건곤이괘(乾坤二卦)를 제외한 감(坎)·이(離)·대과(大過)·이(頤)·소과(小過)·중부(中孚) 등 육괘(六卦)가 이에 해당한다. 그 도호표(倒互表)를 예시(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 도호표(倒互表) 지육괘(只六卦)

䷀ 건(乾)	무반대(無反對) 역무호체(亦無互體)
䷁ 곤(坤)	무반대(無反對) 역무자체(亦無資體)
䷜ 감(坎)	[이삼사(二三四)]도간(倒艮) [삼사오(三四五)]도진(倒震)
䷝ 이(離)	[이삼사(二三四)]도태(倒兌) [삼사오(三四五)]도손(倒巽)
䷛ 대과(大過)	하전태(下顛兌) 상전손(上顛巽)
䷚ 이(頤)	하전간(下顛艮) 상전진(上顛震)
䷽ 소과(小過)	하전진(下顛震) 상전간(上顛艮)
䷼ 중부(中孚)	하전손(下顛巽) 상전태(上顛兌)

이러한 도체(倒體)의 개념은 혼구지상(婚媾之象)을 취(取)하게 될 때 사용한다. 이는 반합지상(辟合之象)에서 “혼구의 괘에서 그 소남(少南)과 소녀(少女)는 하나는 뒤집어지고 하나는 바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凡婚媾之卦 其少男少女 多一倒而一正]”라 했듯이 본괘(本卦)의 상(象)에서 취(取)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도체(倒體)에서 도전(倒顛) 반대(反對)의 상(象)이 나타나게 된다.

9) 같은 책, 10쪽(9-22). “以六畫分之爲三級 以當三才之位(天人地) 兼三才而兩之 則乾坤臨遯小過中孚 觀大壯等八卦 儼亦三畫之八卦也”.

더욱이 다산은 여기서 새롭게 복체(伏體)의 상(象)을 정립하였다.

“복체(伏體)란 서법에서 수(數)를 주로 하여 그 위(位)에 의거하여 그 수(數)를 고찰하는 것이다. 감리(坎離)의 형체가 비록 그 바깥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감리(坎離)의 수(數)는 그 가운데에 얹드려 있다 [伏體者 筮主於數 據其位而考其數 坎離之形 雖不現於其外 坎離之數實伏其中]”라 하여 형체(形體)로가 아니라 숫자(數字)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역』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는 괘덕(卦德)이고 둘째는 괘수(卦數)이다[1에서 6까지이다]. 괘덕(卦德)은 건(乾)과 곤(坤)이 나누어 준 것이다. 괘수(卦數)는 감(坎)과 이(離)가 점거하고 있는 것이다. 64괘에서 강획(剛畫)은 모두 건(乾)이고 유획(柔畫)은 모두 곤(坤)이니 64괘는 하나도 건곤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 없다. 64괘에서 하괘(下卦)는 모두 이(離)이고[1과 2와 3은 기수와 우수와 기수이다] 상괘(上卦)는 모두 감(坎)이니[4와 5와 6은 우수와 기수와 우수이다] 64괘는 그 어느 하나 감(坎)과 이(離)가 관할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와 같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은 역의 네 기둥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괘에 분포되어 상(象)과 수(數)를 주관함이 이와 같은 것이다.<sup>10)</sup>

마지막으로 호체(互體)에는 양호작괘법(兩互作卦法)이 있다. 이는 상하양호(上下兩互)를 합하여 일괘(一卦)를 작성(作成)하는 자로서 그의 작법이 공교로운 것 같으나 융통성 있는 서법(卜筮)의 운용을 위하여 성인(聖人)이 창안한 자라 이르지 않을 수 없다.

10) 같은 책, 11쪽(9-23). “易有二觀 一曰卦德 二曰卦數 一卦德者 乾坤之所分賦也 卦數者 坎離之所占據也 六十四卦 其剛畫皆乾 其柔畫皆坤 則六十四卦 無一不固於乾坤之範圍也 六十四卦 其下卦皆離(一二三奇偶) 其上卦皆坎(四五六偶奇) 則六十四卦 無一不函於坎離之管轄也 若是者何也 天地水火 易之四柱也 故其分布諸卦 而主其象數如此”.

양호작괘(兩互作卦)는 지유십육(只有十六)으로서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양호작괘표(兩互作卦表)

䷀ 건(乾)	건(乾) 대과(大過) 구(姤) 쾌지양호(夬之兩互)
䷁ 곤(坤)	곤(坤) 복(復) 박지양호(剝之兩互)
䷛ 대과(大過)	이(離) 소과(小過) 풍(豐) 여지양호(旅之兩互)
䷚ 이(頤)	감(坎) 중부(中孚) 환(渙) 절지양호(節之兩互)
䷄ 복(復)	몽(蒙) 사(師) 임(臨) 손지양호(損之兩互)
䷖ 박(剝)	준(屯) 비(比) 관(觀) 익지양호(益之兩互)
䷌ 구(姤)	동인(同人) 둔(遯) 혁(革) 함지양호(咸之兩互)
䷪ 쾌(夬)	대유(大有) 대장(大壯) 정(鼎) 항지양호(恒之兩互)
䷎ 해(解)	겸(謙) 간(艮) 명이(明夷) 비지양호(賁之兩互)
䷦ 건(蹇)	예(豫) 진(震) 진(晉) 서합지양호(噬嗑之兩互)
䷤ 가인(家人)	송(訟) 이(履) 곤(困) 태지양호(兌之兩互)
䷌ 규(睽)	수(需) 소축(小畜) 정(井) 손지양호(巽之兩互)
䷵ 귀매(歸妹)	태(泰) 고(蠱) 대축(大畜) 승지양호(升之兩互)
䷴ 점(漸)	비(否) 수(隨) 무망(無妄) 취지양호(萃之兩互)
䷾ 기제(既濟)	해(解) 규(睽) 귀매(歸妹) 미제지양호(未濟之兩互)
䷾ 미제(未濟)	건(蹇) 가인(家人) 점(漸) 기제지양호(既濟之兩互)

#### 4. 효변

건괘의 초구는 건지구(乾之姤)가 되고 곤괘는 초육은 곤지복(坤之復)이 된다. 하나의 획이 이미 움직이면 전괘(全卦)가 마침내 변하니 이것을 효변(爻變)이라고 한다.<sup>11)</sup>

라 했듯이 효변(爻變)이란 획의 변상(變象)으로서 그 변화(變化)는 전

11) 같은 책, 2쪽(9-6). “乾初九者 乾之姤也 坤初六者 坤之復也 一畫既動 全卦遂變 此之謂爻變也”.

괘(卦)에 영향을 미치는 자이다. 그러므로 효변에 따르면 384효는 384괘가 되는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효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다. 변하지 않으면 효가 아니다[爻者變 不變 非爻也]”라 이를 수밖에 없다.

괘(卦)의 1, 2, 3, 4를 획(畫)이라고 하고 그 1, 2, 3, 4가 변한 것을 효(爻)라고 한다. 효라는 것은 교(交)로써 음양이 교역(交易)함을 말한다.<sup>12)</sup>

란 이를 두고 이른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변자(變者)로서의 9·6이라는 숫자(數字)의 의미는 어떠한가.

9라는 것은 노양이고 6이라는 것은 노음이다. 노는 변하지 않음이 없으니 9와 6이란 이미 변했다는 이름이다. 불변하면 9와 6이 아니다.<sup>13)</sup>

9·6이란 숫자(數字)는 서수적(序數的)인 자가 아니라 기변지명(既變之名)으로서의 상징적인 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서법(筮法)에서 얻어진다.

서법에 세 번 걸어서 모두 천수(天數: 1, 3, 5, 7, 9)를 얻으면 그 수는 9가 된다[삼천이기 때문이다]. 세 번 걸어서 모두 지수(地數: 2, 4, 6, 8, 10)를 얻으면 그 수는 6이 된다[양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노가 되는 까닭이다.<sup>14)</sup>

12) 같은 책, 12쪽(9-25). “卦畫之一二三四 謂之畫(亦位也) 其一二三四之變者 謂之爻 爻者交也 謂鄧宮陽交易也”.

13) 같은 책, 같은 곳. “九者老陽也 六者老陰也 老無不變則九六者 既變之名 不變非九六也”.

14) 같은 책, 같은 곳(9-26). “筮法 三掛皆得天數(一三五七九) 則其數爲九(參天故) 三掛皆得地數(二四六八十) 則其數爲六(兩地故) 此其所以爲老也”.

그렇다면 왜 노(老)는 변해야만 하는가.

천지 사이에는 잠시라도 음이 없는 경우가 없고 또한 잠시라도 양이 없는 경우가 없다. 그러므로 순양(純陽)이면 곧 음으로 변하고 순음(純陰)이면 곧 양으로 변한다. 초구(初九)라는 것은 초획(初畫)이 움직여 음이 되고, 초육(初六)이라는 것은 초획(初畫)이 움직여 양이 된다는 말이다.<sup>15)</sup>

이것으로 말미암아 보면 ‘구(九)’라고 말하고 ‘육(六)’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변괘(變卦)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육효(六爻)의 움직임은 각각 하나의 괘(卦)를 만드니 384효라는 것은 384괘이다.<sup>16)</sup>

이처럼 깊은 뜻을 간직한 효변설이 자한(自漢) 이래 사승의 길이 끊어짐으로써 역리는 급기야 회맹(晦盲)을 면치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역리사법은 다산역의 척도라 이를 수 있다면 효변설이 야말로 역리사법의 척도라 이르지 않을 수 없다.

## 5. 신삼역론(新三易論)

역(易)의 한대삼역설(漢代三易說)에 대하여서는 이미 위에서 밝힌 바 있거니와 다산은 이것과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삼역론(三易論)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역리사법 중 그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발견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5) 같은 책, 같은 곳. “天地之間 不可一刻而無陰 亦不可一刻而無陽 故純陽則直變爲陰 純陰則直變爲陽 其曰初九者 謂初畫動而爲陰也 其曰初六者 謂初畫動而爲陽也”.

16) 같은 책, 12~13쪽(9~26~27). “由是觀之 日九日六之直指變卦審矣 六爻之動 各成一卦 三百八十四爻者 三百八十四卦也”.

추이(推移)의 바른 뜻 외에도 오히려 삼역(三易)이 있으니 첫째, 교역(交易)이요, 둘째, 변역(變易)이요, 셋째, 반역(反易)이다.<sup>17)</sup>

이라 하여 효(交)·변(變)·반(反) 삼역론(三易論)을 제시한 후 이어서

태(泰)는 사귀어 비(否)가 되고 익(益)이 사귀어 항(恒)이 된다. 이것을 교역(交易)이라고 한다. 6위가 모두 변하면 그 덕이 상반됨으로 준(屯)이 변하여 정(鼎)이 되고 몽(蒙)이 변하여 혁(革)이 된다. 이것을 변역(變易)이라고 한다. 괘체(卦體)가 전도되던 또 하나의 괘가 나타나서 수(需)가 반하여訟(訟)이 되고 사(師)가 반하여 비(比)가 된다. 이것을 반역(反易)이라 한다.<sup>18)</sup>

라 하였다. 다산은 삼역론(三易論)을 취(取)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포희씨가 괘를 그릴 처음에는 단지 교역만이 있었을 것이니 다른 역이 있었겠는가! 교환하여 바꾸어 중괘(重卦)가 이미 이루어진 후 성인이 그것을 기뻐하며 완미하여 추이(推移)의 오묘한 뜻을 해득하였다. 6위(位)를 두루 흘러 다니며 바람과 번개로 두드리고 일으키는 오묘함은 비록 추이(推移)만 못하지만 그 왕래와 승강에는 충분히 취할 만한 점이 있다. 그 역사(易詞)에서 12벽괘는 강직하고 변화가 적어 만드시 교역의 뜻을 취해 역사를 지었다. 예를 들면 태괘(泰卦)의 ‘소왕대래(小往大來)’나 왜괘(夬卦)의 ‘양우왕정(揚于王廷)’이 그것이다. 또 박괘(剝卦) 육오(六五)의 ‘관어(貫魚)’나 대장괘(大壯卦) 육오(六五)의 ‘상양(喪羊)’은 모두 교역의 상이다. 그러니 교역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는가?<sup>19)</sup>

17) 『周易四箋』 卷4, II-40, 17쪽(9-303). “推移正義之外 尚有三易 一曰交易 二曰變易 三曰反易”.

18) 같은 책, 같은 곳. “泰交爲否 益交爲恒 此之謂交易也 六位皆變 厥德相反 屯變爲鼎 蒙變爲革 此之謂變易也 卦體顛倒 又見一卦 需反爲訟 師反爲比 此之謂反易也”.

19) 같은 책, 같은 곳(9-304). “庖羲畫卦之初 只有交易 有他易哉 交而易之 重卦既成而後 聖人說而玩之 得推移之妙義也 其周流六虛 風霆鼓發之妙 雖不如推移 而其往來升降有足取者 其在易詞 十二辟卦之



라 한 후 반역(反易)·변역(變易)에 대하여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역』에서 괘(卦)를 엮는 순서는 전적으로 반역(反易)을 쓴다. 반대가 없는 것은 곧 변역(變易)으로써 반대를 만든다. 건(乾)과 곤(坤)과 감(坎)과 이(離) 등의 8괘가 이것이다. 그 역사(易詞)에 있어 변역(變易)의 의미가 때에 따라 있는데, 임괘(臨卦)가 변역하여 둔괘(遯卦)가 되니 ‘팔월유흉(八月有凶)’이라고 하고, 구괘(姤卦)가 변역하여 복괘(復卦)가 되니 ‘칠일래복(七日來復)’이라고 하고, 사괘(師卦)가 변역하여 동인괘(同人卦)가 되니 ‘대사(大師)’라고 한 것은 또한 이 변역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sup>20)</sup>

이는 십이벽괘(十二辟卦) 재운지괘(再閏之卦)에 의한 추이(推移)나 양호(兩互)·겸호(兼互)·도호(倒互)·전호(顛互) 등의 호체(互體) 외(外)에 따로 교(交)·변(變)·반(反)의 삼역론(三易論)의 묘의를 천명한 자라 이르지 않을 수 없다. 이도 또한 다산역의 일단면(一斷面)임에 틀림이 없다.

---

强直寡變者 必取交易之義 以撰其繇 若泰之云小往大來 夬之云揚于王庭是也 又如剝六五之貫魚 大壯六五之喪羊 皆交易之象也 交易而可少載”.

20) 같은 책, 같은 곳, “周易編卦之序 全用反易 其无反對者 乃以變易作對 乾坤坎離等八卦是也 其在易詞變易之義 亦時有之 臨變爲遯 則八月有凶 姤變爲復 則七日來復 師變同人 則謂之大師 亦所以明此義也”.

## 제2절 독역요지(讀易要旨)

여기 독역(讀易)의 역(易)은 한송이래(漢宋以來) 편견(偏見)에 묻혀 있는 역(易)이 아니라 고성(古聖)에 의하여 창안된 고역(古易)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독법(讀法)이라 함은 고역(古易)을 이해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앞 절에서 일별(一瞥)한 역리사법(易理四法)은 64괘의 역수학적(曆數學的) 본질을 헤아리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다산이 제시한 독역요지(讀易要旨)는 단상사(象象詞)를 중심으로 한 64괘의 계사(繫詞)를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독역(讀易)의 역(易)이란 고역(古易)의 단상사(象象詞)를 의미함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다산은 왜 이 점에 대하여 이처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십팔(十八)항에 걸친 요지를 상술하기에 이르렀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易詞)의 난해성의 신비화를 방지함으로써 역사(易詞)의 본연의 의의를 되찾기 위함이었음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본

독역요지(讀易要旨)는 고역(古易)의 주사(繇詞)를 있는 그대로 알기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한 자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차례대로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추상(抽象): 『역』은 그것으로 점을 치는 것이다. 한 괘(卦)와 한 효(爻)에서는 각각 만사만물의 상이 갖추어져 있고[변하지 않는 것을 괘(卦)라고 하고 변하는 것을 효(爻)라고 한다] 천하의 만사만물에 대해 점을 치면 모두 이 괘(卦)나 이 효(爻)를 만날 수 있는 이치가 있다. 그런데 문왕(文王)과周公(周公)은 만상(萬象) 가운데 하나의 상(象)을 뽑아 그것으로 주사(繇詞)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괘(卦)나 효(爻)에는 만사만물에 응할 수 있는 재질이 있으나 그 주사는 만사만물에 두루 해당될 수가 없는 것이다.<sup>21)</sup>

이는 괘효(卦爻)는 만상(萬象)을 갖추었지만 주사(繇詞)는 그중의 일상(一象)만 논한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건초구(乾初九)의 잠용물용(潛龍勿用)은 그것으로 군자의 출처진퇴(出處進退)의 길흉(吉凶)을 점친다면 모르거니와 그것으로 혼인(婚姻), 제사(祭祀), 건도(建都), 천도(遷都) 등을 점친다면 이 주사는 준거로 삼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 ② 해사(該事): 성인이 이미 하나의 상(象)을 뽑아서 주사(繇詞)를 만들고 또 학자들이 그 한 상에만 집착하여 변통을 알지 못할까 두려워한 까닭에 혹 한 주사(繇詞) 안에 몇 가지의 일을 섞어 논하기도 했는데 그 사실상 그 괘와 그 효에 논할 수 있는 상은 그러한 몇 가지 일에 그치지 않는다.<sup>22)</sup>

21) 『周易四箋』 卷1, II ~ 37, 13~14쪽(9~28~29). “抽象·易所以筮也 一卦一爻 各具萬事萬物之象(不變曰卦 變曰爻) 筮天下之萬事萬物 皆有遇此卦此爻之理 文王周公 於萬象之中 抽其一象 以爲繇詞 故以卦以爻則有應萬事萬物之才 而其繇詞則不能該萬事萬物”.

22) 같은 책, 14쪽(9~29). “該事·聖人既抽一象而爲詞 又恐學者執此一象 不知變通 故或於一繇之內 雜

이는 때로는 한 주사(繇詞) 안에 잡론수사(雜論數事)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추상(抽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수상(數象)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준육이(屯六二)에서 승마반여(乘馬班如)는 여난(女難)의 점(占)이요, 비구혼구(匪寇婚媾)는 인국비환(隣國備患)의 점(占)이요, 십년내자(十年乃字)는 부인산육(婦人產育)의 점(占)으로서 각기 독립된 문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서로 연속이 되지 않는다. 이들을 역사서(歷史書)처럼 읽는다면 뜻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 ③ 존질(存質): 성인이 이미 몇 가지 일을 섞어서 논하고 또 학자들이 이 몇 가지 상에만 집착하여 변통하지 못할까 걱정하였다. 그래서 혹 괘사(卦詞)에서 단지 괘덕(卦德)을 드러내어 그 바탕만을 보존시키고 사물을 논하지 않거나 혹 효사(爻詞)에서 단지 ‘휴구(休咎)’를 드러내어 그 점(占)만을 보존시키고 사물을 논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어째서인가? 하나의 일을 나란히 하면서도 논하지 않은 것은 만사(萬事)에 응하면서도 막히지 않기 때문이다.<sup>23)</sup>

이는 사물을 논하지 않고 괘덕(卦德)과 휴구(休咎)만을 나타낸 것은 이로써 만사(萬事)에 응하더라도 구애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가령 건(乾)의 원형이정(元亨利貞)이라거나 대유(大有)의 원형(元亨)이라거나 수(隨)의 원형이정(元亨利貞)이라거나 둔(遯)의 형소리정(亨小利貞)이라거나 대장(大壯)의 이정(利貞)이라거나 정(鼎)의 원길형(元吉亨)이라거나 태(兌)의 원리정(亨利貞) 따위가 곧 그것이다. 효사(爻詞)에 있어서는 항구이(恒九二)의 회망(悔亡)이라거나 대장구이

論數事 其實此卦此爻可論之象 不止此數事”.

23) 같은 책, 같은 곳. “存質·聖人既雜論數事 又恐學者執此數象 不知變通 故或於卦詞 只著卦德 以存其質 而不論事物 或於爻詞 只著休咎 以存其占 而不論事物 若是者何也 竝一事而不論所以應萬事而無礙也”.

(大壯九二)의 정길(貞吉)이라거나 해초육(解初六)의 무구(无咎)라거나  
 취구이(萃九二)의 대길무구(大吉无咎) 따위가 곧 그것이다.

- ④ 고명(顧名): 괘명(卦名)을 짓는 데에는 본래 일정한 원칙이 없으니, 팔괘(八卦)의 본덕(本德)과 음양소장(陰陽消長)의 추세(趨勢)와 추이왕래(推移往來)의 실정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은 그 주사(繇詞)에 비록 그러한 뜻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점(筮占)의 결과일 경우에는 반드시 명명(命名)하게 된 본상(本象)을 살펴야 할 것이요, 단지 사물의 모습을 취하거나 괘(卦)에서 바로 상(象)을 뽑아 우연히 명명(命名)하게 된 것에 이르러서는 [귀매괘(歸妹卦)의 경우다] 주사에 비록 그러한 뜻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든 서점(筮占)의 일반적인 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sup>24)</sup>

이는 괘명(卦名)이란 본래 정칙이 없으므로 괘명(卦名)이 바로 괘덕(卦德)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괘(卦)가 본래 갖추고 있는 본덕(本德)으로 괘명(卦名)을 얻은 자는 팔괘(八卦)의 중괘(重卦)와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음양소장(陰陽消長)으로 괘명(卦名)을 얻은 자는 복(復)함을 바로 복(復)이라 이르거나 대장(大壯)함을 바로 대장(大壯)이라 이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추이(推移)함으로써 괘명(卦名)을 얻은 자는 송괘(訟卦)의 이름이 중부(中孚)에 근본 하였다거나 취괘(萃卦)의 이름이 소과(小過)에 근본 하였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곧장 물형(物形)을 취하여 괘명(卦名)을 얻은 자는 정(井)이니 정(鼎)이니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바로 괘(卦)에서 추상(抽

24) 같은 책, 같은 곳(9~30). “顧名·卦之命名 本無定則 其以八卦之本德及陰陽消長之勢 推移往來之情 而名之者 其繇詞雖無此義 以之爲筮 須觀命名之本象 至於直取物形 及即卦抽象而偶以命名者(如歸妹) 其繇詞雖能用此義 不可爲諸筮之通象也”.

象)하여 우연히 괘명(卦名)을 얻은 자는 가인(家人)이니 귀매(歸妹)니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형(兄)으로서 매(妹)에게 시집가는 일이 뇌택괘(雷澤卦)에 있지만 그것은 만상(萬象) 중 일상(一象)에 불과하다. 육효(六爻)의 효사(爻詞)는 비록 다 귀매(歸妹)를 말하고 있지만 반드시 가매(嫁妹)만이 본상(本象)이 되고 지사(地事)는 객(客)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婚姻)을 점(占)치는 자는 마땅히 이 효사(爻詞)를 사용해야 하겠지만 만일 제사(祭祀)나 전벌(戰伐)을 점(占)칠 때 이 괘(卦)를 만난다면 이 효사로 점쳐서는 안 될 것이다.

- ⑤ 파성(播成): 괘가 변해 효가 되면 그 물의 상과 일의 변동은 본괘와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그 성기(性氣)는 모두 본괘를 위주로 한다. 본괘의 성격을 버리고 지괘(之卦: 변괘이다)의 물상을 전용하면 크게 어그러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효사에서 반드시 본괘의 성기를 살펴 그 뿌리를 돌아보게 하였다.<sup>25)</sup>

이는 변괘(變卦)로서의 지괘(之卦)의 물상(物象)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괘(本卦)의 성기(性氣)를 도외시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가령 본괘(本卦)가 승괘(升卦)라면 지괘(之卦)이나 지고(之蠱: 升五六)나 다 승상(升上)의 상(象)을 취하였다.

[정괘(井卦)는 태괘(泰卦)에서 나왔는데 초효가 5효로 올라간 것이다.] 비록 아래로 내려온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돌아보지 않는다[정괘(井卦)는 또한 태괘(泰卦)에서 왔는데 유(柔)가 5효로부터 내려온 것이지만 이것은 취하지 않는다].<sup>26)</sup>

25) 같은 책, 14~15쪽(9~30~31). “播成·卦變爲爻則其物象事附 與本卦大異也 然其性氣皆主本卦 若舍本卦之性氣 而專用之卦之物象(之卦者 變卦也) 則大悖也 故聖人於爻詞 必爲之播本卦之性氣 俾顧其本”.

26) 같은 책, 15쪽(9~31). “(井自泰來一升五) 雖有卑降者 不顧焉 (井亦自泰來 柔自五降 而不取焉)”.

본괘(本卦)가 복(復)이라면 지진(之震)·지촌(之屯)은 다 내복(來復)하는 상(象)을 취한다. 비록 출정(出征)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것은 불문에 부친다. 그러므로 수(需)의 육효(六爻)는 모조리 수대(需待)하는 뜻을 취하고 비(賁)의 육효(六爻)도 모조리 비문(賁文)하는 이치를 머금었으니 다 본괘(本卦)의 성기(性氣)를 심어 놓고 그 괘덕(卦德)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다.

- ⑥ 유동(留動): 1획이 이미 움직이면 전체의 괘가 마침내 변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효사를 찬(撰)할 때 그 승강(升降)과 왕래(往來)의 정은 모두 변한 상(象)에서 취하였다. 그러나 괘의 주가 되는 효는 그 움직이는 것을 머물게 하고서 그 변한 것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추이(推移)의 본래 상(象)을 사용하여 이 획이 괘주(卦主)가 됨을 밝혔다. 이것은 또한 하나의 사례인 것이다.<sup>27)</sup>

이는 효사(爻詞)는 원칙적(原則的)으로 변상(變象)에 의하지만 괘주(卦主)의 효(爻)는 추이이전(推移以前)의 본상(本象)에 의하여 괘주(卦主)임을 밝히는 경우가 있다. 가령 사구이(師九二)의 왕삼석명(王三錫命)이라거나 비구오(比九五)의 왕용삼구(王用三驅)와 같은 것들은 모두 소위 유동(留動)하여 괘주(卦主)임을 밝힌 예다. 또 겸구삼(謙九三)의 유종(有終)이라거나 예구사(豫九四)의 추예(由豫)와 같은 것들은 모두 효변(爻變)의 상(象)을 취하지 않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고래(古來)로부터 있었던 본연(本然)의 서법(筮法)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주공(周公)의 찬사(撰詞)가 이와 같은 것이다. 대개 서가(筮家)로서 이 괘(卦)를 만났다가거나 또 이 효(爻)를 만났다면神明(神明)의 지시도 정녕

27) 같은 책, 같은 곳. “留動·一畫既動 全卦遂變 故聖人之撰爻詞 其升降往來之情 皆取變象 然於卦主之爻 又爲之留其所動 不逐其變 而專用推移之本象 以明此畫之爲卦主 此又一例也”.

여기에 있을 것이므로 이 획으로써 점(占)을 치되 다시금 변상(變象)을 상고(詳考)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⑦ 결본(缺本): 성인이 이미 성기(性氣)를 뿌려 놓고서는 또 학자가 오로지 성기만을 집착하여 변통을 알지 못할까 두려웠다. 그러므로 혹 육효(六爻) 가운데 한두 개의 효사에는 그 성기를 빠뜨린 채 거론하지 않기도 했다. 그 사실상 그 한두 개의 효에도 본괘(本卦)의 성기가 없었던 적은 없다.<sup>28)</sup>

이는 오로지 효변(卦爻)의 성기(性氣)만을 고집하면 변통할 줄을 모를까 하여 육효(六爻) 중(中) 일이효(一二爻)에서 그 본성(本性)을 거론하지 않고 변상(變象)만을 논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본래의 성기(性氣)가 결여(缺如)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 준육사(屯六四)는 준(屯)을 말하지 않았고 몽육삼(蒙六三)도 몽(蒙)을 말하지 않았고 수상육(需上六)도 수(需)를 말하지 않았고 송육삼(訟六三)도 송(訟)을 말하지 않은 따위가 곧 그것이다.

- ⑧ 용拙(用拙): 역사(易詞)의 물상(物象)은 교묘하게 합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때에 따라 물상을 취함이 갑갑하고 물상을 활용함이 군색하여 마치 졸렬하고 꺾끄럽기만 할 뿐 그 공능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커다란 숨씨가 갇들어 있는 곳이다. 복서가(卜筮家)는 수많은 일들을 잡다하게 점을 쳐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때마다 만상(萬象)과 교묘하게 합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물상을 취하는 방법이 여실히 갖추어져 어떠한 방법도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게 한 뒤에 비로소 백성들의 쓰임에 앞설 수가 있을 것이다. 그

28) 같은 책, 같은 곳(9-31~32). “缺本·聖人既爲之播性 又恐學者專執性氣 不知變通 故或於六爻之內 其一二爻之詞 缺其本性 而不必舉論 其實此一二爻 未嘗無本性氣也”.



러므로 성인은 혹 평탄하고도 교묘히 합치되는 물상을 제쳐 두고 별도로 졸렬한 상을 구하여 역사(易詞)를 찬술하기도 하였는데 모두 짐치는 예를 보이기 위한 것이다.<sup>29)</sup>

이는 비록 역사(易詞)나 물상(物象)은 만상(萬象)과 교합(巧合)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마치 졸습(拙澀)하여 과능(寡能)한 자를 골라서 사용한 것은 대교(大巧)가 거기에 깃들여 있으니 그것도 서례(筮例)의 하나인 것이다. 준(屯)의 육이(六二)는 구차하게 감남(坎男)이 태여(兌女)와 배합하여 이를 혼구(婚媾)라 일렀고 비(賁)의 구사(六四)는 구차하게 옛 진(震)을 취하여 지금의 이(離)와 배합하여 이를 혼구(婚媾)라 일렀으니 이는 곧 용拙(用拙)한 사례요 이(履)의 육삼(六三)은 가인(家人)으로써 양족(兩足)을 갖게 되었고 동인(同人)의 단사(彖詞)는 강(剛)으로써택상(澤上)에 올라 이섭대천(利涉大川)하게 되었으니 이도 또한 용拙(用拙)의 사례인 것이다.

- ⑨ 쌍소(雙溯): 괘(卦)에 두 개의 모괘(母卦)가 있는 경우 그 괘사(卦詞)는 반드시 그 근본을 양쪽으로 소급하여 그 상을 두 개로 드러낸다. 그 효사(爻詞)도 또한 지괘(之卦)를 잡고서 지괘(之卦)의 근본을 양쪽으로 소급하여 그것들을 긴밀하게 결합하여 사(詞)를 만든다. 이와 같은 것은 역(易)의 도(道)가 추이(推移)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30)</sup>

이는 모괘(母卦)가 둘일 때는 다 같이 두 모괘(母卦)로부터 상(象)을

29) 같은 책, 같은 곳(9-32). “用拙·易詞物象 無不巧合 然有時乎 取象狹隘 用物窘乏 有若拙澀而寡能者 此正大巧之所寓也 蓋以筮家雜筮萬事 安得每卦巧合萬象 必其取象之法 委曲周備 無法不具而後 方可以前民用也 故聖人或舍其平坦巧合之物 而別求拙劣之象 用撰彖詞 皆所以示筮例也”.

30) 같은 책, 15~16쪽(9-32~33). “雙溯·卦有二母者 其卦詞必雙溯其本 而兩著其象 其爻詞則又執之卦 雙溯其本 而鑄合爲詞 若是者 明易之爲道 不外乎推移也”.

연도록 하는 것이니 이는 역(易)이란 추이(推移)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마치 이(頤)의 괘사(卦詞)에서 관이(觀頤)라 한 것은 관(觀)으로부터 온 상(象)이요, 자구구실(自求口實)이라 한 것은 임(臨)으로부터 온 상(象)이다. 또 건(乾)의 소축(小畜)에서 흑약재연(或躍在淵)이라 하였는데 약(躍)은 구(姤)에서 온 것이요 연(淵)은 패(夬)에서 온 것이다. 곤(坤)의 예(豫)에서 괘낭무구(括囊无咎)라 하였는데 낭(囊)은 복(復)에서 온 것이요 괘(括)는 박(剝)에서 온 것이다.

- ⑩ 첩현(疊現): 이 괘와 저 괘가 그 물상(物象)이 서로 같은 경우, 그 주사(繇詞)는 간혹 앞의 글을 중첩해서 사용하여 그 상(象)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경우 이러한 물상을 갖춘 여러 괘(卦)와 효(爻)는 그 점(占)이 같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sup>31)</sup>

이는 다른 두 괘(卦)의 물상(物象)이 상동(相同)한 경우가 있으니 이는 그 점(占)도 동일(同一)함을 의미한다. 마치 소축(小畜)의 단사(彖詞)나 소과(小過)의 육오(六五)는 모두 밀운불우(密雲不雨)라 하였는데 이 두 괘(卦)는 다 손(巽)도 되고 태(兌)도 되어 감우(坎雨)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축(小畜)의 상구(上九)나 귀매(歸妹)의 육오(六五)나 중부(中孚)의 육사(六四)는 모두 월기망(月幾望)이라 하였는데 이 삼획(三卦)은 모두 감월(坎月)의 위치에서 태상(兌上)이 결합하여 딱 차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건원(乾圓)에 이르기 직전이기 때문이다.

- ⑪ 비덕(比德): 성인(聖人)은 파성(播性)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물을 아울러 지칭하였다. 그러나 이미 사물을 지칭하였다면 어쩔

31) 같은 책, 같은 곳(9-33). “疊現·此卦彼卦 其物象相同者 其繇詞或疊用前文 以現其象 若是者 明諸卦諸爻 凡具此物象者 其占可同也”.

수 없이 하나의 일에 치우치고 엇매여 여러 정황을 통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혹 육효(六爻)를 쭉 늘어놓아 이 효와 저 효를 비교하고 두 글자로 된 효사를 지어 괘덕(卦德)을 드러낼 뿐 사물을 논하지 않는 것들도 있으니 이와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점을 쳤을 때 모두 이 두 글자로써 그 대체(大體)를 점칠 수 있다.<sup>32)</sup>

이는 모든 사물의 상을 다 지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물을 논하지 않고 괘덕(卦德)만을 이자(二字)로 표현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치 임(臨)에서 함임(咸臨)·감임(甘臨)·지임(至臨)·지임(知臨)·돈임(敦臨)이라 하였고 태(兌)에서 화태(和兌)·부태(孚兌)·내태(來兌)·상태(商兌)·인태(引兌)라 한 따위가 그것이다. 또 복괘(復卦)와 같은 경우는 육효(六爻)는 대체로 비덕(比德)하였지만 상육(上六)만은 겸지사물(兼指事物)하였으니 이는 또한 비덕(比德)을 괘사(卦詞)로 삼기는 하였으나 만사만물(萬事萬物)의 상(象)도 없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 ⑫ 영물(詠物): 역사(易詞)의 글에는 상(象)도 있고 점(占)도 있다. 점(占)은 (어떤 하나의) 일을 지칭하기 때문에 혼인에 관한 점이 제사에 통용될 수 없으나 상(象)은 은미함을 표현하기 때문에 초목조수의 움직임과 수레와 기물과 의복의 변화를 모두 만사에 통용되는 상(象)으로 삼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물을 읊어 일을 비유하는 것이 「국풍」의 시에 비(比)와 흥(興)이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말과 소와 양과 돼지처럼 인사와 관련된 것들은 혹 통하는 상(象)이 되기도 하고 혹은 일을 가리키기도 하니 이러한 것에는 또한 분별이 있어야 할 것이다.<sup>33)</sup>

32) 같은 책, 같은 곳. “比德·聖人於辭辭之中 兼指事物 既指事物 則不得不偏係一事 而有不能統馭縹緲 故或有排比六爻 彼此讎校 爲二字詞 以顯卦德 而不論事物者 若是者 諸事之筮 皆可以此二字 占其大體也”.

이는 점사(占詞)의 표현방식(表現方法)에 있어서 풍시(風詩)의 영물유사(詠物喻事)의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마치 비룡재천(飛龍在天)이니 명학재음(鳴鶴在陰)이니 고양생제(枯楊生梯)니 계우포상(繫于苞桑)이니 하는 따위는 다 흥체(興體)인 것이다. 마치 저양촉번(羝羊觸藩)이니 분시지아(豮豕之牙)니 하는 따위는 그것이 바로 두루 통하는 상(象)이요 상양우이(喪羊于易)이니 행인득우(行人得牛)니 하는 따위는 어미 상(象)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점(占)도 될 수 있다.

- ⑬ 건유(建維): 『역』에는 네 개의 버리가 있으니 건(乾)과 곤(坤)과 감(坎)과 이(離)가 이것이다. 64괘의 양획은 모두 건(乾)에 근본 하고 그 음획은 모두 곤(坤)에 근본 하니 이것이 두 개의 버리이다. 64괘의 상괘(上卦)는 모두 감(坎)에 자리하고 그 하괘(下卦)는 모두 이(離)에 자리하니 이것이 두 개의 버리이다. 그러므로 『역』의 큰 뜻은 음양의 승강에 벗어나지 않으니 바로 건(乾)과 곤(坤)을 몸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이요. 만약 점을 친 경우라고 한다면 또 반드시 형(亨)과 정(貞) 두 글자로써 큰 줄기를 세워 놓았으니 바로 이(離)와 감(坎)을 살펴봐야 하는 까닭인 것이다.<sup>34)</sup>

이는 역(易)의 64괘는 어느 것 하나 건곤감리(乾坤坎離)의 사유(四維)가 획(畫)과 위(位)로 나누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 놓고 있다. 무릇 양이 상(上)에 있으면 순(順)이라 하고 음이 강(剛)을 올라타면 여(厲)라 하는데 이는 건곤(乾坤)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이(離)는 성

33) 같은 책, 같은 곳(9-34). “詠物·易詞之文 有象有占 占以指事 婚媾之占 不能通祭祀 象以表微 草木鳥獸之動 車輿器服之變 皆可以爲萬事之通象 故詠物喻事 一似風詩之有比興也 至如馬牛羊豕之有關人事者 或爲通象 或爲指事 此又有分也”.

34) 같은 책, 같은 곳. “建維·易有四維 乾坤坎離 是也 六十四卦 其陽畫皆本於乾 其陰畫皆本於坤 此二維也 六十四卦 其上卦皆位於坎 其下卦皆位於離 此二維也 故易之大義 不出於陰陽之升降 既所以體乾坤也 若其爲占 則又必以亨貞二字 立其大綱 卽所以察坎離也”.

(誠)으로 여기고 감(坎)은 경(敬)으로 여기는데 성(誠)으로써 격천(格天)하면 형(亨)이라 이르고 경(敬)으로써 간사(幹事)하면 정(貞)이라 이르면서 강유(剛柔)가 교감(交感)하면 이를 유부(有孚)라 이르니 이는 감리(坎離)를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⑭ 변위(辨位): 위치에 따른 명칭은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삼재(三才)의 위치인데 1, 2는 땅이고 3, 4는 사람이고 5, 6은 하늘이 이것이다. 둘째는 2기의 위치인데 1, 3, 5는 양(陽)이 되고 강(剛)이 되며, 2, 4, 6은 음(陰)이 되고 유(柔)가 된다. 셋째는 귀천(貴賤)의 위치인데 1, 2는 백성이고, 3, 4는 신하이고, 5는 군주이고, 6은 하늘이다. 넷째는 내외(内外)의 위치인데, 1, 2, 3은 내가 되고, 4, 5, 6은 적이 된다. 물상이 비록 같으나 그 사(詞)가 같지 않거나 그 사(詞)가 또한 같으나 그 길흉이 같지 않은 것은 오로지 그 위치가 같지 않기 때문이니 마땅히 정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sup>35)</sup>

이는 삼재지위(三才之位) · 이기지위(二氣之位) · 귀천지위(貴賤之位) · 내외지위(内外之位)에 따라서 길흉이 부동(不同)하다는 것이다. 시론(試論)컨대 건괘(乾卦)의 초(初)와 사(四)는 다 같이 변손(變巽)이지만 초(初)는 잠룡(潛龍)이라 하고 사(四)는 약룡(躍龍)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 위(位) 때문인 것이다. 이(二)와 오(五)는 다 같이 변이(變離)이지만 이(二)는 현룡(見龍)이라 하고 오(五)는 비룡(飛龍)이라 하였으니 이도 또한 위(位) 때문인 것이다. 대전(大傳)에서 이르기를 “이(二)는 다예(多譽)하고 삼(三)은 다흉(多凶)하고 사(四)는 다구(多懼)하고 오(五)는

35) 같은 책, 17쪽(9-35). “辨位·位之名有四 其一曰三才之位 一二地 三四人 而五六爲天位 是也 二曰二氣之位 一三五爲陽爲剛 二四六爲陰爲柔 是也 三曰貴賤之位 一二爲民 三四爲臣 五爲君 六爲天 是也 四曰内外之位 一二三爲我 四五六爲敵 是也 物象雖同 而其詞不同 其詞亦同 而其吉凶不同者 專由其位之不同 所宜精察也”.

다공(多功)하다” 하였는데 이를 역사(易詞)에서 고검(考驗)해 보면 착착 부합(符合)한다. 양이 음위(陰位)를 차지하거나 음이 양위(陽位)를 차지함에 이르러서도 길흉(吉凶)이 부동(不同)한 것은 공자의 「단전」에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 ⑮ 우의(寓義): 『역』은 복서를 주로 하나 의리도 깃들어 있다. 성인이 진퇴(進退)와 소장(消長)의 기세[12벽괘이다]를 살피고 승강(升降)과 왕래(往來)의 상[50연괘]을 완미하여 의리를 그 사이에 깃들어 놓았다. 그러나 문왕과 무왕의 패사와 효사는 의리가 깃들어 있는 바가 은미하여 밝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다. 공자의 「단전」에 이르러서야 오로지 의리를 천발하고 그 효사의 은미한 것은 「문언」과 「대전」에 널리 미쳐서 경계함을 삼았다. 「대상전」에 이르러서는 서가(筮家)에 간여하지 않고 순전히 평상시 거처에 살피보는 용도로 삼은 것이니, 「대상전」으로서 경문을 구하면 의리를 얻을 수 있다.<sup>36)</sup>

이는 역(易)이란 패서가(卦筮家) 소용(所用)이지만 거기에는 의리(義理)도 함축되어 있다. 문언(文言)이란 건곤(乾坤)의 모든 효(爻)에 있고 대전(大傳)에 있는 것으로는 중부(中孚)의 구이(九二)라거나 동인(同人)의 구오(九五)라거나 대과(大過)의 초육(初六)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 ⑯ 고점(考古): 괘와 효의 상에는 본래 고정된 길함이 없고 또한 본래 고정된 흉함이 없다. 여자를 취하는 것에 길하더라도 그러한 상으로써 나라를 정벌하면 흉하지 않음을 기필할 수

36) 같은 책, 같은 곳(9-35~36). “寓義·易主於筮 而義理寓焉 聖人察進退消長之勢 玩升降往來之象 而寓義理於其間 然文王周公之詞 其義所寓 隱而不彰 微而不著 至孔子彖傳 則專闡義理 其爻詞之隱微者 文言大傳 又推演而爲之戒 至於大象傳 則不干筮家 而純爲居觀之用 因傳以求經 則義可得矣”.

없고, 제사를 지냄에 길하더라도 그러한 상으로써 넷물을 건너면 흉하지 않음을 기필할 수 없다. 그리고 군자가 그것을 만나면 길한 것이라도 소인에게는 해로울 수 있으며, 군자가 만나면 흉하더라도 소인에게는 이로울 수 있다. 역사(易詞)에서 길흉을 말한 것은 여러 가지 복서에 통용되는 점괘가 될 수 없는 것이다.<sup>37)</sup>

이는 괘효(卦爻)의 상(象)에는 본래 결정된 길흉(吉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流動的)이라는 것이다. 복(復)·임(臨)으로부터 비롯하여 괘(夫)·건(乾)에 이르면 건괘(乾卦)에 있어서 승룡어천(乘龍御天)의 상(象)이 된다. 곤괘(坤卦)에 있어서는 이상견빙(履霜堅氷)의 상(象)이 되는데 이는 의리(義理)는 동일하지만 길흉(吉凶)이 부동(不同)한 경우인 것이다. 준(屯)의 단상(彖象)은 행역(行役)의 서(筮)에서는 물용유왕(勿用有往)이라 하였지만 입군(立君)의 서(筮)에서는 이용건후(利用建侯)라 하였는데 이는 괘상(卦象)은 동일하지만 길흉(吉凶)이 부동한 경우인 것이다. 곤(坤)의 황상원길(黃裳元吉)이나 수(隨)의 원亨利貞(元亨利貞)은 본래 대길(大吉)의 점(占)이지만 남괘목강(南蒯穆姜)의 서(筮)에 있어서는 대흉(大凶)이니 이는 동일주사(同一繇詞)이지만 길흉(吉凶)이 부동한 경우인 것이다. 준(屯)의 구오(九五)에서는 소정길(小貞吉) 대정길(大貞吉)이라 하고 비(否)의 육이(六二)에서는 소인길(小人吉) 대인비(大人否)라 하였으니 모두 이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다.

⑪ 인자(認字): 경의 뜻을 해독하려면 먼저 자의(字義)를 인식하여야 할 것이니 여러 경이 모두 그러하거니와 『역』의 경우

37) 같은 책, 같은 곳(9-36). “考占·卦爻之象 本無定吉 亦無定凶 吉於取女者 以之伐國 未必不凶 吉於祭祀者 以之涉川 未必不凶 君子遇之而吉者 或吉於小人 君子遇之而凶者 或利於小人 凡易詞之言吉凶者 不可爲諸筮之通占也”.

는 더욱 그러하다. 가령 형(亨)과 정(貞)과 회(悔)와 린(吝)과 같은 것들은 자의(字義)가 여전히 명백하지 못한 점이 많고 또 「서괘전」과 「잡괘전」에서 괘의(卦義)를 말한 것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괘의(卦義)이지 자의(字義)가 아닌데도 후세의 자서(字書)에 함께 수록되어 자의(字義)로 취급되고 있으니 크게 잘못되었다.<sup>38)</sup>

이는 역(易)의 자의(字義)는 거기에 괘의(卦義)도 첨가되었는데 이를 자의(字義)로 기록한 것은 잘못이다. 형(亨)이란 감이수통(感而遂通)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亨)이란 본래 이화(離火)의 덕(德) 때문이다. 그러므로 팽임(烹飪)의 팽(烹)이 형(亨)과 더불어 통할 수 있고 팽임(烹飪)은 연향(燕享)하게 되는 소이이므로 연향(燕享)의 향(享)도 또한 형(亨)과 더불어 통하게 된다. 정(貞)은 따로 세 가지로 구별된다. 그중 하나는 이정(利貞)의 정(貞)이니 정(貞)이란 사(事)다. 부정(不正)한 사(事)는 감히 복서(卜筮)할 수 없으므로 사(事)를 정(貞)이라 하는 것이니 정(貞)은 정(正)인 것이다. 또 간사(幹事)의 법(法)에 반드시 견고(堅固)해야 하는 까닭에 사(事)를 정(貞)이라 하는 것이니 정(貞)은 고(固)이기도 한 것이다. 그중 둘째는 정절(貞節)의 정(貞)이요, 그중 셋째는 정회(貞悔)의 정(貞)으로서 정회(貞悔)에는 이종(二種)이 있다. 괘변(卦變)을 회(悔)라 이르므로 불변(不變)을 정(貞)이라 이른다. 이는 홍범(洪範)에 나오는 의의다. 또 내괘(內卦)를 정(貞)이라 하고 외괘(外卦)를 회(悔)라 하는데 좌전(左傳)에서 고(蠱)를 정풍회산지괘(貞風悔山之卦)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개과(改過)하면 회(悔)라 이르고 불개회(不改悔)하면 린(吝)이라 하므로 괘상(卦象)이 함께 변하면 회

38) 같은 책, 18쪽(9—37). “認字·欲得經旨 先認字義 諸經皆然 而易爲甚 如享貞悔吝之等字義 向多不白 又如序卦雜卦之言卦義者 是卦義也 非字義也 而後世字書 並錄爲字義 大謬矣”.



(悔)라 하지만 괘(卦)는 이미 변했는데도 상(象)이 아직 변(變)하지 않고 있으면 인(吝)이라 한다. 이는 또한 역경(易經)의 대의(大義)인 것이다. 「서괘」에서 “준(屯)은 영(盈)이다. 임(臨)은 대(大)다”라 하였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잡괘전」에서 “비는 즐겁고 사는 근심한다. 겸은 가볍고 예는 게으르다[比樂師憂 謙輕豫怠]”라 한 것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다 이들은 괘의(卦義)인데 이를 자의(字義)로 인정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 ⑱ 찰운(察韻): 역사(易詞)의 운법(韻法)은 가장 엄격하고 가장 정밀하지만 그 격률(格律)은 변화가 많아서 찾아내기 가장 어렵다. 한 주사(繇詞) 안에 한두 글자로 문득 운(韻)을 이루는 것이 있고, 두세 구(句)라야 비로소 운(韻)이 되는 것이 있으며, 두세 개의 주사가 서로 이어받아 운(韻)이 되는 것이 있고, 육효(六爻) 전체가 서로 이어받아 협운(叶韻)이 되는 것이 있으며, 서너 개의 주사가 같은 글자를 거듭 사용하며 서로 이어받아 협운(叶韻)이 되는 것이 있으며, 괘사(卦詞)와 효사(爻詞)가 서로 이어져 협운(叶韻)이 된 것이 있다. 혹 몇 개의 구(句)로 된 서너 개의 주사들이 상구(上句)는 상구(上句)와 협운(叶韻)이 되고 하구(下句)는 하구(下句)와 협운(叶韻)이 되기도 하며, 혹 몇 개의 구로 된 하나의 주사 안에서도 사채(詞采)가 견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서로 이어서 협운(叶韻)이 되지만, 그 자법(字法)이 길(吉)과 흉(凶)과 회(悔)와 린(吝)과 무구(无咎) 등의 글자처럼 자잘한 것들은 그대로 협운(叶韻)이 되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간혹 고운(古韻)과 금운(今韻)이 원래 같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인데도 후세에 한 귀통이에만 엮매인 선비들이 망령되어 협운설(叶韻說)을 조작하여서 상음(商音)을 가리켜 각음(角音)으로 삼고 후음(喉音)을 바꾸어 치음(齒音)이라 하며 어지럽게 역사(易詞) 사이에서 끼집어내고 있으나 이와 같은 부류들은 모두 믿을 수 없는 것이다.<sup>39)</sup>

이는 역사(易詞)의 운법(韻法)은 최엄(最嚴)하나 실로 잡다(雜多)함을 보여주고 있다. 시론(試論)컨대 건곤(乾坤) 등 수괘(數卦)는 건지단(乾之象)에서는 형정(亨貞)이 협운(叶韻)하고 기초구(其初九)에서는 용용(龍用)이 협운하고 기차(其次)는 전곤연천(田乾淵天)이 협운하고 상구용구(上九用九)는 회수(悔首)가 협운한다. 곤지단(坤之象)에서는 향정(亨貞)이 협운하고 기육효(其六爻)에서는 상방장양상황(霜方章襄裳黃)이 협운하고 기제이구(其第二句)는 지리사예(至利事譽)가 협운한다. 몽괘(蒙卦)인즉 발몽(發蒙)·포몽(包蒙)·곤몽(困蒙)·동몽(童蒙) 등이 첩문상승(疊文相承)하면서 중효(中爻)에 일궁(一躬) 자를 삽입(插入)하였다. 곤지단(坤之象)에서의 유유왕(有攸往)과 효사(爻詞)에서의 상방(霜方) 등자(等字)가 협운한다. 후득주(後得主)는 지리(地利) 등 자와 협운한다. 몽지단(蒙之象)에서 초서고(初筮告) 재삼독(再三瀆)과 효사(爻詞)의 용설질극(用說桎梏)과 협운하니 이는 또한 괘효(卦爻)가 상승(相承)하는 증거인 것이다. 건삼사(乾三四)의 무구(無咎)와 몽육삼(蒙六三)의 무유리(无攸利)와 몽사오(蒙四五)의 인길(吝吉) 등자(等字)는 소위 영쇄(零碎)하여 협운하지 못한 것들이다. 용(用)의 음(音)은 용(庸)이요 왕(往)의 음은 왕(汪)이요 경(慶)의 음은 강(姜)이요 여(厲)의 음은 열(列)인데 고운(古韻)은 본래 그러하므로 다 널리 증거 댈 수가 있다. 이러한 유(類)의 운가(韻家)의 설은 믿을 만하다. 저 건초육(蹇初六)에서 왕건래예(往蹇來譽)라 하였는데 건음(蹇音)을 고쳐 허(許)로 하였고 서합

39) 같은 책, 같은 곳(9-38). “察韻·易詞韻法 最嚴最精 而其格律多變 最難尋索 蓋一繇之內 有一二字 輒韻者 有二三句乃韻者 有二三繇相承以韻者 有全六爻相承以叶者 有三四繇繼文相承以叶者 有卦詞與 爻詞相承以叶者 又或三四繇各有數句者 其上句與上句叶 下句與下句叶 或一繇之內 凡有數句 而其詞 采堅美者相承叶韻 其字法零碎 如吉凶悔吝无咎等字 仍不叶韻 其或古韻今韻元有不同者 在所審理 而 後世拘曲之士 妄造叶韻之說 指商爲角 變候爲齒者 又紛然雜出 泯洞其間 凡如此類 悉不可信”.

초구(噬嗑初九)에서 멸지무구(滅趾无咎)라 하였는데 구음(咎音)을 고쳐 이(以)로 하였다. 이러한 유(類)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이는 누유(陋儒)의 곡해인 것이다. 운(韻)을 정밀하게 살핀다면 절구(絶句)가 착잡(錯雜)해지지 않고 절구(絶句)가 착잡해지지 않으면 경지(經旨)가 분명해질 것이니 이는 또한 학자들로서는 충분히 밝혀 두어야 할 요체인 것이다.

이상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다산의 독역요지는 역사(易詞: 彖詞・卦辭・爻辭 등)를 읽는 방법을 천명해 놓은 다산의 역저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다산은 그의 역리사법에서 괘상(卦象)을 얻어 내는 방법을 제시한 반면 독역요지 18항은 거기서 얻은 역사(易詞)의 해독법인 것이다. 이를 일러 우리는 고역(古易)의 입문서라 일러야 할 것이다.

### 제3절 역례비석(易例比釋)

다산은 역리사법과 독역요지를 정리한 후 또다시 역례비석(易例比釋)을 집필하였다. 이는 점사(占辭)의 길흉에 관한 문례(文例)를 모아 그의 오의를 천명한 자이다. 이를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역례(易例)	비석(比釋)
원亨利정 (元亨利貞)	‘형(亨)’이라는 것은 천시(天時)의 관점이고 ‘정(貞)’은 인사(人事)의 관점이다. 역(易)의 도(道)는 백성의 이용을 미리 한 것으로 사태에 임하여 점을 치는 것은 하늘의 밝음을 잇는 것이다. 하늘의 마음에 통하지 못하면 시운(時運)이 통하지 않게 되고, 사람의 힘을 다하지 않으면 일의 공효가 모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亨)’이라고 하거나 ‘정(貞)’이라고 하는 것은 점법의 커다란 관점이 된다. …『역』의 큰 의미는 바로 형(亨)과 정(貞) 두 글자에 있으니 천시(天時)와 인사(人事)를 이것으로써 점치는 것이다[亨者 天時也 貞者 人事也 易之爲道 前民用也 臨事而筮 紹天明也 不享天心 則時運不通 不致人力 則事功不集 故曰亨曰貞 爲占法之大觀也… 易之大義 正在乎亨貞二字 天時人事 於此乎占之也].
형리정 (亨利貞)	「문언전(文言傳)」을 살펴보건대 원(元)과 형(亨)과 리(利)와 정(貞)은 분명히 각각 진(震)과 이(離)와 태(兌)와 감(坎)의 덕(德)인데 역사(易詞)를 살펴보건대 그 용례(用例)가 일치하지 않는다. 혹 2효와 5효가 서로 응하면 ‘형(亨)’이라 하기도 하고, 혹 함당한 지라이거나 바른 자리이면 ‘정(貞)’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 괘(卦)에 진(震)의 선(善)함이 있는데도 ‘원형(元亨)’이라고 칭하지 않기도 하고, 혹 괘(卦)에 태(兌)의 화(和)함이 없는데도 ‘이정(利貞)’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離)가 아님에도 형(亨)하고 감(坎)이 아님에도 정(貞)인 것은 또한 열거할 수 없다. 요약하건대 천시(天時)와 인사(人事)의 통(通)과 불통(不通), 고(固)와 불고(不固)는

역례(易例)	비석(比釋)
	오직 괘덕(卦德)의 크고 작음에 달려 있으니 구에되어서는 안 된다[稽之文言 元亨利貞 明是震離兌坎之德 然考之易詞 其例不一 或二五相應而謂之亨 或當位正位而謂之貞 或卦有震善而不稱元亨 或卦無兌和而得稱利貞 不離而亨 非坎而貞者 又不可枚舉 要之 天時人事之通與不通 固與不固 唯在卦德之大小 不可拘也].
원형(元亨)	‘원(元)’이라는 것은 시작한다는 의미이고, 크다는 의미이고, 임금이라는 의미이다. …정괘(井卦)와 대유괘(大有卦)의 「단전(彖傳)」은 모두 그 ‘행(行)’을 언급하는데 ‘형(亨)’이라는 것은 행함이다[元者 始也大也君也… 鼎大有之傳 皆言其行 亨者行也].
형(亨)	이(離)의 덕(德)으로 ‘가회(嘉會)’가 없는 경우는 태괘(泰卦)와 겸괘(謙卦)와 복괘(復卦)와 대과괘(大過卦) 네 괘이다. …이(離)의 덕으로 아름답게 만남을 가지고 진(震)의 도가 통하여 행하니, 그 점이 ‘형(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혹 비록 이러한 상(象)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亨)’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괘덕(卦德)에 그렇지 못함이 있기 때문이다[其無離德之嘉會者 泰謙復大過四卦也… 離德嘉會 震道通行 則其占亨也 然或雖有此象 而不得爲亨者 卦德有未然也].
이정(利貞)	‘정(貞)’이란 바름이다. 복서(卜筮)를 하는 뜻은 하늘의 밝음을 잇는 것이니 바르지 않은 일로는 감히 서점(筮占)을 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事)가 정(貞)이 된다는 것이니 정(貞)이란 일이요, 이정(利貞)이란 ‘주관함에 마땅함’인 것이다. 군자의 일은 어디를 가든 바르지 않음이 없으니 이 괘를 만나면 바름에 마땅하고 저 괘를 만나면 바름에 마땅하지 않다면 천하에 이러한 이치는 없을 것이다. …이정(利貞)이라는 것은 일을 주간(主幹)에 마땅함을 일컫는 것이다[貞者正也 卜筮之義 紹天明也 不正之事 不敢以筮 故謂事爲貞 貞者事也 利貞者宜幹也 君子之事 无往不正 遇此卦則宜正 遇彼卦則不宜正 天下无此理也… 利貞也者 宜幹事之謂也].
원길(元吉)	‘원(元)’이라는 것은 시작한다는 의미이고, 크다는 의미이고, 임금이라는 의미이다. 만물(萬物)은 진(震)에서 시작하는데 양(陽)의 원리가 처음으로 커지니 그것을 ‘인주(人主)’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震)이 옮겨 가는 길(吉)함이 곧 ‘원길(元吉)’이 되는 것이다. 5효는 군위(君位)가 되기 때문에 또한 간혹 중을 얻은 것을 ‘원길(元吉)’로 삼으니 용례가 한 가지가 아니다[元者 始也大也君也 萬物始乎震 陽道始大 以爲人主 故震移之吉 卽爲元吉 五爲君位 故又或以得中爲元吉 不一例也].
정길(貞吉)	‘정(貞)’이라는 것은 바르다는 의미이다. 바르지 않은 일[事]은 감히 점치지 않기 때문에 일[事]을 일러 정(貞)이라고 한다. 점쳐서 묻는 것은 모두 바른 일이다. 바른 일을 가지고 점침에 괘덕(卦德)이 중정(中正)하면 바른 일이 길(吉)한 것이다[貞者正也 不正之事 不敢以筮 故謂事爲貞 筮之所問 皆正事也 正事之筮 而卦德中正 則正事之吉也].
정흉(貞凶)	‘정흉(貞凶)’이라는 것은 비록 일이 바르더라도 또한 흉(凶)하다는 것이다. ‘정흉(貞凶)’의 괘라도 일찍이 중정(中正)의 상(象)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괘덕(卦德)과 괘성(卦性)에 각각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혹은 ‘정길(貞吉)’이 되고 혹은 ‘정흉(貞凶)’이 된다[貞凶者 雖正事而亦凶也 貞凶之卦 未嘗無中正之象 然其卦德卦性 各有不同 故或爲貞吉 或爲貞凶也].
영정(永貞)	‘영정(永貞)’이라는 것은 오래가는 일[事]이다. 『주례(周禮)』 「춘관(春官)」에 따르면 “대축(大祝)은 여섯 가지 기원제의 축사를 관장하여 복(福)과 상서로움을 기원하고 ‘영정(永貞)’을 구한다”고 하였다[永貞者 久長之事也 周禮春官大祝 掌六祝之辭 以祈福祥 以求永貞].

역례(易例)	비석(比釋)
거정(居貞)	‘거정(居貞)’이라는 것은 거처를 옮기는 일이다. 『춘추전(春秋傳)』에 이르길 “거처하는 곳이 좋은지 점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이 어떤지 점친다”라고 하였고, 『초사』에도 「거처에 대해 점을 친다」는 부(賦)가 있다. 옛날 사람은 거처를 옮길 때 반드시 복서(卜筮)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居貞者 遷居之事也 春秋傳曰匪居是卜 唯隣是卜 楚辭有卜居之賦 古人遷居 必有卜筮可知也].
간정(艱貞)	‘간정(艱貞)’이라는 것은 어렵고 험난한 일이다. 『춘추전(春秋傳)』에 이르길 “중이(重耳)는 밖에서 19년을 지내면서 어렵고 험난한 일을 두루 맛보았다”고 하였는데 이런 때에 만약 점서(占筮)하여 묻는다면 그런 처지를 ‘간정(艱貞)’이라고 하였을 것이다[艱貞者 艱險之事也 春秋傳曰重耳在外十九年 險阻艱難 備嘗之矣 于此之時 若有筮問則謂之艱貞也].
안정(安貞)	‘안정(安貞)’이라는 것은 안정된 일이다. ‘안(安)’이라는 글자는 여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형상한 것이니 곤괘(坤卦)의 덕(德)에 응하는 것이다. …‘안정길(安貞吉)’이라는 것이 바로 『홍범(洪範)』에서 말한 ‘고요함을 쓰는 것이 길하다’라는 것이다[安貞者 安靜之事也 安之爲字 象女在室中 所以應坤德也…安貞吉者 用靜吉也].
여정(女貞)	부녀자의 일이다. 부녀자의 일은 부드럽고 순종함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패(卦)는 손(巽)의 순종함으로써 곧 ‘부녀자의 일은 이롭다’라고 한 것이다[婦女之事也 婦女之事 貴於柔順 故卦以巽順 則利女貞也].
군자정(君子貞)	군자의 일이다[君子之事也].
유인정(幽人貞)	산림에 숨어 있는 사람이 일을 점친 것이다[山林幽隱之人所筮事也].
잡정(雜貞)	사괘(師卦)의 ‘정(貞)’은 군대의 일이다. 곤괘(困卦)의 ‘정(貞)’은 곤란한 일이다. 여괘(旅卦)의 ‘정(貞)’은 여행하는 사람의 일이다. 바르지 못한 일은 감히 점치지 않기 때문에 괘덕(卦德)의 바름을 점치는 자가 받는 것이다. 만약 바르지 못한 일을 점쳐서 ‘정길(貞吉)’한 괘를 얻었다면 설령 ‘정길(貞吉)’하다고 말할지라도 그 점은 효험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인이 ‘사(事)’가 ‘정(貞)’이라고 말한 은미한 뜻이다. 그러므로 공자의 전(傳)에 항상 ‘정(貞)’을 정(正)이라고 풀한 것인데 그 실상은 ‘정(貞)’이라는 것은 ‘사(事)’이며 ‘정길(貞吉)’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길하다’는 것이다[師貞者 師旅之事也 困貞者 困厄之事也 旅貞者 旅人之事也 不正之事 不敢以筮 故卦德之正 筮者受之也 若以不正之事 筮遇貞吉之卦 則縱云貞吉 其占不驗 此聖人謂事爲貞之微意也 故孔子之傳 每訓貞爲正 其實貞者事也 貞吉者幹事之吉也].
가정(可貞)	‘가(可)’라는 것은 ‘겨우 괜찮다’는 뜻이니 ‘가정(可貞)’이란 ‘이정(利貞)’의 다음이다. 비록 주관하기에 마땅하지 않으나 그래도 일을 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이 ‘정린(貞吝)’이고 그 다음이 ‘정려(貞麗)’이며 그 다음이 ‘불가정(不可貞)’이다. 가장 나쁜 것이 ‘정흉(貞凶)’이고 가장 좋은 것이 ‘정길(貞吉)’이다[可者僅可之意 可貞者 利貞之次也 雖未宜幹 猶可爲事也 其次貞吝也 其次貞厲也 其次不可貞也 最下者貞凶也 最好者貞吉也].

역례(易例)	비석(比釋)
정린(貞吝)	‘인(吝)’이라는 것은 작은 잘못을 고치지 않은 것이다. 사람이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을 ‘인(吝)’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괘에서 잘못을 고치지 않은 것을 또한 ‘인(吝)’이라고 이른다. 이것으로써 일을 주관한다면 옛날에 방애가 되었던 것이 마침내 해결되지 않아 일을 이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린(貞吝)’이라고 한 것이다[吝者 小疵不改也 人不改過 謂之吝 故卦不改疵 亦謂之吝也 以之幹事 則舊所妨礙者 終不清脫 不能利幹 故曰貞吝也].
정려(貞厲)	‘여(厲)’라는 것은 위태로움이다. …이것으로써 일을 주관한다면 위태롭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 점이 ‘정려(貞厲)’가 된다[厲者危也… 以之幹事 危殆而不安 故其占貞厲也].
여(厲)	‘여길(厲吉)’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위태하였으나 지금은 편안한 것이다. ‘여무구(厲无咎)’라는 것은 비록 위태롭지만 허물이 없는 것이다[厲吉者 昔危而今安也 厲无咎者 雖危而无尤也].
인(吝)	‘역(易)’이라는 것은 성인이 잘못을 고쳐 올바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가 “나에게 수년을 살도록 하여 마침내 『역』을 공부한다면 거의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고 말씀하였으니 이 말씀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잘못을 고치는 것을 ‘회(悔)’라고 하고 잘못을 고치지 않은 것을 ‘인(吝)’이라고 하니 ‘회(悔)’와 ‘인(吝)’이라는 것은 역가(易家)의 커다란 뜻이다[易者 聖人所以改過而遷善也 故孔子曰 假我數年 卒以學易 庶無大過矣 斯可驗也 改過曰悔 不改過曰吝 悔吝者 易家之大義也].
회(悔)	사람에게 뉘우침이 있으면 앞으로 고치게 된다. 그러므로 역례(易例)에는 상(象)에 변하고 고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일러 ‘회(悔)’라고 말한다[人之有悔 將以改也 故易例象有變改 謂之悔也].
무회(无悔)	괘(卦)에는 세 단계의 변화가 있다. 본래는 벽괘(辟卦)인데 변하여 연괘(衍卦)가 되고, 또 변하여 여섯 개의 효가 되니 이것이 세 단계의 변화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변화하여 뉘우쳤다가 세 번째 단계에서 변화한 이후에 그 벽괘(辟卦)의 본래 상(象)으로 되돌아간다면 그 점(占)은 ‘무회(无悔)’가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써 일을 행한다면 후회하거나 고칠 일이 없다는 것이다[卦有三變 本以辟卦變而爲衍卦 又變而爲六爻 此三變也 再變而悔者 三變之後 反其本象 則其占爲无悔 以之行事 則无可悔改也].
회망(悔亡)	‘무회(无悔)’와 회망(悔亡)은 큰 뜻이 다르지 않다. (차이는) 험운(叶韻)이나 문세(文勢) 때문이다[无悔與悔亡 大意不殊 或以叶韻 或以文勢也].
무구(无咎)	『대전(大傳)』에 이르길 “무구(无咎)라는 것은 잘못을 잘 보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괘(卦)의 허물은 그 규칙이 한 가지가 아니다. 혹 유(柔)가 강(剛)을 올라타거나, 혹 음(陰)이 양(陽) 위에 자리하거나, 혹 음(陰)이 양(陽)을 쇠약하게 하는 것이 모두 재앙과 허물이 된다. 혹 변하여 이치를 따르거나, 혹 변하여 자리에 합당하거나, 혹 강(剛)이 밖으로부터 돌아오면 ‘무구(无咎)’라고 한다. 또 혹 괘체(卦體)가 훼손되어 그 본래의 모습을 그 본래의 형상을 잃었던 것이 변하여 그것을 보완하면 또한 ‘무구(无咎)’라고 말한다. …사람이 누구인들 잘못이 없겠는가! 그것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이 이에 스스로 선(善)하게 되는 길을 넓게 열어 만민(萬民)을 인도하시니 그 뜻이 은연중에 깊도다[大傳曰无咎者 善補過也 卦之愆尤 不一其規 或柔乘剛 或陰居陽 或以陰而消陽 皆爲咎咎 或變而順理 或變而當位 或剛自外反 則謂之无咎 又或卦體毀壞 失其本形者 變而補之 亦云无咎也…人孰無過 改之爲貴 聖人於此 廣開自善之路 以導萬民 其旨淵乎微矣!]

역례(易例)	비석(比釋)
유부(有孚)	부(孚)라는 것은 믿음이다. 성실히 하면 반드시 믿는다. 가운데를 비운 것을 ‘부(孚)’라고 하니 이것은 중부괘(中孚卦)라는 이름이 붙게 된 까닭이다[孚者信也 誠則必信 故虛中爲孚 此中孚之所以名也].
정길(征吉)	‘정(征)’이라는 것은 정벌하는 것이다. 옛날에 제후들은 인접하고 있어서 자주 정벌함이 있었다. 나라의 큰일은 반드시 점을 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정길(征吉)’이나 ‘정흉(貞凶)’이라는 점례(占例)가 자주 보인다. 이내 후대에 『역』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혹 ‘행(行)’으로 풀이하거나 ‘진(進)’으로 풀이하였으니 또한 잘못이 아니겠는가? …괘상으로 보면 혹 패주(卦主)의 존망(存亡)으로써 그 길흉(吉凶)을 점치거나, 혹 물성(物性)의 상극(相克)으로써 그 승패(勝敗)를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물이 불을 이기고, 불이 쇠를 이기고, 쇠가 나무를 이기는 것은 역사(易詞)에 증거가 있으나, 나무가 흙을 이기고, 흙이 물을 이기는 것은 전혀 흔적이 없다. 옛날에 성인은 실리(實理)에 근거하여 점례(占例)를 삼았는데 이후 술수가들이 더하고 보충하여 상극(相克)과 상생(相生)의 설을 만들었을 뿐이다(이하는 생략한다)[征者伐也 古者諸侯接隣 數有征伐 國之大事 必以筮決 故征吉征凶 展示占例 乃後之說易者 或訓爲行 或訓爲進 不亦謬乎…以卦象則或以卦主之存亡 占其吉凶 或以物性之相克 占其勝敗 然水克火 火克金 金克木 則易詞有徵 至於木克土 土克水 則絕無影響 古之聖人 驗諸實理 以爲占例 而後之術數家 增衍添補 以爲相克相生之說耳(以下省略)].

이상의 논술을 통하여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역도(易道)란 소천명(紹天明)의 도(道)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역도(易道)란 결코 술수학(術數學)이 아님을 의미한다.

둘째, 역(易)의 대의(大義)는 형정(亨貞)을 이해함에서 비롯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형(亨)이란 천심(天心)과 통하는 길이요 정(貞)이란 사공(事功)이 성취됨을 의미한다. 모사재천(謀事在天)하고 성사재인(成事在人)함은 그것이 바로 형정(亨貞)의 대의(大義)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셋째, 역(易)이란 회린(悔吝)의 도(道) 외에 그 어느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역(易)이란 개관천의(改過遷義)의 도(道)이기 때문이다.

이를 요약해서 말하자면 다산이 제시한 고역(古易)이란 애오라지 순수천명(順受天命) 개과천선(改過遷善)하는 윤리학(倫理學)임을 의미한다.



## 제4절 패의론

다산은 그의 역저 『주역사전』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갑자년 동짓날(가경 9년 계해 겨울)에 강진(康津) 유배지에서 처음으로 『역』을 읽었다. 이해 여름에 차록(筭錄)의 일을 시작하여 겨울에 이르러서 마쳤다. 이것은 갑자본(甲子本)이다. 갑자본에는 비록 사의(四義)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지만 조잡하고 간략하여 완비되지 못해 마침내 없애 버리고 그 명년에 고쳐서 찬(撰)하니[또한 8권이다] 이것인 을축본(乙丑本)이다[이 본은 나주 해중에 있다]. 을축년(乙丑年) 겨울에 학가(學稼)가 와서 보은 산방(寶恩山房)에 머물렀는데 전본에 양호(兩互)와 교역(交易)의 상이 취해지지 않은지라 모두 개정하였다[16권이다]. 봄이 되어 끝나치니 이것이 병인본(丙寅本)이다[이 본은 광주(廣州)에 있다]. 병인본은 파성(播性)과 유동(留動)의 뜻에 있어서 빠지고 잘못된 점이 많았다. 다시 학가(學稼)에게 개고(改稿)하게 하였는데 미치지 못하고 북쪽으로 돌아감에 이학래(李學來)로 하여금 일을 마치게 했다[24권이다]. 이것이 정묘본(丁卯本)이다[그 실제로 이것 또한 병인본이다]. 정묘본은 역의 패효사의 이치가 정밀하지 못하고 물상의 뜻에 잘못된 점이 많아 무진년(戊辰年) 가을에 나는 학포(學圃)와 함께 굴원(橘園)에 있으면서 학포(學圃)로 하여금 탈고하게 하였다[또한 24권이다]. 이것이 이른바 무진본(戊辰本)이다.<sup>40)</sup>















이로써 다산역은 강진에서의 첫 작품인 동시에 갑자(甲子)에서 무진(戊辰)까지 4년의 적공에 학가(學稼)·학포(學圃)·이학래(李學來) 등의 조력에 의하여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산역은 저술의 체제상으로도 역리사법(易理四法)·독역요지(讀易要旨)·역례비석(易例比釋)을 앞에서 서술함으로써 본론에의 입문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본론(本論: 六十四卦論)은 오로지 이들의 해석학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다산은 그의 십익론(十翼論)에 의하여 역(易)의 체재를 재편(再編)하였고 그의 64괘 삼백팔십사효사(三百八十四爻辭)도 그의 역리사법(易理四法)과 독역요지(讀易要旨)와 역례비석(易例比釋)에 의하여 중중첩첩 해석에 빈틈이 없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간혹 자신의 안설(按說)과 아울러 기타 제설을 인용하여 주사(繇辭)의 의의를 더욱 보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중에서도 각괘(各卦)의 첫머리에서 「서괘(序卦)」와 「잡괘(雜卦)」의 괄의(卦義)를 보완한 그 괄의론(卦義論: 鑄案說)은 그의 역리각론(易理各論)의 압권(壓卷)이라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그의 전문(全文)을 수록하기로 한다.

40) 『周易四箋』卷1, Ⅱ~37, 1쪽(9-3). “余於甲子陽復之日(嘉慶九年癸亥冬) 在康津謫中 始讀易 是年夏始有筭錄之工 至冬而畢(凡八卷) 此甲子本也 甲子本 四義雖具 粗略不完 遂毀之 厥明年改撰之(亦八卷) 此乙丑本也(此本在羅州海中) 乙丑冬 學稼至 偕棲寶恩山房 以前本不取兩互及交易之象 悉改之(十六卷) 至春而畢 此丙寅本也(此本在廣州) 丙寅本 於辭性留動之義 多有闕誤 故又令學稼易稿 未卒而北還 令李鶴來竣工(爲二十四卷) 此丁卯本也(其實此亦丙寅本) 丁卯本 詞理未精 象義多誤 戊辰秋 余與學圃在橘園 令圃脫稿(亦二十四卷) 此所謂戊辰本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건(乾)		서괘 (序卦)	하늘과 땅이 있는 연후에 만물이 생겨난다[序卦傳曰 有天地然後 萬物生焉].
		잡괘 (雜卦)	건(乾)은 강하고 곤(坤)은 부드럽다[雜卦傳曰 乾剛坤柔].
		설괘 (說卦)	건(乾)은 굳셈이다[說卦傳曰 乾健也].
		정자 (程子)	건(乾)은 하늘이다. 굳세어 쉬이 없는 것을 ‘건(乾)’이라고 한다[程子曰 乾天也 健而無息之謂乾].
		용안 (鋪案)	건(乾)과 건(健)이라는 것은 육서(六書)에서 해성(諧聲)이다. 8괘가 소장(消長)하는 순서 또한 중괘가 소장하는 것과 같은데 양(陽)은 진(震)에서 일어나고 태(兌)에서 장성하고 건(乾)에서 궁극에 이른다. 그러므로 「설괘전」에서 “진(震)은 그 궁극에 굳셈이 된다”고 하였는데, ‘건(健)’이라는 것은 건(乾)이다. 중괘(重卦)로써 보면 괘(卦)가 복괘(復卦)로 말미암아 시작하여 임괘(臨卦)가 되고 태괘(泰卦)가 되어 건괘(乾卦)에 이르렀을 때 그 운행이 매우 굳건하기 때문에 ‘건(乾)’이라고 이른 것이다. ‘건(乾)’이라는 것은 기(氣)이다. 옛날 전서에는 기(氣) 자를 ‘  ’로 쓰기도 하고 ‘  ’로 쓰기도 하였으며, 또 ‘  ’로 쓰기도 하고 ‘  ’로 쓰기도 하였다. ‘  ’라는 것은 ‘  ’을 예서체로 바꾼 것이다. ‘  ’이라는 것은 ‘  ’을 예서체로 바꾼 것이다. 만물의 생성은 모두 기(氣)의 변화를 받기 때문에 하늘이 되고 아버지가 되며, 곤(坤)과 더불어 짝이 되는 것이다. 또 ‘건(乾)’이라는 것은 ‘마른다’는 뜻이며, ‘물이 마른다’는 의미이다. 곤(坤)의 음(陰)이 이미 말라붙었으며, 태(兌)의 연못에 있는 물까지 지금 말라버렸으니 ‘건(乾)’이 되는 까닭이다. 하나라 역(易)에서는 간(艮)을 머리로 하고, 상나라 역(易)에서는 곤(坤)을 머리로 하는데 건(乾)을 머리로 삼는 것은 문왕(文王)의 역(易)이다[乾健者 六書之諧聲也 八卦消長之序 亦如重卦 陽起於震 壯於兌 究於乾 故說卦傳曰 震其究爲健 健者乾也 以重卦則卦由復始 爲臨爲泰 以至於乾 其行甚健 故謂之乾也 乾者氣也 古篆氣作   又作  作  卓者  之轉隸也 乞者  之轉隸也 萬物之生 皆受氣化 故爲天爲父 與坤爲配也 又乾者燥也 潤也 坤陰既燥 兌澤今潤 所以爲乾也 夏易首艮 商易首坤 以乾爲首者 文王之易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단(象)	안(案)	<p>‘문언(文言)’이라는 것은 고대의 자서(字書)이다. 『이아』나 『설문』과 같은 것인데 전적으로 『역』을 주석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가 태어나기 13년 전에 목강(穆姜)이 「문언」의 글을 이미 말했는데 이것으로써 증명할 수 있다. 『사기』 「공자세가」와 『한서』 「유림전」에서는 「문언」을 「십의」와 구별하여 나란히 하였다. 공자가 「문언」을 인용하여 「역전」으로 삼은 것을 후대의 유학자들이 마침내 공자가 지은 것이라고 인식하였으니 잘못된 것이다. “군자는 이 네 가지 덕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구절 이하는 공자의 글이다. 사방(四方)을 상징하는 괘는 사계절에 해당하고 사단(四端)에 해당하였다. 그러므로 또 사덕(四德)으로써 사괘(四卦)에 해당한다. ‘원형(元亨)’이라는 것은 마치 봄과 여름을 말하는 것과 같고, ‘이정(利貞)’이라는 것은 마치 가을과 겨울을 말하는 것과 같다. 또한 역례(易例)에 상세하게 나온다[文言者 古之字書 若爾雅說文之類 而專爲易詁者也 故孔子之生 十三年之前 穆姜預說文言之詞 斯可驗也 史記孔子世家及漢書儒林傳 並別之於十翼 蓋孔子引用文言 以爲易傳 而後之儒者 遂認爲孔子所作謬矣 君子行此四德者以下孔子文也 四方之卦 配於四時 配於四端 故又以四德配於四卦也 元亨者 猶言春而夏也 利貞者 猶言秋以冬也 又詳易例].</p>
건(乾)	초구 (初九)	안(案)	<p>가의(賈誼는 『신서(新書)』에서 “잠용(潛龍)은 들어가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역』에 ‘물용(勿用)’이라고 했다”고 하였다. 경방(京房)은 『역전』에서 ““잠용(潛龍)이니 쓰지 말라”는 것은 그 달라지면 바람이 운행하여 해산시키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두 역학가는 효변(爻變)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잡괘전」에 “태(兌)는 드러남이고 손(巽)은 숨음이다”고 말했는데. 괘(卦)가 서로 반대되기 때문이다. 구괘(姤卦)와 괘괘(夬卦)는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숨어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손(巽)과 진(震)은 반대되기 때문에 ‘행하지만 이루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군자의 도(道)는 드러내고자 하고 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숨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은 군자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시기가 그러할 뿐이다[賈誼新書曰 潛龍入而不能出 故易曰勿用 京房易傳云 潛龍勿用 厥巽風行不解 二家似知爻變 …雜卦傳曰 兌見而巽伏 卦相反也 姤與夬反 隱而未見也 巽與震反 行而未成也 君子之道 欲現也欲行也 隱而不行 非其願也 唯其時也].</p>
	구삼 (九三)	안(案)	<p>반고(班固)의 부(賦)에 “하는 일 없이 녹봉만 받고, 재물은 넘쳐나니 저녁에는 두려워하기를 위태로운 것처럼 하라”라고 했다. 『淮南자(淮南子)』 「인간훈(人間訓)」에는 ““종일건건(終日乾乾)”이라는 것은 양(陽)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석척약려(夕惕若厲)’는 음이 쉬기 때문이다”고 했다. 장형(張衡)의 「사현부(思玄賦)」에서는 ““석척약려(夕惕若厲)”라고 하였으니 허물을 살피도다”라고 했다. 이 모든 것은 ‘석척약려(夕惕若厲)’를 하나의 구절로 삼은 것인데, 한유들의 잘못됨이 이와 같다[班固之賦曰 尸祿負乘 夕惕若厲 淮南子曰 終日乾乾 以陽動也 夕惕若厲 以陰息也 張衡思玄賦曰 夕惕若厲 以省愆兮 皆以夕惕若厲爲句 漢儒之疏謬如此].</p>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건(乾)	구삼 (九三)	학가 (學稼)	태(兌)는 서쪽이 되고 이(離)는 해가 된다. 해가 서쪽에 있으면 저녁이다[兌則爲西 離則爲日 日在西則夕也].
		안(案)	이 점사으로써 점을 친다면 출처(出處)와 진퇴(進退)와 제사(祭祀)와 혼인(婚姻)과 전쟁(戰爭) 등의 일에 있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이 없다. 주공(周公)이 효사를 지을 처음에 아마도 『역』을 배우는 사람들이 오로지 복서를 주로 할까 염려하여 특별히 건괘(乾卦)의 내부에 이 하나의 점사를 삽입하여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역』의 용도가 복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가 『역』을 해석할 때 대부분 의리(義理)를 주로 하였는데 그 근원은 문왕(文王)과 주공(周公)에 근원한 것이지 공자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此繇以之爲筮 則於出處進退祭祀婚姻戰伐之等 皆無所當 周公撰詞之初 蓋恐與易者專主卜筮 特於乾卦之內 挿此一繇 使學者知易之爲用 不止於卜筮也 故孔子解易 多主義理 其源出於文王周公 非自孔子始也].
		안(案)	「대전(大傳)」에 “삼효(三爻)의 자리에는 흉(凶)이 많고 사효(四爻)의 자리에는 두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중(中)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괘(乾卦)의 삼효(三爻)와 사효(四爻)의 자리에서 모두 ‘무구(無咎)’를 말하고 있으며, 공자가 말할 것 또한 이러한 의도이다[大傳曰 三多凶四多懼 以不得中也 故乾卦三四 皆言無咎 孔子所言 亦此義也].
	구사 (九四)	안(案)	초효(初爻)와 사효(四爻)는 균등하게 손(巽)이 되는데 초효(初爻)가 잠룡(潛龍)이 되는 것은 자리가 땅 밑에 있기 때문이고, 사효(四爻)가 약룡(躍龍)이 되는 것은 자리가 천중(天中)에 가깝기 때문이다[初爻四爻 均之爲巽 而彼爲潛龍者 位在地底也 此爲躍龍者 位近天中也].
		학포 (學圃)	손(巽)은 물고기가 된다. ‘혹약재연(或躍在淵)’이라는 것은 물고기이다. 그러므로 채목(蔡墨)이 용(龍)에 대해 논의하면서 구사(九四)는 언급하지 않았다[巽則爲魚 或躍在淵者魚也 故蔡墨對龍 不言九四].
		안(案)	사효(四爻)의 자리에서는 두려움이 많으니 의심한다[疑]고 한 까닭이다[四則多懼 所以疑也].
구오 (九五)		안(案)	이(離)는 꿩이 되니 날아오른 새를 상징하는 괘(卦)이다. ‘이(離)’ 자는 추(隹)에서 나온 글자이고 ‘금(禽)’은 이(離) 자에서 나온 것이니 순구가가 이(離)를 비(飛)로 여긴 것은 그 근거가 있다[離則爲雉 飛鳥之卦也 離字從隹 禽字從离 荀九家之離爲飛 其有徵矣].
		우안 (又案)	이윤(伊尹)이 은(殷)나라 탕왕(湯王)을 만나고, 사상보(師尙父)가 문왕(文王)을 만났는데 만약 이러한 때에 점을 쳐서 이 구오(九五)를 만나면 그 점이 길(吉)한 것이다[伊尹就見殷湯 師尙父遇見文王 若於此時 筮而遇是 則其占吉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건(乾)	구오 (九五)	안(案)	<p>대유괘(大有卦)는 구괘(姤卦)와 괘(夬卦)를 근본으로 하는데 바람과 우레가 서로 만나니 ‘같은 소리는 서로 웅한다’라고 한 것이다. 4정괘(正卦)에서 화(火)와 천(天)이 한 종류인데 불과 하늘이 서로 만나니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한다’고 한 것이다. 태(兌)의 연못의 물은 추이하여도 연못이 되니 ‘물은 습한 곳으로 흐른다’고 한 것이다. 이화(離火)의 불꽃이 위로 건조(乾燥)함으로 옮겨 불으니 ‘불은 건조한 곳으로 나아간다’고 한 것이다. 손(巽)의 뻗뻗한 구름이 위로 진(震)을 따르니 ‘구름은 응을 따른다’고 한 것이다. 마침내 손(巽)의 바람이 위로 태(兌)를 따르니 ‘바람은 범을 따른다’고 한 것이다. 건(乾)의 성군이 이(離)의 문(文)으로 교화하니 ‘성인이 나온다’고 한 것이다. 여러 양(陽) 아래에 있으며 이(離)에서 서로 만나니 ‘만물이 우러러본다’고 한 것이다. 『예기(禮記)』 「표기(表記)」에 “물과 흙은 친하지만 존귀하지 않으며, 불과 하늘은 존귀하지만 서로 친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하늘에 근본한 것은 위와 친하고 땅에 근본한 것은 아래를 친히 한다”는 것이다. 화천(火天) 대유괘(大有卦)는 그 기질과 부류가 서로 감응한다. “나는 용(龍)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大人)을 만나봄이 이롭다.”라고 했거니와 또한 기질과 종류가 서로 통한다. 세상에 성군(聖君)이 있으면 성인(聖人)이 반드시 더불어 만나게 되니 이것이 ‘각각 그 같은 부류를 따른다’는 것이다[大有之卦 姤夬其本也 風雷相會 同聲相應也 四正之卦 火天其類也 火天相遇 同氣相求也 兌澤之水 移之爲淵 水流濕也 離火之焰 上延乾燥 火就燥也 巽之密雲 上而從震 雲從龍也 遂以巽風 上而從兌 風從虎也 乾之聖君 化以離文 聖人作也 羣陽在下 相見乎離 萬物覩也 表記曰 水土親而不尊 火天尊而不親 此所謂本乎天者親上 本乎地者親下也 火天大有 氣類相感也 飛龍在天 利見大人 亦氣類相感也 世有聖君 則聖人必與相見 此各從其類也].</p>
		정자 (程子)	<p>성인(聖人)이 이미 하늘의 이치를 얻었으니 아래에서 큰 덕을 갖춘 사람을 만나봄이 이롭다[聖人既得天位 則利見在下大德之人].</p>
		주자 (朱子)	<p>만나서 이로온 사람은 위에 있는 대인이다. 왕소소(王昭素)가 송(宋)나라 태조(太祖)에게 답변함에 또한 군신 간에 상호 작용되는 점으로 삼고자 했는데, 이것은 의심스러운 안건이다. 그러나 마땅히 공자의 말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자는 “성인이 나옴에 만물이 우러러본다”고 하였는데, ‘성인(聖人)’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성군(聖君)을 말하고 ‘만물이 우러러본다’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자가 만나봄에 이로온 것이다[所利見者 在上之大人 王昭素之對宋太祖 又欲互用於君臣之占 此疑案也 然當以孔子之言決之 孔子曰聖人作而萬物覩聖人者 在上之聖君也 物睹者 在下者之利見也].</p>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건(乾)	구오 (九五)	우안 (又案)	근래 유학자들의 설을 풍(風)과 뇌(雷)로써 ‘동성(同聲)’으로 여기고, 산(山)과택(澤)으로써 ‘동기(同氣)’로 여기며, 감(坎)과 이(離)를 ‘수(水)’와 ‘화(火)’로 여긴다. 마침내 건(乾)을 용(龍)으로 보고 곤(坤)을 호랑이로 보는 이론이 있는데 이런 뜻은 잘못된 것이다. 8괘의 덕(德)이 이 효에 모두 갖추어진 것이 아닌데, 하물며 건(乾)과 곤(坤)이 용과 호랑이가 되겠는가? 건(乾)은 본래 용이 아닌데, 곤(坤) 또한 어찌 호랑이이겠는가[近儒之說 以風雷爲同聲 山澤爲同氣 坎離爲水火 遂有乾龍坤虎之說 其義非也 八卦之德 非此爻之所得專 況以乾坤爲龍虎哉 乾本非龍 坤又何虎?]
		안(案)	‘대인(大人)’이란 성군(聖君)이다. 반드시 성군(聖君)이 있는 연 후에 성인(聖人)이 그를 만나서 이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성군(聖君)의 덕(德)의 성대함을 형용한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大人者聖君也 必有聖君而後 爲聖人之所利見 故形容其德之盛如此].
	상구 (上九)	안(案)	「홍범(洪範)」에 “정(貞)이라고 하고 회(悔)라고 한다”고 했는데 ‘회(悔)’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정(貞)’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잘못을 고치는 것을 ‘회(悔)’라고 하고 고치지 않는 것을 ‘인(吝)’이라고 한다[洪範 曰貞曰悔 悔者其變也 貞者其不變也 又改過曰悔 不改過曰吝].
		학자 (學稼)	상위(上位)의 한 양(陽)은 본래 진(震)인데 용(龍)에서 음(陰)이 없는 것이다. 양(陽)의 도(道)만 지나치게 강하니 이것이 ‘항룡(亢龍)’이다[上一陽本震 龍之無陰者 陽道太亢 是亢龍也].
		안(案)	‘항룡(亢龍)’은 교만하고 스스로 높이 올라가 조금도 자신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백성이 없는 것이고 신하도 없는 것이다[亢龍驕傲自亢 不少卑降 故无民无臣也].
		안(案)	‘성인(聖人)’이란 아래 괘의 건(乾)의 성인(聖人)을 말한다. 건(乾)이 태(兌)로 변하여, 위의 괘는 그 바름을 잃어버렸다. 바름을 잃지 않는 것은 아래의 괘이다[聖人謂下乾之聖人也 乾變爲兌 上失其正 不失正者 下卦也].
	용구 (用九)	안(案)	『춘추전(春秋傳)』에 보면 채묵(蔡墨)이 용(龍)에 대해 논의하는 곳에서 용구(用九)를 ‘건괘(乾卦)가 곤괘(坤卦)로 변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건괘(乾卦)와 곤괘(坤卦)에는 6효가 모두 변하는 경우가 있음을 살펴야 한다. 그러나 6효가 순수한 음이나 양으로 되어 있고 모두 변하는 경우에만 이것을 적용하며, 혹 서로 음과 양이 섞여서 변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을 ‘용구(用九)’라고 한다[春秋傳蔡墨對龍 以此爲乾之坤 則乾坤之有純變審矣 然六爻純變則用之 其或雜變者 皆所不用 故謂其所用者曰用九也].
		학자 (學稼)	그 혹 섞여서 변화하는 경우에는 구(九)와 육(六)이 섞여 있어서 명칭을 붙일 수 없다. 그러므로 방식에 따라 변화를 구하여 마침내 구(九)와 육(六)에 귀속시킨 것이다. 만약 여섯 위(位)가 모두 변하는 경우에는 구(九)와 육(六)의 이름이 성립하기 때문에 ‘용구(用九)’와 ‘용육(用六)’을 적용한 것이다[其或雜變者 九六參錯 不可指名 故以法求變 卒歸于九六 若六位皆變者 九六之名得立 故因而用之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곤(坤)		설괘 (說卦)	곤(坤)은 순함이다[坤 順也].
		용안 (鋪案)	곤괘(坤卦)의 근본은 구괘(姤卦)이니 돈괘(遯卦)가 되고 비괘(否卦)가 되고 박괘(剝卦)에까지 이른다. 음(陰)이 매년 아래에 있고, 마침내 양(陽)의 위에 올라타거나 양(陽)을 넘어서지 않으니 순함의 지극함이다. 이것이 곤(坤)이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이다. 4정괘(正卦) 가운데 아래에 있는 것은 물과 흙이다. 한 줌의 흙을 물 가운데 던지면 또한 반드시 떨어지듯 아래로 가라앉는다. 대개 그 성질에는 떠맡고 싣는 것이 있어 올라타거나 뛰어넘는 것이 없으니 순함의 지극함이다. 고문(古文)에 ‘≡’ 자로 썼고 또한 ‘𠄎’ 자로 쓰고 했는데, ≡은 괘(卦)의 형태이고 ‘천(川)’이라는 것은 순(順)의 뜻이다. ‘순(順)’자와 ‘순(馴)’자는 모두 ‘천(川)’자에서 나온 글자로 보이지만, 실제로 ‘천(川)’자에 근거한 글자이다. 그러므로 중원의 땅을 두루 둘러보는 것을 ‘순(巡)’이라고 하고 발음도 순(馴)과 더 붙어 같다[坤之本姤也 爲遯爲否 以至於剝 陰每在下 終不敢乘陽跨陽 順之至也 此其所以名坤也 四正之中 在下者水土也 而一撮之土 投之水中 亦必塌然而下沉 蓋其性有所任載 无所乘跨 順之至也 古文作≡ 亦作𠄎 ≡者卦形也 川者順之義也 順馴等字 皆從川 其實從≡也 故周行中土 謂之巡 而音與馴同也].
	단(象)	안(按)	정자는 ‘네 가지 덕은 같지만 정(貞)의 본체가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마땅히 주자(朱子)의 설을 바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程子曰 四德同而貞體則異 然當以朱子說爲正].
		우안 (又案)	건괘(蹇卦)에 ‘이서남(利西南)’이라고 했고 해괘(解卦)에 ‘이서남(利西南)’이라고 했으니 이 곤괘(坤卦)에서도 마땅히 ‘이서남(利西南)’을 구(句)로 보아야 한다[蹇曰利西南 解曰利西南 此卦亦當以利西南爲句].
		우안 (又按)	‘붕(朋)’이라는 것은 짝이다. 곤괘(坤卦)의 세 획이 모두 짝을 이루기 때문에 역례(易例)에 곤(坤)이 붕(朋)이 된다[朋者耦也 坤之三畫 皆成匹偶 故易例坤爲朋也].
		학포 (學圃)	『주례(周禮)』 「하관(夏官)」의 「목사(牧師)」에 “이른 봄에는 목초지를 불사르고 중춘(仲春)에는 교배를 시킨다” 하였는데 이것은 가축을 번식시키고 기르는 일이다[周禮牧師 孟春焚牧 仲春通淫 此孳育之政也].
		안(案)	여기에서 ‘문언(文言)’이라고 말한 것은 정강성(鄭康成)이 덧붙인 것이다. 공자가 건괘(乾卦)와 곤괘(坤卦) 두 괘에서 특별히 「단전(彖傳)」과 「상전(象傳)」 이외에 거듭 참미하고 반복하여 감탄한 것이 비록 다른 괘의 사례와는 다르지만, 그 글은 또한 「단전(彖傳)」과 「상전(象傳)」과 같은 것이다. 본래 하나로 통하는 글이었으나 동래(東萊)의 비직(費直)이 처음으로 전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곤(坤)	단(象)	안(案)	문(傳文)을 찢어서 각각의 주사 아래에 나누어 붙였다. 그런데 정현(鄭玄)이 장(章의 머리)에 ‘문언(文言)’이라는 두 글자가 있는 것을 보고 마침내 별도의 편(編)이라고 여겨 이내 곤괘(坤卦) 전(傳)에도 또한 ‘문언(文言)’이라는 두 글자를 첨가했다[此云文言者 鄭康成之所加也 孔子於乾坤二卦 特於象傳象傳之外 重重贊美 反復詠歎 雖與諸卦之例不同 其文則亦象傳象傳也 本是一通文字 自東萊費直始裂傳文 分隸各條之下 而鄭玄見章首有文言二字 遂認爲別編 乃於坤卦之傳 亦增文言二字].
	초육(初六)	안(案)	건괘(乾卦)는 복괘(復卦)로부터 시작된다. 진(震)의 인(仁)과 태(兌)의 의(義)가 쌓여서 제6위에 이르니 ‘선(善)을 쌓는 집’이다. 곤괘(坤卦)는 구괘(姤卦)로부터 시작된다. 불인(不仁)과 불의(不義)가 쌓여서 제6위에 이르니 ‘불선(不善)을 쌓는 집’이다. ‘여경(餘慶)’과 ‘여양(餘殃)’이란 앞으로의 효과이다. 음(陰)이 응집되어 합하면 소인(小人)이 굳게 뭉친다. 이미 응결되고 이미 단단해져 이내 그 악(惡)을 발산하면 둔괘(遯卦)가 되고 비괘(否卦)가 되어 ‘신하가 그 임금의 시해하는 사태’가 된다. 박괘(剝卦)가 되고 곤괘(坤卦)가 되어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는 사태’가 된다. 음(陰)이 응집하는 재앙은 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괘(下卦)의 자리는 이(離)의 자리인데 이(離)는 곧 낮이 된다. 상괘(上卦)의 자리는 감(坎)인데 감(坎)은 밤이 된다. ‘일조일석(一朝一夕)’이라는 것은 한 개의 괘를 말한다. 구괘(姤卦)로부터 곤괘(坤卦)가 되고, 다시 곤괘(坤卦)로부터 복괘(復卦)가 되고, 복괘(復卦)로부터 건괘(乾卦)가 되며, 건괘(乾卦)가 반대로 구괘(姤卦)가 되어 이내 그 악(惡)을 발산하니 하루아침이나 하루저녁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변(辨)’이라는 것은 분별함이다. 음이 처음 응결할 때 일찍이 그것을 분산시키지 못하면 그 악(惡)에 이름을 순종하여 재앙이 장차 하늘까지 넘치게 된다. 성인(聖人)의 뜻은 일찍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인(小人)들이 모여서 단합하면 그것이 점진적이고 비록 미미할지라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그것을 경계한 것이다[乾以復始 震仁兌義 積之至六 積善之家也 坤以姤始 不仁不義 積之至六 積不善之家也 餘慶餘殃 將然之效也 陰之凝合 小人之固結也 既凝既固 乃散厥惡 則爲遯爲否 臣弑其君 爲剝爲坤 子弑其父 陰凝之禍 不其遠矣乎 下卦位離 離則爲晝 上卦位坎 坎則爲夜 一朝一夕者 一卦之謂也 姤而爲坤 坤而爲復 復而爲乾 乾反爲姤 乃散厥惡 非一朝一夕也 辨者分也 陰之始凝 不早分之 馴致其惡 禍將滔天 聖人之義 貴早辨也 小人之聚合凝固 其漸雖微 不可不辨 此其戒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곤(坤)	육이 (六二)	안(案)	여러 학자들이 모두 ‘직방대(直方大)’를 한 구(句)로 여긴다. 그러나 ‘상(霜)’자와 ‘방(方)’자와 ‘장(章)’자와 ‘낭(囊)’자가 본래 협운의 관계에 있으니 마땅히 직방(直方)을 한 구(句)로 보아야 한다. 「단전(彖傳)」에서도 ‘직방(直方)’이라는 두 글자만 거론하였고, 「대전(大傳)」과 「예기(禮記)」 「심역(深衣)」의 글에서도 역시 그러하니 ‘직방(直方)’이 구(句)가 됨에는 의심할 것이 없다[諸家皆以直方大爲句 然霜方章囊 本相叶韻 當以直方爲句也 彖傳只舉直方二字 大傳及深衣之文亦然 直方爲句無疑也].
		안(案)	남의 신하가 된 사람은 경(敬)으로써 안을 바르게 하면 그 몸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의(義)로써 밖을 곧게 하면 그 도(道)를 굽히지 않을 것이다. 경(敬)과 의(義)가 안으로 견고하고 유(柔)와 순(順)이 밖으로 드러나면 그 덕(德)이 강하고 과감함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유순함에도 치우치지 않을 것이니 외롭지 않은 까닭이다. 이 도리로서 행하면 신하가 될 수 있고, 다시 의심받지 않으니 ‘금이 거둬지지 않으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의심을 풀어 주는 말이다[爲人臣者 敬以直內 則不失其身 義以方外 則不枉其道 敬義內固而柔順外著 則其德不偏於剛果 不偏於柔順 所以爲不孤也 以此道行 可以爲臣 无復可疑 大不習无無不利者 破疑之辭也].
	육삼 (六三)	학가 (學稼)	장(章)이라는 것은 악곡(樂曲)에서 한 소절이 끝난 것이다. 진(震)은 음악(音樂)의 괘가 되기 때문에 진(震)이 곧 장(章)의 뜻이 된다[章者樂之一終也 震爲音樂之卦 故震則爲章也].
		학포 (學圃)	태(兌)는 위가 터져 있기 때문에 ‘입’이 되고, 간(艮)은 위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머금음’이 된다[兌上圻 故爲口 艮上合 故爲含].
		안(案)	음(陰)이 아름다움을 가졌다는 것은 곤괘(坤卦)가 강(剛)을 얻은 것이다. 곤괘(坤卦)가 강(剛)을 얻으면 복괘(復卦)가 되고 복괘(復卦)에서 머금으면 겸괘(謙卦)가 된다[陰有美者 坤得剛也 坤得剛則爲復 復而含則爲謙也].
	육사 (六四)	안(案)	순구가 “곤(坤)이 주머니가 된다”고 했던 것은 잘못이다. 성호 선생(星湖先生)은 “제4효가 변하여 진(震)이 되니 주머니의 상이 있다”고 했다[荀九家云坤爲囊 非矣 星湖先生曰 四之動爲震 有囊象].
		우안 (又案)	양자(楊子: 양옹)의 『방언』에 “괄(括)은 문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이라고 했는데 간(艮)은 열린 문이 되고 진(震)은 닫힌 문이 된다. 그러므로 복괘(復卦)의 「대상전(大象傳)」에 “둥것날에 관문을 닫는다”고 했다. ‘괄(括)’이란 닫음을 의미한다. 박괘(剝卦)의 간문(艮門)이 지금 진(震)으로 닫히니 그 상이 ‘괄(括)’이다[楊子方言曰 括關閉也 艮爲開門 震爲閉關 故復之大象曰 至日閉關 括者閉也 剝之艮門 今以震閉 其象括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곤(坤)	육사 (六四)	안(案)	예괘(豫卦)는 복괘(復卦)와 박괘(剝卦)로부터 왔다. 복괘(復卦)는 곤괘(坤卦)로부터 와서 건괘(乾卦)의 시초가 되니 곧 천지 변화(天地變化)의 괘이다. 복괘(復卦)의 때에는 군자가 도(道)를 얻고 초목도 번성하고 아름답다. 추이하여 예괘(豫卦)가 되면 천위(天位)와 지위(地位)의 사이에 하나의 장애물이 가운데로 가로지르고 박괘(剝卦)의 간문(艮門)도 지금 이에 빗장을 걸어 잠그니 ‘천지가 닫힌다’고 했다. 진(震)의 군자가 감(坎)으로 숨어 버리니 ‘현인이 숨는다’고 했다. 어찌서 그러한가? 임금과 신하 사이에 소인이 가운데 거처하여 공적인 행동을 참소하니 이것은 해로움을 멀리할 때이다.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豫自復剝來 復者自坤爲乾之始 即天地變化之卦也 復之時 君子得道 草木蕃鮮 移之爲豫 則天位地位之間 一梗中橫 而剝之艮門 今乃閉關 天地閉也 震之君子 坎用隱伏 賢人隱也 曷然哉 君臣之間 小人居中 讒慝公行 此遠害之時也 可不慎乎]
		안(案)	『춘추전(春秋傳)』 남괘(南蒯)의 점사에서 이 효(爻)를 얻었다. 자복혜백(子服惠伯)이 “황(黃)은 가운데 색이고, ‘상(裳)’은 아래를 꾸미는 옷이며, ‘원(元)’은 선(善)의 으뜸이다”고 했다. 또 “위가 아름다운 것이 원(元)이고 아래가 아름다운 것이 상(裳)이다”고 했다. 자복혜백(子服惠伯) 또한 하괘(下卦)의 곤(坤)을 ‘상(裳)’이라고 여기고, 가운데 강(剛)을 ‘원(元)’으로 보았다. 읽는 사람들이 자세히 살펴야 한다[春秋傳南蒯之筮遇此爻 子服惠伯 曰黃 中之色也 裳 下之飾也 元 善之長也 又曰 上美爲元 下美則裳 惠伯亦以下坤爲裳 中剛爲元 讀者詳之].
	육오 (六五)	안(案)	비괘(比卦)는 복괘(復卦)로부터 왔다. ‘군자(君子)’라는 것은 진(震)이다. 안으로 순수하고 바르니 물리(物理)를 통달하게 된다. 그 자리를 바르게 하면 신체가 편안해진다. ‘황중(黃中)’이라는 것은 곤(坤)이고 ‘통리(通理)’라는 것은 감(坎)이다. ‘정위(正位)’는 감(坎)이고 ‘거체(居體)’는 곤(坤)이다. 복괘(復卦)는 진(震)의 다리가 있고 박괘(剝卦)는 간(艮)의 손이 있는데 이것을 추이하여 비괘(比卦)가 되면 감(坎)의 피가 흘러 통하니 “아름다움이 그 가운데 있어 온몸에 펼쳐진다”고 한 것이다. 덕(德)이 가운데 자리하여 온몸에 드러나는 것이 또한 이것과 같다[比自復來 君子者震也 內純正則物理通 正其位則體膚安 黃中者坤也 通理者坎也 正位者坎也 居體者坤也 復之震足 剝之艮手 移之爲比 則坎血流通 美在其中 而暢於四支也 德之在中 發於四體 亦猶是也].
		안(案)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곤(坤)	상육 (上六)	안(案)	『좌전(左傳)』에 “용(龍)이 정(鄭)나라 문에서 싸운다”고 했다. 역사(易詞)가 상을 취한 것은 모두 실리(實理)에 부합한 것이다[左傳龍鬪鄭門 易詞取象 皆合實理].
		학포 (學圃)	음(陰)과 양(陽)이 자주 변하고 급하게 왕래하는데 이지러져 떨어지고 끌어당기면서 고통이 극에 달해 죽으니 그 피의 빛이 검고 누런색이다. 감(坎)은 붉은 피가 되는데 지금 감(坎)은 실제의 감(坎)이 아니니 그 색깔이 변한 것이다[陰陽屢變 倏忽往來 支離攪擘 困極而死 其血玄黃也 坎爲赤血 今坎非坎 色有渝也].
		안(案)	곤괘(坤卦)는 본래 순음(純陰)이라서 음(陰)이 이미 제6위에 도달하였고 또 노음(老陰)을 얻었으니 이것이 ‘무양(無陽)’이다. 관괘(觀卦)의 두 개의 양은 본래 같은 종류라서 혈액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피로서 경계를 삼은 것이다[坤本純陰 陰既至六 又得老陰 是無陽也 觀之二陽 本是同類 血脈相通 故血爲戒也].
준(屯)		서괘 (序卦)	‘준(屯)’이라는 것은 가득 찬 것이다. ‘준’이란 사물이 처음 생겨나는 것이다[屯者盈也 屯者物之始生也].
		잡괘 (雜卦)	준괘(屯卦)는 드러나지만 그 거처함을 잃지 않는다[屯見而不失其居].
		주자 (朱子)	‘준(屯)’이란 글자는 싹이 땅을 뚫고 비로소 나왔지만 아직 뻗지 못한 것을 상징한다[屯字象中穿地始出而未申也].
		용안 (鋪案)	준괘(屯卦)는 임괘(臨卦)로부터 왔다. 임괘(臨卦)의 때에는 진(震)의 풀에서 싹이 나왔는데 위로 곤(坤)의 흙을 이고 있으니 비록 이미 꺾질을 뚫고 나왔지만 아직 땅을 뚫고 나오는 데까지 미치지 못했다. 추이하여 준괘(屯卦)가 되면 진(震)의 풀로부터 나온 싹이 우러러 땅을 뚫고 나오니 가득히 봄기운이 불어와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기세가 있다. 불행이도 감(坎)의 험난함 속에서 생겨나 살려는 의지가 이르지 못하고 한 점의 곤(坤)의 흙이 여전히 구부러진 싹 위에 얹혀 있다. 그래서 싹의 형상이 구부러져 도리어 아래로 향하는 형세에 있다. 이것은 거의 땅을 뚫고 나왔으나 땅을 뚫고 나오는 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것이다. ‘준(屯)’ 자의 뜻이 본래 그러하다. 그러므로 ‘춘(春)’ 자도 ‘준(屯)’ 자에 의거한 것이다. 본래의 덕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 서법에 있어서도 항상 험난함을 만나는 상(象)이 있다. 이것이 이른바 ‘준(屯)’ 자는 험난함이라는 것이다[卦自臨來 臨之時 震艸之萌 上載坤土 雖已甲坼 未及穿地 移之爲屯 則震艸之萌 仰而穿地 譏然有春嚙茁之勢 不幸坎險中生 生意未達 一點坤土 尙載勾萌之上 而中形勾曲 反有向下之勢 此幾乎穿地 而未及出地也 屯之字義本然 故春字從屯也 本德如是 故其在筮法 每有遇險之象 此所謂屯字難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준(屯)	단(象)	안(案)	대형정(大亨貞)이라 하고 원리(元利)를 말하지 않은 것은 ‘원(元)’자와 ‘이(利)’자가 ‘형(亨)’과 ‘정(貞)’에 의거해야 문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비교적 중요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형(亨)과 정(貞) 두 글자는 ‘원(元)’과 ‘이(利)’라는 글자를 제거하여도 또한 문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비교적 중요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원(元)’자와 ‘이(利)’자 가운데 ‘원(元)’자가 비교적 중요하고 ‘이(利)’자가 비교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정(大亨貞)’이라고만 말한 것이다[大亨貞 不言元利者 明元利二字 依亨貞以成文 其義較虛 亨貞二字 去元利亦成文 其義較實 元利二字之中 又元字較實 利字較虛 故曰大亨貞也].
		국어 (國語)	공자(公子) 중이(重耳)가 나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 점을 쳐서 정준(貞屯)의 괘를 만났다. 사공계자(司空季子)가 “길합니다. 주님이 진의 우레로써 ‘장(長)’이 되므로 ‘원(元)’이라고 한 것입니다. 무리들이 따르는 것은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형(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괘(內卦)에 진(震)의 우레가 있기 때문에 ‘이정(利貞)’이라고 한 것입니다. 무릇 ‘갈 바를 두지 말라’는 것은 작은 일은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니 한 필부의 일입니다”라고 했다[公子重耳 筮得國 遇貞屯之卦 司空季子曰 主震雷長 故曰元 衆而順嘉也 故曰亨 內有震雷 故曰利貞 若夫勿用有攸往 小事不濟 一夫之行也].
		안(案)	군주(君主)를 세우는 것에 대해 점을 치는 사람이 이 괘를 만나면 길(吉)하며, 여행을 떠나는 일에 대해 점을 치는 사람이 이 괘를 만나면 길하지 못하다[筮立君者遇此則吉 筮起程者遇此則不吉].
	초구 (初九)	안(案)	‘반환(槃桓)’은 ‘반선(般還)’으로 읽는데, 『예기』에서 말한 반선(般旋)이다. ‘선(桓)’과 ‘전(遶)’은 협운이다. 『사기(史記)』 「평원군(平原君)」 「우경열전(虞卿列傳)」에 “절름발이가 몸을 기우뚱거리며 물을 길으러 갔다”고 했는데 한쪽 다리를 세웠다가 한쪽 다리를 움직이니 그 발걸음이 머뭇머뭇하는 것이다.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외로운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머뭇거리네”라고 했는데 또한 이러한 뜻이다[槃桓讀作般還 禮所云般旋也 桓與遶叶 史記云蹠者槃散行汲 植一足而運一足 其行盤桓然也 陶潛詞云 撫孤松而盤桓 亦此意也].
		춘추전(春秋傳)	맹집(孟軻)의 다리가 걷기에 좋지 않았는데 공성자(孔成子)가 점을 쳐서 준괘(屯卦)가 비괘(比卦)로 변하는 점괘를 얻었다. 사조(史朝)가 그것을 헤아려 “다리가 약한 사람은 거처할 것이고, 제후는 사직을 주관할 것이다. 또한 옳지 않겠는가?”라고 했다[孟軻之足 不良于行 孔成子筮之 遇屯之比 史朝占之曰 弱足者居 侯主社稷 不亦可乎].
		안(案)	이 문장은 ‘반선(槃桓)’이 절름발이가 됨이 분명하다[此文槃桓之爲蹠 審矣].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준(屯)	육이 (六二)	안(案)	‘자(字)’는 ‘자(孳)’와 통한다. 곤(坤)은 자모(子母)가 되기 때문에 그 점(占)이 이와 같다. 아마도 『예기(禮記)』에 나오는 “비녀를 꽂고 ‘자(字)’를 부른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字與孳通 坤爲子母 故其占如是 恐非笄而字之義].
	육사 (六四)	학가 (學稼)	「대전(大傳)」에서 “소에 멩을 달고 말을 타는 것은 수괘(隨卦)에서 취한 것이다”라고 했으니 수괘(隨卦)는 본래 ‘승마(乘馬)’와 관련된 괘(卦)이다[大傳曰服牛乘馬 蓋取諸隨 隨者乘馬之卦也].
		학포 (學圃)	역례(易例)에 간(艮)은 구(求)가 된다. 그러므로 「잡괘전(雜卦傳)」에 관괘(觀卦)를 구(求)라고 한 것이다[易例艮爲求 故雜卦以觀爲求].
	구오 (九五)	안(案)	『주례(周禮)』 「춘관(春官)」에 “태복(太卜)이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거북점을 치고, 작은 일에는 그 점복(占卜)에 참여한다”고 했고, 또 “소종백(小宗伯)은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옥백(玉帛)을 받든다”라고 했다. 정(貞)이 사(事)가 되는 의미는 분명하다. 또 『한서(漢書)』 「곡영전(谷永傳)」에 이 효(爻)를 이용하여 “소정(小貞)은 신하가 되고 대정(大貞)은 군주가 되는 데 군주가 인식하면 흉하고 신하가 인식하면 길하다”고 했다[周禮太卜 凡國大貞則作龜 小思則泄卜 又小宗伯 凡國大貞則奉玉帛 貞之爲事 審矣 又漢谷永傳引此爻曰 小貞爲臣 大貞爲君 君吝則凶 臣吝則吉].
		우안 (又案)	『서경(書經)』 「홍범(洪範)」에 “안에서 하는 것은 길(吉)하고 밖에서 하는 것은 흉(凶)하다”고 했으니 거북점이나 시초점의 상(象)에는 본래 정해진 길(吉)함이 없는 것이고, 또 정해진 흉(凶)함도 없는 것이다. 작은 것이나 큰 것, 안이나 밖 그 점이 각각 다르니 구애될 것이 없다[洪範云作內吉 作外凶 龜筮之象 本無定吉 亦無定凶 小大內外 其占各異 不可拘也].
		학가 (學稼)	가득 차서 흘러지지 않는 것을 ‘준(屯)’이라고 하니 오효(五爻)가 비록 변하지 않을지라도 또한 “그 은택을 가득 채워 놓고 베풀지 않음”이 된다[盈而不散曰屯 五雖不變 亦屯其膏也].
	상육 (上六)	안(案)	준괘(屯卦)는 본처와 첩 사이의 곤란을 의미한다[屯者 嫡妾之難也].
몽(蒙)		서괘 (序卦)	몽(蒙)은 ‘어리다’는 의미이니 사물이 어린 것이다[蒙者 蒙也 物之穉也].
		잡괘 (雜卦)	몽(蒙)은 섞여서 드러나는 것이다[蒙雜而著].
		용안 (鋪案)	몽(蒙)은 ‘덮는다’는 의미이다. 몽괘(蒙卦)는 관괘(觀卦)로부터 왔다. 대간(大艮)의 뒷개가 아래로 곤(坤)의 백성을 덮고 있었는데 추이하여 몽괘(蒙卦)로 되어서도 그 덮임이 고쳐지지 않으니 이것을 ‘몽(蒙)’이라고 한다. 또 몽(蒙)은 어리다는 의미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몽(蒙)	용안 (鑰案)		이다. 몽괘(蒙卦)는 임괘(臨卦)로부터 왔다. 진(震)의 풀의 싹이 곤(坤)의 흙을 뚫고 지나서 처음 지면으로 나와 그 싹의 겹질을 이고 있으면서 그 형세가 아래로 드리우고 있으니 덮고 있는 무성한 풀인 것이다. 사물이 생겨날 때에는 반드시 어리니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몽(蒙)에는 덮음의 뜻이 있으니 그 초효(初爻)의 강(剛)을 옮겨 머리 위에 이고 있다. 그러므로 그 형상이 덮여씩워진 모습과 같다[蒙者覆也 卦自觀來 大艮之幪 下覆坤 民 移之爲蒙 而其幪不改 此之謂蒙也 又蒙者穉也 卦自臨來 震 艸之萌 穿過坤土 始出地面 而戴其茅甲 其勢下垂 蒙茸之艸也 物生必蒙 此之謂也 蒙者被也 移其初剛 戴之頭上 如蒙被然也].
		안(案)	준괘(屯卦)와 몽괘(蒙卦)는 반대되는 괘이다. 몽(蒙)에서 ‘원형(元亨)’되지 못한 것은 임괘(臨卦) 초효(初爻)의 강(剛)이 가서 자리를 얻지 못하다가 이내 간(艮)으로써 미혹되었으니 군도(君道)를 잃은 것이다[屯蒙反對也 蒙不得爲元亨者 臨之初剛 往不得位 乃以艮迷失君道也].
		단(象)	준괘(屯卦)에서 제후를 세운다고 한 것은 군도(君道)를 의미한다. 몽괘(蒙卦)에서 아(我)를 구한다는 것은 사도(師道)를 의미한다. 천지가 이미 자리를 차지했으니 군도(君道)와 사도(師道)가 세워지는 것이다[屯建侯 有君道焉 蒙求我 有師道焉 天地既位 君師立矣].
		학가 (學稼)	‘처음에 점을 치면 알려 준다’는 것은 물상(物象)을 말한다. 서가(筮家)의 말인데 서점(筮占)으로써 상(象)을 삼았으니 기묘하게 변화시킨 문장이다[初筮告者 物象也 筮家之詞 而以筮爲象 奇變之文也].
	초육 (初六)	안(案)	순구가는 감(坎)을 질곡(桎梏)으로 여겼으니 잘못이다[荀九家以坎爲桎梏 謬矣].
		학포 (學圃)	‘탈(脫)’은 ‘발(發)’이란 뜻이다. 꽃이 몽우리에서 피어나면 꽃이 피어나고 활이 활시위에서 벗어나면 화살이 발사되는 것은 그 뜻이 하나이다[脫者發也 脫於蓍則花發 脫於弓弦則矢發 其義一也].
육삼 (六三)		안(案)	『좌전』에서 여자가 남자를 유혹시키는 것을 ‘고(蠱)’라 했다. 효변(爻變)하여 고괘(蠱卦)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점이 이와 같다. 점괘(漸卦)와 귀매괘(歸妹卦)는 모두 건(乾)이 변하여 태(兌)가 된 것이지만 ‘물용(勿用)’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괘(卦)가 이미 고괘(蠱卦)가 아니어서 이러한 불리(不利)함이 없기 때문이다[左傳女惑男曰蠱 爻變爲蠱 故其占如是也 漸與歸妹 皆乾變爲兌 而不言勿用者 卦既非蠱 无此不利也].
		우안 (又案)	‘용(用)’과 ‘궁(躬)’은 협운(叶韻)이다. …따마히 ‘물용(勿用)’으로서 구(句)를 삼아야 한다. 『상전(象傳)』에서 ‘여자를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은 두 구(句)를 묶어서 하나의 구(句)로 삼은 것이니 그 문례(文例)가 본래 그러한 것이다[用躬叶韻…宜以勿用爲句也 象傳云勿用取女者 括二句而爲一句 本其文例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몽(蒙)	육오 (六五)	학포 (學圃)	동자(童子)는 관을 쓰지 않는데 그 머리털을 덮어쓰고 있기 때문에 ‘동몽(童蒙)’이라고 한 것이다[童子不冠 蒙其髮髦 故謂之童蒙].
수(需)	용안 (鑰案)	서괘 (序卦)	수(需)는 음식의 도(道)이다[需者 飲食之道].
		잡괘 (雜卦)	수(需)는 나아가지 않음이다[需不進也].
			수(需)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의미이다. 수괘(需卦)는 대장괘(大壯卦)로부터 왔다. 양(陽)이 나아가 제4위에 이르고 진(震)의 길에 막힘이 없었는데 추이(推移)하여 수괘(需卦)가 되면 감(坎)의 험난함이 앞에 있으니 건(乾)의 행진이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이 ‘수(需)’라고 명칭한 까닭이다. 수(需)는 ‘검넌다’는 의미이다. 건(乾)의 말이 강건하지만 험난함을 보고 나아가지 못하니 두려움이 심한 것이다.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에 “말이 겁이 많거나 나약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도 이것이다. 또 그 글자 됨은 ‘우(雨)’ 자를 따르고, ‘천(天)’ 자를 따르고 있다. 비가 하늘 위에 있으면 구름이 된다. 순양(純陽)이 아래 있고 이(離)의 태양이 말려 버리니 태(兌)의 무당이 기도를 하였는데 그 정성이 거의 하늘에 통할 만하다. 감(坎)의 비가 하늘에 있는데 그 은택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것을 일러 ‘수(需)’라고 한다. 또 ‘수(需)’는 ‘의심함’을 뜻한다. 중부괘(中孚卦)의 때에는 신뢰하여 의심이 없었는데 추이하여 수괘(需卦)가 되면 감(坎)의 의심이 앞에 있으니 이것이 수(需)인 까닭이다. 『좌전(左傳)』에 “의심한다는 것은 일을 어그러트리는 적(賊)이다”고 했으니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需者須也 卦自大壯來 陽進至四 震道无闕 移之爲需 則坎險在前 乾行不進 若有需待然者 此其所以名需也 需者濡也 乾馬之健 而見險不進 濡之甚矣 考工記所云馬不契需者此也 又其爲字 從雨從天 雨在天則雲也 純陽在下 離日暉之 兌巫之禱 庶幾孚格 而坎雨在天 澤不下降 人所企待 莫此若也 此之謂需也 又需者疑也 中孚之時 信而無疑 移之爲需 則坎疑在前 所以需也 左傳曰需者事之賊 此之謂也].
	구이 (九二)	정현 (鄭玄)	『역(易)』에서는 ‘사(沙)’ 자를 ‘지(止)’로 썼다. 맹희본(孟喜本)에서는 ‘사(沙)’ 자 아래에 ‘연(衍)’ 자가 있다[易沙作止 孟喜本 沙下有衍字].
	상육 (上六)	안(案)	관괘(觀卦)의 육사(六四)와 구괘(姤卦)의 구이(九二)는 모두 건(乾)과 손(巽)으로써 손님과 주인을 삼는다[觀六四姤二 皆以乾巽爲賓主].
		우안 (又案)	감(坎)이 구멍이가 되는 것은 두 개의 음이 구멍이가 되기 때문이다[坎爲穴者 其兩陰爲穴也].
		학포 (學圃)	‘구멍에 들어간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의 상(象)이 되니 아래의 문장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入于穴 自爲一象 與下文不相干].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송(訟)		잡괘 (雜卦)	송(訟)은 친하지 않은 것이다[訟不親也].
		주자 (朱子)	본인은 위태롭고 저들은 강건하기 때문에 송사(訟事)의 도이다[己險彼建 訟之道也].
		용안 (繡案)	송괘(訟卦)는 중부괘(中孚卦)로부터 왔다. 중부괘(中孚卦)의 때에는 하괘(下卦)는 태(兌)이고 상괘(上卦)는 손(巽)이니 두 개의 입이 서로 향하고 있다. 가운데로는 대리(大離)를 이루었으니 이미 상대와 변론하는 형상이 있다. 그러나 나는 화해하고자 하고 저들은 따르고자 하니 쟁송(爭訟)에까지 이르지 않는다. 추이하여 송괘(訟卦)가 되면 자신은 위태롭고 저들은 강하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의심하는 것이다. 차례대로 왕법으로서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니 이것을 일러 송(訟)이라고 한다. 송(訟)이라는 것은 공적인 말이다[卦自中孚來 中孚之時 下兌上巽 兩口相向 中成離 已有對辯之象 而我和彼順 不至爭訟 移之爲訟 則我險彼剛 兩相疑阻 第以王法 辨其曲直 此之謂訟 訟者言也].
	단(象)	안(案)	정현본(鄭玄本)에는 ‘질(窒)’ 자가 ‘질(咥)’로 되어 있다. 마옹(馬融)은 ‘지(頤)’로 읽었다. 또 순구가의 여러 『역』에서 모두 ‘중길(中吉)’을 구(句)로 삼았는데 잘못된 것이다. ‘중(中)’ 자와 ‘흉(凶)’ 자는 협운(叶韻)이다[鄭玄本室作咥 馬融讀作頤 又九家諸易 皆以中吉爲句 誤矣 中與凶叶韻].
	구이 (九二)	구가 (九家)	구가의 역(易)에서는 ‘철(掇)’ 자를 ‘대(隊)’ 자로 읽었는데 또한 잘못된 것이다[易掇音隊 亦謬矣].
	구사 (九四)	학가 (學稼)	처음에는 강(剛) 자가 명령에 나아가나 지금에는 유(柔) 자가 명령에 나아가니 쟁송(爭訟)하는 형상이다[始也剛者卽命 今也柔者卽命 亦爭訟之象也].
	상구 (上九)	안(案)	『예기(禮記)』 「옥조(玉藻)」 편에 “무릎덮개는 그 길이가 3척이고 어깨와 허대는 그 폭이 2촌이다”고 했다. 또 “일명(一命)은 온불(緼紱)을 사용하고 재명(再命)은 적불(赤紱)을 사용한다”고 했다. 반대(鞶帶)라는 것은 명복(命服)의 띠이니 양웅(揚雄)의 『태현경(太玄經)』의 ‘주(周) 수(首)에 “가죽 띠를 허리를 두르고 옥(玉)의 고리로써 드리운다”고 했다. ‘반(鞶)’이라는 것은 필대(鞶帶)이니 치마에 덧붙이는 것이다. 곤괘(困卦)의 육이(六二)에서 “붉은 제복을 입은 제후(諸侯)가 바야흐로 올 것이다”고 하고, 곤괘(困卦)의 구오(九五)에서 “붉은 제복을 입은 대부(大夫)의 신분에 곤궁함에 처하다”고 했다. 곤괘(困卦)는 비괘(否卦)로부터 왔으니 본래 옷과 치마의 상징이 있다[玉藻云鞶長三尺 肩革帶博二寸 又曰一命緼紱 再命赤紱 鞶帶者 命服之帶也 揚雄玄經其周首曰帶其鉤鞶 鍾以玉環 鞶者鞶帶也 所以加於裳也 困之六二曰朱紱方來 困之九五曰困于赤紱 困自否來 本有衣裳之象].
		정현 (鄭玄)	정현역에서는 ‘치(褫)’를 ‘타(拖)’로 읽었는데 크게 잘못된 것이다. ‘치(褫)’는 벗는 것을 뜻한다. 태(兌)로써 벗는 것이다[易褫讀作拖 大謬矣 褫者脫也 兌以脫之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사(師)		서괘 (序卦)	사(師)는 무리이다[師者 衆也].
		잡괘 (雜卦)	비(比)는 즐거움이며, 사(師)는 근심이다[比樂師憂].
		정자 (程子)	비괘(比卦)의 하나의 양(陽)이 위에 있으니 군주(君主)의 형상이며, 사괘(師卦)의 하나의 양(陽)이 아래에 있으니 장수(將帥)의 형상이다[此一陽在上 君象也 師一陽在下 將帥之象也].
		주자 (朱子)	감(坎)은 험난함이고 곤(坤)은 순함이니 옛날에 “군사를 농민에 귀속시켰다”고 한다[坎險坤順 古者寓兵於農].
	용안 (繡案)		‘사(師)’라는 것은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통솔하는 것이다. 제자들의 무리가 모였을 때 한 사람이 통솔하면 그것을 이름하여 ‘사(師)’라고 한다. 졸(卒)과 오(伍)의 무리가 모였을 때 한 사람이 통솔하면 그것을 이름하여 ‘사(師)’라고 한다. 주나라 제도에는 오백 명의 사람을 ‘여(旅)’라고 하고, 오 려(五旅)를 ‘사(師)’라고 한다. ‘사(師)’는 무리이니 한 명의 장수를 세우는 것을 ‘군사(軍師)’라고 한다. ‘사(師)’는 법(法)이니 사람들이 모범으로 여기는 것이다. 괘상(卦象)으로 본다면 하나의 양(陽)이 가운데 거처하면서 다섯 음(陰)을 거느리니 무리들의 우두머리이다. 곤(坤)은 나라의 고을이 되며, 감(坎)은 도랑이 되니 모두 출병(出兵)하는 곳이다. 감(坎)의 마차를 가지고 곤(坤)의 무리를 앞으로 내모니 또한 병사의 형상이다. 병가(兵家)의 부류에 ‘사괘진(師卦陣)’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사괘(師卦)에 전방에 사익진(四翼陣)을 하고 대장(大將)이 가운데 거처하고 후방에 굳건하게 방비를 두는 것이니 실제로 진(陣)을 펼치는 형상이다[師者以一而帥衆也 弟子羣集 以一人而帥之則名之曰師也 卒伍衆盛 以一人而帥之則名之曰師也 周制五百人爲旅 五旅爲師 師者衆也 立一將謂之軍師 師者法也 人之模範也 以卦象則一陽居中 以領五陰 衆之師也 坤爲國邑 坎爲溝洫 皆所以出兵也 坎之車馬 前驅坤衆 亦兵象也 兵家類有師卦陣 蓋是卦前驅四翼 大將居中 後勁有備 實行陣之象也].
		단(象)	단(象)
	초육 (初六)	안(案)	양웅(揚雄)의 『태현경(太玄經)』의 ‘중(衆)’ 수(首)의 찬(贊)에 “장인취나(丈人摧攄)”라고 했으니 이것은 박괘(剝卦)의 간산(艮山)이 지금 허물어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간(艮)이 장인(丈人)이 되는 것은 아니다[揚雄玄經 衆首之贊曰丈人摧攄 此謂剝之艮山今頽也 然艮不得爲丈人].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율서(律書)」에 군사를 움직이는 법을 전적으로 논의했으니 이것은 옛날의 뜻이다. 그러므로 ‘수(帥)’라는 것은 ‘거느린다[率]’는 것을 의미이고, ‘거느린다’는 것은 ‘규율[律]’을 뜻하며, ‘규율’은 감(坎)의 규율이다[司馬遷律書 全論行師之法 古之義也 故帥者率也 率者律也 律者坎律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사(師)	초육 (初六)	좌전 (左傳)	순수(荀首)의 말 가운데 이 효(爻)를 해석하여 “일을 집행할 때 순조롭게 완성하는 것이 ‘장(臧)’이며, 거스르는 것이 ‘비(否)’가 된다. 군율을 적용할 때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이 하기 때문에 『주역』에 ‘율비장(律否臧)’이라 한 것이다”고 했다[荀首之言 釋此爻曰執事順成爲臧 逆爲否 有律以如己也 故曰律否臧].
		안(案)	‘비(否)’라는 것은 막힘을 뜻하고, 감(坎)은 통함이 된다. 태(兌)는 막힘이니 ‘비(否)’가 되는 까닭이다. 『좌전』의 글에는 마치 “율비장(律否臧)”을 하나의 구(句)로 삼는 것 같다. 그러나 ‘출(出)’자와 ‘율(律)’자가 험운(叶韻)이고, 또 「상전」의 글에 분명히 ‘율(律)’자를 상구(上句)에 속하게 했다[否者塞也 坎則爲通 兌以壅之 所以否也 左傳之文 似以律否臧爲句 然出律叶韻 且象傳之文 明以律字屬上句].
		우안 (又案)	『좌전(左傳)』에 “정백(鄭伯)이 송(宋)을 정벌하였다”라고 했으니 (춘추필법(春秋筆法)에) “고하는 경우에는 기록한다”고 하고 “군대가 출동하여 좋고 나쁨 또한 이와 같이 한다”고 했다[左傳鄭伯伐宋 書法曰告則書 師出臧否 亦如之].
	구이 (九二)	안(案)	『주례(周禮)』 「전명(典命)」에 “수레와 옷과 기발의 수를 모두 그 명(命)의 수(數)와 같게 했다”고 했다. 이 말로써 보면 『역경(易經)』에 ‘삼석(三錫)’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물상(物象)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周禮典命車馬服旗旂之數 皆如其命之數 以此言之 經云三錫 未必取物象也].
	육삼 (六三)	안(案)	소과괘(小過卦)는 본래 이괘(頤卦)와 교역(交易)의 관계이고, 이괘(頤卦)는 임괘(臨卦)로부터 왔으니 진(震)의 장수가 출정하였다. 마침내 간(艮)에서 죽어 본국(本國)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것이 소과괘(小過卦)의 간(艮)의 시체이다[小過之卦 本以頤交 頤自臨來 震帥出征 遂以艮死 反乎本國 此小過之艮尸也].
	육사 (六四)	안(案)	『춘추전(春秋傳)』에 군대를 움직일 때에 이들을 묶는 것을 ‘신(信)’이라고 하고, 이들을 넘게 묶는 것을 ‘차(次)’라고 하니 ‘좌차(左次)’라는 것은 30리를 후퇴시킨 것이다. 병가(兵家)에서는 오른쪽을 숭상하기 때문에 후퇴하는 것을 ‘좌(左)’라고 한다. 팔진도(八陣圖)에서는 전충(前衝)은 오른쪽에 서 있고 후충(後衝)은 왼쪽에 서 있다[春秋傳 凡行師再宿爲信 過信爲次 左次者退舍也 兵家尚右 故以退爲左 八陣圖 前衝爲右 後衝爲左].
		학가 (學稼)	이것은 또한 사효(四爻)의 자리가 두려움이 많기 때문이다[此亦四多懼].
	육오 (六五)	안(案)	‘수(帥)’라는 것은 규율이니 감(坎)이 규율이 된다[帥者律也 坎則爲律].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사(師)	육오 (六五)	정자 (程子)	군대를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오랑캐가 중국을 어지럽히고 도적들이 간사한 것을 하여 백성들에게 해로움이 된 연후에 말을 받들어 토벌하는 것이다. 마치 금수(禽獸)가 말 가운데 들어가 버와 곡식을 침해하면 사냥해서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행동해야 허물이 없는데 진시황제와 한무제와 같은 사람은 모두 산림을 뒤져서 금수를 찾는 자이다[師之興 必以蠻夷猾夏 寇賊姦宄 爲生民之害 然後奉辭以誅之 若禽獸入于田中 侵害稼穡 則獵取之 如此而動 乃得無咎 若秦皇漢武 皆窮山林以索禽獸者也].
비(比)		서괘 (序卦)	‘비(比)’라는 것은 친함이다[比者比也].
		정자 (程子)	사물이 서로 밀접하게 가까워 간격이 없는 것은 물[水]이 지상에 있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비(比)가 된다[物之相切比無間 莫如水之在地上 故爲比也].
		용안 (鑄案)	‘비(比)’라는 것은 밀접하다는 것이니 서로 함께하면서 두루 밀접한 것이다. 4정괘(正卦) 중에서 화(火)와 천(天)이 같은 종류가 되고 수(水)와 지(地)가 같은 종류가 된다. 그러므로 공자가 화천(火天) 대유괘(大有卦)에서 “하늘에 근본 하는 사람은 위로 친하고 땅에 근본 하는 사람은 아래로 친하니 각각 그 종류를 따른다”고 말했고, 『예기(禮記)』 『표기(表記)』에서 “화(火)와 천(天)은 존귀하지만 서로 가까이하지 아니하고, 수(水)와 토(土)는 가까이하지만 존귀하지 않다”라고 했으니 모두 이러한 뜻이다. 땅에 물이 있으면 그 사이에 들어갈 틈이 없으니 인군(人君)이 그 신하를 친하게 가까이함에 마치 물이 땅에 붙은 것과 같이 한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비괘(比卦)는 복괘(復卦)로부터 왔다. 진(震)의 주인이 이미 올라가서 마침내 군주의 지위를 바르게 함으로써 곤신(坤申)을 거느리니 이것이 군주의 덕(德)이다. 군주의 덕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기 때문에 괘(卦)를 비괘(比卦)로 이름한 것이다[比者密也 相與周密也 四正之中 火天爲類 水地爲類 故孔子於火天之卦曰 本乎天者親上 本乎地者親下 則各從其類也 表記曰 火天尊而不親 水土親而不尊 皆此義也 水之在地 無隙可入 人君之親比其臣 如水附地 則爲國乎何有 卦自復來 震主既升 遂正君位 以率坤臣 君德也 君德宜比 故卦以此名].
		주자 (朱子)	『좌전』에 최무자가 아내를 취하는 것을 점쳐서 흉하였는데, 최무자가 “죽은 남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으니 여기에서 ‘후부(後夫)’라고 말한 것도 바로 같은 종류의 말이다[左傳 崔武子卜娶妻凶 他云先夫當之 此云後夫 正是一樣語].
	단(彖)	학포 (學圃)	박괘(剝卦)는 비괘(否卦)로부터 변했다. 비괘(否卦)의 때에는 건(乾)과 곤(坤)이 배합한 것이니 건(乾)이 이미 없어져서 이내 간(艮)의 지아비와 짝을 이루니 이것이 ‘후부(後夫)’이다[剝自否變 否之時 乾坤配合 乾之既亡 乃配艮夫 是後夫也].
		초육 (初六)	정현(鄭玄)은 ‘부(缶)’를 물 길는 그릇으로 여겼다[鄭玄以缶爲汲器].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비(比)	구오 (九五)	안(案)	『모시전』에 “짐승을 잡되 얼굴에 상처가 있으면 제사에 바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왼쪽 감비뼈 쪽으로부터 쓰아서 오른쪽 어깨 죽지로 나오게 하는 것을 ‘상살(上殺)’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군례(軍禮)에서 “그 짐승이 앞에서 오는 것을 저슬러 쓰지 말 것이며, 오직 나를 등지고 달아나는 것을 쓰라”고 했으니 이것이 이른바 ‘사역(舍逆)’하고 ‘취순(取順)’하라는 것이다[毛詩傳曰獲禽面傷不獻 自左腓而射之 達於右隅 爲上殺 故軍禮其禽在前來者 不逆而射之 唯背我而去則射之 是所謂舍逆而取順也].
		우안 (又案)	군법(軍法)에서 제일 앞에 있는 군사를 ‘선구(先驅)’라고 하고, 그 다음 앞에 있는 군사를 ‘신구(申驅)’라고 하고, 그 뒤에 있는 군사를 ‘전구(殿驅)’라고 했으니 또한 ‘삼구(三驅)’이다. 그러나 ‘왕이 세 번 말을 몰아 사냥한다’는 것은 천자의 예(禮)가 짐승을 잡는 것을 탐하지 않는 데 있으니 세 번 말을 몰고 그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히 경작함에 세 번 쟁기질하고, 친히 누에를 칠 적에 세 번 누에고치를 권다고 하였으니 모두 예(禮)를 이루고 그치는 것이지, 끝까지 힘쓰는 것은 아니다[軍法前鋒曰先驅 次前曰申驅 次後曰殿驅 亦三驅也 然王用三驅者 謂天子之禮 不貪禽獲 三驅而止 如親耕之有三推 親蠶之有三纒 成禮而止 不辛勞也].
	상육 (上六)	안(案)	괘의 자리로 보면 초효(初爻)는 발이 되고 상효(上爻)는 머리가 된다. 비괘(比卦)는 박괘(剝卦)로부터 왔으니 상효(上爻)의 강(剛)이 본래 부러졌기 때문에 그 점이 이와 같다. 여러 괘들이 비록 변화하여 관괘(觀卦)가 되더라도 그 점에 길함이 많으니 구애될 것이 없다[卦位 初爲趾 上爲首 而比自剝來 上剛本折 故其占如此 諸卦雖變爲觀 其占多吉 不可拘也].
		잡괘 (雜卦)	‘소축(小畜)’은 적은 것이다[小畜寡也].
		용안 (鋪案)	‘축(畜)’이라는 것은 기른다는 것이고, 키운다는 의미이니 ‘길러서 자라게 한다’는 뜻이다. 소축괘(小畜卦)는 폐괘(夫卦)로부터 왔다. 양(陽)의 도(道)가 너무 높이 올라가 그 발산하는 것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음(陰)이 4위(位)로 내려와 쌓이고 그치게 하는 것이니 쌓아서 그치게 하는 것은 건(乾)의 원기(元氣)를 쌓는 것이다. 대축괘(大畜卦)는 대장괘(大壯卦)로부터 왔다. 양(陽)의 도(道)가 이미 왕성하여 그 발산하는 것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음(陰)이 4위(位)로 내려와 쌓이고 그치게 하는 것이니 그 뜻은 같다. 그런데 유독 손(巽)은 음괘(陰卦)이며 간(艮)은 양괘(陽卦)이니 음(陰)은 작고 양(陽)은 크기 때문에 대축(大畜)과 소축(小畜)의 구별이 있을 뿐이다. 효사(爻詞)에서 여섯 가지 가축(家畜)의 명칭을 쓴 사례가 많으니 괘(卦)의 명칭에 이미 축(畜)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象)을 취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한 것이다. 『잡괘전』에서 소축(小畜)은 ‘적음’이라고 했으니 그것은 음(陰)이 적다는 것이다. 『귀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용안 (鋪案)	장역[象]에서는 ‘소독(小毒)’, ‘대독(大毒)’이라고 했다[畜者 育也 毒也 亨毒之義也 卦自夫來 陽道太亢 發洩不已 故陰降于四而 蘊之畜之 畜之者蓄乾之元氣也 大畜則自大壯來 陽道既壯 發洩不已 故陰降于四 而畜之止之 其義一也 特以巽者陰卦也 艮者陽卦也 陰小而陽大 故有小畜大畜之別也 爻詞多用六畜之物 卦名既畜 取象宜然也 寡者陰寡也 歸藏易作小毒大毒].
소축 (小畜)		안(案)	괘덕(卦德)이 ‘쌓음’이다. 쌓기만 하고 새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상(象)이 “길은 구름이 끼었으나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주승(朱升)의 『역(易)』에서는 4를 서쪽으로 삼았으니 대개 하도(河圖)의 위(位)에서 4와 9가 서쪽에 있기 때문이다. 그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卦德畜也 畜而不洩 故其象爲密雲不雨 朱升易以四爲西 蓋以河圖之位 四九在西也 何其謬也].?
	초구 (初九)	안(案)	괘덕(卦德)은 ‘기름’이다. 여섯 가지 가축이 비록 나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기름 수 있다[卦德畜也 六畜之物 雖出而必反 所以能畜也].
	구이 (九二)	안(案)	진(震)과 감(坎)이 모두 말[馬]이라면 손(巽)과 이(離)는 모두 소[牛]이다. 그러므로 이괘(離卦)에서는 손(巽)으로 소를 삼지만 『좌전(左傳)』에서는 이(離)를 소로 여겼다[震坎皆馬 則巽離皆牛也 故離卦以巽爲牛 左傳以離爲牛].
		학가 (學稼)	초구(初九)의 중손(重巽)과 구이(九二)의 가인(家人)이 모두 둔괘(遁卦)로부터 온 것이니 짐승이 달아나는 괘이다. 그러므로 여섯 가지 가축이 갔다가 되돌아오는 상(象)을 취한 것이다 [初九之重巽 九二之家人 皆自遁來 遁者 獸走之卦也 故取六畜 往復之象].
	구삼 (九三)	안(案)	‘복(輻)’이라는 것은 바퀴 가운데 있는 곧은 나무이다. ‘복(輹)’은 굴대 위에 있어서 수레를 받치고 있는 것이니 두 개의 물건이 다르다. ‘복(輻)’은 이미 바퀴통을 중심으로 모여 있으니 벗겨 낼 수 없다. ‘복(輹)’은 때로는 썩었다가 때로는 벗겨 낼 수 있으니 오직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말하면 ‘복(輻)’ 자는 마땅히 ‘복(輹)’ 자로 써야 한다. 정현(鄭玄)은 ‘복(輻)’ 자를 복토(伏兔)로 여겼으니 이것은 ‘복(輹)’ 자와 ‘복(輻)’ 자를 같은 것으로 보았다[輻者輪中直木 輹在軸上承輿 二物不同也 輻既浸穀 不可脫也 輹則時駕時脫 唯人所欲 由是言之 輻當作輹 鄭玄以輻爲伏兔 此以輹輻同字也].
	육사 (六四)	안(案)	대축괘(大畜卦)가 손괘(損卦)로 변하는 경우에 ‘위와 뜻이 합한다’고 하였고 여기에서 또 ‘위와 뜻이 합한다’고 하였으니 그 규괘(睽卦)가 손괘(損卦)로 변화됨을 살펴야 한다[大畜之損 云上合志 此亦云上合志 其爲睽之損 審矣].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소축 (小畜)	구오 (九五)	주자 (朱子)	‘이(以)’자는 『춘추전(春秋傳)』에 ‘이모사(以某師)’의 ‘이(以)’자와 같으니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말한다[以猶春秋以某師之以言能左右之也].
		안(案)	태괘(泰卦) 육사(六四)와 겸괘(謙卦) 육오(六五)는 모두 ‘불부이기린(不富以其隣)’이라고 했으니 그 양호괘(兩互卦)를 취하는 것 및 건(乾)을 부(富)로 삼는 것이 바로 이 효(爻)와 더불어 서로 부합하니 읽는 자는 그것을 상세히 해야 한다[泰六四謙六五 皆云不富以其隣 其兩互成卦及以乾爲富 正與此爻相合 讀者詳之].
		학포 (學圃)	나라에 축적함이 있는 연후에 이웃을 구휼할 수 있다. 괘덕(卦德)이 본래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占)이 이와 같다[國有蓄積 然後可以恤隣 卦德本畜 故其占如此].
리(履)		서괘 (序卦)	만물이 쌓인 이후에 예(禮)가 있다. 그러므로 이괘(履卦)로 받은 것이다[物畜然後有禮 故受之以履].
		잡괘 (雜卦)	‘이(履)’라는 것은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다[履不處也].
		대전 (大傳)	이(履)는 덕(德)의 기초이다. 이(履)는 조화롭게 하여 이르는 것이다. 이(履)는 행동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履德之基也 履和而至 履以和行].
		용안 (鋪案)	이괘(履卦)에는 두 가지 사용처가 있다. 첫째는 천리(踐履)의 공(功)이고, 둘째는 임리(臨履)의 경계이다. 이괘(履卦)는 괘괘(夬卦)로부터 왔으며, 괘괘(夬卦)는 복괘(復卦)로부터 나아간 것이다. 복괘(復卦) 이래로 진(震)의 발로 길을 밟아 순서에 따라 나아가서 감히 었등하지 않고 조금씩 밟고 나아가서 괘괘(夬卦)에까지 이르니 군자가 실천하는 공(功)이 위로 하늘의 덕(德)에 합할 수 있는 것이다. 군자의 도가 이미 독실하게 실천되었으며 예(禮)로서 간략히 해야 하는 것이다. 추이(推移)하여 이괘(履卦)가 되면 이(離)의 예(禮)가 이내 밝아지며 문장이 빛나서, 예(禮)가 아니면 보지 아니하며 예(禮)가 아니면 행하지 아니하니 이것을 일러 ‘이(履)’라고 한다. 이괘(履卦)는 괘괘(夬卦)로부터 왔다. 괘괘(夬卦)에서 하나의 음(陰)이 아래로 다섯 강(剛)을 밟고 있으니 지극히 위태롭다. 아들은 아버지를 넘어서선 안 되고, 신하는 군주를 짓밟으면 안 되며, 여자는 남자를 억누르면 안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진 사람을 방해하면 안 된다. 만일 자신의 입장에 맞지 않는 것을 한다면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이괘(履卦)가 추이(推移)하면 유(柔)가 이내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예(禮)로써 겸양하여 위로는 하늘을 이고, 아래로는 땅을 밟아서 상하(上下)를 분별함이니 이것을 ‘이(履)’라고 이른다. 또 이괘(履卦)는 구괘(姤卦)로부터 오니 유(柔)가 이미 추이(推移)함에 손(巽)의 다리로써 아래로 이(離)의 예(禮)를 실천하니 이것은 양호괘(兩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리(履)		용안 (鋪案)	互卦)의 상(象)이다[履有二用 一曰踐履之功 二曰臨履之戒 卦自夬來 夬由復進 自復以來 震足履道 循序以進 毋敢躡等 寸寸蹈歷 以至於夬 則君子踐履之功 上可以合天德矣 君子之道 踐履既篤 約之以禮 移之爲履 則離禮乃明 文章煥然 非禮弗視 非禮不履 此之謂履也 卦自夬來 夬之一陰 下踐五剛 厲之至也 子不跨父 臣不踐君 女不據男 愚不妨賢 履匪其地 災之招也 移之爲履 則柔乃卑降 能以禮讓 戴天履地 上下以辨 此之謂履也 又自姤來 柔之既移 遂以巽股 下踐離禮 此兩互之象也].
	단(象)	안(案)	주승(朱升)은 이(離)가 호랑이를 상징한다고 여겼고, 당학징(唐鶴徵)은 건(乾)이 호랑이를 상징한다고 여겼다. 오직 내지덕(來知德)만은 태(兌)가 호랑이를 상징한다고 보았다. 태(兌)는 서쪽 방향의 백호(白虎)의 자리이다. 『예기(禮記)』 「곡례(曲禮)」에서 “좌청룡이우백호(左靑龍而右白虎)”라고 했으니 진(震)이 용(龍)이 되면 태(兌)는 호랑이이다. 그러므로 혁괘(革卦) 구오(九五)와 혁괘(革卦) 상육(上六)과 이괘(頤卦) 육사(六四)에서 모두 태(兌)를 호랑이로 여긴 것이다[朱升以離爲虎 唐鶴徵以乾爲虎 唯來知德以兌爲虎 兌者西方白虎之位也 曲禮云左靑龍而右白虎 震爲龍 則兌虎也 故革五六頤六四 皆以兌爲虎].
		학가 (學稼)	‘도호미(蹈虎尾)’와 ‘이박빙(履薄氷)’은 본래 같은 뜻이다. 궤괘(夬卦)의 때에는 건(乾)의 얼음이 매우 두꺼운데 지금 얼음이 이내 얇어지게 되니 ‘이박빙(履薄氷)’이라고 한 것이다[蹈虎尾 履薄氷 本一義也 夬之時 乾氷甚厚 今氷乃薄 履薄氷也].
		학포 (學圃)	역례(易例)에 초효(初爻)는 꼬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삼효(三爻)로써 꼬리를 삼는 것은 호랑이 꼬리가 말려서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易例初爲尾 此以三爲尾者 虎尾仰拳也].
	구이 (九二)	학포 (學圃)	처사(處士)는 처녀(處女)와 같기 때문에 태(兌)는 유인(幽人)이 된다[處士如處女 故兌爲幽人].
	구사 (九四)	안(案)	색색(愬愬)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마융본(馬融本)에는 ‘색(愬)’ 자를 ‘혁(號)’ 자로 썼고, 순상본(荀爽本)에는 진괘(震卦)의 ‘혁혁(號號)’도 또한 ‘색색(愬愬)’으로 썼으니 뜻이 본래 같다[愬愬者 恐懼也 馬融本愬作號 荀爽本震之號號亦作愬愬 義本同也].
	구오 (九五)	모신 (毛牲)	이괘(履卦)는 궤괘(夬卦)로부터 왔는데 지금 중강(中剛)은 궤괘(夬卦)의 하나의 음(陰)을 밟고 있던 것이다[卦自夬來 今之中剛 夬一陰之所履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리(履)	상구 (上九)	안(案)	『주례(周禮)』의 구서(九筮)의 법에 따르면, 무경(巫更)과 무함(巫咸)과 무식(巫式)과 무목(巫目)의 종류는 곧 복과 재앙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니 이것은 태(兌)의 무(巫)가 관장한 것들이다. 육삼(六三)의 애틀눈과 절름발이 또한 보거나 밟는 일을 가리키니 아마도 괘체(卦體)의 안에 분래 이(離)와 진(震)이 있기 때문이다. 『한서(漢書)』 「오행지(五行志)」는 비록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또한 옛날의 뜻이다[周禮九筮之法 若巫更巫咸巫式巫目之類 卽所以考其詳殃 此兌巫之所掌也 六三眇跛亦指視履之事 蓋以卦體之內 本有離震也 漢書五行志 雖不可盡信 蓋亦古意也].
		우안 (又案)	『대대례(大戴禮)』의 「사대편(四代篇)」에 “천도(天道)로써 보며, 지도(地道)로써 밟으며, 인도(人道)로써 헤아린다”고 했으니 ‘헤아린다’는 것은 고찰하는 것이고, ‘보는 것’과 ‘밟는 것’은 각각 하나의 일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大戴禮四代篇曰 天道以視 地道以履 人道以稽 稽者考也 視履之各爲一事 明矣].
태(泰)		서괘 (序卦)	‘태(泰)’라는 것은 통하는 것이다[泰者通也].
		잡괘 (雜卦)	비괘(否卦)와 태괘(泰卦)는 그 종류가 반대된다[否泰反其類也].
		주자 (朱子)	하늘과 땅이 사귀어 음과 양의 두 기운이 통하기 때문에 태괘(泰卦)가 되니 정월(正月)의 괘이다[天地交而二氣通 故爲泰正月之卦也].
		용안 (鑰案)	태괘(泰卦)는 안을 충실하게 하는 효과를 말한다. 사물 안에 양기가 있으면 기운이 퍼져 나오고, 사람이 안으로 정성스러우면 형제도 단정하다. 혈기가 안으로 왕성하면 사지가 적절하게 조화되고 인자(仁者)와 현자(賢者)가 안에서 모이면 온 세상이 안정되고 순조롭게 된다. 이것이 태괘(泰卦)가 통함이 되는 까닭이다. 천(天)과 지(地)와 수(水)와 화(火)는 『역(易)』의 4정괘(正卦)이다. 그러므로 모든 괘 가운데 오직 태괘(泰卦)와 비괘(否卦), 그리고 기제괘(既濟卦)와 미제괘(未濟卦)는 반역(反易)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또 아울러 교역(交易)과 변역(變易)의 관계도 된다[泰者內實之效也 物內陽則氣舒 人內誠則形正 榮衛內旺則四體調適 仁賢內聚則八域安順 此泰之所以爲通也 天地水火 易之四正也 故諸卦之中 唯泰否及既濟未濟 既爲反易 又兼爲交易變易].
	단(象)	안(案)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온다’는 것은 교역(交易)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특별히 두 개의 ‘교(交)’로써 교역(交易)을 밝힌 것이다. ‘도가 성장한다’는 것과 ‘도가 소멸한다’는 것은 이내 12벽괘(辟卦)가 나아가고 물러나는 순서이니 읽는 자는 이것을 상세히 살펴야 한다[小往大來 交易之義也 故孔子特以兩交字明之 道長道消 仍是十二辟進退之序也 讀者詳之].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태(泰)	초구 (初九)	안(案)	곽박(郭璞)의 『동림(洞林)』에는 ‘이기휘(以其彙)’를 하나의 구(句)로 삼았는데, 주자도 이것을 따랐다. ‘띠 풀을 뽑는다’는 것은 상(象)이고 ‘정벌해 나아가면 길할 것이다’는 것은 점(占)이다. 점(占)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의 사건을 가리키며, 상(象)이라는 것은 만 가지 일을 두루 비추는 것이다. ‘발모연여(拔毛連茹)’는 진실로 현자를 나아가게 하는 상(象)이 되지 만 또한 ‘정길(征吉)’의 상도 될 수 있는 것이다[郭璞洞林以其彙爲句 朱子從之 拔茅者象也 征吉者占也 占者專指一事 象者通照萬務 拔毛連茹 固爲進賢之象 亦可爲征吉之象].
		우안 (又案)	여러 학자들이 모두 손(巽)을 ‘띠 풀’로 여긴다. 그러나 역례(易例)에 따르면 진(震) 또한 풀이 된다. 『관자(管子)』의 「경중(輕重)」편에 “양자강과 회수의 사이에 띠 풀은 세 가닥의 등 줄기로 되어 있는데 ‘청모(菁茅)’라고 이름한다.” 무릇 ‘삼척(三脊)’이라는 것은 건괘(乾卦)를 말한다. 「설괘전(說卦傳)」에는 “감(坎)은 미척(美脊)이 된다”고 했으니 삼양(三陽)이라는 것은 ‘삼척(三脊)’을 말한다. 손(巽)이 건(乾)과 연관되지 않는다면 어찌 띠 풀이 될 수 있겠는가? 모기령(毛奇齡)은 또한 이 효(爻)로써 전도된 손(巽)이 띠 풀이 된다고 했는데, 효변(爻變)을 알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諸家皆以巽爲茅 然易例震亦草也 管子曰江淮之間 一茅三脊 名曰菁茅 夫三脊者乾卦也 說卦云坎爲美脊 三陽者三脊也 巽不得乾 安能爲茅 毛氏又以此爻爲倒巽之茅 由不知爻變也].
		우변 (虞翻)	‘여(茹)’는 띠 풀의 뿌리이다[茹 茅根也].
	육사 (六四)	학포 (學圃)	태괘의 본래 성격은 부유한 곳에서 덜어 가난한 곳에 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점이 ‘이웃을 부유하게 하지 않는 것’이 된다[泰之本德 不損富益貧 故其占爲不富以隣].
	육오 (六五)	오유청(吳幼清)	태괘(泰卦)의 호체(互體)는 귀매괘(歸妹卦)를 이루기 때문에 귀매괘(歸妹卦)로써 효사(爻辭)를 삼은 것이다[泰卦互體成歸妹 故以歸妹爲辭].
		학가 (學稼)	태괘(泰卦)의 육오(六五)는 수괘(需卦)가 되고, 수괘(需卦)는 대장괘(大壯卦)로부터 왔으니 또한 제왕(帝乙)이 그 이(離)와 감(坎)을 얻어 예(禮)로써 시집보내는 것이다. 세 개의 괘가 모두 합치하니 이내 그 사(詞)를 단 것이다. 『역(易)』을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泰六五需也 需自大壯來 亦以帝乙得此離坎 禮以歸之 三卦皆合 乃繫其詞 易可易言哉?]
		학포 (學圃)	초구(初九)와 상육(上六)에서 귀매괘(歸妹卦)를 취하지 않은 것은 호체(互體)가 적용되는 것이 본래 가운데 4개의 효일 따름이기 때문이다[初與上 不取歸妹者 互體所用 本是中四爻而已].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태(泰)	육오 (六五)	춘추전(春秋傳)	진(晉)나라 조양(趙鞅)이 정(鄭)나라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 거북점을 쳤는데, 양호(陽虎)가 그것에 대해 시초점을 쳐서 ‘태괘(泰卦)가 수괘(需卦)로 변해 가는 것’을 얻자 말했다. “미자계(微子啓)는 제을(帝乙)의 맏아들이다. ‘지(祉)’는 복(祿)을 의미한다. 만약 제을(帝乙)의 맏아들이 누이동생을 시집보내는 경우에는 ‘길록(吉祿)’이 있겠지만, 내가 어찌 길함을 얻겠는가?”[晉趙鞅卜救鄭 陽虎筮之 遇泰之需曰微子啓 帝乙之元子也 祉祿也 若帝乙之元子 歸妹而有吉祿 我安得吉].
		경방전(京房傳)	『경방전』에 탕왕이 누이를 시집보낸다는 말이 실려 있다. 또 『순상전(荀爽傳)』 가운데 대책(對策)에서 “탕왕이 혼례를 치르고 그 누이를 제후에게 시집보냈다”고 했다[載湯歸妹之辭 又荀爽傳對策曰 湯以娶禮歸其妹于諸侯].
		안(案)	제을(帝乙)이라는 것은 주왕(紂王)의 아버지이다. 그 성탕(成湯)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한대 학자들의 잘못이다. 의심하건대 제을(帝乙) 당시에는 본래 누이를 시집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역사 기록에는 누락된 것이다[帝乙者 紂父也 其云成湯者 漢儒之謬也 疑帝乙當時 原有歸妹一事 史傳失載也].
	상육 (上六)	안(案)	태괘(泰卦)의 끝에는 흉(凶)함이 되고 비괘(否卦)의 끝에는 길(吉)함이 되니 사물이 극에 이르면 변하는 것은 항상된 이치이다[泰終則凶 否終則吉 物極必變 理之常也].
비(否)		서괘 (序卦)	사물은 끝까지 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괘(否卦)로 받는 것이다[物不可以終通 故受之以否].
		주자 (朱子)	‘비(否)’는 닫히고 막히는 것이니 7월의 괘이다[否閉塞也 七月之卦也].
		용안 (鑄案)	‘비(否)’라는 것은 착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좌전(左傳)』에 “‘역(逆)’은 ‘비(否)’가 된다”고 했으니 이것이다. 또 ‘비(否)’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이다. 『초사(楚辭)』에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게 살피지 않았네!”라고 했으니 이것이다. 또 ‘비(否)’는 입을 막는다는 의미이다. 비괘(否卦)는 세 개의 강(剛)으로써 위를 막고 있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비(否)’라고 한다[否者不善也 左傳之云逆爲否是也 又不然也 楚詞之云不淸徹其然否是也 又否閉口也 卦以三剛塞其上 此之謂否也].
	초육 (初六)	학가 (學稼)	태괘(泰卦)가 변하여 승괘(升卦)가 되어도 소인(小人)은 형상화되지 않는다. 비괘(否卦)가 무망괘(無妄卦)로 변하면 군자가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태괘(泰卦)의 초구(初九)와 비괘(否卦)의 초육(初六)은 모두 길(吉)한 것이다[泰變爲升 而小人未形 否之無妄 則君子復反 故兩皆吉也].
		학포 (學圃)	이 효(爻)의 점(占)이 태괘(泰卦)의 예(例)와 다른 것은 소인(小人)을 억누른다는 것이다[此爻之占 異於泰例者 抑小人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비(否)	육이 (六二)	안(案)	주승(朱升)의 『역주(易注)』에 “선물을 잘 싸서 보내는 것[苞苴饋遺]”이라는 말이 있다[朱升易注 有苞苴饋遺之語].
	육삼 (六三)	안(案)	주승(朱升)의 『역주(易注)』에 “맛있는 음식[膳羞]”이라는 뜻의 ‘수(羞)’로 해석하고, 손(巽)으로 싸 이것을 포장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다[朱升易注云 膳羞之羞 巽以包之非也].
	구오 (九五)	안(案)	『논어(論語)』 「양화(陽貨)」에서 “내 어찌 박이나 오이와 같겠는가! 어찌 매달려만 있고 먹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으니 ‘뽕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오이이다[論語子曰吾豈匏瓜也哉 焉能繫而不食 繫于苞桑者瓜也].
		구가역(九家易)	포(苞)는 감싸다는 의미이니 건(乾)과 곤(坤)이 서로 감싸는 것이다. 뽕나무라는 것은 위는 검고 아래는 누렇다. 육적(陸績)은 “손(巽)의 새끼줄로 묶는다”고 했다[苞包也 乾坤相包 桑者上玄下黃 陸績曰以巽繩繫].
		학포(學圃)	진괘(震卦)는 관괘(觀卦)로부터 왔으니 천명(天命)이 끊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離)로써 닦고 다스리니 간(艮)으로써 끝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 접이 이와 같다[晉自觀來 天命絕也 然離以修治 不以艮終 故其占如此].
동인 (同人)		안(案)	‘기망기망(其亡其亡)’이라는 것은 경계하는 말이다. 간(艮)에서 말을 이루었으니 서로 경계하는 것이다. 이에 이(離)로써 닦으니 간(艮)으로써 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이 효(爻)로써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긴 것이다. 병이 생겨 장차 죽으려고 할 때는 죽음을 꺼려하는 마음이 더욱 심해지고, 나라가 장차 망하려고 할 때는 망함을 꺼려하는 마음이 급해진다. ‘망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경계로 삼는 것은 망하지 않는 방법이다[其亡其亡者 警戒之詞也 成言乎艮 以相戒也 於是離以修之 不以艮亡 故孔子以此爻爲可以保國也 病之將死 諱死已甚 國之將亡 諱亡愈嚴 以亡爲戒不亡之術也].
		서괘 (序卦)	남과 함께하는 자는 물건이 반드시 돌아온다[與人同者 物必歸焉].
		잡괘 (雜卦)	동인(同人)은 친함을 뜻한다[同人親也].
		정자 (程子)	하늘은 위에 있는 것이며, 불의 성질은 위로 타오르니 하늘과 함께한다[天在上者也 火之性炎上 與天同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동인 (同人)		용안 (鑄案)	<p>‘동(同)’이라는 것은 모임이고 만나봄이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종백(宗伯)」에 “때에 따라 알현하는 것을 ‘회(會)’라고 하고, 제후들이 한꺼번에 알현하는 것을 ‘동(同)’이라고 한다”고 했다. 또 『시경(詩經)』 「소아(小雅)」 「남유가어지십(南有嘉魚之什)」에 “회동(會同)하기를 연속하여 하도다”고 하였으니 이런 의미이다. 성인이 사람들을 회합(會合)하게 함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일가(一家)의 기뻐하는 마음을 얻어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모시는 것이며, 천하(天下)의 기뻐하는 마음을 얻어 상제(上帝)를 모시는 것이니 이와 같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종묘(宗廟)의 예(禮)는 종족을 모이게 하는 방법이며, 교사(郊社)의 예(禮)는 천자와 제후들을 모이게 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성인의 미묘한 뜻이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체(禘) 제사의 뜻을 아는 사람이 천하를 다스림에 그 손바닥 들여다보듯 할 것이다”고 한 것 또한 이런 의미이다. 동인괘(同人卦)는 구괘(姤卦)와 괘괘(夬卦)로부터 왔다. 다섯 개의 양(陽)이 모이는 것은 건(乾)의 가족이니 사람들이 서로 모임 때 예(禮)로써 모이지 않는다면 혼란의 근본이 된다. 추이(推移)하여 동인괘(同人卦)가 되면 이(離)에서 서로 만나니 예(禮)로써 즐겁게 만나는 것이다. 집안으로 보면 그 조상을 섬기는 것이니 종족(宗族)이 서로 만나는 것이 될 것이다. 교사(郊社)로 보면 상제(上帝)를 섬기는 것이니 왕공들이 서로 만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일러 ‘남과 함께한다’는 것이다. 동인(同人)의 뜻이 크지 않다고 하겠는가! 또 천(天)과 지(地)와 수(水)와 화(火)는 『역(易)』의 4정괘(正卦)인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천(天)과 화(火)는 서로 화합하며, 수(水)와 지(地)는 서로 친하니 이것을 일러 ‘같은 기운을 가진 것은 서로 구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상(象)이 회동(會同)하는 것이 된다[同者 會也見也 周禮時見日會 殷見日同 詩所云會同有繹是也 聖人之會合人類 厥有二道 得一家之歡心 以事祖考 得天下之歡心 以事上帝 如斯而已 故宗廟之禮 所以聚宗族也 郊社之禮 所以聚王公也 此聖人之微旨也 故孔子曰知禘之說者之於天下 其如示掌 亦此義也 卦自姤夫來 五陽之聚 乾之族也 人之相聚 不以禮會 亂之本也 移之同人則相見乎離 嘉會以禮 家焉而事其祖 則宗族相會 郊焉而事上帝 則王公相見 此之謂同人也 同人之義 不其大矣哉 又天地水火 易之四正也 四者之中 天火相合 水地相比 此所謂同氣相求也 故其象爲會同也].</p>
	육이 (六二)	안(案)	<p>옛날에 종실(宗室)이 있었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남유가어지십(南有嘉魚之什)」에 “종실(宗室)에서 예(禮)를 이루도다”라고 했고, 또 『시경(詩經)』 「소남(召南)」 「채빈(采芣)」편에 “이에 올리기를 종실 아래에서 하도다”라고 했으니 친척들이 모여서 친목을 닦는 곳이다. 제사로써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니 ‘중(宗)’이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古有宗室 詩云在宗載考 又云于以奠之 宗室闢下 卽所以聚父黨而修睦也 修睦以祭 宗者祭也].</p>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동인 (同人)	구삼 (九三)	학가 (學稼)	‘동인(同人)’이라는 것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다. 사람을 모으는 일에는 군대의 경우만 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 아래의 세 효(爻)는 모두 군대에 관한 점(占)이 된다[同人者聚人也 聚人之事 莫如師旅 故此下三爻 皆爲軍占也].
	구오 (九五)	안(案)	여괘(旅卦)가 소과괘(小過卦)로 변하는 점사에 “나그네가 먼저 웃고 나중에 울부짖는다”고 했는데 ‘호도(號咷)’라는 것은 소과괘(小過卦)의 상(象)에 해당된다. 소과괘(小過卦)는 간(艮)의 죽음과 진(震)의 소리이며, 감(坎)으로써 죽음을 애통해하니 가운데가 곧은 괘(卦)이다[旅之小過日旅人先笑後號咷 號咷者 小過之象也 小過之卦 艮死震聲 坎以哀之中直之卦也].
		안(案)	동인괘(同人卦)는 진(震)의 쌍임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군자의 도(道)이다. 이괘(離卦)는 둔괘(遯卦)로부터 왔으며, 또한 대장괘(大壯卦)로부터 왔으니 때때로 진(震)으로써 나아가고 때때로 간(艮)으로써 그치니 ‘혹 나아가고 혹 물러섬’이라고 한다. 대손(大巽)은 침묵함과 같고, 겸괘(兼兌)는 말하는 것이 되니 ‘혹 침묵하고 혹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둔괘(遯卦)와 대장괘(大壯卦)에는 각각 하나의 건(乾)이 있는데 건은 곧 사람이니 이것은 두 사람이 된다. 지금 모두 이(離)가 되는데 이(離)는 곧 허심(虛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 한다’라고 한다. 두 마음이 이미 합쳐져서 건(乾)의 강(剛)의 가운데를 잘라내니 이것이 ‘금(金)을 잘라내는 것’이다. 태(兌)는 곧 예리함이니 그 예리함으로 쇠를 잘라 내는 것이다. 나는 손(巽)으로서 알려 주고 저들은 태(兌)로써 말하니 이것이 마음을 합쳐서 하는 말이다. 본래 진(震)의 풀인데 손(巽)의 향기가 섞이니 그 형상이 난초이다. 손(巽)은 냄새가 되니 ‘그 향기가 난초와 같은 것’이다. 이(離)는 곧 정성이 되니 ‘그 예리함이 쇠를 자른다’는 것은 이(離)의 정성으로 뚫는다는 것이다. 이(離)는 또한 명예가 되니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는 것은 이(離)의 명예가 널리 퍼진다는 것이다. 질문한 것은 ‘도소(咄笑)’에 대한 것이었는데 대답한 것이 이와 같으니 이괘(離卦)가 둔괘(遯卦)와 대장괘(大壯卦)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卦由震積 君子之道也 離自遯來 又自大壯 時以震出 時以艮止 或出而或處也 大巽如默 兼兌爲語 或默而或語也 遯與大壯 各有一乾 乾則爲人 此二人也 今皆爲離 離則虛心 二人同心也 兩心既合 乾剛中斷 是斷金也 兌則爲利 其利斷金也 我以巽告 彼以兌語 同心之言也 本以震艸 雜以巽芳 其象蘭也 巽則爲臭 其臭如蘭也 離則爲誠 其利斷金者 離誠之所透也 離亦爲譽 其臭如蘭者 離譽之所播也 所問者咄笑 而所答者如此 明離自遯大壯來也].
		학가 (學稼)	건(乾)의 쇠의 가운데를 자르고 손(巽)의 풀이 향기를 내는 것이 동인괘(同人卦)의 본래 상(象)이다. 무릇 역례(易例)에서 변상(變象)은 모두 본래의 상(象)에 기인한 것이다[乾金中斷 巽草芳香 同人之本象也 凡易例變象 皆起於本象].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대유 (大有)		잡괘 (雜卦)	대유(大有)는 많은 것이다[大有衆也].
		주자 (朱子)	대유(大有)는 가지고 있는 것이 큰 것이다[大有所有之大也].
		용안 (繡案)	‘대(大)’는 양(陽)을 말하며, ‘유(有)’는 없어지지 않음이다. 대유괘(大有卦)는 구괘(姤卦)로부터 왔다. 하나의 음(陰)은 비록 미약하지만 그 기세는 반드시 성장하여 둔괘(遯卦)가 되고 비괘(否卦)가 되면 양(陽)이 장차 모두 없어지게 된다. 추이(推移)하여 대유괘(大有卦)가 되면 유(柔)는 안으로부터 나아가고 건(乾)의 양이 완전히 복구되니 이에 양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 ‘대유(大有)’라고 한다. 또 ‘유(有)’는 부유함을 뜻하니 풍년(豐年)에 오곡이 잘 익은 것을 ‘대유(大有)’라고 한다. 『춘추전(春秋傳)』에 ‘대유년(大有年)’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대유괘(大有卦)는 괘괘(夬卦)로부터 왔다. 괘괘(夬卦)는 복괘(復卦)로부터 나온 것이니 곤(坤)의 발에 진(震)의 벼이삭이 풍성하니 임괘(臨卦)가 되고 태괘(泰卦)가 된다. 누적되어서 괘괘(夬卦)가 되면 곡식농사가 이내 가을철이 되어 곡식을 베는 것이 이로우니 수확의 시기가 무르익은 것이다. 추이(推移)하여 대유괘(大有卦)가 되면 이(離)로써 방비하고 안에 스스로 풍부하게 가지니 이것을 일러 ‘대유(大有)’라고 한다[大者陽也 有者不亡也 卦自姤來 一陰雖微 其勢必長 爲遯爲否 陽將盡亡 移之大有 則柔自內往 乾陽復完 於是乎陽存 此之謂大有也 又有者富有也 豐年五穀登熟 謂之大有 春秋之云大有年是也 卦自夬來 夬由復進 坤之土田 震稼蕃鮮 爲臨爲泰 積之至夬 則稼乃有秋 利用刈禾 歲之熟也 移之大有 則離以防之 內自富有 此之謂大有也].
	초구 (初九)	학포 (學圃)	‘간측(艱則)’은 마땅히 ‘간정(艱貞)’이 되어야 한다[艱則當作艱貞].
	구이 (九二)	안(案)	촉재본(蜀才本)에는 ‘대거(大車)’를 ‘대여(大輿)’로 썼다[蜀才本大車作大輿].
	구삼 (九三)	안(案)	‘형(亨)’은 비록 향(享)의 뜻이지만 그 발음은 팽(烹)이 된다. 그러므로 ‘비기팽(匪其彭)’과 더불어 협운(叶韻)이 된다[亨雖爲享 音則爲烹 故與匪其彭叶].
		춘추전(春秋傳)	천자(天子)가 나와서 정(鄭)나라에 거처했을 때, 진나라 군주가 복언(卜偃)에게 점을 쳐서 이 효(爻)를 만났는데 “길합니다. 싸움에 이겨 천자가 향응을 베풀 것이니 길함이 이보다 큰 것이 있겠습니까? 또 이 괘는 하늘이 뜻으로 변하여 해와 짝하니 천자(天子)가 마음을 낮추어 제후를 맞이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天王出居于鄭 晉侯使卜偃筮之 遇此爻曰吉 戰克而王饗 吉孰大焉 且是卦也 天爲澤以當日 天子降心 以逆公 不亦可乎].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대유 (大有)	육오 (六五)	안(案)	『춘추전(春秋傳)』에 성계(成季)가 점을 쳐서 이 효를 얻었는데 “아버지와 동일한 지위를 회복하는 점괘이며, 군주(君主)의 지위와 같은 공경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경(敬)’이라는 것은 가운데가 곧은 것이다[春秋傳成季之筮 遇此爻曰同復于父 敬如君所 敬者中直也].
	상구 (上九)	안(案)	괘괘(夬卦)의 5효와 6효에서 양(陽)은 상승하고 음(陰)은 하강하니 이것이 ‘순(順)함’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離)가 이루어지니 이것이 ‘신(信)’이다. 강(剛)은 곧 현인(賢人)이 되며, 존경하여 위로 올라가니 이것이 현사를 숭하는 것이다. 괘덕(卦德)은 본래 위태로웠지만 그것이 변하여 이내 선(善)해지니 마치 덕(德)을 닦음으로써 복(福)이 오는 것과 같음이 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돕는다”고 하였다[夫之五六 陽升陰降 此順也 因以成離 此信也 剛則爲賢 尊而升之 是尙賢也 卦德本厲 其變乃善 有若德修而福來也 故曰自天祐之].
겸(謙)	잡괘 (雜卦)	잡괘 (雜卦)	겸괘(謙卦)는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예괘(豫卦)는 나태하게 하는 것이다[謙輕而豫怠也].
		대전 (大傳)	겸손은 덕(德)의 근원이다. 겸손은 존귀하면서도 빛난다. 겸손함으로써 예(禮)를 제정한다[謙德之柄也 謙尊而光 謙以制禮].
		주자 (朱子)	‘겸(謙)’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안에서는 그치고 밖에서는 따르는 것이 겸(謙)의 의미이다[謙者有而不居之義 止乎內而順乎外 謙之意也].
		용안 (鏞案)	겸괘(謙卦)는 박괘(剝卦)로부터 왔다. 간(艮)의 산이 아래로 무너져 곤(坤)의 땅 밑으로 내려오니 이것은 군자가 겸손하게 남의 아래에 있는 상이다. 그러므로 ‘겸(謙)’이라고 한 것이다. 또 겸괘(謙卦)는 복괘(復卦)로부터 왔다. 진(震)의 군자가 본래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는데 추이하여 상승하더라도 끝내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아래에 있는 것을 달갑게 여기니 군자의 겸손함이다. ‘겸손’이라 것은 언어를 말한다. “간(艮)에서 말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니 겸괘(謙卦)가 되는 이유이다[卦自剝來 艮山下頽 下於坤地 此君子謙卑下人之象也 故曰謙也 又自復來 震之君子 本自謙卑 移而升之 終不出位 甘於在下 君子之謙也 謙者言也 成言乎艮 所以爲謙也].
	단(象)	안(案)	여러 사람들이 또한 박괘(剝卦)의 한 양(陽)으로써 천도(天道)로 삼고, 복괘(復卦)의 한 양으로써 지도(地道)를 삼으니 추이(推移)에 사승(師承)이 있음이 이와 같다[諸人亦以剝一陽爲天道 以復一陽爲地道 推移之有師承如此].
	구삼 (九三)	안(案)	‘덕(德)’이라는 것은 직심(直心)이다. 그러므로 감(坎)은 ‘덕(德)’이 되는 것이다. 이 괘(卦)는 정감(正坎)이 아니기 때문에 ‘부덕(不德)’이라고 말한 것이다[德者直心也 故坎則爲惠 此卦非正坎 故謂之不德].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겸(謙)	육사 (六四)	안(案)	순구가의 『역(易)』에서 ‘휘(擣)’는 ‘거(擧)’와 같다고 했고, 초횡(焦贛)은 ‘휘(擣)’가 ‘분열(分裂)’을 의미한다고 했고, 정현(鄭玄)은 ‘휘(擣)’를 ‘선(宣)’으로 발음한다고 했다. 정자(程子)는 ‘휘(擣)’는 ‘베풀어 퍼지는 형상’이라고 했고, 주자(朱子)는 ‘휘(擣)’를 ‘발휘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여기에서는 구가(九家)의 이론이 올바른 것으로 여겨진다[九家易云擣猶擧也 焦贛分分裂也 鄭玄云擣音宣 程子曰擣施布之象 朱子曰擣發揮也 今以九家爲正].
	육오 (六五)	안(案)	『춘추전(春秋傳)』의 예(例)에는 대개 군대를 잠복시켜 국경 지역을 노략질하는 것을 ‘침(侵)’이라고 하고, 죄를 선고하고 공격하는 것을 ‘벌(伐)’이라고 한다. 곤괘(困卦)에는 감(坎)의 ‘복(伏)’이 있으니 침(侵)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감(坎)이 ‘율(律)’이 되니 ‘벌(伐)’을 사용할 수도 있다[春秋之例 凡潛師掠境曰侵 聲罪致討曰伐 困有坎伏 可用侵也 亦坎爲律 可用伐也].
		학가 (學稼)	건괘(蹇卦)는 관괘(觀卦)에서 왔는데 또한 북(北)으로부터 남(南)을 정벌하는 상(象)이 있다[蹇自觀來 亦有自北征南之象也].
	상육 (上六)	안(案)	진(震)은 곧 울림이 되는데 전도되는 상(象)을 취하지 않으면 ‘울림’일 수 없으며, 하강하는 것이 곧 ‘겸(謙)’이 되는데 뒤집힌 상(象)을 취하지 않으면 ‘겸손한 것’이 없다. 군대는 수레에 시체를 싣는 것을 꺼려하는데 뒤집힌 상을 취하지 않으면 ‘군대를 출동하는 것이 이롭지 않음’이 된다. 뒤집힌 상을 취한 까닭을 잘 살펴야 한다. 상효(上爻)인 까닭에 상괘(上卦)가 내가 되어 또한 상을 뒤집어서 취한 까닭이 된다. 역례(易例)에 자신이 남을 친 경우에는 ‘정(征)’이라고 하고 ‘벌(伐)’이라고만 말하고 ‘읍국(邑國)’을 말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읍국(邑國)’을 말한 것은 ‘밖으로부터 안을 친 것’임을 밝힌 것이다. 제(齊)나라 소백(小白)이 제(齊)나라를 친 경우와 진(晉)나라 중이(重耳)가 진(晉)나라를 친 경우가 이 점에 해당된다[震則爲鳴 不取倒象 無以鳴也 降則爲謙 不取倒象 無所謙也 師忌與尸 不取倒象 不利行師也 其取倒象審矣 上爻也故上卦爲我 而仍取倒象 易例凡自我伐彼者 曰征曰伐 而不言邑國 此云邑國者 明白自外而伐內也 齊小白之伐齊 晉重耳之伐晉 當此占也].
예(豫)		서괘 (序卦)	큰 것을 소유하고서도 능히 겸손하니 반드시 기쁠 것이다[有大而能謙必豫].
		정자 (程子)	우레가 진동하여 땅 밖으로 나오면서 그 소리를 떨치면서 일으키니 통하여 퍼지고 화평하고 즐거운 까닭에 예괘(豫卦)가 되는 것이다[雷動而出地 奮發其聲 通暢和豫 故爲豫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예(豫)		용안 (鑄案)	‘예(豫)’라는 것은 안일(安逸)함이다. 겸괘(謙卦)의 군자는 노력하면서 아래에 있었는데 예(豫)의 군자는 올라가서 위에 있으면서도 곤(坤)의 신하를 부리면서 시키지 않는 일이 없고, 순응하면서 행동하니 군주는 편안하고 신하는 수고롭다. 이것을 일러 ‘예(豫)’라고 한다. 또 ‘예(豫)’라는 것은 나태함이다. 예괘(豫卦)는 박괘(剝卦)로부터 왔는데, 아래로 내려가 낮은 곳에 거처한다고 해도 여전히 상괘(上卦)에 있는 것과 같다. 겸(謙)의 가법계 여김에 비하면 더디고 무겁고 태만하고 느린 것이니 이것을 ‘예(豫)’라고 한다. 또 ‘예(豫)’라는 것은 ‘미리’라는 뜻이다. 예괘(豫卦)는 박괘(剝卦)로부터 왔는데 그 문의 빗장을 엄격히 하여 감(坎)의 도적을 막으니 미리 방비하는 뜻이다. 고역(古易)에서는 예괘(豫卦)를 일러 ‘양예(陽豫)’라고 했다[豫者逸也 謙之君子 勞而在下 豫之君子 升而在上 以馭坤臣 莫不致役 以順而動 君逸臣勞 此之謂豫也 又豫者怠也 卦自剝來 降而居卑 猶在上卦 比之謙輕 遲重愈緩 此之謂豫也 又豫者早也 卦自剝來 謹其門關 以禦坎盜 豫備之義也 古易謂之陽豫].
	단(象)	국어 (國語)	진(晉)나라 공자(公子) 중이(重耳)가 나라를 얻게 될지에 대해 점을 쳐서 ‘예지팔(豫之八)’을 만났다. 사공계자(司空季子)가 “길합니다. 진(震)은 수레이며, 곤(坤)은 흙이니 예괘(豫卦)는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땅이 두껍고 그 결실을 즐겨워하니 진(晉)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해당하겠습니까?”라고 했다[晉公子重耳筮得國 遇豫之八 司空季子曰吉 震車也 坤土也 豫樂也 土厚而樂其實 不有晉國何以當之].
	초육 (初六)	학포 (學圃)	‘명예(鳴豫)’라는 것은 종과 북소리가 울리고, 생황과 거문고를 교대로 진열하여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는 것을 말한다[鳴豫謂鍾鼓鏗鏘笙瑟交陳 聲聞于外也].
	육이 (六二)	안(案)  우안 (又案)	‘개(介)’라는 것은 사이에 끼인다는 의미이다. 지금은 ‘정개(貞介)’나 ‘경계(耿介)’의 개(介)라고 풀이하는데 문리(文理)와 패상(卦象) 두 가지 측면에서 합당한 점이 없다[介者間廁也 今訓之爲貞介耿介之介 則文理卦象 兩無當矣].  감(坎)이 돌이 된다는 것은 「설괘전(說卦傳)」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간(艮)이 적은 돌이 되니 감(坎)이란 큰 돌이 된다. 그러므로 곤괘(困卦) 육삼(六三)에서도 감(坎)을 ‘돌’로 여겼던 것이다. 또 감(坎)은 험난함이며, ‘험(險)’ 자는 ‘암(巖)’ 자와 ‘암(巖)’ 자와 더불어 본래 서로 통용된다[坎之爲石 不見說卦 然艮爲小石 坎者大石也 故困之六三 以坎爲石 又坎險也 險與巖巖 本相通用].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예(豫)	육이 (六二)	안(案)	임괘(臨卦)의 때에는 감(坎)의 험난함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 비록 밝고 지혜로운 선비가 있을지라도 그것에 재앙과 혼란의 징조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 오직 복괘(復卦)의 일양(一陽)의 군자만이 혼란이 장차 일어날 것임을 알고서는 기미를 보고 일어나서 신속하게 떠나가는데 진(震)의 발을 움직이자마자 감(坎)의 혼란이 이미 일어남에 국경 밖으로 나가 혼란을 피하고 그 혼란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 지혜가 이미 신묘하지 않은가! 이것이 공자께서 세 번이나 반복하여 감탄하신 까닭이다[臨之時 坎險未著 雖有明智之士 不見其有禍亂之兆也 唯是復一陽之君子 知亂之將作 見幾而起 馭然其逝 而震足纔動 坎亂已作 出竟乃免 不與其亂 其知不已神乎 此孔子所以三復而永歎也].	
		학가 (學稼)	건괘(乾卦)의 구삼(九三)에는 ‘종일토록 강건하고 강건하도다’라고 했는데 복괘(復卦)에서 태괘(泰卦)까지를 ‘종일(終日)’이라고 말한 것이니 임괘(臨卦)의 경우는 ‘부종일(不終日)’인 것이다. ‘불사종일(不俟終日)’이라는 것은 세 개의 양(陽)으로 태괘(泰卦)가 됨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이다[乾之九三曰終日乾乾 自復而泰 謂之終日 則臨者不終日也 不俟終日者 謂不待三陽之爲泰也].	
		학포 (學圃)	기미를 알고 미리 피하는 것이 예괘(豫卦)의 뜻이다[知幾豫逃豫之義也].	
	육삼 (六三)	안(案)	상수(向秀)는 ‘우(盱)’를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것’이라고 여겼다[向秀以盱爲盱眙].	
		구사 (九四)	학포 (學圃)	예괘(豫卦)는 화합하고 기뻐하는 괘이기 때문에 친구가 화합하는 상(象)이 있다[豫者 和悅之卦也 故有朋合之象].
			안(案)	삼례(三禮)에는 ‘잠(簪)’ 자가 있지 않다. 오직 『열녀전(列女傳)』에 “강후가 비녀를 뽑다”라고 했고, 『공자가어(孔子家語)』에 “공자가 우는 소리를 듣고… 시초로 만든 비녀를…”이라고 했다. 정자(程子)가 “‘잠(簪)’을 비녀라고 부르게 된 것은 또한 머리카락을 모은다는 뜻에 근거한 것이다”고 했으니 마침내 잠(簪) 자를 취(聚) 자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두보(杜甫)의 시(詩)에 ‘함잠(盍簪)’과 ‘열거(列炬)’를 상대어로 여겼으니 이것은 ‘잠(簪)’을 비녀로 여긴 것이다[三禮未有簪字 唯列女傳姜后脫簪 家語孔子聞哭蓍簪 程子曰簪之名 簪本亦聚髮之意 遂以簪爲聚 然杜詩盍簪列炬爲對語 此又以簪爲笄者也].
			우안 (又案)	역사(易詞)에는 모두 근거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선비들이 상견례를 할 적에 점을 쳐서 이것을 얻었다면 의심할 것이 없는 것이다[易詞皆有所擬 若士相見禮 筮而遇是則無可疑也].
			육오 (六五)	학포 (學圃)
	상육 (上六)	안(案)	정현역(鄭玄易)에는 간(艮)이 ‘명문(冥門)’이 된다고 했다[鄭玄易云艮爲冥門].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수(隨)		잡괘 (雜卦)	수괘(隨卦)는 연고가 없는 것이다[隨無故也].
		주자 (朱子)	수(隨)는 따르는 것이다[隨從也].
		용안 (繡案)	‘수(隨)’라는 것은 떨어지고 몰락함이다. 수괘(隨卦)는 비괘(否卦)로부터 왔으니 건(乾)의 상위(上位)의 강(剛)이 본래 지극히 높은 자리로부터 지극히 비천한 자리로 추락하니 ‘수(隨)’라고 이름한 까닭이다. 또 ‘타(墮)’라는 것은 무너지고 훼손됨이다. 비괘(否卦)의 때에는 건(乾)과 곤(坤)이 정돈되어 있었는데 추이하여 수괘(隨卦)가 되면 두 개의 형체가 모두 파괴되어 고괘(蠱卦)와 더불어 다름이 없기 때문에 ‘수(隨)’라고 이름한 이유이다. 그래서 「잡괘전(雜卦傳)」에 ‘옛것이 없다’고 한 이유이다. 또 ‘수(隨)’라는 것은 쫓음이다.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수(隨)’라고 하고 앞으로부터 뒤로 치지는 것도 ‘수(隨)’라고 한다. 비괘(否卦)의 상위(上位)의 강(剛)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앞에 있다가 이윽고 ‘뒤에서 남을 따르는 것만 못하다’고 하면서 이에 물러나 뒤에 있으면서 남을 따라 움직이니 이것을 일러 ‘수(隨)’라고 한다. 마침내 태(兌)의 기뻐함을 이루니 이른바 ‘기쁨으로써 남을 따르는 것’이다. 간괘(艮卦) 육이(六二)에서 “그 떨어진 사람을 잡지 못한다”라고 한 것도 고괘(蠱卦)의 초위(初位)의 음(陰)이 따르는 자가 된다. 함괘(咸卦) 구삼(九三)에서 “그 뒤따르는 사람을 잡는다”고 한 것도 역시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진 것을 ‘수(隨)’로 여긴 것이니 그 뜻이 하나이다[隨者 墮也落也 卦自否來 乾之上剛 本自至高之位 墮落至卑之地 所以名隨也 又墮者 壞也毀也 否之時 乾坤整頓 移之爲隨 則兩體俱壞 與蠱無異 所以名隨 所以云無故也 又隨者從也 自上落下曰隨 自前落後 亦曰隨也 否之上剛 最在人前 既而曰不如在後而從人也 於是退而在後 隨人以動 此之謂隨也 遂成兌悅 所謂以喜而隨人也 艮六二之不拯其隨 以蠱之初陰爲隨 咸九三之執其隨 亦以自上墜下爲隨 其義一也].
		단(象)	『춘추전(春秋傳)』에 목강(穆姜)이 점을 쳐서 ‘간지수(艮之隨)’를 만났는데 그 원형리정(元亨利貞)의 뜻을 해석한 것이 거듭 건괘(乾卦)의 「문언전(文言傳)」과 동일하다. 그러나 ‘원형(元亨)’이란 군주의 도가 형통함이고, ‘이정(利貞)’이란 일을 주관함에 이로움이다. 그러므로 「단전」에서도 그런 점을 밝힌 것이다[春秋傳穆姜之筮 遇艮之隨 其釋元亨利貞之義 仍與乾之文言同 然元亨者 君道之亨也 利貞者 利於幹事也 故彖傳明之].
		육이 (六二)	수(隨)’라는 것은 따름이다. 이웃 나라가 서로 싸움에 늙은 사람과 어린아이까지 얹혀 연루되는 것이 수괘(隨卦)의 도(道)이다. 괘덕(卦德)은 본래 따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이와 같다[隨者從也 隣國交兵 旡倪係累 隨之道也 卦德本隨 故其占如此].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수(隨)	육삼 (六三)	안(案)	「잡괘전(雜卦傳)」에 “임괘(臨卦)와 관괘(觀卦)의 뜻은 혹 주고 혹 구한다”고 했다. 관괘(觀卦)는 대간(大艮)이기 때문에 우번(虞翻)의 『역(易)』에 간(艮)이 ‘구(求)’가 된다고 했다[雜卦傳曰 臨觀之義 或與或求 觀者大艮也 故虞氏易艮爲求].
	구오 (九五)	안(案)	오례(五禮)에서 혼인은 가례(嘉禮)에 속한다[五禮 昏配屬嘉禮].
	상육 (上六)	안(案)	내지덕(來知德)의 『역(易)』에는 “유(維) 자와 ‘계(係)’ 자를 같이 보고, 단지 거듭 묶는 것일 따름이다”고 했다[來易曰 維與係同 但重係之耳].
		학포 (學圃)	무망괘(無妄卦)는 중부괘(中孚卦)로부터 왔는데 중부(中孚)라는 것은 제사와 관련된 괘이다[無妄自中孚來 中孚者 祭祀之卦也].
고(蠱)		서괘 (序卦)	고(蠱)라는 것은 일[事]이다[蠱者事也].
		잡괘 (雜卦)	고괘(蠱卦)는 정비하는 것이다[蠱則飭也].
		춘추전(春秋傳)	진(晉)나라 군주가 ‘고(蠱)’의 질병에 걸렸다. 의화(醫和)가 “그릇 명(皿) 자 위에 ‘벌레 충(蟲)’ 자가 있는 것이 ‘고(蠱)’ 인데 곡식에서 날아다니는 것 또한 ‘고(蠱)’라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고 바람이 산에 있는 것을 떨어뜨리는 것을 ‘고(蠱)’라고 했습니다”고 했다[晉侯有蠱疾 醫和曰皿蟲爲蠱 穀之飛亦爲蠱 女惑男 風落山 謂之蠱].
		정자 (程子)	‘고(蠱)’는 일[事]을 풀이하는 것이 아니다. ‘고(蠱)’라는 것이 바로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괘상(卦象)으로써 말하면 ‘고(蠱)’를 이름이 되고, 괘재(卦才)로써 말하면 ‘고(蠱)’를 다스림이 된다[蠱非訓事 蠱乃有事也 以卦象言之 所以成蠱也 以卦才言之 所以治蠱也].
		주자 (朱子)	고(蠱)는 무너짐이 극에 도달하여 일이 발생한 것이다[蠱壞極而有事也].
		용안 (鑄案)	고괘(蠱卦)는 태괘(泰卦)로부터 왔다. 건괘(乾卦)에서는 그 아래가 무너지고 곤괘(坤卦)에서는 그 위가 무너지니 이 고(蠱)는 ‘무너짐’이다. 또 장녀(長女)가 저 소남(少男)을 좋아하니 그 고(蠱)는 ‘유혹함’이 된다. 가을바람은 잎사귀를 떨어지게 하는 것인데 산의 나뭇잎이 모두 떨어지니 이 고(蠱)는 ‘쪼벌레’이다. 물건이 무너지면 정비해야 되니 ‘일’이 되는 까닭이다. 사물로써 형상하면 손(巽)은 본래 벌레가 되기 때문에 ‘풍(風)’ 자가 ‘충(虫)’에 의거한 것이기도 한데, 고괘(蠱卦)의 하괘(下卦)에는 손(巽)이 있으니 ‘고(蠱)’라는 이름이 되는 까닭이다[卦自泰來 乾壞其下 坤壞其上 此蠱壞也 又以長女 悅彼少男 此蠱惑也 秋風所損 山木盡落 此蠱蛀也 物壞則飭 所以爲事也 以物象則巽本爲蟲 故風字從虫 卦有下巽 所以蠱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고(蠱)	단(象)	안(案)	<p>‘선갑(先甲)’과 ‘후갑(後甲)’의 뜻에 대해 선유들이 해석한 것은 동일하지 않다. 마융(馬融)은 “간(艮)은 동북쪽에 있으니 ‘선갑(先甲)’이 되고 손(巽)은 동남쪽에 있으니 후갑(後甲)이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삼일(三日)’을 해석할 수 없다. 정현(鄭玄)은 “영갑(令甲)에 앞서서 반드시 명령을 내리기 이전 삼일(三日) 동안과 명령을 내린 이후 삼일(三日) 동안 보임으로써 믿음을 얻는 것이다”고 했다. 한유(漢儒)들은 모두 납갑설(納甲說)을 주로 하였으며, 왕필은 ‘선갑(先甲)’과 ‘후갑(後甲)’을 한(漢)나라 제도 영갑(令甲)과 영을(令乙)로 여겼다. 그러나 영갑(令甲)의 명칭은 한(漢)나라 때 나온 것이니 반드시 『주역(周易)』이 한(漢)나라 제도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이후로부터는 더욱 다시 어지러웠는데 호병문(胡炳文)은 선천방위(先天方位)로써 간(艮)과 손(巽)의 자리를 설명하였으니 반드시 문왕(文王)의 『역(易)』이 소강절(邵康節)의 선천도(先天圖)를 추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우중상(虞仲翔)만이 “하괘(下卦)는 건(乾)을 변화시킨 것이니 전삼갑(前三甲)이 되고 상괘(上卦)는 곤(坤)을 변화시킨 것이니 후삼갑(後三甲)이 된다”고 했으니 이것이 본의에 가깝다[先甲後甲之義 先儒解之不同 馬融云艮在東北爲先甲 巽在東南爲後甲 若然三日不可解也 鄭玄云令甲之首 必先令三日 後令三日 以示取信 漢儒皆主納甲之說 而王弼以先甲後甲爲漢制甲乙之令 然令甲之名起於漢 未必周易用漢制也 自此以降 益復紛紜 胡炳文又以先天方位 說艮巽之位 未必文王之易 下遵邵子之圖也 唯虞仲翔之言曰 下卦變乾 爲前三甲 上卦變坤爲後三甲 此爲近之].</p>
		춘추전(春秋傳)	<p>진(秦)나라 백작이 진(晉)나라를 정벌함에 복도보(卜徒父)가 그것에 대해 점을 쳐서 고괘(蠱卦)를 만났는데 “고괘(蠱卦)의 정괘(貞卦)는 바람이고 그 회괘(悔卦)는 산인데 계절이 가을인지라 우리가 그 열매를 떨어지게 하고 그 재물을 취하는 것이니 이길 것입니다”라고 했다[秦伯伐晉 卜徒父筮之 遇蠱 曰蠱之貞風也 其悔山也 歲云秋矣 我落其實 而取其材 所以克也].</p>
		안(案)	<p>우중상(虞仲翔)은 “수괘(隨卦)는 비괘(否卦)의 상효(上爻)가 초효(初爻)로 간 것이 되고, 고괘(蠱卦)는 태괘(泰卦)의 초효(初爻)가 상효(上爻)로 간 것이 된다”고 했다[虞仲翔曰隨爲否上之初 蠱爲泰初之上].</p>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고(蠱)	초육 (初六)	안(案)	‘간(幹)’이라는 것은 담장을 축조하는 판목이다. 담장을 축조하는 방법은 양쪽에 나무를 서로 끼우고 그 가운데가 단단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언전(文言傳)」에는 감(坎)을 간(幹)으로 여겼다. 또 담장이란 물건은 양쪽을 견고하게 만들고 바깥쪽을 막는 것이다. 그런데 막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역례(易例)에 이(離)로써 담장을 삼았다. ‘간(幹)’이나 ‘장(牆)’은 모두 그 훼손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괘(蠱卦)에는 대감(大坎)이 있는데 양쪽에 손(巽)의 나무를 끼워서 가운데를 견고하게 만드니 이것이 담장을 축조하는 상(象)이다. 고괘(蠱卦)에 대리(大離)가 있는데 양쪽 진(震)의 나무로 곤(坤)의 흙을 끼워서 지평하니 또한 담장을 축조하는 상(象)이다. 그러므로 고괘(蠱卦)의 본상(本象)에 원래 허물어진 것을 축조하는 상(象)이 있으니 효변(爻變)을 기다린 이후에야 비로소 축조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幹者築牆版也 築牆之法 兩木相夾 而中成堅剛 故文言以坎爲幹 又牆之爲物 兩剛周外 而用爲防閉 故易例以離爲牆 皆所以扞其壞也 卦有大坎 兩巽之木 夾成中綱 此幹築之象也 卦有大離 兩震之木 夾持坤土 亦幹築之象也 故卦之本象 原有幹蠱之形 不待爻變而後 方得爲幹也].
	육오 (六五)	안(案)	험한 말은 참소함이 되기 때문에 감(坎)과 태(兌)가 있으면 참소함이 된다. 좋은 말은 칭찬함이 되기 때문에 이(離)와 태(兌)가 있으면 칭찬함이 된다[險言爲讒 故坎而兌則讒也 嘉言爲譽 故離而兌則譽也].
	상구 (上九)	표기 (表記)	그 자리에 거처하여 그 일을 실행하지 않으면 어지럽게 된다. 그러므로 군주가 그 신하로 하여금 뜻을 얻게 하면 신중히 생각하여 따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깊이 생각하여 따르고서 일을 마치고 물러나는 것이 신하의 본모습이다. 그래서 『주역』에 “왕후를 섬기지 않고 그 일을 고상히 하도다”라고 했다[處其位而不履其事則亂也 故君使其臣得志 則慎處而從之 否則熟慮而從之 終事而退 臣之原也 易曰不事王侯 高尚其事].
임(臨)		서괘 (序卦)	‘임(臨)’이라는 것은 큰 것이다[臨者大也].
		잡괘 (雜卦)	임괘(臨卦)와 관괘(觀卦)의 뜻은 혹은 주는 것이고 혹은 구하는 것이다[臨觀之義 或與或求].
		주자 (朱子)	‘임(臨)’은 나아가 사물을 멀리하고 펴박하는 것이다. 두 개의 양(陽)이 점점 자라서 음(陰)을 펴박하기 때문에 임(臨)이라고 한다[臨進而凌逼於物也 二陽浸長 以逼於陰 故爲臨].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임(臨)		용안 (鋪案)	<p>‘임(臨)’이라는 것은 연못에 임하는 것이다. 태(兌)의 연못이 매우 깊어 곤(坤)의 백성이 내려다보니 이것을 ‘임(臨)’이라고 한다. 또 ‘임(臨)’이라는 것은 진(震)의 군주가 곤(坤)의 나라에 군림하는 것이다. 복괘(復卦)에 있는 한 개의 양(陽)은 여러 무리 중에서 우두머리이지만 그 지위가 가장 낮아 아직 백성을 군림하는 상(象)이 없다. 나아가 임괘(臨卦)가 되면 천하의 가운데에서 만백성에 이르러 군주가 되니 이것을 ‘임(臨)’이라고 한다. 그러나 임괘(臨卦)는 대진(大震)인데 진괘(震卦)의 괘 됨은 강(剛)으로써 유(柔)의 아래에 있고, 존귀함으로써 낮은 자리로 내려왔는데 어찌 군림(君臨)함이 된다는 것인가? 성인(聖人)이 백성들에게 임할 때에는 겸손하고 공경하며, 낮추어 굽히기 때문이다. 『상서(尙書)』 「우서(虞書)」 「익직(益稷)」에 “좌우에서 백성을 돕고자 한다”고 했고, 『시경(詩經)』 「상송(商頌)」 「장발(長發)」에서 “탕왕(湯王)이 낮추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고 했다. 이것은 모두 백성에게 자신을 낮춘 것이다. 후세에 군도(君道)가 너무 지나쳐서 백성에게 낮추는 뜻을 알지 못하였으니 오만하고 분수에 넘치게 하고 뽑내고 사치하여 백성에게 임(臨)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이다. 공자가 이 임괘(臨卦)에 대해서 “군자는 이 임괘(臨卦)를 본받아 가르치려는 생각이 무궁하고 백성을 포용함에 끝이 없다”고 했으니 백성에게 임(臨)할 때는 반드시 낮춰서 내려감이 이와 같다. 성인(聖人)이 괘(卦)를 이름 지은 뜻이 그 어찌 깊다고 아니하겠는가[臨者臨淵也 兌澤極深 坤民俯臨 是之謂臨也 又臨者 震主臨坤國也 復之一陽 首出庶物 而其位最卑 未有臨民之象 進而爲臨 則中天下而立 莅萬民而爲君 此之謂臨也 然臨者大震也 震之爲卦 以剛而下柔 以尊而降卑 何以爲臨也 聖人之臨民也 謙恭而卑屈也 書曰以左右有民 詩曰 湯降不遲 皆所以下於民也 後世君道太亢 不知下民之義 則驕溢 泰侈 而失其所以爲臨也 孔子於此卦曰君子以 教思無窮 容保民無疆 臨民之必以卑降如是也 聖人名卦之義 其不淵矣哉!]</p>
		안(案)	<p>『좌전(左傳)』의 지장자(知莊子)의 말에 “행하지 않는 것을 ‘임(臨)’이라고 한다. 장수가 있는데 따르지 않으면 임(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저 감(坎)의 물이 변하여 태(兌)의 연못이 되기 때문에 ‘불행(不行)’이라고 한 것이다. 이 괘의 본래 뜻은 아니다[左傳知莊子之言曰 不行之謂臨 有帥不從 臨孰甚焉 彼坎水變爲兌澤 故謂之不行 非此卦之本旨也].</p>
	단(象)	안(案)	<p>호병문(胡炳文)은 ‘팔월(八月)’을 관괘(觀卦)의 달로 여겼는데 이것은 반역(反易)으로 상(象)을 취한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소멸되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胡炳文以八月爲觀卦之月 此以反易取象也 若然消不久一語 何以解之?]</p>
		우안 (又案)	<p>공자는 둔괘(遯卦)의 「단전」에서도 또한 ‘점점 자란다’라고 했으니 문구(文句)가 서로 상응한다. 팔월(八月)이 둔괘(遯卦)의 달이 됨을 살펴야 할 것이다[孔子於遯之象 亦云浸而長 文相照也 八月之爲遯卦之月審矣].</p>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임(臨)	구이 (九二)	안(案)	초구(初九)와 구이(九二)의 효(爻)에서 아울러 ‘함임(咸臨)’이라고 한 것은 물상(物象)이 이미 같고 괘위(卦位)가 아직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占)이 또한 같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다른 괘(卦)에서 각각의 주사(繇詞)가 다른 말인 경우에도 또한 그 가운데 피차간에 서로 갖추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같은 말을 두 번 사용하여 통례(通例)로 삼은 것이다[兩爻之並云咸臨者 明物象既同 卦位未遷 其占亦同 他卦之逐繇異詞者 亦其中有可以彼此相備者 故一詞而兩用之 以爲通例也].
관(觀)		서괘 (序卦)	사물이 커진 이후에 볼 수 있다[物大然後可觀].
		정자 (程子)	‘관(觀)’이라는 것은 ‘누관(樓觀)’의 ‘관(觀)’과 같다. 인군(人君)이 위로 천도(天道)를 관찰하고 아래로 백성의 풍속을 관찰하는 것이 ‘관(觀)’이요, 덕을 닦아 정사를 행하여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것이 ‘관(觀)’이다[觀如樓觀之觀 人君上觀天道下觀民俗 則爲觀 修德行政 爲民瞻仰則爲觀].
		주자 (朱子)	위에서 아래를 보는 것을 ‘관(觀)’이라고 하고, 아래에서 위를 보는 것도 ‘관(觀)’이라고 한다[自上示下曰觀 自下觀上曰觀].
		용안 (鋪案)	전체적으로 관괘(觀卦)가 대간(大艮)이 되는데, 간(艮)은 ‘문궐(門闕)’이 되며 ‘문궐(門闕)’이라는 것이 ‘관(觀)’이다. 『이아(爾雅)』에 “관(觀)을 ‘궐(闕)’이라 한다”고 했다. 또 이 괘상(卦象)은 상괘(上卦)에 손(巽)의 눈이 있으니 군주의 자리에 있으면서 아래를 살피는 것이며, 하괘(下卦)에 곤(坤)의 백성이 있으니 이(離)의 자리에 있으면서 위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궐(闕)을 ‘관(觀)’이라고 명명한 것 또한 위로부터 아래를 내려다보고, 또 아래로부터 위를 올려다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관괘(觀卦)가 이름을 얻은 까닭이다[通卦爲大艮 艮爲門闕 門闕者觀也 爾雅曰觀謂之闕 又此卦象 上有巽眼 在於君位 可以觀下 下有坤民 在於離位 可以觀上 卽闕之名觀 亦以自上而觀下 又令自下而觀上也 此觀之所以得名].
	단(象)	안(案)	한(漢)나라 유학자들은 모두 ‘관(盥)’자와 ‘관(裸)’자가 통한다고 운운한다. ‘관(裸)’자는 ‘관(瓊)’자와 ‘관(灌)’자로 또한 서로 통하는데 주자(朱子)의 『주역본의(周易本義)』에 이르러서 비로소 손을 씻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게 되었다[漢儒並云盥與裸通 裸與瓊灌又相通 至朱子本義 始有潔手之解].
		우안 (又案)	한(漢)나라 유학자들의 이론에는 혹 ‘조회(朝會)’라고 풀이하기도 하고 혹은 ‘선비를 천거하는 것[貢士]’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제사(祭祀)’로 해석하기도 했다. 지금 공자의 「단전」을 읽어 보면 이미 “신묘한 도(道)로써 교화를 베푀다”고 했으니 제사(祭祀)의 뜻이 옳바르다[漢儒之說 或作朝會 或作貢士 或作祭祀 今讀孔子之傳 既謂之神道設教 則祭祀之義爲正].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관(觀)	단(象)	정자 (程子)	천도는 지극히 신묘하기 때문에 사시(四時)를 운행하고 만물(萬物)을 화육하여 어그러짐이 없는 것이다. 지극히 신묘한 도는 이름하여 말할 수 없고, 오직 성인(聖人)만이 묵묵히 함하여 그 오묘한 작용을 체현하여 정치적 교화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하의 사람들이 자연히 우러러보고 받들어 복종하는 것이다[天道至神 故運行四時 化育萬物 無有差忒 至神之道 莫可名言 唯聖人默契 體其妙用 設爲政教 故天下之人 自然仰觀而戴服也].
	육이 (六二)	안(案)	‘동관(童觀)’과 ‘구관(闕觀)’이라는 것은 상(象)이며 그 아래의 한두 구절은 점(占)이다. 공자는 「소상전(小象傳)」에서 항상 통괄하여 글을 썼는데, 이것은 「소상전(小象傳)」의 문장형식이다. 여기에서 ‘또한 추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그 상(象)으로써 말한 것이지 반드시 여자의 일이 추한 것은 아니다. 또한 ‘정(貞)’은 일[事]이다. 만약 ‘정(正)’으로 풀이한다면 통할 수 없다. 모신(毛姓)은 “곤(坤)은 문을 닫음이 되기 때문에 몰래 엿보이 된다”고 했는데 그 뜻은 잘못된 것이다. 역례(易例)에 진(震)은 닫힌 문이 되는데 환괘(渙卦)에 호진(互震)이 있으니 엿보는 것[闕]이다[童觀闕觀者象也 其下一二句占也 孔子於象傳 每通括而爲之詞 此象傳之文例也 此云亦可醜也者 以其象也 非必女貞爲可醜也 且貞事也 若訓爲正 便不可通 毛姓云坤爲闔戶 故爲闕觀 其義非也 易例震爲閉門 渙有互震 所以闕也].
		안(案)	정현(鄭玄)은 ‘공사(貢士)’와 ‘빈흥(賓興)’의 설(說)으로써 이 효(爻)를 해석했는데 잘못이다. 대사도(大司徒)의 ‘빈흥(賓興)’의 문구(文句)는 본래 가차(假借)하여 글을 만든 것이다. 어찌 주공(周公)의 말에 도리어 그 구(句)를 따와서 쓰는 법이 있었겠는가[鄭玄以貢士賓興之說釋此爻 謬矣 大司徒賓興之文 本是假借爲文者 豈有周公之詞 反用摘句之法哉?]
	육사 (六四)	춘추전(春秋傳)	진(陳)나라 여공(厲公)이 경중(敬仲)을 남음에 주(周)나라 태사(太史)가 점(占)을 쳐서 이 효를 만났는데 “곤(坤)은 땅이며, 바람이 땅 위에서 하늘이 된 것이고, 산이 있는 것입니다. 산에는 재목(材木)이 있고 하늘의 빛이 그것을 비춥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빛을 볼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조정의 뜰에 예물이 수백 가지가 있고 옥과 비단을 바치니 천지의 아름다운 것이 모두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빈객이 됨이 이롭다’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했다[陳厲公生敬仲 周史筮之 遇此爻曰坤土也 風爲天於土上山也 有山之材 而照之以天光 故曰觀國之光 庭實旅百 奉之以玉帛 天地之美具焉 故曰利用賓于王].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관(觀)	상구 (上九)	안(案)	경방(京房)의 『역전(易傳)』에서 이 효(爻)를 해석하여 “대신(大臣)의 도리는 마땅히 현인(賢人)의 성품과 행실을 살펴서 조정에 천거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선한 사람을 탐문할 때까지 그치지 않는 것이다. 그 이변(異變)은 황색으로 드러나고 그 재앙은 귀머거리가 된다”고 했다. 경방(京房)의 해석은 효변(爻變)을 주로 한 것이다. 이것은 옛날의 학설로써 사승(師承)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 ‘재앙과 허물[災咎]’에 대한 이론은 곧 참위설(讖緯說)의 시조이다. 또 그 ‘선비를 천거한다’라는 풀이는 잘못된 것이며, 천거가 없는 것이다[京房易傳釋此爻曰大臣之義 當觀賢人性行 以貢于庭 否則聞善不終 厥異黃 厥咎聵 其說主於爻變 此古學之有師承者也 其災咎之說 仍是讖緯之祖 且其貢士之義 謬戾不典].
서합 (噬嗑)		서괘 (序卦)	‘합(噬)’이라는 것은 합한다는 것이다[噬者合也].
		잡괘 (雜卦)	서합(噬嗑)이라는 것은 먹는다는 것이다[噬嗑食也].
		정자 (程子)	입안에 어떤 것이 그 사이에 있어서 씹은 이후에 다무는 것이다. 천하(天下)에 있어서는 포악한 사람 혹은 이간질하는 사람이 그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천하의 일이 화합하지 못하니 마땅히 형법(刑法)을 사용해야 한다. 작으면 징계 정도 하지만 크면 주륙(誅戮)을 써서 제거한 연후에 천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것이다[口中有物間之 齧而後合之 在天下則爲有強梗 或讒邪間隔於其間 故天下之事不得合 當用刑法 小則徵戒 大則誅戮 以除去之然後天下之治得成矣].
		용안 (鋪案)	두 개의 강(剛)이 닫아 덮고 있으니 그 상(象)이 입을 다문 것이 된다. 하나의 강이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으니 그 상(象)이 가지런한 치아가 되고, 세 개의 음은 고기가 되니 그 씹는 것이다. 서합괘(噬嗑卦)는 비괘(否卦)로부터 왔다. 곤(坤)의 고기 덩어리가 씹혀서 두 각으로 잘려 턱 가운데 머금고 있으니 이것이 서합괘(噬嗑卦)로 이름 붙인 까닭이다. 그러나 고기를 씹고 입을 다무는 것은 이 괘(卦)에 있어서 수만 가지의 상(象)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단사(彖詞)에서는 ‘고기를 씹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니 마치 귀매괘(歸妹卦) 단사에서 ‘누이를 시집 보내는 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과 같다[兩剛屬合 其象爲合口 一剛中橫 其象爲列齒 三陰爲肉 其所噬也 卦自否來 坤肉受噬 截爲二段 含在頤中 此噬嗑之所以名也 然噬肉嗑口 其在此卦 不過萬象之中一象 故彖詞不言噬肉 如歸妹彖詞之不言嫁妹也].
	단(彖)	안(案)	우변(虞翻)과 후과(侯果)와 노경유(盧景裕)의 『역(易)』은 모두 이 괘(卦)가 모두 비괘(否卦)로부터 왔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추이(推移)의 정맥(正脈)이다[虞翻侯果盧氏之易 並云卦從否來此推移之正脈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서합 (噬嗑)	단(象)	안(案)	비괘(賁卦)도 역시 이괘(頤卦)와 비슷하다. 그러나 비괘(賁卦)는 아래가 막혀서 물고 있을 수는 있지만 씹을 수 없다. 이 서합괘(噬嗑卦)는 아래가 움직이기 때문에 오직 이 괘만이 서합(噬嗑)이 된다. 사람이 바야흐로 씹으려고 할 때에는 턱에서 반드시 아래턱이 움직인다[賁亦似頤 然賁則下防 能噬而不能噬 此卦下動 故唯此卦爲噬嗑也 人之方噬 頤必下動].
		오징 (吳澄)	구(履)는 그 다리에 착용하는 것이니 마치 신발을 신은 듯한 것을 말한다. 교(校)는 족쇄이다[履謂著於其足 如納履然 校足械也].
	초구 (初九)	안(案)	서합괘(噬嗑卦)는 본래 진(震)의 다리가 있었으나 지금 진(震)이 이미 소멸하였으니 또한 ‘멸지(滅趾)’인 것이다. 그러나 서합괘(噬嗑卦)의 때에는 진(震)의 다리가 절로 있으니 본래 ‘구교(履校)’의 상(象)이 없다. 반드시 소과괘(小過卦)의 상(象)을 취해야만 비로소 치밀하고 결실하게 된다[噬嗑之卦 本有震足 今震既滅 亦滅趾也 然噬嗑之時 震足自在 本無履校之象 必取小過之象 方爲密切].
		우안 (又案)	역례(易例)에 초효(初爻)는 발이 되고 상효(上爻)는 머리가 된다. ‘분기지(賁其趾)’와 ‘간기지(艮其趾)’는 모두 위(位)로써 상(象)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 상을 취함에 있어서는 모두 진(震)의 다리에 따른 것이니 또한 진(震)이 반드시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읽는 자는 이것을 상세히 해야 한다[易例 初爲趾上爲首 如賁其趾艮其趾 皆以位而用象 然其取象則皆以震足 又不必震在下也 讀者詳之].
	육이 (六二)	안(案)	서합괘(噬嗑卦)는 비괘(否卦)로부터 왔으며, 비괘(否卦)는 태괘(泰卦)의 반괘(反卦)이다. 태괘(泰卦)의 인(仁)과 의(義)가 비괘(否卦)에는 모두 없으니 이것을 일러 ‘불인(不仁)’와 ‘불의(不義)’라고 한다[卦自否來 否者泰之反也 泰之仁義 否皆無之 此之謂不仁不義也].
		우안 (又案)	순구가는 간(艮)을 코로 여겼는데 아마도 코가 가운데 산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荀九家以艮爲鼻 蓋以鼻自中巖也].
	육삼 (六三)	우씨 (虞氏)	진(震)은 사슴이다[震爲鹿].
	구사 (九四)	안(案)	『설문(說文)』에는 ‘자(𪚩)’ 자가 ‘塿’ 자로 나온다. 또 혹자는 ‘포(脯)’ 자라고 하지만 잘못이다. 왕숙(王肅)은 “‘쇠로 된 화살촉[金矢]’은 들짐승을 잡는 데 쓰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들짐승 먹는다면 다시 화살촉을 얻은 것이다”고 했다[說文𪚩作塿 又或作脯 非也 王肅云金矢所以獲野禽 故食之 反得金矢].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서합 (噬嗑)	구사 (九四)	태평어람 (太平御覽)	군자는 맛있는 것을 대할 때 반드시 그 독(毒)을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육삼(六三)의 무구(無咎)를 가리킨 것이다. 또 이로우를 보면 반드시 그 어려움을 대비해야 한다. 이것은 구사(九四)의 정길(貞吉)을 가리킨 것이다[君子于味 必思其毒 此六三之無咎也 于利必備其難 此九四之貞吉也].
	육오 (六五)	안(案)	『주례(周禮)』 「주관(秋官)」 「대사구(大司寇)」에 “백성들이 송사하는 것을 금하려고 ‘100개로 된 화살 묶음[束矢]’을 들이게 했으며, 백성들이 죄악을 고발하는 것을 금하려고 ‘형사소송에 들어가 금 30근[鈞金]’을 들이게 한 연후에 재판을 했다”라고 했다. 정현(鄭玄)은 “화살을 들이지 않거나 금을 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이 바르지 않다고 자복(自服)하는 것이다”고 했다. 주자(朱子)는 구사(九四)의 ‘금시(金矢)’와 구오의 ‘황금(黃金)’을 모두 균금(鈞金)과 속시(束矢)로 해석했는데 이는 괘의 단사(彖詞)와 효사(爻詞)가 모두 형벌을 다스리는 상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한 것이 이와 같다. 그러나 왕자옹(王子雍)의 설(說)이 문맥의 이치에 맞다[周禮大司寇禁民訟 令入束矢 禁民獄 令入鈞金 然後聽之 鄭玄云 不入矢不入金 是自服其不直者也 朱子以九四之金矢 六五之黃金 皆作鈞金束矢解 此卦彖詞爻詞 皆取用獄之象 故解之如是 然王子雍之說 於詞理爲順].
	상구 (上九)	안(案)	초구(初九)와 상구(上九)는 모두 소과괘(小過卦)의 상(象)을 취했는데 초구(初九)에서 ‘구교(屨校)’라고 한 것은 그 지위가 낮기 때문이고, 상구(上九)에서 ‘하교(何校)’라고 한 것은 그 지위가 높기 때문이다[案初九上九 皆取小過之象 而初爲屨校者 其位卑也 上爲何校者 其位尊也].
		안(案)	한(漢)나라 소열(昭烈)이 “선행이 적다고 하지 않지 말고, 악이 적다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이 서합괘(噬嗑卦) 상구(上九)에 근본한 것이다[漢昭烈云勿以善小而爲 勿以惡小而爲之 蓋本於此].
		서괘 (序卦)	‘비(賁)’라는 것은 꾸민다는 것이다[賁者飾也].
		잡괘 (雜卦)	‘비(賁)’는 색(色)이 없는 것이다[賁無色也].
		주자 (朱子)	안에는 이(離)이고 밖에는 간(艮)이니 문명(文明)하면서도 각각 그 분수를 얻었다[內離而外艮 文明各得其分].
		용안 (鑄案)	‘비(賁)’라는 것은 얼룩무늬이니 문체가 화려한 모양이 있다. 『주례(周禮)』 「하관(夏官)」 「사마(司馬)」에 호분씨(虎賁氏)라는 것이 있는데 또한 이러한 의미이다. 괘(卦)가 태괘(泰卦)에 있을 때는 위아래로 문체가 없는데, 지금 두 개의 이(離)를 이루니 ‘비(賁)’가 되는 까닭이다[賁者 斑然有文章之貌 周官有虎賁氏 亦此義也 卦在泰時 上下無文 今成兩離 所以爲賁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비(賁)		우안 (又案)	『공자가어(孔子家語)』에 공자가 점(占)을 쳐서 비괘(賁卦)를 얻었는데 얼굴빛이 변하여 편안하지 않은 기색이 있었다. 자장(子張)이 “무슨 일입니까?”라고 물었다. “비괘(賁卦)는 정색(正色)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탕으로 본다면 검은색과 흰색이 바른 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비괘(賁卦)를 얻었으니 내가 원하는 조짐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씨춘추(呂氏春秋)』에 공자가 점을 쳐서 비괘(賁卦)를 얻었는데 “길하지 못하다”라고 하니 자공(子貢)이 “어째서 그렇습니까?”라고 물었다. 공자는 “무릇 희면 희고 검은면 검은야 한데, 비괘(賁卦)가 또한 어찌 길하겠는가!”라고 했다. 경방(京房)의 『역전(易傳)』과 양웅(楊雄)의 『태현경(太玄經)』과 또 정현(鄭玄)과 왕숙(王肅)의 설과 그리고 공영달의 『주역정의(周易正義)』에 나오는 ‘황백(黃白)’에 대한 설은 아마도 『공자가어(孔子家語)』와 『여씨춘추(呂氏春秋)』의 설에 근거한 것 같다. 그러나 경방(京房)의 설이 가장 옛날의 뜻과 부합하며, 나머지는 믿을 수 없다[家語孔子筮得賁 愀然有不平之色 子張曰何也 賁非正色之謂也 夫賁也 黑白宜正焉 今得賁 非吾兆也 呂氏春秋曰 孔子卜得賁 曰不吉 子貢曰何也 孔子曰夫白而白黑而黑 賁亦安吉乎 京房易傳 揚雄玄經 又鄭玄王肅 孔子正義 黃白之說 蓋本於此 然京房之說 最與古合 餘不可信].
	초구 (初九)	안(案)	역례(易例)에 따르면 초효(初爻)는 발[趾]이 되고, 삼효(三爻)와 사효(四爻)는 허리[腰]와 복부[腹]가 되며, 상효(上爻)는 머리가 된다. 그러므로 초효(初爻)에는 반드시 ‘발[趾]’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그 상(象)을 취할 때는 반드시 진(震)의 다리로써 하지만 반드시 진(震)이 하괘(下卦)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읽는 자가 반드시 이것을 살펴야 한다. ○정현(鄭玄)과 장씨(張氏)의 책에는 ‘거(車)’ 자가 ‘여(輿)’ 자로 되어 있다[易例初爲趾 三四爲腰腹 上爲首 故初爻必言趾 然其取象 則必以震足 又不必震在下卦 讀者詳之 ○鄭張本車作輿].
	육이 (六二)	안(案)	『설괘전(說卦傳)』에 “손(巽)은 ‘털이 적음[寡髮]’이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순구가는 손(巽)을 ‘터럭’으로 보았다. 그러나 진(震)과 손(巽)은 모두 땅의 터럭이다. 그리고 손(巽)이 털이 적음이 된다면 진(震)은 털이 많음이 된다. 그러므로 이 비괘(賁卦) 육이(六二)와 규괘(睽卦) 육삼(六三)은 모두 진(震)을 ‘터럭’으로 본 것이다[說卦巽爲寡髮 故九家以巽爲髮 然震巽俱是地毛 巽爲寡髮 則震爲多髮也 故此卦之六二 睽之六三 皆以震爲髮].
	육사 (六四)	학포 (學圃)	이괘(離卦)괘의 양호괘(兩互卦)는 곧 대과괘(大過卦)가 되기 때문에 재혼(再婚)의 상(象)이 있다[離之兩互 寔爲大過 故有再婚之象].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비(賁)	육사 (六四)	안(案)	역례(易例)에 의하면 혼인에 대한 점(占)은 반드시 간(艮)과 태(兌)에 근거한다. 그러나 만약 재취(再娶)의 예에 해당하는데 반드시 간(艮)과 태(兌)의 결합을 구한다면 물상이 부합하지 않는다. 대과괘(大過卦)에서는 진(震)으로써 태(兌)에게 장가간 것이고, 이육사(六四)도 진(震)으로써 이(離)에게 장가간 것이다. 이것은 모두 백성의 쓰임에 대비하여 점치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易例 婚配之占 必以艮兌 然若作再聚之禮 而必求艮兌之合 則物象不合 故大過以震而娶兌 此爻以震而娶離 皆所以前民用 而示占例也].
		우안 (又案)	‘한(翰)’자는 ‘한(翰)’자와 더불어 통한다.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전쟁을 하는 일에는 백마를 탄다”고 했는데 이것이다. ‘한(翰)’이라는 것은 날개를 뜻한다. 이(離)는 나는 새가 되기 때문에 ‘나는 듯하다[翰如]’라고 일컬은 것이다[翰與翰通 檀弓云戎事乘翰是也 翰者羽也 離爲飛鳥 故得稱翰如].
	육오 (六五)	안(案)	자서(字書)에는 ‘잔(淺)’자는 ‘겹쳐서 쌓은 모양[委積]’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漢)나라 유학자들이 이 문장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잘못이 이어지고 고치지 않는 것이다. ‘잔(淺)’이라는 것은 얇고 적다는 것이다. 물이 얇고 적으면 ‘천(淺)’이 되고, 쇠가 얇고 적으면 ‘전(錢)’이 되고, 실이 얇고 적으면 ‘선(綿)’이 되고, 재물이 얇고 적으면 ‘천(賤)’이 되고, 사람이 얇고 적으면 ‘천(賤)’이 되니 그것이 얇고 적음[殘薄]의 뜻이 됨을 살펴야 한다. 『자하전(子夏傳)』에서는 ‘잔(淺)’을 ‘잔(殘)’으로 썼다[字書云淺委積貌 此因漢儒誤解此文 而承訛不改也 淺者薄小也 水薄小則爲淺 金薄小則爲錢 絲薄小則爲綿 財薄小則爲賤 人薄小則淺 其爲殘薄之意審矣 子夏傳淺作殘].
		안(案)	『시경(詩經)』 「위풍(衛風)」에서 “흰 명주실로 매달고 좋은 말 네 마리로 하네”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현자를 초빙하는 예에 본래 속백(束帛)이 있었다는 것이다[衛風云素絲紕之 良馬四之 正是招賢之禮 原有束帛也].
		학가 (學稼)	본래 간(艮)의 손[手]이었는데 변해서 손(巽)의 줄이 되니 그 줄로써 묶었기 때문에 ‘속백(束帛)’이라고 한 것이다[本以艮手 變爲巽繩 繩以束之 故謂之束帛].
	상구 (上九)	안(案)	곤(坤)은 흑색이니 건(乾)은 백색이다. 또 손(巽)은 백색이 많다. 양획(陽畫)은 모두 백색이기 때문에 『공자가어』와 『여씨춘추』의 글이 그와 같은 것이다[坤黑則乾白也 又巽爲多白 凡陽畫皆白也 故家語呂覽之文如彼].
		서괘 (序卦)	‘박(剝)’은 벗김이다[剝者剝也].
		잡괘 (雜卦)	‘박(剝)’은 문드러짐이다[剝爛也].
		주자 (朱子)	‘박(剝)’은 떨어짐이다[剝落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박(剝)		용안 (鏞案)	‘박(剝)’이라는 것은 떨어뜨리는 것이다. 구괘(姤卦) 이래로 건(乾)의 나무 열매를 두드려 거의 다 떨어졌으니 이것이 ‘박(剝)’이다. 또 ‘박(剝)’이라는 것은 벗김이다.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을 ‘박(剝)’이라고 하고, 기물의 덮개를 벗기는 것을 ‘박(剝)’이라고 하고, 침상에서 자리를 걷어 내는 것을 ‘박(剝)’이라고 하고, 채소의 껍을 벗겨 내는 것을 ‘박(剝)’이라고 하니, 벗기는 것을 ‘박(剝)’이라고 한다. 박괘(剝卦)는 건괘(乾卦)로부터 변화되어 왔는데 구괘(姤卦) 이래로 매번 하나의 음(陰)이 아래로 생기면 위에서는 하나의 양(陽)이 벗겨지니 마치 몸에서 옷을 벗겨 내는 것과 같고, 침상에서 자리를 걷어 내는 것과 같다. 박(剝)에 이르면 건(乾)의 옷이 다 벗겨져 겉옷 하나만 겨우 남으니 이것을 일러 ‘박(剝)’이라고 한다[剝者撲也 自姤以往 乾之木果 打撲殆盡 此剝也 又剝者褫也 人去衣曰剝 器去幕曰剝 牀去席曰剝 菜去皮曰剝 褫之謂剝也 卦由乾變 自姤以往 每下生一陰 則上褫一陽 如體去衣 如牀去席 以至於剝 則乾衣盡剝 而一皮僅存 此之謂剝也].
	초육 (初六)	성호 (星湖)	‘이족멸(以足蔑)’과 ‘이변멸(以辨蔑)’의 세 글자가 구(句)가 되니 ‘멸(蔑)’은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상전(象傳)」에 ‘이멸하(以滅下)’라고 한 것이다. ‘멸하(滅下)’라는 것은 ‘족멸(足蔑)’이다. 정흥(貞凶)은 다른 괘(卦)의 정흥(貞凶)과 더불어 다른 예(例)가 아니다[以足蔑以辨蔑 三字爲句 蔑滅也 故傳曰以滅下也 滅下者足蔑也 貞凶 與他卦之貞凶 無異例].
		안(案)	구절을 끊을 때 의심이 있는 것은 마땅히 ‘운(韻)’으로 결정해야 한다. 두 효(爻)의 ‘박상(剝狀)’은 글자를 중첩하여 서로 계승한 것이 단사(象詞)의 ‘유유왕(有攸往)’과 더불어 협운(叶韻)의 관계이다. ‘이족멸(以足蔑)’과 ‘이변멸(以辨蔑)’도 또한 글자를 중첩하여 서로 계승한 것으로 협운(叶韻)의 관계이다. 이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지금의 해석과 같다면 ‘족(足)’자와 ‘변(辨)’자가 이 협운(叶韻)이 되지 않는데다가 ‘유유왕(有攸往)’ 또한 서로 관계가 없으니 해독할 수 없는 것이다[句絕之可疑者 當以韻決之 兩爻之剝狀 疊文相承 與象詞之有攸往叶韻 以足蔑以辨蔑 亦疊文相承以相叶 此易知也 若如今釋 足與辨 既不相叶 有攸往又無相承 不可讀也].
		우안 (又案)	‘멸(蔑)’이라는 것은 미미한 것이다. 왕필(王弼)은 “멸(蔑)은 깎는 것과 같다”고 했다. 또한 ‘멸(蔑)’자는 ‘멸(滅)’자와 통하니 순구가는 ‘멸(蔑)’자를 ‘멸(滅)’자로 썼다[蔑者微也 王弼云 蔑猶削也 又與滅通 荀九家蔑作滅].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박(剝)	육이 (六二)	안(案)	공안국은 ““변(辨)’이란 침상의 기동을 말한다. 기동은 침상의 판자 위에 있다”라고 했다. 공영달(孔穎達)은 이것을 따랐다. 최경(崔憬)은 “변(辨)이란 침상의 가장자리에 있는 울짱이다. 침상다리의 사이에 있다”라고 했다. 뒤에 자서(字書)들은 모두 이 뜻을 따라 잘못된 것을 계승하고 오류를 답습하였으니 전거가 될 수 없다. ‘족(足)’은 침상다리가 되고 ‘변(辨)’은 침상의 난간이 된다고 할 때 이것으로써 문장에 비추어 보면 ‘침상을 벗겨 내니 그것은 침상의 다리를 없애기 때문’이라는 것이 되니 절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침상의 자리를 벗겨 내니 그것은 침상의 난간을 없앴기 때문’이라는 것이 되니 도대체 또 무슨 말인가? 육오(六五) 효사(爻辭)를 상세히 음미해 보면 ‘박상(剝牀)’의 뜻을 이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孔安國曰辨謂牀幹也 幹在牀棧之上 孔穎達從之 崔憬曰辨者牀者 牀槥也 在筵足之間 後來字書皆從此義 承訛襲謬 不足據也 足爲牀足 辨爲牀槥 以之臨文則剝牀以牀足 自不成理 剝牀以牀槥 抑又何說 詳玩六五之詞 剝牀之義 乃可悟也].
	육사 (六四)	안(案)	최경(崔憬)은 “침상에 이부자리가 있는 것은 마치 짐승에게 털과 가죽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 무슨 풀이인지 모르겠다”고 했다[崔憬云牀之有蓆薦 猶獸之有毛皮 不知何解].
	육오 (六五)	안(案)	한(漢)나라 유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여 모두 임금의 첩들이 저녁을 담당하는 것을 물고기를 썰어 놓은 순서처럼 여겼다. 아마도 물고기가 껍데기에 머리가 모두 위로 향하고 그 형세도 서로 순응하는 모습인데, 지금 손(巽)의 왕비가 위에 자리하여 여러 음(陰)이 줄줄이 늘어서 있으니 왕의 첩들이 순종하고 따르는 상이 있다. 그렇지만 ‘이궁인룡(以宮人寵)’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漢儒釋此 皆以妾御當夕 爲魚貫之序 蓋以魚之既貫 頭皆向上 其勢相順 而今巽后在上 衆陰纍纍 有妾御順附之象也 然以宮人寵 當作何解?]
	상구 (上九)	안(案)	경방(京房)의 『역전(易傳)』에 “소인은 오두막이 벗겨짐을 당하니 그 재앙은 산(山)이 붕괴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비록 재앙과 복을 점치는 것으로서 경도(經道)는 아닐지라도, 경방은 효변(爻變)에 대해 알고 있었다[京房易傳曰小人剝廬 厥妖山崩 雖祲祥之占不經 而爻變則知之矣].
복(復)		서괘 (序卦)	까임이 위에서 다하면 아래로 돌아오기 때문에 복괘(復卦)로 받는다[剝 窮上反下 故受之以復].
		잡괘 (雜卦)	복(復)은 되돌아오는 것이다[復反也].
		대전 (大傳)	복(復)은 덕(德)의 근본이다. 복(復)은 미약하지만 사물을 분별한다. 복(復)은 스스로 아는 것이다[復德之本也 復小而辨於物 復以自知].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복(復)		용안 (鋪案)	『서괘전(序卦傳)』에서 박괘(剝卦)를 앞에 두고 복괘(復卦)를 뒤에 둔 것은 끝나면 시작함이 있는 것이 하늘의 운행이기 때문이다. 진(震)은 되살아남이 된다. 그러므로 팔괘(八卦) 안에서는 간(艮)이 박괘(剝卦)가 되고 진(震)이 복괘(復卦)가 된다. 그리고 팔괘방위(八卦方位)는 간(艮)에서 끝나고 진(震)에서 시작하니 또한 박괘(剝卦)와 복괘(復卦)의 뜻이다 [序卦先剝而後復者 終則有始 天行也 震爲反生 故八卦之內以艮爲剝 以震爲復 而八卦方位 終乎艮而始於震 亦剝復之義也].
	단(象)	안(案)	어떤 설(說)에는 박괘(剝卦)에서 곤괘(坤卦)로 되는 과정에서 곤괘(坤卦)의 6위를 지나야 비로소 복괘(復卦)가 되니 이것이 ‘칠일(七日)’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잘못된 것이다[一說自剝爲坤 歷坤六位而始反爲復 是七日 其義非也].
	초구(初九)	안(案)	여러 주석가들은 모두 ‘7일 만에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머지않아 되돌아온다’는 것으로 여기는데, 무릇 7일은 긴 시간이니 어찌 머지않겠는가! 가령 안자가 7일 동안에도 잘못을 고치지 않았다면 그 ‘머지않아 되돌아온다’라고 하겠는가? ‘7일 만에 되돌아온다’는 것은 사계절의 운행이다. ‘머지않아 되돌아온다’는 것은 예괘(豫卦)의 교역(交易)이다[諸家皆以七日來復 爲不遠復 夫七日久矣 何爲不遠 使顏子七日而不改過 其可曰不遠復乎 七日復者 四時之運行也 不遠復者 豫卦之交易也].
		안(案)	효변(爻變)하여 곤괘(坤卦)가 되면 좋지 않은 상(象)도 없지만 또한 회복의 형상도 없다. 예괘(豫卦)로부터 교역(交易)한 상(象)을 취한 것이 분명하다[爻變爲坤 則無不善之象 亦無回復之形 其取豫 交易之象 審矣].
	육이 (六二)	안(案)	군벽(君辟)에 해당하는 괘는 대부분 교역(交易)을 취하는데 오직 변화에 적합한 것을 취할 뿐이기 때문이다[君辟之卦 多取交易 唯變所適也].
	육삼 (六三)	안(案)	고본(古本)에서는 ‘빈(頻)’을 ‘빈(頻)’으로 썼다. 또 정현본(鄭玄本)에서는 ‘비(卑)’로 썼고, 우중상(虞仲翔)은 ‘빈(頻)’을 ‘움츠러든다[蹙]’는 뜻으로 해석했는데 한(漢)나라 유학자들이 글자의 뜻에 밝은 것이 왕왕 이와 같다[古文頻作嘯 又鄭玄本作卑 虞仲翔解頻爲蹙 漢儒之明於字義 往往如此].
	육오 (六五)	안(案)	『이아(爾雅)』에 언덕이 거듭 이루어지는 것을 ‘돈(敦)’이라고 했다. 곤(坤)의 땅에 간(艮)의 산이 거듭 이루어진 상(象)이므로 역례(易例)에 곤(坤)과 간(艮)이 합하면 ‘돈(敦)’이 된다[爾雅丘再成曰敦 坤土艮山 再成之象也 故易例 坤艮之合爲敦].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복(復)	상육 (上六)	춘추전(春秋傳)	정(鄭)나라 유길(游吉)이 초(楚)나라에게 갔다가 돌아와 자전(子展)에게 “복괘(復卦)가 이괘(頤卦)로 변화하는 점(占)에 ‘혼미함으로 되돌아오니 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초(楚)나라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을 회복하고자 하지만 그 근본을 버리고서는 복귀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미함으로 되돌아오다’라고 말한 것이니 흥한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초(楚)나라는 십 년도 못 되어서 제후들을 돌보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고했다[鄭游吉如楚 歸告子展曰在復之頤 曰迷復凶 其楚子之謂乎 欲復其願 而棄其本 欲歸无所 是謂迷復 能无凶乎 楚不幾十年 未能恤諸侯也].
무망 (無妄)		잡괘 (雜卦)	무망(無妄)은 재앙이다[無妄 災也].
		정자 (程子)	움직임을 하늘로써 하는 것이 무망(無妄)이다[動以天爲無妄].
		주자 (朱子)	『사기(史記)』에서는 무망(无望)이라고 썼다. 기억하거나 바라는 것이 없는데 얻음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 뜻이 또한 통한다[史記作無妄 謂無所期望而有得焉者 其義亦通].
		용안 (鋪案)	무망괘(無妄卦)는 둔괘(遯卦)로부터 왔다. 두 개의 음(陰)이 겨우 생겨나려고 할 때에 네 개의 양(陽)이 밖으로 도망가니 망령됨이 심한 것이다. 지금에 그 하나의 양을 끌어당겨 안에서 주인으로 삼고 ‘망령되게 도망가지 말라’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무망(無妄)’이라고 한다. 무망(無妄)이라는 것은 ‘달아나 숨지 말라’는 뜻이다. 또 ‘무망(無妄)’이라는 것은 ‘지극한 성실함’을 뜻한다. 무망괘(無妄卦)는 중부괘(中孚卦)로부터 왔는데 중부(中孚)라는 것은 지극히 성실한 것이다. 추이하여 다른 괘가 되어도 그 지극한 성실함이 여전하니 이것을 ‘무망(無妄)’이라고 하는 것이다. 위에 건(乾)과 손(巽)이 있고 아래에 진(震)과 간(艮)이 있어서 혹 움직일 때나 혹 그칠 때나 한결같이 천명(天命)을 들으니 ‘무망(無妄)’이 되는 이유이다[卦自遯來 二陰纔生 四陽外逃 妄之至也 今也挽其一陽而爲主於內 曰無妄往矣 此之謂無妄 無妄者勿遯也 又無妄者至誠也 卦自中孚來 中孚者至誠也 移之爲卦 至誠猶舊 此之謂無妄也 上有乾巽 下有震艮 或動或止 一聽天命 所以爲無妄也].
	단(象)	안(案)	‘비정(匪正)’이라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목강(穆姜)이 점(占)을 쳐서 수괘(隨卦)를 만났지만 스스로 길하지 않음을 알았으니 이러한 경우는 마땅히 양호괘(兩互卦)로써 점을 쳐야 한다[匪正者不正也 穆姜遇隨 自知不吉 苦是者 宜占之以兩互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무망 (無妄)	육이 (六二)	안(案)	태(兌)는 가을이요 이익이다. ‘이(利)’라는 글자는 칼로써 벼를 베는 것을 형상한 것이다. 그러므로 ‘태(兌)는 수확이다’고 하는 것이다[兌爲秋爲利 利者象以刀刈禾也 故曰兌爲穫].
		우안 (又案)	『대전(大傳)』에 익괘(益卦)의 손(巽)의 나무를 ‘쟁기와 보습’의 형상으로 삼았다. 또한 ‘치(蓰)’ 자는 ‘재(災)’ 자와 ‘재(裁)’ 자와 함께 통용된다. 처음에 개간하는 밭은 반드시 먼저 잡초를 태워야 한다. 그러므로 1년 된 밭을 ‘치(蓰)’라고 하고, 2년 된 밭을 ‘여(畬)’라고 한다[大傳以益之巽木 爲耒耜之象 又蓰與災裁並通 初墾之田 必先焚蒿菜 故田一歲曰蓰 二歲曰畬].
		안(案)	『예기』 「방기(坊記)」에는 ‘흉(凶)’ 자가 있다[坊記有凶字].
대축 (大畜)		잡괘 (雜卦)	대축괘(大畜卦)는 때를 뜻한다[大畜時也].
		주자 (朱子)	‘대(大)’는 양(陽)이다. 간(艮)으로 건(乾)을 쌓으니 쌓음이 큰 것이다[大陽也 以艮畜乾 畜之大者也].
		용안 (鋪案)	‘대축(大畜)’이라는 것은 양괘(陽卦)로써 건(乾)을 쌓은 것이다. 건(乾)이라는 것은 원기(元氣)이다. 대축괘(大畜卦)는 대장괘(大壯卦)로부터 왔는데 양(陽)의 도(道)가 이미 장성하고 또 진(震)으로써 그 기운을 발산하니 원기(元氣)가 지나치게 흘러넘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양(陽)을 옮겨서 원기(元氣)를 쌓으니 이것을 일러 ‘대축(大畜)’이라고 말한 것이다. 또 소축괘(小畜卦)와 대축괘(大畜卦)에는 모두 여섯 가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괘의 효사(爻詞)에 말과 소와 양의 상을 많이 적용한 것이다[大畜者 以陽卦而畜乾也 乾者元氣也 卦自大壯來 陽道既壯 又以震而發之 元氣大洩 故移一陽移畜之 此之謂大畜也 又小畜大畜 皆有六畜之義 故兩卦爻詞 多用馬牛羊豕之象也].
	단(象)	촉재 (蜀才)	이 괘는 대장괘(大壯卦)에 근본을 두고, 4효가 상효(上爻)로 올라간 것이다[此本大壯 以四升上].
		안(案)	중부괘(中孚卦)에는 태(兌)가 한 개만 있다. 그리고 중부괘(中孚卦)의 진(震)이 단지 한 등급만 상승하였으니 이것은 적은 말로써 적은 녹봉을 받은 것이다. 대장괘(大壯卦)는 획을 겹쳐서 보면 태(兌)이다. 대장괘(大壯卦)의 진(震)은 바로 두 등급을 상승한 것이니 이것은 큰 말로써 큰 녹봉을 받은 것이다. 여러 경전에 흩어진 채로 보이는 공자의 말씀도 역상(易象)과 이처럼 교묘하게 합치하는데, 하물며 『대전(大傳)』에 있는 말이겠는가[中孚者單兌也 中孚之震 只升一級 此小言而受小祿也 大壯者兼兌也 大壯之震 直升二級 此大言而受大祿也 孔子之言 散見諸經者 其巧合易象如此 況在大傳者哉].
		안(案)	이 「단전」에서 ‘신(新)’ 자는 ‘현(賢)’ 자와 ‘천(天)’ 자와 협운(叶韻)이니 ‘일신(日新)’을 한 구절로 보아야 한다[此傳新與賢天叶韻 當以日新爲句].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대축 (大畜)	구이 (九二)	안(案)	‘복(輻)’이라는 것은 수레의 바퀴살이니 ‘복(輹)’은 복토(伏兔)이다. 정현(鄭玄)은 “복(輹)은 수레 굴대의 목재이다”라고 했다. 소축괘(小畜卦)의 ‘여탈복(輿說輻)’에 대해서도 정현(鄭玄)은 또한 복(輹)으로 해석하였는데 알 수가 없다. 고문(古文)에는 ‘복(輹)’ 자가 ‘관(輶)’ 자로 되었는데 그 글자의 형태가 복(輻) 자와 너무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輻者車輹也 輹者伏兔也 鄭玄云輹鉤心之木 小畜之 輿說輻 鄭玄亦訓爲輹 未可知也 古文輹作輶 其形與輻 不甚相遠].
		우안 (又案)	축(畜)이라는 것은 쌓는 것이고 멈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축괘(小畜卦) 구이(九二)에서는 ‘끌어다 복귀시킨다’고 하고 구삼(九三)에서는 ‘수레에서 복토(伏兔)를 벗겨 놓는다’고 하며, 대축괘(大畜卦) 구이(九二)에서는 ‘수레에서 복토(伏兔)를 벗겨 놓는다’고 하고 육사(六四)에서는 ‘송아지가 뿔막이를 하고 있다’고 한 것이니 모두 잡아당겨 머물게 하고 쌓도록 하며, 달려가거나 새어나오게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것이 여러 효에 본괘의 성기(性氣)를 뿌린다는 것이다[畜者蓄止也 故小畜之云牽復輿說輻 大畜之云輿說輹童牛之牯 皆挽留畜止 勿令走洩之意 此所謂播性氣於諸爻也].
	구삼 (九三)	안(案)	송본(宋本)에는 ‘일(日)’ 자를 ‘왈(曰)’ 자로 했는데 정현본(鄭玄本)과 우변본(虞翻本)에는 모두 ‘일한(日閑)’이라고 했다. 한(閑)이라는 말은 ‘막는다’와 ‘익히다’는 의미이다. 『주례(周禮)』 「하관(夏官)」 「교인(校人)」에 “천자에게 열두 개의 한(閑)이 있다”고 했는데 율타리로써 막고, 익히고 훈련시키기 때문에 ‘한(閑)’이라고 한 것이다. 괘상(卦象)으로 보더라도 이(離)는 방한(防閑)이 된다[宋本日作曰 鄭玄虞翻之本 皆作日閑 閑之爲言 防也習也 周禮校人云天子十有二閑 閑以防之 習以訓之 故謂之閑也 以卦象則離爲防閑].
		우안 (又案)	『주례(周禮)』 「동관(冬官)」 「고공기(考工記)」에, 수레에는 6등급이 있는데 과(戈), 수(受), 극(戟), 추모(酋矛) 등이 이것이다. 수레의 위에 무기를 설치하여 호위하는 것을 ‘여위(輿衛)’라고 하는 것이다[考工記車六等 日戈日受日戟日酋矛類是也 車輿之上 設戈兵以衛之曰輿衛也].
	육오 (六五)	안(案)	육전(陸佃)의 『비아(埤雅)』에서 “아(牙)는 말뚝이다”고 했다. 산둥지역에서는 말뚝에다 돼지를 묶었는데 그것을 ‘아(牙)’라고 한다. 또 옛날 부(賦)에 “말뚝을 박아서 희생을 묶어 벌려 놓는다”고 했다[陸佃埤雅曰牙杙也 海岱之間 以杙繫繫 謂之牙又古賦曰置牙擺牲].
	상구 (上九)	안(案)	『시경』 「상송(商頌)」 「장발(長發)」에 “하늘의 은총을 받으셨도다”라고 하고, “하늘의 아름다움을 받으셨도다”라고 했는데 ‘하(何)’ 자와 ‘하(荷)’ 자는 본래 통한다. 왕필은 ‘하(何)’ 자를 어사(語辭)로 풀이하였는데 잘못이다. 『영광전부(靈光殿賦)』에서도 “하천구이원형(荷天衢以元亨)”이라고 했다[詞云何天之龍 何天之休 何荷本相通 王弼訓何作語辭 謬矣 靈光殿賦云荷天衢以元亨].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이(頤)		서괘 (序卦)	‘이(頤)’는 기르는 것이다[頤者養也].
		잡괘 (雜卦)	‘이(頤)’는 올바름을 기르는 것이다[頤養正也].
		정자 (程子)	이괘(頤卦)에서 상괘(上卦)는 멈추는 것이고 하괘(下卦)는 움직이는 것이다. 밖은 충실하지만 안은 비어 있으니 위턱과 아래턱의 형상이다[卦上止而下動 外實而中虛 頤頤之象也].
		용안 (鑄案)	이괘(頤卦)는 임괘(臨卦)로부터 왔다. 태(兌)의 입과 곤(坤)의 기름이니 본래 스스로 기르는 상(象)이 있다. 또 임괘(臨卦)는 관괘(觀卦)로부터 왔다. 손(巽)의 베풀과 곤(坤)의 기름이니 역시 사람을 기르는 상(象)이 있다. 추이하여 이괘(頤卦)가 되면 상괘(上卦)는 멈추는 것이고 하괘(下卦)는 움직이는 것이니 마치 사람이 바야흐로 먹으려고 할 적에 위 잇몸은 멈추고 아래 잇몸은 움직이는 것과 같다. 이것이 괘가 이괘(頤卦)로 불리는 까닭이고 이괘(頤卦)가 기르는 것이 되는 이유이다. 괘(卦)의 뜻으로써 보면 ‘이(頤)’라는 것은 기르는 것이고 글자의 뜻으로 보면 ‘이(頤)’라는 것은 턱이다. 함(頤)이라는 것은 함(含)이니 곤(坤)의 피부와 살을 가운데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卦自臨來 兌口坤養 本有自養之象 又自觀來 巽施坤養 亦有養人之象 移之爲頤 則上止而下動 如人之方食 上齧止而下齧動 此卦之所以名頤 頤之所以爲養也 以卦義則頤者養也 以字義則頤者頤也 頤者含也 坤之膚肉 含之在中也].
	단(彖)	안(案)	후과(侯果)는 “이괘(頤卦)는 본래 관괘(觀卦)의 5효가 초효로 내려온 것이다”고 했다. 우번(虞翻)은 “임괘(臨卦)의 2효가 상효로 간 것이다”고 했다. 추이의 맥(脈)이 면면히 이어진 것이 이와 같다[侯果曰此本觀卦 五降于一 虞翻曰臨二之上 推移之脈 綿綿如此].
	초구 (初九)	안(案)	자서(字書)에 손으로 물건을 잡는 것을 ‘이(頤)’라고 했다. 왕필(王弼)은 이것으로써 경(經)을 주석했으니 잘못이다. ‘타(朵)’라는 것은 나무가 아래로 드리운 것이다. 손(巽)의 나무가 아래로 드리우니 ‘타이(朵頤)’는 턱을 아래로 드리운 것이다[字書以手捉物謂之頤 王弼以此注經 非矣 朵者木下垂也 巽木下垂 朵頤者垂頤也].
	육이 (六二)	안(案)	‘경(經)’의 음은 ‘경(徑)’이니 『한서(漢書)』에서는 경사(經死)를 절항(絶吭)으로 여겼다. 『장자』 「양생주(養生主)」에 “중간의 입장을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緣督以爲經]”라고 했으니 ‘불경(拂經)’이라는 것은 목을 끌어당겨 빼는 것이다[經音徑 漢書以經死爲絶吭 莊子云緣督以爲經 拂經者引吭也].
		학가 (學稼)	『예기』 「곡례(曲禮)」에 “그 머리를 뺀다”고 했고 『한서』 「왕망전(王莽傳)」에 “그 목을 빼고, 그 가슴을 찢르고, 그 몸을 뺀다”고 했으니 이것으로써 말하면 ‘불경(拂經)’은 혹 ‘목매달아 죽은 것’을 말할 수도 있다[禮拂其首 漢王莽傳 拂其頸 衝其胸 刃其軀 以此言之 拂經或是縊死之謂].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이(頤)	육사 (六四)	안(案)	턱 가운데 음식물이 있는 것을 ‘서합(噬嗑)’이라고 한다. 서합괘(噬嗑卦)는 고기를 먹는 괘이니 호시탐탐(虎視眈眈) 또한 서합괘(噬嗑卦)로부터 나온 말이다. 특히 ‘전이(顚頤)’의 뜻은 뒤집어 보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괘(頤卦)가 변해서 된 비괘(賁卦)는 사실 서합괘(噬嗑卦)를 뒤집어 취한 상(象)이지 비괘(賁卦)의 정상(正象)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만약 이 육사효(六四爻)가 곧바로 비괘(賁卦)가 된다면 육삼효(六三爻)는 흉(凶)인데, 육사효(六四爻)만 어찌 길(吉)할 수 있겠는가? 내괘(內卦)에 있는 것은 올바른 이괘(頤卦)로 점을 치고, 외괘(外卦)에 있는 것은 뒤집힌 이괘(頤卦)로 점을 치니 (길흉이) 달라지는 이유이다[頤中有物曰噬嗑 噬嗑者食肉之卦也 虎視眈眈 亦以噬嗑 特以顚頤之義 非倒不明 故直書曰頤之賁 而其實噬嗑之倒象 非取賁卦之正象也 若云此爻直是賁卦 則六三既凶 此爻安得獨吉乎 在內者占以正頤 自外者占以顚頤 所以異也].
		우안 (又案)	『한서』에서는 ‘축(逐)’을 ‘유(攸)’로 썼다. 또 고본(古本)에서는 혹 ‘유(攸)’로 쓰기도 했고 혹 ‘유(悠)’ 자로 쓰기도 했고 혹 ‘숙(飮)’ 자로 쓰기도 했다. 『설문(說文)』에서 “‘숙(飮)’이라는 것은 식육(式六)의 반음절이다”라고 했으니 그 뜻은 멀다는 의미이다. 총괄해 보건대 축축(逐逐)으로 쓰는 것이 바르다 [漢書逐作攸 又古本或作攸 或作悠 或作飮 說文云攸者式六 其義則悠遠也 總之逐逐爲正].
		우안 (又案)	순구가는 간(艮)을 호랑이로 여겼으니 추이(推移)를 밝히지 못했고 효변(爻變)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전이(顚頤)가 도괘(倒卦)가 되는 데 있어서는 더욱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단지 간(艮)을 호랑이로 여겼던 것이다. 간(艮)이 만약 호랑이가 된다면 감(坎)과 진(震)은 두 짐승이니 모두 호랑이 뒤에 있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쫓겠는가[荀九家以艮爲虎 蓋以推移不明 爻變不知 至於顚頤之爲倒卦 尤非所意 故第以艮爲虎也 艮若爲虎 則坎震兩禽 皆在虎後 何視何逐]?
대과 (大過)		잡괘 (雜卦)	‘대과(大過)’는 뒤집힘이다[大過顚也].
		정자 (程子)	‘대과(大過)’는 양(陽)이 지나친 것이다[大過者陽過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대과 (大過)		용안 (鋪案)	<p>‘과(過)’는 넘어가는 것이고 건너가는 것이다. 소과괘(小過卦)는 이괘(頤卦)가 교역(交易)한 것인데 네 개의 음효가 서로 건너감으로써 과가 형성된 것이니 작은 것이 건너간 것이다. 대과괘(大過卦)는 중부괘(中孚卦)가 교역(交易)한 것인데 네 개의 양효가 서로 건너감으로써 과가 형성된 것이니 큰 것이 건너간 것이다. 양괘는 음이 많고, 음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소축괘(小畜卦)는 음이 주인이고, 대축괘(大畜卦)는 양이 주인이다. 소과괘와 대과괘가 이러한 예(例)에 반대되는 것은 그 지나침 때문이다. 소과괘는 음이 매우 지나친 것이고, 대과괘는 양이 매우 지나친 것이다. 또 ‘과(過)’는 허물이며 잘못이다. 소과괘와 대과괘는 본래 모두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 교역(交易)하여 지나치면 모두 감(坎)의 잘못을 이루는 것이다. 소과괘는 오히려 작고, 대과괘는 매우 크니 이것이 두 과가 이름 붙은 까닭이다. 또 대과괘는 둔괘(遯卦)와 대장괘(大壯卦)로부터 왔으니 강(剛)이 상효로부터 와서 넘어가 중을 얻었으며, 강(剛)이 아래로부터 가서 넘어가 중을 얻었다. 이것은 「단전」에서 말한 것이다. 이 과도 또한 뒤집어서 상(象)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대과(大過)는 뒤집어짐이다”고 말한 것이다[過者 越也度也 小過以頤交易 四陰相過以成卦 小者過也 大過以中孚交易 四陽相過以成卦 大者過也 陽卦多陰 陰卦多陽 故小畜主陰 大畜主陽 二過之卦 反於是例者 以其過也 小過者 陰太過也 大過者陽太過也 又過者愆也咎也 二過之卦 本皆虛中 交而過之 皆成坎咎 小過猶小 大過太大 此二卦之所以名也 又卦自遯大壯來 剛自上來 過以得中 剛自下往 過以得中 此彖傳之所言也 此卦亦顛倒以取象 故曰大過顛也].</p>
	단(彖)	안(案)	<p>순구가는 감(坎)을 ‘용마루[棟]’로 보았는데 잘못이다. 근본과 말단이 비록 약하지만 가운데 있는 강(剛)이 매우 짧는데 어찌 용마루가 되겠는가? 오직 대과(大過)의 경우에만 용마루가 된다[荀九家以坎爲棟 非也 本末雖弱 中剛太短 安能爲棟 唯大過爲棟也].</p>
	초육 (初六)	안(案)	<p>『의례』 「사우례(士虞禮)」에 “저(苴)로는 띠풀을 다섯 마디의 길이로 자른다”고 했다. 또 “먹기를 권함에…, 기장과 피를 취하여 저(苴) 위에 제사를 드림에…, 돼지고기를 취하여 저(苴) 위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다. ‘제우저(祭于苴)’라고 하고, ‘자용백모(藉用白茅)’라고 한 것도 이 예(禮)를 가리킨다[士虞禮 苴剝茅長五寸 佐食取黍稷 祭于苴 又取膚祭于苴 藉用白茅 蓋指此禮也].</p>
		우안 (又案)	<p>우중상(虞仲翔)은 바로 손(巽)을 ‘백모(白茅)’로 여겼으나 소략하다[虞仲翔直以巽爲白茅 疎矣].</p>
		안(案)	<p>괘덕이 지나침이니 ‘자용백모(藉用白茅)’라는 것은 신중함이 지나친 것이다[卦德爲過 藉用白茅者過於慎重也].</p>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대과 (大過)	구이 (九二)	안(案)	『대대례기(大戴禮記)』 「하소정(夏小正)」에 “정월(正月)에 버드나무 싹이 난다”고 했다. 옛날에 얼음이 녹으면 혼인을 한다고 하였으니 바로 이때가 버드나무에 싹이 나는 시기이다. 정현본에서는 ‘제(稊)’를 ‘제(莧)’로 썼다. ‘제(莧)’ 자는 ‘제(稊)’자로 통하니 ‘제(莧)’라는 것은 떠돌이 비로소 생기는 것이다. 앞이 비로소 생기는 것 또한 ‘제(莧)’가 된다[夏小正云正月柳稊 古者永泮爲婚 正是柳稊之時也 鄭玄本稊作莧 莧與稊通 莧者茅始生也 葉始生亦爲莧].
		우안 (又案)	괘덕이 지나침이니 여섯 개의 효가 모두 파성(播性)을 중심으로 한다[卦德爲過 六爻皆播性也].
	구삼 (九三)	안(案)	대과괘(大過卦)를 통틀어 보면 큰 용마루가 되니 이것은 세로로 본 것이고, 대과괘(大過卦)를 나누어 보면 작은 용마루가 되니 이것은 가로로 본 것이다[通卦爲大棟是豎看也 分卦爲小棟是橫看也].
		학포 (學圃)	곤괘(困卦)는 비괘(否卦)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상(象)이 흉하다[困自否來 故其象凶].
	구사 (九四)	안(案)	괘덕이 지나침이니 ‘용마루가 휘어짐’과 ‘용마루가 높음’은 곧음이 지나쳐 휘어진 것이다[卦德爲過 棟撓棟隆者 過於直而曲者也].
		학포 (學圃)	정괘(井卦)는 태괘(泰卦)에서 왔기 때문에 그 상(象)이 길하다[井自泰來 故其象吉].
	구오 (九五)	안(案)	고문(古文)에서 ‘화(華)’ 자와 ‘과(𦵏)’ 자, ‘부(虜)’ 자와 ‘부(𦵏)’ 자는 서로 통한다[古文華𦵏虜𦵏並相通].
감(坎)		서괘 (序卦)	감(坎)은 구덩이다[坎者窩也].
		잡괘 (雜卦)	이(離)는 올라감이고 감(坎)은 내려옴이다[離上而坎下也].
		용안 (鑄案)	‘감(坎)’이라는 것은 땅이 꺼진 것이다. 대지(大地)는 혼륜(混淪)한 것이지만 거기에 꺼져서 부족한 것이 감(坎)의 구덩이다. 개벽(開闢)할 처음에 물과 흙이 혼탁한데 거기에 감(坎)의 구덩이가 있으면 물이 나아간다. 큰 구덩이면 바다가 되고 작은 구덩이면 연못이 된다. 이것이 감(坎)이 물이 되는 까닭이다. 또 ‘감(坎)’이라는 것은 험난함이다. 사물 중에 험난한 것은 암석(巖石)만 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암(巖)’ 자는 ‘험(險)’자와 더불어 뜻이 본래 서로 통하니 ‘감(坎)’이라는 것은 험난함이다. 감괘(坎卦)는 임괘(臨卦)와 관괘(觀卦)로부터 왔으니 ‘천험(天險)’과 ‘지험(地險)’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坎者土欠也 大地𡵓𡵓 其有欠闕者 爲坎窩也 開闢之初 水土渾淪 其有坎窩 水則就之 大窩則爲瀛海 小窩則爲溪澤 此坎之所以爲水也 又坎者險也 物之險者 莫如巖石 故巖之與險 義本相通 坎者險也 卦自臨觀來 天險地險 卽謂是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감(坎)	단(象)	안(案)	유환본(劉瓛本)에서는 ‘감(坎)’을 ‘감(𪔐)’으로 썼다. 광경(郭京)은 ‘습감(習坎)’ 위에 다시 ‘감(坎)’ 자를 더하려고 했는데 옳지 않다[劉瓛本坎作𪔐 郭京欲於習坎上 更增坎字 非是].
		우안 (又案)	순구가의 『역』에서 감(坎)을 ‘부(孚)’로 여긴 것은 이 구절 때문이다. 그러나 습감(習坎)에 ‘부(孚)’의 뜻은 있지만 감(坎)은 부(孚)의 뜻이 되지 않는다[九家易以坎爲孚 蓋以此詞也 然習坎有孚 坎則非孚也].
		우안 (又案)	여러 역학가들이 모두 ‘유심(維心)’을 아래 구절에 연결시켜 읽는다. 그러나 ‘감(坎)’과 ‘심(心)’이 협운(叶韻)이며, 또 ‘유심형(維心亨)’이라고 읽을 경우에는 말이 완성되지 않는다. ‘단전’과 같은 문장에 이르러서는 그 예(例)가 본래 그러하니 의심할 필요가 없다[諸家皆以維心屬下句讀 然坎與心叶韻 且維心亨 語不了 至若彖傳之文 其例本然 不必疑也].
	초육 (初六)	안(案)	이 효(爻)를 만약 뒤집어 보지 않으면 하괘(下卦)는 변하여 태(兌)가 된다. 태(兌)는 벗겨짐이 된다. 감(坎)의 구멍이에서 벗어나 앞길이 옛날과 같으니 ‘도(道)’를 잃은 것’은 아니다[此爻若不倒看 則下變爲兌 兌則爲脫 脫乎坎窩也 前路如舊 非失道也].
	육삼 (六三)	안(案)	정원본(鄭玄本)에서는 ‘험(險)’을 ‘검(檢)’으로 썼다. 정원은 “나무가 머리맡에 있으면 ‘침(枕)’이라고 하고, 나무가 손에 있으면 ‘검(檢)’이라고 한다”고 했다. 순구가의 『역(易)』에서는 감(坎)을 ‘질곡(桎梏)’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상(象)을 취한 것이 이와 같다. 베개는 머리를 편안히 하는 것이니, ‘질곡(桎梏)’이 된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다[鄭玄本險作檢 鄭玄本在首曰枕 在手曰檢 蓋以九家易以坎爲桎梏 故取象如是 然枕以安首 未聞其爲桎梏也].
	육사 (六四)	안(案)	고례(古禮)에 오헌(五獻)의 술잔은 문(門) 밖에서는 ‘부(缶: 항아리)’를 쓰고, 문(門) 안에서는 ‘호(壺: 호리병)’를 쓰고 군주(君主)는 ‘와부(瓦甗: 질그릇의 술단지)’를 쓴다고 했다. 이 괘(卦)의 ‘와부(瓦缶)’도 역시 간(艮)의 문 아래에 있으니 궤이(蠱貳)가 되는 까닭이다[古禮五獻之樽 門外用缶 門內用壺 君用瓦甗 此卦瓦缶 亦在艮之下 所以爲蠱貳也].
		우안 (又案)	이 효사(爻詞)는 구절을 끊는 것이 여러 주석가들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주(酒)와 부(缶)와 유(鬪)와 구(句)의 네 글자가 마치 네 번 운(韻)을 이루는 듯하니, 운에 맞춰 구절을 끊는 것에 어찌 잘못이 있겠는가? 「상전」에서 준주궤이(樽酒蠱貳)를 하나의 구(句)로 삼은 것 같으나 공자가 「상전」에서 본래 절(節)을 취하여 문장을 이룬 것이니 구에 될 것이 없다[此詞絕句 諸家不同 然酒缶鬪咎四字 恰成四韻以韻絕句 豈有誤哉 象傳雖以樽酒蠱貳爲句 孔子於象傳本節 取以成文 不可拘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감(坎)	육사 (六四)	우안 (又案)	군자(君子)의 도(道)는 험한 곳에 처해서는 마땅히 검소해야 하기 때문에 ‘검(儉)’자와 ‘험(險)’자는 해성(諧聲)의 관계이다. 술을 담기 위해 질그릇으로 된 제기 ‘부(缶)’를 쓰고 음식을 담기 위해 흙으로 된 제기 궤(簋)를 쓰는 것은 모두 험한 곳에 처하는 도이다. 한(漢)나라 유수(劉修)의 비(碑)에서는 곧장 ‘검(儉)’자를 ‘험(險)’으로 여겼다[君子之道 處險直儉 故儉險諧聲也 酒用瓦缶 飯用土簋 皆處險之道也 漢碑直以儉爲險].
		우안 (又案)	우중상(虞仲翔)이 바로 진(震)으로써 부(缶)를 삼았는데 잘못된 것이다. 푸른빛 대나무가 어찌 토기(土器)가 될 수 있겠는가? 반드시 이(離)의 불로써 구운 흙을 진(震)의 그릇에 합친 연후에 비로소 ‘부(缶)’가 될 수 있다[虞仲翔直以震爲缶非也 蒼莩之竹 安得爲土器 必以離燒之土 合於震器 然後方得爲缶].
	구오 (九五)	안(案)	경방본(京房本)에서는 ‘지(祗)’를 ‘지(視)’로 썼다. 『사기(史記)』에서는 ‘지취욕(祗取辱)’을 ‘지취욕(視取辱)’으로 썼다. 모두 ‘부질없이’라는 의미이다. 정현의 판본에서는 ‘지(氾)’자로 썼다[京房本祗作視 史記祗取辱作視取辱 皆徒然之意 鄭玄本作氾].
	상구 (上六)	안(案)	유표(劉表)는 “세 가닥으로 된 줄을 ‘휘(徽)’라고 하고 두 가닥으로 된 줄을 ‘목(繯)’이라고 한다”고 했다. 비괘(否卦)의 때에는 세 가닥으로 된 줄로 묶는데 환괘(渙卦)가 된 이후에는 두 가닥으로 된 줄로 묶는다. 성인이 괘상(卦象)을 취함은 이와 같이 정밀하다[劉表曰三股爲徽 兩股爲繯 否之時 三股之徽也 渙而後兩股之繯也 聖人之取物象精密如此].
		우안 (又案)	우번(虞翻)은 “감옥 밖에 9그루의 가시나무를 심기 때문에 ‘총극(叢棘)’이라고 칭한 것이다”고 했다. 손구가의 『역(易)』에서 “사구(司寇)와 공경(公卿)이 옥사(獄事)를 의논하는데 상죄(上罪)는 3년을 살고 중죄(中罪)는 2년을 살고 하죄(下罪)는 1년을 산다고 하였으니 머물지 않기 때문에 ‘부득(不得)’이라고 한 것이다”고 했다[虞翻云獄外種九棘 故稱叢棘 九家易曰司寇公卿議獄 上罪三年舍 中二年舍 下一年舍 不舍故不得也].
		우안 (又案)	손구가는 감(坎)을 총극(叢棘)으로 여겼으니 또한 소략하다[荀九家以坎爲叢棘 亦疏矣].
이(離)		서괘 (序卦)	‘이(離)’는 불음이다[離者麗也].
		정자 (程子)	불의 속성은 텅 비어서 물체에 붙어야 빛이 난다[火體虛 麗於物而明者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이(離)		용안 (鋪案)	하나의 음(陰)이 두 양(陽)의 사이에 걸려 있으니 마치 새가 그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이(離)’라고 한다. 또 ‘이(離)’는 나누어짐이고 변별함이니 건(乾)의 세 양(陽)이 서로 모여 있는데 하나의 음으로 갈라놓은 것을 ‘이(離)’라고 한다. 또 ‘이(離)’는 날아가는 새이다. 새의 깃속이 모두 기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찌를 듯한 기운으로 날아오르니 불의 성질을 얻은 것이다. 옛날에 ‘창경(倉庚)’을 황색 피꼬리라고 했다. ‘이(離)’ 자는 ‘추(佳)’ 자로부터 왔고 ‘금(禽)’ 자는 ‘이(离)’ 자로부터 왔다는 것이 모두 그 증거이다. 이괘(離卦)는 둔괘(遯卦)와 대장괘(大壯卦)로부터 왔으니 「단전(彖傳)」에서 “해와 달은 하늘에 붙어 있고, 풀과 나무는 흙에 붙어 있다”고 한 것은 추이(推移)의 뜻이다[一陰麗於兩陽之間 如鳥之麗其翼曰離也 又離別也辨也 乾三陽相聚 而中一陰以別之曰離也 又離飛鳥也 鳥之羽翮 皆脂膏所成 故能衝氣上翥 得火性者也 古以倉庚爲黃離 離字以佳 禽字從离 皆其證也 卦自遯大壯來日月之麗乎天 草木之麗乎土 推移之義也].
	단(象)	안(案)	둔괘(遯卦)와 무망괘(無妄卦)에서 손(巽)과 이(離)는 소[牛]가 된다[遯與無妄 巽離爲牛].
	초구 (初九)	안(案)	이괘(離卦)는 둔괘(遯卦)로부터 왔다. 손(巽)의 주인과 건(乾)의 손님이 이(離)에서 서로 만나보니 잔치와 회합의 괘이다. 그러므로 그 변화가 이와 같다[離自遯來 巽主乾賓 相見乎離 燕會之卦也 故其變如此].
		학가 (學稼)	감(坎)과 이(離)의 여러 괘는 본래 뒤집힌 상을 취한다. 그러므로 뒤집힌 진(震)이 이(履)가 된다[坎離諸卦 本取倒象 故震倒爲履].
	육이 (六二)	안(案)	‘황리(黃離)’라는 것은 태양(太陽)이 하늘에 걸려 있는 것을 명칭하니 이(離)의 태양이 건(乾)의 하늘 가운데 있는 것도 ‘황리(黃離)’이다. 지금 역가(曆家)들이 태양(太陽)이 운행하는 길을 헤아려 ‘황리(黃離)’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근본한 것이다. 점을 쳐서 이것을 만나는 사람은 사냥을 나가게 되면 털이 노란 짐승이 와서 걸려들 것이고, 군사를 부리면 깃발이 노란 사람이 와서 붙잡힐 것이다[黃離者 太陽麗天之名 離日中於乾天 亦黃離也 今曆家以日度所躔爲黃離 蓋本於此 筮而遇是者 田獵則毛黃者來麗 軍旅則旗黃者來麗也].
	구삼 (九三)	안(案)	정현본(鄭玄本)에서는 ‘고(鼓)’를 ‘격(擊)’으로 썼고, 경방본(京房本)에서는 ‘질(耄)’을 ‘질(經)’로 썼는데 모두 잘못이다[鄭玄本鼓作擊 京房本耄作經 皆誤].
	상구 (上九)	학가 (學稼)	역례(易例)에 초효(初爻)는 발이 되고 상효(上爻)는 머리가 되기 때문에 상구(上九)에서 ‘머리를 벤다’고 한 것이다[易例 初爲趾 上爲首 故上九曰折首].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함(咸)		서괘 (序卦)	하늘과 땅이 있는 뒤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는 뒤에 남녀가 있고, 남녀가 있는 뒤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는 뒤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는 뒤에 군신이 있고, 군신이 있는 뒤에 상하가 있고 상하가 있는 뒤에 예의가 행해짐이 있다[有天地然後有萬物 有萬物然後有男女 有男女然後有夫婦 有夫婦然後有父子 有父子然後有君臣 有君臣然後有上下 有上下然後禮義有所錯].
		잡괘 (雜卦)	함(咸)은 신속함이다[咸速也].
		정자 (程子)	남녀가 서로 깊이 교감하는 것은 젊은이만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태(兌)의 소녀(少女)와 간(艮)의 소남(少男)이 함괘(咸卦)를 이룬 것이다[男女上感之深 莫如少者 故二少爲咸也].
		주자 (朱子)	‘함(咸)’은 교감이다[咸交感也].
		용안 (鋪案)	건(乾)과 곤(坤)은 천도의 시작이고, 남(男)과 여(女)는 인도의 시작이다. 이것이 그 상편과 하편 두 편에 머리가 된 까닭이다. ‘함(咸)’이라는 것은 느끼는 것이다. 『좌전(左傳)』에 “너무 고요하면 느낌이 없다”라고 했으니 이것이다. 함괘(咸卦)는 비괘(否卦)로부터 왔다. 양(陽)은 위에 있고 음(陰)은 아래에 있어서 두 기운이 서로 사귀지 않는다. 이에 곤(坤)은 위로 올라가고 건(乾)은 아래로 내려와서 서로 교감하니 이것을 ‘함(咸)’이라고 한다. 사물에 있어서는 산과 연못이 기(氣)를 통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교감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니 함괘(咸卦)의 시의(時義)이다. 또 ‘함(咸)’이라는 것은 화합하는 것이다. 두 기(氣)가 교류하니 만물이 화합하지 않음이 없고 건(乾)이 변해 태(兌)로 되니 화합의 지극함이다. ‘함(咸)’이라는 것은 두루 함이다. 함괘(咸卦)는 육위(六位)가 모두 응하니 두루하지 못함이 있겠는가! ‘함(咸)’은 감소시키는 것이다. 한 개의 강(剛)을 상괘(上卦)로부터 떨어 내었으니 감소한 바가 없겠는가! 이것이 모두 함괘(咸卦)라고 이름을 붙인 뜻이다. 촉재(蜀才)와 주승(朱升)은 모두 “함괘(咸卦)는 비괘(否卦)로부터 왔다”고 했다[乾坤天道之始 男女人道之始 此其所以爲首於二篇也 咸者感也 左傳所謂窺則不咸是也 卦自否來 陽上陰下 二氣不交 於是坤升于上 乾降于下 以相交感 此之謂咸也 在物則山澤通氣 在人則少男少女交感尤切 咸之時義也 又咸者和也 二氣既交 物莫不和 乾變爲兌 和之至也 咸者徧也 六位皆應 有不徧乎 咸者減也 一剛上損 无所減乎 此皆名卦之義也 蜀才朱升皆云卦自否來].
		정현 (鄭玄)	기쁘게 모여서 예(禮)로써 소통하는 것과 의로움에 순응하여 화합하는 것과 일처리를 바르게 하는 이 세 가지 덕(德)을 갖추어서 여자를 얻으니 길(吉)하게 된 까닭이다[嘉會禮通 和順于義 幹事能正 具此三德 而用以取女 所以爲吉].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함(咸)	초육 (初六)	안(案)	‘함(咸)’은 느끼는 것이다. 느껴서 움직이니 사물이 화합하고 기뻐한다. 그러므로 여러 효에서 태(兌)의 기뻐함으로서 ‘함(咸)’의 의미를 삼았다[咸者感也 感而動之 物乃和悅 故諸爻皆以兌悅爲咸].
		우안 (又案)	태괘(泰卦) 초구(初九)에 ‘뜻이 밖에 있다’고 하고 환괘(渙卦) 육이(六二)에 ‘뜻이 밖에 있다’고 했는데, 초효(初爻)와 삼효(三爻)가 모두 내괘(內卦)에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밖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 임괘(臨卦) 상육(上六)에 ‘뜻이 안에 있다’고 하고 건괘(蹇卦) 상육(上六)에 ‘뜻이 안에 있다’고 했는데 상육(上六)이 외괘(外卦)에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안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泰初九日志在外 渙六三日志在外 初與三皆內卦 故明其志之在外也 臨上六日志在內 蹇上六日志在內 上六爲外卦 故明其志之在內也].
	구사 (九四)	안(案)	건괘(蹇卦)는 관괘(觀卦)와 소과괘(小過卦)로부터 왔다. 소과괘(小過卦)는 대감(大坎)이다. 곤(坤)의 백성들이 감으로 돌아가니 이것이 ‘천하가 같은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하나의 감(坎) 가운데 진(震)은 큰 길이 되고 간(艮)은 작은 길이 되니 이것이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만 길이 다르다’라는 것이다. 관괘(觀卦)는 대간(大艮)이다. 만물은 간방(艮方)에서 끝나니 그 이른 곳이 한 가지이다. 두 개의 곤(坤)의 수를 서로 곱하면 그 수가 백(百)이다. 지금 감(坎)으로써 생각해 보니 ‘하나에 이르지만 생각이 만 가지이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만물이 왕성하게 자라 사방으로 뻗어 가지만, 마침내 감(坎)의 집으로 함께 돌아간다. 만물이 어렵고 복잡하여 백 가지로 노심초사하지만 결국 간(艮)의 끝으로 함께 돌아간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말하면 천하의 일은 원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수고롭게 할 만한 것이 아니다. 관괘(觀卦)가 추이(推移)하여 건괘(蹇卦)가 되면 상괘(上卦)는 감(坎)이 되고 하괘(下卦)는 이(離)가 되니 이것이 ‘달이 가고 해가 온다’라는 것이다. 비괘(否卦)가 추이하여 함괘(咸卦)가 되면 곤(坤)은 상승하고 건(乾)은 하강하니 이것이 ‘더위는 가고 추위가 온다’라는 것이다. 추이(推移)로 말미암아 가운데 이(離)의 밝음이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해와 달이 서로 미루어서 밝음이 생긴다’라는 것이다. 추이(推移)로 말미암아 건괘(蹇卦)의 상괘(上卦)는 감(坎)의 겨울이 되니 이것이 ‘추위와 더위가 서로 미루어 한 해가 완성된다’라는 것이다. 손(巽)은 부드럽게 휘어지니 그 상(象)이 ‘굴(屈)’이다. 감(坎)은 굳세고 곧으니 그 상(象)이 ‘신(伸)’이다. 관괘(觀卦)에서는 손(巽) 때문에 구부러지고 건괘(蹇卦)는 감(坎) 때문에 펴지니 ‘굽히고 펴는 것이 서로 감응한다’라는 것이다. 강(剛)이 밖으로부터 와서 곤(坤)의 백성을 이롭게 하니 이것이 ‘굽히고 펴는 것이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함(咸)	구사 (九四)	안(案)	<p>서로 감응하여 이로움이 생겨난다'라는 것이다. 추이(推移)를 관괘(觀卦)로부터 하면 손(巽)의 자별레는 이제 감(坎)으로써 퍼니 이것은 굽힘으로써 퍼기 위한 것이다. 추이(推移)를 소과괘(小過卦)로부터 하면 진(震)의 용과 뱀은 이에 감(坎)으로써 숨으니 이것은 숨어 엎드림으로써 몸을 보존하는 것이다. 의리는 건(乾)으로써 정밀하게 되고 간(艮)의 신묘함에 들어가니 '의리를 정밀히 하고 신묘함에 들어간다'라는 것이다. 감(坎)은 공용(功庸)이 되기 때문에 '쓰임을 지극히 한다'라는 것이다. 간(艮)으로써 멈추고 이 곤(坤)의 안녕을 보존하니 '이롭게 활용하여 몸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것이다. 감(坎)의 덕성이 위에 있기 때문에 '덕(德)을 숭상한다'라는 것이다. 함괘(咸卦) 구사(九四)에 이르러 음양(陰陽)의 감동(感動)이 지극하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굴신왕래(屈伸往來)의 이치를 지극히 말했다. ○ 나는 일찍이 『주례(周禮)』를 읽고 주공(周公)의 정치하는 재주를 알았다. 의리를 정밀히 하고 신묘함에 들어가는 경지에 있어서 규모(規模)와 절목(節目)이 찬연하고 가지런하였다. 후대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안으로 조잡함과 혼탁함을 품고서 밖으로 대체(大體)만을 유지하려고 하니 어찌 정치를 다할 수 있겠는가[蹇自觀小過來 小過者大坎也 坤民歸坎 此天下同歸也 一坎之中 震爲大塗 艮爲徑路 此同歸而殊塗也 觀者大艮也 物終乎艮 其所致者一也 兩坤相乘 其數百也 今以坎思一致而百慮也 若是者何謂也 萬物芸芸 散而之四 而畢竟同歸於坎宮 萬物攘攘 百慮勞心 而畢竟同歸於艮終 由是言之 天下之事 原不足以勞我心思也 觀移爲蹇 則上坎下離 此月往而日來也 否移爲咸 則坤升乾降 此暑往而寒來也 推移之故 中成離明 此日月相推而明生也 推移之故 上爲坎冬 此寒暑相推而歲成也 巽以柔撓 其象屈也 坎以剛直 其象伸也 觀以巽屈 蹇以坎伸 屈伸相感也 剛自外來 以利坤民 此屈伸相感而利生也 移之自觀 則巽之尺蠖 今以坎直 此屈抑以求伸也 移自小過 則震之龍蛇 今以坎隱 此蟄伏以存身也 義以乾精 入於艮神 精義入神也 坎爲功庸 以致用也 艮以止之 保此坤安 利用安身也 坎德在上 以崇德也 咸至九四 陰陽之感動極矣 故孔子極言屈伸往來之理 ○ 鑪嘗讀周禮 知周公致治之才 精義入神 故規模節目 粲然森整 後之從政者 內懷粗濁 外持大體 何以致治哉!]</p>
	상육 (上六)	안(案)	<p>순구가는 태(兌)를 '보협(輔頰)'이 된다고 해서, 여러 역학가들이 모두 '함기보협설(咸其輔頰舌)'이라는 다섯 글자를 연결해서 읽었는데 아마도 잘못된 것 같다. 간괘(艮卦) 육오(六五)에서 '간기보(艮其輔)'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함기보(咸其輔)'라고 한 것은 문장의 예(例)가 본래 동일하니 다르지 않은 것이다[荀九家兌爲輔頰 故諸家皆運讀五字 恐非也 艮六五云艮其輔 此云咸其輔 文例本同 不可殊也].</p>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항(恒)		서괘 (序卦)	‘항(恒)’은 오래함이다[恒者久也].
		잡괘 (雜卦)	‘항(恒)’은 오래함이다[恒久也].
		정자 (程子)	남존여비(男尊女卑)는 부부가 집 안에 거처할 때의 상도(常道)이다[男尊女卑 夫婦居室之常道也].
	용안 (鋪案)		‘항(恒)’이라는 것은 항상 불변함이다. 항괘(恒卦)는 태괘(泰卦)로부터 왔다. 태괘(泰卦)는 복괘(復卦)로부터 나온 것이니 진(震)의 도(道)가 스스로 강건하여 임괘(臨卦)가 되고 태괘(泰卦)가 된 것이다. 추이(推移)하여 항괘(恒卦)가 되면 또한 이 도(道)로써 행하여 만물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진(震)의 도(道)만을 옳다고 여기고 따랐고, 안으로 말미암아 밖에 도달함에 있어서도 오직 진(震)의 도(道)만을 행할 뿐이니 항상 변하지 않음이 지극한 것이다. 태괘(泰卦)에 있는 건(乾)의 강(剛)은 추이(推移)하더라도 건(乾)을 잃지 않고 항상 진(震)의 다리로 이 건(乾)의 덕을 실천하였으니 항상 변하지 않음이 지극한 것이다. 『상서(尙書)』에서 “그것을 밝힘에 있어서 항상됨이 있으니 덕의 길함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일러 ‘항(恒)’이라고 한다. 후과(侯果)와 우번(虞翻)과 촉재(蜀才)와 주승(朱升) 등의 여러 역학서에서 모두 “항괘(恒卦)가 태괘(泰卦)로부터 왔다”고 했다[恒者常也 卦自泰來 泰以復進 震道自強 爲臨爲泰 移之爲恒 則又以此道行之及物 自初至九 唯道是遵 由內達外 唯道是行 常之至也 泰之乾剛 移不失乾 常以震足 履此乾德 常之至也 彰厥有常德之吉也 此之謂恒也 侯果虞翻蜀才及朱升諸易 皆云卦自泰來].
	구이 (九二)	안(案)	‘무회(无悔)’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회망(悔亡)’이라는 것은 변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말의 뜻에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함괘(咸卦)가 소과괘(小過卦)로 변하는 경우에는 ‘무회(无悔)’라고 했고, 항괘(恒卦)가 소과괘(小過卦)로 변하는 경우에는 ‘회망(悔亡)’이라고 했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펴보면 무회(无悔)와 회망(悔亡)은 본래 다른 뜻이 아니다. 다만 험운 때문에 혹 ‘무회(无悔)’라고 칭하고 혹 ‘회망(悔亡)’이라고 칭한 것이다. 함괘(咸卦) 구오(九五)에서 ‘회(悔)’자와 ‘매(悔)’자는 험운(叶韻)이고, 이 효에서는 ‘망(亡)’자와 ‘흉(凶)’자가 험운이다[无悔者无所變也 悔亡者變者亡也 語意似異 然咸之小過曰无悔 恒之小過曰悔亡 由此觀之 則无悔與悔亡 本無異義 特以叶韻之故 或稱无悔 或稱悔亡也 咸九五悔與腹叶 此爻則亡與凶叶].
	육오 (六五)	안(案)	『좌전(左傳)』에서 필만(畢萬)의 서(筮)에 “수레가 말을 따른다”고 했고, 당강(棠姜)을 아내로 삼고자 점친 서(筮)에 “남편이 바름을 따른다”고 했는데, 이것은 모두 변한 것으로써 따라야할 대상을 삼은 것이니 또한 글의 용례이다[左傳畢萬之筮曰車從馬 棠姜之筮曰夫從風 皆以變爲從 亦文例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항(恒)	육오 (六五)	우안 (又案)	‘정(貞)’자는 마땅히 아래의 구절과 연결하여 읽어야 한다. 사괘(師卦)의 단사(彖辭)에서 ‘정장인길(貞丈人吉)’이라고 한 것과 곤괘(坤卦) 단사(彖辭)에 ‘정대인길(貞大人吉)’이라고 한 것과 같으니 ‘정(貞)’은 일을 주관하는 점(占)이 된다. 『역(易)』에서 ‘정길(貞吉)’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일을 주관하면 길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 ‘장인길(丈人吉)’, ‘대인길(大人吉)’, ‘부인길(婦人吉)’이라고 했을 경우에 단지 이 사람이 길(吉)함을 얻은 것이고, 나머지는 반드시 길(吉)하다고 할 수 없다[貞字當屬下句讀 師之彖曰貞丈人吉 困之彖曰貞大人吉 貞爲幹事之占也 易凡言貞吉者 以之幹事 無所不吉 其云丈人吉大人吉婦人吉之類 唯此人得吉 餘未必吉也].
	상육 (上六)	안(案)	항괘(恒卦)의 도(道)는 양(陽)과 양(陽)이 모여서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섯 개의 효사(爻詞)에서 양(陽)이 모이면 ‘항(恒)’이라고 하고 양(陽)이 흩어지면 ‘불항(不恒)’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진항(振恒)’이라고 한 것은 불항(不恒)의 종류이다[恒之爲道 陽與陽聚 不相離也 故六爻之詞 凡陽聚曰恒 陽散曰不恒 此云振恒者 不恒之類也].
둔(遯)		서괘 (序卦)	‘둔(遯)’은 물러남이다[遯者退也].
		잡괘 (雜卦)	‘둔(遯)’은 즉 물러남이다[遯則退也].
		정자 (程子)	두 개의 음이 생기니 소인(小人)은 점점 왕성해지며 군자는 물러나 피한다. 그러므로 둔(遯)이 되는 것이다[二陰生而小人漸盛 君子退而避之 故爲遯也].
		용안 (鋪案)	둔괘(遯卦)는 구괘(姤卦)로부터 나온 것이다. 두 개의 음(陰)이 이미 자라나고, 소인(小人)은 안에 있어서 그 세력이 하늘을 찌를 듯하니 진(震)의 군자가 간(艮)의 마을 밖으로 달아난다. 이것이 이른바 ‘둔우황야(遯于荒野)’라는 것이다. 마침내 대손(大巽)이 되는데 손(巽)은 숨음이 되고 엿드림이 되고 들어감이 되니 그 상(象)은 ‘둔(遯)’이 된다. 건괘(蹇卦) 초구(初九)의 「문언」에서 ‘둔세무민(遯世無悶)’하는 것 또한 손(巽) 때문이다. 또 ‘둔(遯)’이라는 것은 돼지가 달려가는 것이다. 짐승이 도망가는 것을 ‘둔(遯)’이라고 한다. 건(乾)의 말이 밖으로 달아날 때 간(艮)의 손으로 그것을 붙잡으니 또한 둔괘(遯卦)가 ‘둔(遯)’으로 이름 붙여진 이유이다. 또 ‘둔(遯)’이라는 것은 물러남이다. 퇴(退)라는 글자는 ‘간(艮)’자와 ‘착(夬)’자가 되어 있으니 ‘퇴(退)’라는 것은 간(艮)이다. 내괘(內卦)가 간(艮)이 되는 까닭에 물러남이다. 후과(侯果)는 “둔괘(遯卦)는 건괘(蹇卦)에서 왔다”고 했다[卦以斯進 二陰既長 小人在內 其勢冲天 震之君子 遁于艮邑之外 此所謂遯于荒野也 遂爲大巽 巽則爲隱 爲伏爲入 其象爲遯 乾初九之遯世無悶 亦以巽也 又遯者豚走也 凡獸逃曰遁 乾馬外逸 艮手執之 亦遯之所以名遯也 又遯者退也 退之爲字以艮以彖 退者艮也 內卦爲艮 所以退也 侯果云卦自乾來].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둔(遯)	초육 (初六)	정자 (程子)	꼬리는 뒤에 있는 것이다. 달아날 때 뒤에 있으면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태로운 것이다[尾 在後之物也 遯而在後 不及者也 是以危也].
		안(案)	기제괘(既濟卦)와 미제괘(未濟卦)의 경우에도 또한 초효(初爻)는 꼬리가 된다. 그러나 우변은 “간(艮)이 꼬리가 된다”고 했다[既未濟 亦初爲尾 然虞翻云艮爲尾].
	육이 (六二)	안(案)	진(震)과 감(坎)은 모두 말[馬]이라면 손(巽)과 이(離)는 모두 소[牛]이다. 그러나 황우(黃牛)라고 말할 때에는 반드시 곤(坤)의 소[牛]이다. 괘(卦)의 삼 획(畫) 중에 그 가운데 획은 살과 뼈가 되고 그 위와 아래 두 획은 모두 가죽이 되니 이치상 당연한 것이다[震坎皆馬 則巽離皆牛也 然謂之黃牛者 必坤牛也 卦凡三畫 其中畫爲膚骨 其上下二畫 皆爲皮革 理宜然也].
	구삼 (九三)	학자 (學稼)	둔괘(遯卦)가 지금 비괘(否卦)로 되었으니 상괘(上卦)는 건(乾)이고 하괘(下卦)는 곤(坤)인데 그 색(色)은 검고 누런색이다. 검고 누런 것은 말[馬]의 질병이다[卦今爲否 上乾下坤 其色玄黃 玄黃者馬疾也].
	상구 (上九)	안(案)	『희남자(淮南子)』 「사도훈(師道訓)」에 “은둔하고 있지만 날아갈 수 있으니 길(吉)함이 무엇이 이보다 크겠는가?”라고 했다. 조식(曹植)의 「칠계(七啓)」에 “세상을 피하여 속세로부터 떠난다”고 했다. 장형(張衡)의 「사현부(思玄賦)」의 구본(舊本)에 또한 ‘비둔(飛遯)’이라고 했다. 『문선(文選)』의 여러 주석에도 아울러 역사(易詞)를 인용하여 증명했다. 심지어 명(明)나라 초황(焦竑)도 또한 금릉십산비(金陵攝山碑)를 인용하여 고증했다. 그러나 괘상(卦象)에 마땅함이 없으니 이것은 ‘성오(聲誤: 발음의 유사함으로 생긴 잘못된 것)’이다. 양용수(楊用修)는 “옛날에 ‘비(肥)’ 자는 ‘비(蜚)’로 썼는데 ‘비(蜚)’ 자로 인해서 ‘비(蜚)’ 자로 오해되었고 또한 ‘비(蜚)’ 자로 인해서 비(飛)가 되었는데 그 설명이 진실로 옳다”고 했다[淮南子師道訓云 遯而能飛 吉孰大焉 曹植七啓云飛遯離俗 思玄賦舊本亦作飛遯 文選諸註 並引易詞爲證 至明焦竑 又引金陵攝山碑以爲證 然於象无當 此聲誤也 楊用修云古肥作蜚비 故因蜚誤蜚 又因蜚作飛 其說良是].
		안(案)	장평자(張平子)는 둔괘(遯卦) 상구(上九)를 ‘둔괘(遯卦)가 함괘(咸卦)로 변한 것’으로 여겼는데 원주(原註)의 해석 또한 핵심이 상세하고 착오가 없으니 여기에서 효사(爻詞)가 변화를 주로 함을 알 수 있다. 옛날 사람들 중에도 일찍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平子以遯上九爲遯之咸 原註釋義 亦詳核不錯 是知爻詞之主乎變 古人早有知者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대장 (大壯)		잡괘 (雜卦)	‘대장(大壯)’은 곧 멈춤이다[大壯則止].
		주자 (朱子)	‘대(大)’는 양을 말한다. 네 개의 양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대장(大壯)’이라고 한 것이다[大謂陽也 四陽長 故爲大壯].
		용안 (鑄案)	『역위(易緯)』에 “모든 괘에서 하위(下位)는 작은 것이 되고 중위(中位)는 자라남이 되고 상위(上位)는 다함이 된다”고 했다. 중괘(重卦)의 경우에는 일위(一位)와 이위(二位)는 적음이 되고 삼위(三位)와 사위(四位)는 자라남이 된다. 양(陽)이 나아가 사위(四位)에 도달하면 큰 것이 자라난 것이다. 또 ‘장(壯)’이라는 것은 어른이다. 손(巽)은 여자 중에서 어른이기 때문에 구괘(姤卦)에서 ‘여장(女壯)’이라고 했고, 진(震)은 남자 중에 어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장(大壯)’이라고 한 것이다. 또 양(羊)이 장성한 것을 ‘장(祥)’이라고 하는데 ‘장(祥)’자와 ‘장(壯)’자는 해성(諧聲)이다. 대장괘(大壯卦)는 대태(大兌)인데 태(兌)가 곧 양(羊)이 되니 양이 장성한 것을 ‘장(壯)’이라고 한다[易緯云凡卦下爲少 中爲壯 上爲究 以重卦則一二爲少 三四爲壯也 陽進至四則大者壯矣 又壯者長也 巽爲女長 故婦曰女壯 震爲男長 故此云大壯也 又羊盛曰祥 祥壯諧聲也 卦爲大兌 兌則爲羊 羊壯曰壯也].
	구삼 (九三)	학가 (學稼)	‘숫양이 울타리를 들이받는다’는 것은 ‘소인이 힘이 세다’는 상(象)이다. 간(艮)을 양(羊)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양을 소인에 비유한 것이다[羝羊觸藩 小人用壯之象也 以艮爲羊 故得比小人].
		학포 (學圃)	『시경』 「용풍(邶風)」 「장유자(牆有茨)」의 시(詩)는 음란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국풍(國風)」 「동방미명(東方未明)」에 “버드나무를 꺾어 밭에 울타리 쳤는데 광부(狂夫)도 두려워하거늘!”이라고 했으니 예(禮)로 방비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대장(大壯)이라는 괘는 양(陽)이 장성하고 음(陰)이 약하다. ‘저양촉번(羝羊觸藩)’은 울타리를 함부로 부수는 상이지 혼인함에 길(吉)한 점(占)은 아니다. 구본(舊本)에는 ‘리(羸) 자가 ‘류(縲)’로 되어 있거나 혹 ‘루(纍)’ 자로 되어 있거나 ‘루(累)’ 자로 되어 있는데 모두 성오(聲誤: 발음의 비슷함 때문에 생긴 잘못)이다[牆有茨 防淫也 折柳樊圃 狂夫瞿瞿 喻禮防也 大壯爲卦 陽壯而陰弱 羝羊觸藩者 强暴潰防之象 非婚媾之吉占也 舊本羸作縲 或作纍 或作累 皆聲誤也].
	구사 (九四)	안(案)	‘복(輓)’은 수레의 ‘복토(伏兔)’를 말한다. 복토가 온전하면 수레가 가지만 복토가 벗겨지면 수레가 멈추게 된다. 이 효(爻)는 진(震)의 길(吉)이 앞으로 통해 있기 때문에 수레가 그 복토가 있어서 튼튼한 것이다. 소축괘(小畜卦)와 대축괘(大畜卦)는 모두 앞에 험난함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수레에서 그 복토가 벗겨진 것이지 건(乾)의 수레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다[輓者車之伏兔也 輓完則車行 輓脫則車止 此爻震道前通 故車壯其輓 小畜大畜 皆前有梗阻 故輓脫其輓 不但乾車之不完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대장 (大壯)	육오 (六五)	안(案)	육적본(陸績本)에서는 ‘역(易)’을 ‘역(場)’으로 썼는데 ‘장(場)’자와 통한다. 주자는 “‘역(易)’자를 혹 ‘강역(疆場)’의 ‘역(場)’자로 쓰기도 한다”고 했다.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서는 ‘역(場)’자는 ‘역(易)’자로 썼다. 총괄해 보면 교역(交易)이 아니면 양을 일찍이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니 ‘교역(交易)’의 ‘역(易)’이 된다는 것을 살펴야 한다. 여괘(旅卦) 상구(上九)에서 ‘교역하다가 소를 잃었다’라는 것 또한 이괘(頤卦)의 교역(交易) 때문이다[陸績本易作場 與場通 朱子周易或作疆場之場 漢食貨志場作易 總之不以交易則羊未嘗亡也 其爲交易之易審矣 旅上九之喪牛于易 亦頤之交易也].
	상육 (上六)	학포 (學圃)	‘대장(大壯)’은 양(陽)이 장성한 괘이다. 강력하고 포악한 도적이 그 돌아가는 길을 끊어버리면 궁지에 급하게 몰려서 조치할 방도가 없을 것이니 숫양의 가르침은 이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大壯者 陽壯之卦也 強暴之盜 斷其歸路 則窘急無措 羝羊之誡 以戒此也].
진(晉)		서괘 (序卦)	‘진(晉)’이라는 것은 나아감이다[晉者進也].
		잡괘 (雜卦)	‘진(晉)’은 낮이다[晉晝也].
	용안 (鋪案)		‘진(晉)’이라는 것은 하짓날과 동짓날이다. 옛글자로 ‘진(晉)’자로 썼던 것으로 증험할 수 있다. 진괘(晉卦)는 관괘(觀卦)로부터 왔다. 손(巽)은 하나의 음(陰)이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니 하지(夏至)이다. 또 진괘(晉卦)는 소과괘(小過卦)로부터 왔다. 진(震)의 하나의 양이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니 동지(冬至)이다. 이 손(巽)과 진(震)이 옮겨져서 이(離)의 해가 되었으니 이것이 동짓날과 하짓날인 것이다. 칠요(七曜) 가운데 태양(太陽)이 중심이 되는데 태양(太陽)의 운행은 하짓날에 극에 다다르고 동짓날에 소생하는 것이다. 천지(天地) 사이에 낮과 밤의 어둠과 밝음의 징후, 추움과 더움과 따뜻함과 서늘함의 변화, 초목과 여러 곡식이 피고 지는 것, 짐승과 곤충들의 나고 자라나는 것이 태양(太陽)의 운행으로 인해서 변화되거나 소멸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주역(周易)』에서는 구괘(姤卦)와 복괘(復卦)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 괘가 진(晉)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도 또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서괘전(序卦傳)』에서 ‘진(進)’이라고 말한 것은 관괘(觀卦)로부터 나온 상(象)을 말한다. 진(晉)자와 진(進)자는 해성(諧聲)이다[晉者兩至日也 古作晉可驗也 卦自觀來 巽一陰之始生者夏至也 又自小過來 震之一陽之始生者冬至也 以此巽震移之爲離日 此兩至之日也 七曜之中 太陽爲主 而太陽之行 極於夏至 蘇於冬至 凡天地之間 晝夜晦明之候 寒暑溫涼之變 草木百穀之榮華凋落 禽獸昆蟲之胎孕伏蟄 莫不以此而變爻 故周易最重姤復 是卦之得晉名 亦所以貴之也 序卦謂之進也者 自觀來之象也 晉進諧聲也].
		주자 (朱子)	진괘(晉卦)는 관괘(觀卦)로부터 왔다[卦自觀來].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진(晉)	단(象)	안(案)	주자(朱子)는 ‘강후(康侯)’를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의 ‘영후(寧侯)’와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제을귀매(帝乙歸妹)’와 ‘고종벌귀방(高宗伐鬼方)’과 ‘기자명이(箕子明夷)’ 등의 부류가 모두 실제로 있었던 것이니 ‘강후가 말을 하사했다(康侯錫馬)’는 것도 역시 옛날에 있었던 사실임이 틀림없다[朱子以康侯謂如考工記之寧侯 然帝乙歸妹 高宗伐鬼方 箕子明夷之類 皆實有是事 則康侯錫馬 亦必故實也].
		우안(又案)	『주례(周禮)』 「추관(秋官)」 「대행인(大行人)」의 직책에 “제공(諸公)은 삼향(三饗)과 삼문(三問)과 삼로(三勞)하고, 제후(諸侯)는 삼향(三饗)과 재문(再問)과 재로(再勞)하고, 자작(子爵)과 남작(男爵)은 삼향(三饗)과 일문(一問)과 일로(一勞)한다”라고 했으니 경(經)에서 말한 ‘삼접(三接)’은 아마도 이러한 예(禮)를 가리키는 것 같다[周禮大行人職曰 諸公三饗三問三勞 諸侯三饗再問再勞 子男三饗一問一勞 經云三接 蓋指此禮也].
		호씨(胡氏)	『역(易)』에서 ‘유진이상행(柔進而上行)’이라고 한 것은 3개의 괘가 있는데 진괘(晉卦)와 규괘(睽卦)와 정괘(鼎卦)이다. 진괘(晉卦)는 관괘(觀卦)의 사효(四爻)가 오효(五爻)로 나아간 것이고, 규괘(睽卦)는 중부괘(中孚卦) 사효(四爻)가 오효(五爻)로 나아간 것이다[易言柔進而上行者三卦 晉睽鼎也 晉則觀四進五也 睽則中孚四進五也].
	초육(初六)	양웅(楊雄)	『태현경(太玄經)』에서 “장군이 병사를 상시했다[丈人摧孥]”고 했으니 또한 산이 붕괴되는 것을 ‘취(摧)’라고 한다[玄經曰丈人摧孥 亦山崩曰摧].
	육이(六二)	안(案)	‘수(愁)’ 자는 ‘추(秋)’ 자와 ‘심(心)’ 자가 합쳐진 것이다. ‘추(秋)’는 모아들이는 것이다. 곤(坤)의 따뜻한 가운데로 건(乾)의 차가움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니 그 기운이 움츠러들어 두려워하게 된다. 이것이 경건하게[敬] 되는 이유이다. 청묘(淸廟)의 노래를 부면서 오르고, 삼가고, 엄숙한 모습이 마치 문왕을 다시 보는 듯하니 또한 경건함이다[愁者秋心也 秋者攄也 坤溫之中 乾寒入心 其氣攄悚 此其所以爲敬也 升歌淸廟 愀然如復見文王 亦敬也].
구사(九四)	안(案)	안(案)	석서(鼫鼠)는 나무를 잘 오른다. 간(艮)의 강(剛)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것이 마치 석서(鼫鼠)와 같다. 『이아(爾雅)』 ‘석수(釋獸)’의 주(注)에 “석서(鼫鼠)는 형체의 크기가 쥐와 같고, 머리는 토기와 비슷하며 꼬리에 털이 있는데 그 색은 푸르고 누런색이다”고 했다. 육기(陸機)의 『시경(詩經)’의 주소(注疏)에 “지금 하동 땅에 큰 쥐가 있는데 마치 사람처럼 설 수가 있어서 팔짱을 끼고, 앞쪽 두 다리를 머리 위로 올린다”고 했다. 채백개(蔡伯喈)는 “석서(鼫鼠)는 다섯 가지 재주가 있으나 한 가지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 순구가의 『역(易)』에서는 바로 ‘오기(五技)’로써 건강부회하여 설(說)로 삼았으니 잘못된 것이다. 정현(鄭玄)은 “석서(鼫鼠)는 곧 큰 쥐이다”고 했다. 자하(子夏)의 『역전(易傳)』에서는 ‘석(鼫)’을 ‘석(碩)’으로 썼다[鼫鼠善緣木 長剛之自下達上 如鼫鼠也 爾雅法云鼫鼠形大如鼠 頭似兔 尾有毛青黃色 陸機詩疏云今河東有大鼠 能人立 交前兩腳於頭上 蔡伯喈云鼫鼠五技 不成一枝 九家易直以五技傳會爲說 謬矣 鄭玄云鼫鼠即大鼠 子夏傳 鼫作碩].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명이 (明夷)		서괘 (序卦)	‘이(夷)’는 상(傷)한 것이다[夷者傷也].
		잡괘 (雜卦)	‘명이(明夷)’는 주(誅)이다[明夷誅也].
		용안 (鑄案)	<p>명이괘(明夷卦)는 임괘(臨卦)로부터 왔다. 임괘(臨卦)에는 진(震)과 태(兌)가 있는데 명이괘(明夷卦)로 옮겨 가게 되면 이내 이(離)와 감(坎)이 있다. 동이(東夷)와 서융(西戎)과 남만(南蠻)과 북적(北狄)이 모두 곤(坤)의 나라 주변에 들어가니 이것은 사방(四方)의 향량한 땅을 포괄하는 상(象)이다. 이(離)로써 사방의 오랑캐를 밝혀 문덕(文德)을 펼치니 이것을 일러 ‘명이(明夷: 오랑캐를 밝힘)’라고 한다. 태양(太陽)의 운행은 지구를 둘러싸고 주기적으로 도는데 해가 하늘에 떠 있으면 중국(中國)이 밝아지고 해가 땅 밑으로 들어가면 외국(外國)이 밝아지는 것은 이치가 즉 그러한 것이다. 지금 해가 땅 아래에 있으니 이것이 명이(明夷)의 때이다. 주왕(紂王)의 때를 맞이하여 미자(微子)는 변방에서 은둔하고 기자(箕子)는 동이(東夷)에 거처하고 문왕(文王)은 서쪽 오랑캐와 섞여 있었는데, 성현들이 밖으로 흩어져 달아나니 중국(中國)이 어두워져 버렸다. 마치 해가 땅 밑으로 들어가고 오랑캐 나라들이 밝음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것이 명이(明夷)의 상(象)이다. 또 ‘이(夷)’라는 것은 큰 활이다. 오랑캐의 풍속에는 큰 활을 사용하여 사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육서가(六書家)들이 그 글자를 가차하여 상해(傷害)의 뜻을 삼은 것이다. 『주례(周禮)』 「추관(秋官)」 「치씨(雉氏)」편에 “여름에 풀을 베다”고 했고, 『좌전(左傳)』 은공(隱公) 16년 전(傳)에 “베어서 그것을 쌓아 썩혔다”고 했으니 이것이다. 비간(比干)은 심장을 도려냄을 당하고, 문왕(文王)은 감옥에 구속되고, 기자(箕子)는 족쇄를 차게 됨을 당했으니 한때의 어질고 현명한 선비들이 풀이 베어지고 짐승이 사냥으로 죽는 것처럼 당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離)의 형법(刑法)이 밝지 못하여 군자가 상해(傷害)를 입었으니 이것이 명이(明夷)의 화(禍)이다. 주공(周公)이 효사(爻詞)를 달다가 여기에 이르러 괘상(卦象)을 살펴보다가 애통해했으니 혼란한 때를 회상하다가 슬퍼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여러 효사에서 당시 현인(賢人)과 성인(聖人)의 일로써 물상을 분별하고 짚아졌으니 기자(箕子)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공자가 그 은미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전(象傳)」에 특별히 문왕(文王)을 언급했으니 그 사실은 단지 문왕(文王)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서괘전(序卦傳)」에서 ‘이(夷)’를 ‘상(傷)’으로 풀이한 것과 「잡괘전(雜卦傳)」에서 ‘이(夷)’를 ‘주(誅)’로 풀이한 것은 모두 효사의 본래 뜻을 가리킨 것이다. 만약 괘(卦)를 이름 붙인 뜻으로 본다면 이(離)의 해가 오랑캐 땅에서 빛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태괘(泰卦)가 명이괘(明夷卦)로 변한</p>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명이 (明夷)		용안 (鏞案)	<p>경우에는 ‘포황(包荒)’이라 했고, 풍괘(豐卦)가 명이괘(明夷卦)로 변한 경우에는 ‘우기이주(遇其夷主)’라고 했으며, 기제괘(既濟卦)가 명이괘(明夷卦)로 변한 경에는 “인살우불여서린지약제(隣殺牛不如西隣之禴祭)”라고 했던 것이다. ‘이(夷)’ 자가 ‘이적(夷狄)’의 ‘이(夷)’ 자가 되는 것이 이와 같이 명백한데, 뒤에 유자들이 「서괘전(序卦傳)」의 말만 언뜻 보고 괘(卦)를 이름 붙인 뜻을 구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자가 오랑캐를 교화했다’는 것을 ‘기자의 밝음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해석했으니 문장이 이치에 합당하지 못하고 말이 문맥과 연결되지 않는다. 어찌 그 뜻을 얻을 수 있겠는가? ‘구(姤)’라는 것은 왕비[女后]이지만 ‘만나다’로 풀이하고 ‘고(蠱)’라는 것은 ‘좀벌레가 파먹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事]’로 풀이하기도 한다. 오랑캐의 ‘이(夷)’를 ‘상하다’로 풀이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육서(六書)에서 가차(假借)의 방법이니 읽는 자는 마땅히 살펴야 한다[卦自臨來 臨有震兌 移之明夷 乃有離坎 東夷西戎 南蠻北狄 皆入坤國之幅員 此包四荒之象也 離以明之 用敷文德 此之謂明夷也 太陽之行 繞地毳而周旋 日在天上則中國明 日入地底則外國明 理則然也 今也日在地下 此明夷之時也 當紂之時 微子遷荒 箕子居夷 文王混於西夷 賢聖外遊 中國晦盲 如日入地中 而夷國得明 此明夷之象也 又夷者大弓也 夷俗用大弓以傷人 故六書家假借其字 爲傷害之義 周禮雝氏 夏日夷之 左傳芟夷蕞崇之 是也比干剖心 文王拘囚 箕子斃紂 一時仁賢之士 無不艸薶而禽獮 離刑不明 君子受傷 此明夷之禍也 周公繫詞至此 覽卦象而哀傷 追淫昏而悼念 於其諸爻之詞 各以當時賢聖之事 辨物象而配之 不但箕子爲然也 孔子知其微也 故彖傳特言文王 其實不但文王爲然也 序卦之訓夷爲傷 雜卦之訓夷爲誅 皆指爻詞之本旨 若其名卦之義 則離日明於夷狄也 故泰之明夷曰包荒 豐之明夷曰遇其夷主 既濟之明夷曰東隣殺牛 不如西隣之禴祭 夷之爲夷狄之夷 若是明甚 而後之儒者瞥見序卦之文 不求名卦之義 並與箕子之明夷 訓之爲箕子之明傷 文不合理 語不連脈 尙可以得其旨乎 姤者女后也 訓之爲遇 蠱者蛀壞也 訓之爲事 夷狄之夷而訓之爲傷 亦此類也 此六事假借之法 讀者宜審焉].</p>
	단(象)	안(案)	<p>우번(虞翻)과 촉재(蜀才)가 모두 “명이괘(明夷卦)는 임괘(臨卦)로부터 왔다”고 했다[虞翻蜀才 皆云卦自臨來].</p>
	초구 (初九)	안(案)	<p>명(鳴)은 남방의 신조(神鳥)인데, 그 형상이 봉황새와 비슷하다. ‘이(夷)’은 산평이다. 모두 화려한 깃털을 가진 새이다. 군자(君子)의 덕(德)을 봉황새에 비유하는데 당연히 명이새[鳴鵒]의 종류이다. 『논어(論語)』 “산등성의 꿩이 기미를 보고서 날아갔다”고 했으니 ‘명이우비(明夷于飛)’와 ‘군자우행(君子于行)’도 또한 이러한 의미이다. 주왕(紂王)의 때에 미자(微子)가 떠나 버린 것도 이 점(占)에 해당된다[鳴者南方神鳥也 其形似鳳 鵒者山鷄也 皆彩羽之鳥也 君子比德於鳳 所謂明夷者當是鳴鵒之類也 山梁之雉 見幾而作 明夷于飛 君子于行 亦此義也 紂之時 微子去之 當此占也].</p>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명이 (明夷)	초구 (初九)	우안 (又案)	『춘추전(春秋傳)』에 따르면 숙손표(叔孫豹)가 점을 쳐서 이 효를 만났는데 복초구(卜楚丘)가 점의 풀이를 지극히 상세히 했다. 그러나 그 말은 혹 술수 때문에 복잡하니 아마도 『주역(周易)』의 바른 취지는 아니겠지만 단지 참고해서 살펴볼 만하다[春秋傳叔孫豹之筮遇此爻 卜楚丘占之極詳 然其言或雜以術數 恐非周易之正旨 只可參看].
	육이 (六二)	안(案)	구본(舊本)에서는 ‘이우좌고(夷于左股)’의 ‘이(夷)’ 자를 혹 ‘제(睨)’ 자로 쓰기도 하고, 혹 ‘이(睨)’ 자로 쓰기도 하고, 혹 이 글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요신본(姚信本)에서는 ‘좌고(左股)’를 ‘우락(右樂)’으로 썼다. 마융본(馬融本)과 왕숙본(王肅本)에서는 ‘고(股)’를 ‘반(般)’으로 썼다[舊本夷于左股之夷 或作睨 或作睨 或無此字 又姚信本左股作右樂 馬融王肅本股作般].
	구삼 (九三)	안(案)	『춘추전(春秋傳)』에 언릉(邲陵)에서 점을 쳤는데 그 괘가 복괘(復卦)가 나왔다. 점에 “남쪽 나라는 위축되고 그 우두머리 왕을 쏘아 맞힌다”고 했다. 대개 박괘(剝卦)로부터 복괘(復卦)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하괘(下卦)는 이(離)의 자리이기 때문에 ‘남쪽 나라’라고 한 것이며, 그 진(震)의 임금을 붙잡게 되기 때문에 ‘왕을 쏘아 맞힌다’고 한 것이다. 그 방법은 대개 여기에 근본한다[春秋傳邲陵之筮 其卦遇復 占之曰南國蹙 射其元王 蓋云自剝而爲復也 下卦離位 故謂之南國 獲其震主 故謂之射王 其法蓋本於此].
	육사 (六四)	안(案)	이지(李贊)의 『구정역인(九正易引)』에서 채가부(蔡介夫)의 설을 인용하여 “심장은 왼쪽 복부에 있으니 의서(醫書)에 보인다”고 했는데 옳지 않다. 심장은 복부에 있지 않고 또한 왼쪽에 있지도 않다[九正易引蔡介夫之說 謂心在左腹 見於醫書 非矣 心不在腹 亦不在左也].
	육오 (六五)	안(案)	유향(劉向)은 “지금의 『역경(易經)』에는 ‘기자(箕子)’가 ‘해자(蓺滋)’로 쓰여 있다”고 했다. 『한서(漢書)』 「유림전(儒林傳)」에 “촉(蜀)나라 사람 조빈(趙賓)이 『역경(易經)』의 문장을 마음대로 꾸밈는데 ‘기자명이(箕子明夷)’를 ‘만물방해자(萬物方蓺)’로 꾸몄다”고 했다. 진(晉)나라의 추담(鄒湛)은 『추씨가훈(鄒氏家訓)』에서 순자명(荀慈明)의 『역』을 기록하면서 “‘기(箕)’ 자를 ‘해(蓺)’ 자로 풀이하고 ‘자(子)’를 ‘자(茲)’로 해석했는데 어지럽기만 하고 조리가 없으니 다 따질 수 없다”고 했으니 그 말이 좋다. 촉재본(蜀才本)에는 ‘기자(箕子)’가 ‘기자(其子)’로 쓰여 있다. 총괄해 보건대 선유(先儒)들은 역사(易詞)를 문왕이 지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기자명이(箕子明夷)’에 대해서는 문왕이 미리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 해석한 것이 여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수괘(隨卦) 상구(上九)의 ‘왕용형우서산(王用亨于西山)’과 승괘(升卦) 육사(六四)의 ‘왕용형우기산(王用亨于岐山)’도 또한 문왕의 글이 아니니 한(漢)나라 유학자들의 불통(不通)함이 심하다[劉向云今易箕子作蓺滋 漢書儒林傳蜀人趙賓爲易飾易文 以爲箕子明夷 萬物方蓺滋也 鄒鄒氏家訓譏荀慈明之易註云訓箕爲蓺 詒子爲茲 漫衍無經 不可致詰 善乎其言之也 蜀才本作其子 總由先儒以易詞爲文王所作 而箕子明夷 文王不可預言 故曲解至此 然王用亨于西山 王用亨于岐山 亦非文王之筆 漢儒之不通甚矣].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명이 (明夷)	상육 (上六)	안(案)	교역(交易)으로 상(象)을 취하는 것은 항상 상효(上爻)에서 발생한다. 정괘(井卦) 상육(上六)에 ‘정수물막(井收勿幕)’이라 한 것과, 중부괘(中孚卦) 상구(上九)에 ‘한음등우천(翰音登于天)’이라 한 것과 이 효(爻)에서 ‘후입우지(後入于地)’이라 한 것이 또한 그러한 예(例)이다[交易取象者 每於上爻發之 井上六曰 井收勿幕 中孚上九曰 翰音登于天 此爻曰 後入于地 亦一例也].
가인 (家人)		잡괘 (雜卦)	‘가인(家人)’은 안[內]이다[家人內也].
		정자 (程子)	문중자(文中子)는 집안을 밝게 하고 밖을 가지런히 하는 것을 뜻으로 삼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것을 좋게 여기니 이른바 ‘제호손(齊乎巽)’이다[文中子以明內齊外爲義 古今善之所謂齊乎巽也].
		용안 (鋪案)	가인괘(家人卦)는 중부괘(中孚卦)로부터 왔는데 ‘중부(中孚)’라는 것은 성실함이다. 또 가인괘(家人卦)는 손괘(巽卦)로부터 왔는데 ‘대손(大巽)’이라는 것은 가지런히 하는 것이다. 추이(推移)하여 이(離)와 손(巽)은 여전하다. 이미 성실함으로 수신(修身)하니 비로소 집안을 다스릴 수 있다. 집안을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신(修身)을 먼저 해야 한다. 중부괘(中孚卦)의 때에는 진(震)과 손(巽), 간(艮)과 태(兌)이니 이미 함께 같은 곳에 거처하고 있다. 추이(推移)하여 가인괘(家人卦)로 가면 감(坎)과 이(離)가 또한 나타나서 여섯 자식이 모두 모여 있으니 한 집이 화합하게 된다. 이에 이(離)의 담장 안에 감(坎)의 집이 있으니 강(剛)이 그 가운데 거처하여 집안을 바로잡는 주인이 된다. 이(離)로써 다스리고 손(巽)으로써 가지런히 한다. 남자는 남자의 자리에 처하고 여자는 여자의 자리에 처하여 집안에서는 밝게 하고 밖에서는 유순하게 하니 각각 그 법대로써 한 것이다. 상괘(上卦)와 하괘(下卦)에서 두 개의 강(剛)은 방비하고 단속함이 지극히 엄격하니 이것인 가인괘(家人卦)의 뜻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집안을 바로잡는다는 뜻은 그 풍화(風火) 가인괘(家人卦)에 있어서 단지 하나의 상(象)일 뿐으로 성인이 우연히 그것을 이름 붙인 것일 뿐이다. 여러 가지 일을 점칠 때 반드시 가인(家人)이라는 것이 본상(本象)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卦自中孚來 中孚者誠也 又自大巽來 大巽者齊也 移之家人 離巽如舊 既誠身矣 始可以齊家也 欲齊家者 必先乎修身也 中孚之時 震巽艮兌 既與同處 移之家人 坎離又著 六子具會 一家諧翁 於是離垣之內 坎以爲宮 剛處其中 爲正家主 離以治之 巽以齊之 男處男位 女處女位 內明外順 各以其法 上下二剛 防閑至嚴 此家人之義也 然此正家之義 其在風火之卦 只是一象 聖人偶以名之 以筮諸貞 未必家人爲本象也].
	초구 (初九)	안(案)	‘한(閑)’이라는 글자는 나무로 문을 막는 것을 형상한 것이다 [閑之爲文 象以木塞門].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가인 (家人)	육이 (六二)	안(案)	『대대례기(大戴禮記)』에 “부인(婦人)은 지아비를 따르고 감히 스스로 하는 일이 없다”고 했으며,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대부는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수(遂)’라는 것은 ‘달(達)’이고 ‘성(成)’이다. 대장괘(大壯卦) 상육(上六)에 ‘불능수(不能遂)’라고 했는데 그 뜻이 또한 같다[大戴記云婦人從夫 无所敢自遂 公羊傳云大夫無遂事 遂者達也成也 大壯云不能遂 其義亦同].
		우안 (又案)	마융(馬融)은 이효(二爻)로 안주인을 삼았는데 이것은 효변(爻變)을 알지 못한 것이다[馬融以二爲奧主 此不知爻變也].
		학가 (學稼)	아래는 이(離)이고 위는 감(坎)이니 본래 음식을 삶아 익히는 상(象)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이 변함에 음식을 대접하는 점(占)이 되는 것이다. 『열녀전(烈女傳)』 「추맹가모전(鄒孟軻母傳)」에 맹자의 어머니가 “부인의 직무는 술과 장을 만들어 덮고 하루에 다섯 차례의 식사를 정갈하게 차리는 것이다”고 했다[下離上坎 本具烹飪之象 故其變爲饋食之占也 烈女傳孟母云婦人之職 晝酒漿而精五飯].
	구삼 (九三)	안(案)	『설문(說文)』에서는 “‘학학(嗃嗃)’은 엄격하고 혹독한 모양이다”고 했는데 옳지 않다. 감(坎)의 규율이 엄격하고 혹독하기 때문에 진(震)의 소리가 ‘학학(嗃嗃)’으로 울리는 것이다. 바로 ‘학학(嗃嗃)’으로 엄격하고 혹독한 모양으로 삼는다면 자의(字義)가 아니다. 하해(何楷)의 『고주역정고(古周易訂詁)』에 ‘희희(嘻嘻)’를 탄식하고 두려워하는 소리라고 했는데 또한 옳지 않다. ‘희(嘻)’라는 것은 입에서 기쁨이 터져 나온 것이다. 회의자(會意字)로써 보면 희소(嘻笑)의 희(嘻)가 되고, 해성(諧聲)으로써 보면 희탄(嘻歎)의 희(嘻)가 되니 글자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 이 괘에서 굳이 ‘학학(嗃嗃)’과 ‘희희(嘻嘻)’라고 말한 것은 괘(卦)가 지금 익괘(益卦)가 되어 바람과 우레가 모두 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說文云嗃嗃 嚴酷貌 非也 坎律嚴酷 故震鳴嗃嗃也 直以嗃嗃 爲嚴酷貌 則非字義也 何氏訂詁以嘻嘻爲歎懼聲 亦非也 嘻者喜發於口也 以會意則爲嘻笑之嘻 以諧聲則爲嘻歎之嘻 字同而義別也 其必謂之嗃嗃嘻嘻者 卦今爲益 風雷皆有聲之物也].
		우안 (又案)	구본(舊本)에서는 ‘학(嗃)’ 자가 ‘확(確)’ 자로 되었거나 또는 ‘고(嬌)’ 자로 되어 있으며, 정현(鄭玄)은 “‘학학(嗃嗃)’이 일어나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모두 옳지 않다. 또 ‘희(嘻)’ 자를 혹 ‘희(嬉)’ 자라고 하고, 혹 ‘희(喜)’ 자라고 한다. 후과(侯果)는 “‘희희(嘻嘻)’는 웃음소리이다”라고 했다[舊本嗃作確 亦作嬌 鄭玄云嗃嗃 苦熱之意 皆非也 又嘻或作嬉 或作喜 侯果曰嘻嘻笑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가인 (家人)	구삼 (九三)	학가 (學稼)	익괘(益卦)는 비괘(否卦)로부터 왔다. 비괘(否卦)에는 아버지 와 어머니의 상(象)이 있기 때문에 ‘부자(婦子)’를 지칭한 것 이다[益自否來 卦有父母 故得稱婦子].
		학포 (學圃)	감(坎)에 두 개의 음(陰)이 있기 때문에 ‘학학(嗃嗃)’이라고 글 자를 중첩한 것이다. 진(震)에서도 두 개의 음(陰)이 있기 때 문에 ‘희희(嘻嘻)’라고 글자를 중첩한 것이다[坎有二陰 故嗃 嗃疊文 震亦二陰 故嘻嘻疊文].
	구오 (九五)	학가 (學稼)	오위(五位)는 군주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왕(帝王)이 집안을 다스리는 법(法)을 논한 것이다[五位君位 故論帝王治家之法].
규(睽)		서괘 (序卦)	‘규(睽)’는 어긋남이다[睽者乖也].
		잡괘 (雜卦)	‘규(睽)’는 밖이다[睽卦外也].
		용안 (鋪案)	‘규(睽)’는 ‘발(𠂔)’에서 왔다. ‘계(睽)’는 화살을 발사한다는 뜻이 다. 화살이 발사되면 활과 화살은 서로 분리된다. 규괘(睽卦)는 대 장괘(大壯卦)에서 왔다. 대장괘(大壯卦)의 때에는 아래에 네 개의 화살[乘矢]이 있고 위는 진(震)의 발사가 되니 이미 화살을 발사하 는 상(象)이 있다. 다만 감(坎)의 활이 없어서 쏠 수가 없다. 추이 (推移)하여 규괘(睽卦)가 되면 감(坎)의 활이 이미 당겨져서 하나 의 화살이 이내 발사되니 활과 화살이 서로 분리된다. 이것을 일 러 ‘규(睽)’라고 한다. 또 『설문(說文)』에서 “규(睽)는 눈이 서로 보 지 않는다”고 했다. 규괘(睽卦)는 중부괘(中孚卦)로부터 왔는데 ‘중부(中孚)’라는 것은 대리(大離)이다. 태(兌)와 손(巽)의 두 여인 이 이(離)의 눈을 서로 쳐다보며 그 마음이 서로 믿고 있다. 추이 (推移)하여 규괘(睽卦)가 되면 비록 이(離)의 눈이 있을지라도 가 운데 하나의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 서로 상대를 볼 수 없으니 「 단전(彖傳)」에 “두 여자가 함께 거처하고 있지만 그 뜻을 함께 행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을 일컬어 ‘규(睽)’라고 한다. ‘활을 발 사한다’는 뜻은 공자가 「계사전(繫辭傳)」에서 언급했고, ‘눈으로 본다’는 뜻은 공자가 「단전(彖傳)」에서 드러냈으니 이것은 모두 괘(卦)를 이름 붙인 올바른 뜻이다. 또 이(離)의 불은 위로 타오르 고 태의 연꽃은 아래로 적시니 행함이 서로 어긋난다. 양(陽)이 반 드시 음(陰)의 자리에 거처하고 음(陰)이 이내 양(陽)의 자리에 거 처하니 그 자리가 어긋난다. 이 또한 괘(卦)를 이름 붙인 다른 뜻 이다. 우번(虞翻)은 “규괘(睽卦)는 대장괘(大壯卦)로부터 왔다”고 했다[睽者𠂔也 睽也 發矢之義也 矢發則弓與矢相離也 卦自大壯來 大壯之時 下有乘矢 上爲震發 已有發矢之象 但无坎弓 無以發也 移 之爲睽 則坎弓既張 一矢乃發 弓與矢相離 此之謂睽也 又說文曰睽 目不相視也 卦自中孚來 中孚者大離也 兌巽二女 離目以相視 其志 相孚 移之爲睽則雖有離目 中有一梗 不相對視 所謂二女同居 其志 不同 此之謂睽也 發矢之義 孔子於大傳言之 目視之義 孔子於彖傳 發之 此皆名卦之正義也 又離火炎上 兌澤潤下 行相違也 陽必居陰 陰乃居陽 其位乖戾也 此亦名卦之餘義也 虞翻曰卦自大壯來].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규(睽)	초구 (初九)	학가 (學稼)	규괘(睽卦)는 대장괘(大壯卦)로부터 왔다. 그 건(乾)의 말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감(坎)을 얻었기 때문에 그 점이 이와 같은 것이다[睽自大壯來 喪其乾馬 今而得坎 故其占如此].
		학포 (學圃)	괘덕이 어그러짐이기 때문에 그 점(占)이 먼저 잃고 뒤에 얻는 것이다[卦德爲睽 故其占爲先喪後得].
	구이 (九二)	안(案)	우번(虞翻)의 『역(易)』에서는 간(艮)을 ‘성(城)’으로 여겼는데 간(艮)이라는 것은 곤(坤)의 읍(邑)의 밖을 방비하고 있는 것이다. 무망괘(無妄卦)에 육삼(六三)에는 간(艮)을 읍(邑)으로 보았다[虞氏易 艮爲城 艮者坤邑之防外者也 無妄六三 以艮爲邑].
	육삼 (六三)	안(案)	구본(舊本)에는 ‘체(掣)’ 자가 혹 ‘서(髻)’ 자로 되어 있고 혹은 ‘掣’ 자로 되어 있고 혹은 ‘掣’ 자로 되어 있고 혹은 ‘기(騎)’ 자로 되어 있다. 총괄해 보면 패상(卦象)에 마땅함이 없다. 왕필(王弼)은 “체(掣)는 막혀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고 했는데 또한 잘못이다. ‘체(掣)’라는 것은 손을 제어하는 것이다[舊本掣或作髻 或作掣 或作髻 總之於象無當也 王弼云掣 滯隔不進也 亦非矣 掣者制手也].
		우안 (又案)	‘의(剋)’ 자는 혹 ‘의(剋)’ 자로 쓰기도 하고 혹은 ‘열(輓)’ 자로 쓰기도 했는데 이것은 발음이 잘못되어 생긴 오류이다. ‘의(剋)’ 자는 ‘예(曳)’ 자와 ‘체(掣)’ 자와 더불어 협운(叶韻)으로 당연히 거성이다[剋或作剋 或作輓 此聲傳之誤也 剋與曳掣叶韻 當是去聲].
		주자 (朱子)	‘천(天)’ 자는 ‘이(而)’ 자를 합쳐서 만든 것이니 털을 깎는다는 것이다. 전문(篆文)에 ‘천(天)’ 자는 ‘天’로 썼고, ‘이(而)’ 자는 ‘天’로 썼다[天合作而 剋鬚也 篆文天作天而作天].
	구사 (九四)	안(案)	괘덕이 등지고 어긋남이기 때문에 먼저 헤어졌다가 뒤에 만나는 상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점친다면 등져서 마침내 고아가 될 것이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점친다면 등졌다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니 그 점(占)은 다르다[卦德睽乖 故取先離後遇之象 然筮父子則睽而逢孤 筮夫婦則睽而復遇 其占不同也].
		학가 (學稼)	대장괘(大壯卦)의 때에는 네 개의 양(陽)이 서로 모여 있다. 추이하여 규괘(睽卦)가 되는 사효(四爻)와 육효(六爻)의 두 강(剛)이 그 무리를 떠나 외롭게 거처하기 때문에 사효(四爻)와 육효(六爻) 둘은 모두 ‘규고(睽孤)’를 말하니 또한 은미한 뜻이다[大壯之時 四陽相聚 移之爲睽 則四六兩剛 離其羣而孤居 故四六兩爻 皆言睽孤 蓋亦微旨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궤(睽)	상궤 (上九)	안(案)	이 효사(爻詞)에서 ‘궤고(睽孤)’와 ‘견시(見豕)’와 ‘재귀(載鬼)’와 ‘장호(張弧)’와 ‘혼구(婚媾)’와 ‘우우(遇雨)’ 여섯 가지는 각각 하나의 상(象)으로 서로 연관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의 일[事]로 삼아서 읽는다면 통할 수 없다. 세상의 일은 온갖 변화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혹 하나의 일[事]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象)을 겸비할 수도 있으니 또한 마땅히 통틀어서 살펴보아야 한다[此爻之詞 睽孤見豕載鬼張弧婚媾遇雨 六者各爲一象 不相連續 讀之爲一事 便不可通 世事萬變 或一事之內 兼此數象 亦須通看].
		우안 (又案)	구본(舊本)에는 ‘호(弧)’ 자가 ‘호(壺)’ 자로 되어 있다. 우중상(虞仲翔)은 “태(兌)의 입과 이(離)의 배인데 감(坎)의 술이 가운데 있으니 호리병의 형상이다”고 했다. 한(漢)나라 유학자들을 종주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이와 같기 때문이다. 활의 모양이 호리병과 같기 때문에 그 글자를 ‘과(瓜)’로써 한 것이다. ‘호(壺)’라는 것은 호리병박[葫蘆]이다. 그러므로 ‘호(弧)’ 자와 ‘호(壺)’ 자는 고자(古字)에서 서로 통한다. 곧바로 그것을 ‘주호(酒壺: 술이 담긴 호리병)’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겠는가[舊本弧作壺 虞仲翔云兌口離腹 坎酒在中 壺之象也 漢儒之不可宗如此 弧之形如葫蘆호 故其字從瓜 壺者葫蘆也 故弧與壺 古字相通 直釋之爲酒壺 可乎?]
		우안 (又案)	춘추시대 서법(筮法)은 모두 본괘(本卦)의 효사(爻詞)로 점을 쳤는데 오직 사소(史蘇)의 서법만이 귀매괘(歸妹卦)가 궤괘(睽卦)로 변화하는 경우에 아울러 이 효사(爻詞)를 말하였으니 이것은 또한 서가(筮家)들이 점치는 하나의 예(例)이다[春秋筮法 皆占本卦之爻詞 獨史蘇之筮 遇歸妹之睽 兼言此爻之詞 此亦筮家之一例也].
견(蹇)		서괘 (序卦)	‘견(蹇)’은 곤란함이다[蹇者難也].
		잡괘 (雜卦)	‘견(蹇)’은 곤란함이다[蹇難也].
		정자 (程子)	‘견(蹇)’은 험조(險阻)의 의미이다[蹇 險阻之義].
		용안 (鑄案)	‘견(蹇)’이라는 것은 절름발이니 한쪽 다리가 상한 것이다. 견괘(蹇卦)는 소과괘(小過卦)로부터 왔다. 소과괘(小過卦)의 때에는 괘(卦)에 두 개의 진(震)이 있는데 두 다리가 모두 온전하다. 추이(推移)하여 견괘(蹇卦)가 되면 감(坎)의 질병이 다리에 생겨서 한쪽 다리가 상하니 이것을 ‘견(蹇)’이라고 이른다. 견괘(蹇卦)는 또 관괘(觀卦)로부터 왔다. 옛날의 손(巽)의 허벅지 다리가 지금 감(坎)의 질병을 얻었으니 또한 그것이 ‘견(蹇)’이 되는 까닭이다. 견괘(蹇卦)의 반역괘(反易卦)는 해괘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건(蹇)		용안 (鋪案)	(解卦)인데 해괘(解卦)는 또한 소과괘(小過卦)로부터 왔다. 한쪽 다리가 병에 걸리니 이 경우와 더불어 다르다. 그러므로 귀매괘(歸妹卦)가 해괘(解卦)로 변화는 경우에 ‘절름말이가 걸을 수 있다[跛能履]고 했으니 이것은 또한 분명한 증거이다. 공자는 「단전(象傳)」에 ‘건(蹇)’을 ‘난(難)’으로 풀이하였으니 여섯 개의 효에 나타나는 의미이다[蹇者跛也 一足偏廢也 卦自小過來 小過之時 卦有兩震 兩足俱完 移之爲蹇 則坎疾在足 一足偏廢 此之謂蹇也 又自觀來 昔之巽股 今受坎疾 亦其所以爲蹇也 蹇之反解也 解亦自小過來 一足受病 與此不殊 故歸妹之解 曰跛能履 斯又明驗也 孔子之傳 訓之爲難者 六爻之義也].
	안(案)		『유자신론(劉子新論)』에서는 “건괘(蹇卦)에서 ‘이서남(利西南)’이라는 것은 흙의 유순함에 나아간 것이다. ‘불리동북(不利東北)’라는 것은 산의 험준함에 오른 것이다”라고 했다[劉子新論云 蹇利西南 就土順也 不利東北 登山峻也].
	단(象)	우안 (又案)	정자는 “괘(卦)가 본래 곤(坤)인데 오효(五爻)가 감으로 말미암아 감(坎)을 이룬다”고 했다. 내가 생각하건대 괘(卦)에 세 개의 음(陰) 이상이 있으면 모두 곤(坤)의 흙이다. 소과괘(小過卦)는 본래 이괘(頤卦)와 교역(交易)의 관계이고 이괘(頤卦)는 임괘(臨卦)로부터 왔으니 건(蹇)의 네 개의 음(陰)은 곤(坤)의 흙이 아니겠는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程子曰卦本坤 由五往而成坎 鋪謂卦有三陰以上 皆坤土也 小過本以頤交 頤從臨觀來 蹇之四陰 非坤土乎 无可疑也].
	초육 (初六)	학가 (學稼)	이효(二爻)는 명예로움이 많은 자리이다. 초효(初爻)는 그러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소상전」에 ‘마땅히 기다려야 한다’고 한 것이다[二則多譽 初非其時 故宜待也].
	구삼 (九三)	우번 (虞翻)	관괘(觀卦)의 상효(上爻)가 삼효(三爻)로 되돌아가 건괘(蹇卦)가 되었다[觀上反三爲蹇].
해(解)		서괘 (序卦)	‘해(解)’는 느슨함이다[解者緩也].
		잡괘 (雜卦)	‘해(解)’는 느슨함이다[解緩也].
	정자 (程子)		‘해(解)’라는 것은 흩어짐이다.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는 것은 조화롭게 펼쳐지며, 느슨하게 흩어지기 때문에 천하의 근심과 어려움이 풀려서 흩어지는 것이다[解者散也 雷雨之作 和暢而緩散 故天下患難解散也].
	주자 (朱子)		‘해(解)’는 어려움이 흩어지는 것이다. 험난함의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다[解 難之散也 出於險之外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해(解)		용안 (鏞案)	해괘(解卦)는 임괘(臨卦)로부터 왔다. 두 개의 음은 처음에 응결되어 있기 때문에 『좌전(左傳)』의 “흐르는 하천을 막아서 못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괘(臨卦)는 응결되고 막혀서 흐르지 못하는 괘(卦)이다. 추이(推移)하여 해괘(解卦)가 되면 감(坎)의 하천이 흘러서 통하니 이것을 일러 ‘해(解)’라고 한다. 또 해괘(解卦)는 소과괘(小過卦)로부터 왔다. 소과괘(小過卦)의 때에는 감(坎)의 죄가 가운데 모이고 두 개의 손(巽)의 밧줄로 위아래가 묶여 있다. 추이(推移)하여 해괘(解卦)가 되면 손(巽)의 밧줄은 모두 풀리고 감(坎)의 허물도 나누어지고 풀리니 이것을 일러 ‘해(解)’라고 한다. 험난함이 앞에 있으면 건괘(蹇卦)가 되고 험난함이 이미 지나갔으면 해괘(解卦)가 되니 이것은 흑독함에서 풀린 것이다. 우레가 아래에 있으면 준괘(屯卦)가 되고 비가 이미 내리면 해괘(解卦)가 된다. 이것은 겹질을 벗은 것이다. 이 괘(卦)가 해(解)라고 이름 붙여진 까닭이다[卦自臨來 二陰初凝 川壅爲澤 臨者凝滯不流之卦也 移之爲解 則坎川流通 無所凝滯 此之謂解也 又自小過來小過之時 坎罪中聚 兩巽之繩 上下牢結 移之爲解 則巽繩都解 坎眚分釋 此之謂解也 險在前則爲蹇 險已過則爲解 此解嚴也 雷在下則爲屯 雨已降則爲解 此解甲也 此卦之所以名解也].
	단(象)	학포 (學圃)	험난함이 앞에 있으면 그치고 험난함이 이미 지나갔으면 움직이기 때문에 “해(解)는 험난함 가운데 움직인다”고 한 것이다[險在前則止 險已過則動 故曰解險以動].
	초육 (初六)	학가 (學稼)	이것은 이른바 ‘존질(存質)’이다[此所謂存質也].
		정자 (程子)	음유(陰柔)가 하괘(下卦)의 위에 있으니 그 차지할 자리가 아니다. 소인이 군자의 자리에 거처하니 그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벌(伐)’이라는 것은 그 죄(罪)를 성토하는 것이다[陰柔居下之上 非其據也 小人居君子之位 非其所堪也 伐者聲其罪也].
	육삼 (六三)	안(案)	소과괘(小過卦)의 때에는 진(震)의 군자가 이 대감(大坎)의 수레를 타고 있는데 간(艮)의 소인이 본받아서 수레를 타니 이러한 해로움을 만난다. 항괘(恒卦)는 대감(大坎)이 되니 그 상(象)이 도적이다. 해괘(解卦)의 상괘(上卦)의 진(震)이 거만함[慢]이 되는 것은 강(剛)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본래 곤(坤)은 비단을 방 밖에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도적을 맞게 된다. 또한 간(艮)의 젊은 남자가 이(離)의 가운데 여자와 사귀기 때문에 음란함이 된다[小過之時 震之君子 乘此大坎之車 艮之小人 效而乘之 逢此害也 恒爲大坎 其象盜也 上震爲慢者 剛在下也 本以坤帛 藏於室外 所以盜也 亦以艮男 交於離女 所以淫也].
	상육 (上六)	주자 (朱子)	‘괄(括)’은 묶고 막힘을 의미한다[括結礙也].
		안(案)	해괘(解卦)의 괘체(卦體) 안에 본래 활과 화살이 있으니 “몸에 무기를 지닌다”고 한 것이다. ‘괄(括)’은 단속함이요 잡아당김이다[卦體之內 本有弓矢 藏器於身也 括 檢也挈也].

괘명 (卦名)	괘호 (卦文)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손(損)		잡괘 (雜卦)	손(損)과 익(益)은 성쇠(盛衰)의 시작이다[損益 盛衰之始也].
		대전 (大傳)	손(損)은 덕(德)을 닦는 것이다. 덜어내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뒤에는 쉽다. 덜어냄으로써 해로움을 멀리하는 것이다[損 德之修也 損 先難而後易 損以遠害].
		정자 (程子)	삼효(三爻)는 본래 강(剛)이었는데 유(柔)가 되었고, 상효(上爻)는 본래 유(柔)였는데 강(剛)이 되었다[三本剛而成柔 上本柔而成剛].
		주자 (朱子)	아래에 있는 양(陽)을 덜어서 위에 있는 음(陰)에 보탠 것이다[損下之陽 益上之陰].
		용안 (繡案)	손괘(損卦)는 태괘(泰卦)로부터 왔다. 태괘(泰卦)의 하괘(下卦)는 지나치게 가득 차있고 상괘(上卦)는 지나치게 비어 있기 때문에 아래를 덜어서 위에 보태는 것이다. 건(乾)은 군주가 되고 곤(坤)은 그 백성이니 손괘(損卦)와 익괘(益卦) 둘은 모두 군주의 부(富)를 덜어서 그 백성에게 더하는 것이다. 그런데 괘체(卦體)에서 내괘(內卦)를 나로 삼으니 내 것을 덜어서 남에게 더하면 ‘손(損)’이라고 하며, 남의 것을 덜어서 내 것에 더하면 ‘익(益)’이라고 한다. 순상(荀爽) 등의 구가(九家) 및 촉재(蜀才)와 우번(虞翻)은 모두 “손괘(損卦)는 태괘(泰卦)로부터 왔다”고 했다[卦自泰來 下卦太實 上卦太虛 故損下而益上也 乾則爲君 坤其民也 損益二卦 皆損君之富 以益其民 然卦體以內爲我 損我益彼 則謂之損 損彼益我 則謂之益也 荀爽九家易及蜀才虞翻 皆云卦自泰來].
		우안 (又案)	익괘(益卦)의 진(震)의 봄은 만물이 성대하게 되는 시작이다. 손(損)의 태(兌)의 가을은 만물이 쇠퇴하게 되는 시작이다. 채씨(蔡氏)와 동씨(董氏) 둘은 손(損)으로써 성대함으로 여겼는데 잘못된 것이다[益之震春 物盛之始也 損之兌秋 物衰之始也 蔡董二家 以損爲盛 非矣].
단(象)		안(案)	예(禮)에 태뢰(太牢)에는 여덟 그릇의 궤(簋)나 여섯 그릇의 궤(簋)를 쓰고, 소뢰(少牢)에는 네 그릇의 궤(簋)를 쓰고, 특생(特牲)에는 두 그릇의 궤(簋)를 쓴다. 또 주(周)나라에서는 여덟 그릇의 궤(簋)를 쓰고, 은(殷)나라에서는 여섯 그릇의 호(瑚)를 쓰며, 하(夏)나라에서는 네 그릇의 연(璣)을 쓰고, 유우씨(有虞氏)는 두 그릇의 대(敦)를 썼다. ‘이궤(二簋)’라는 것은 가장일 따름이다. 제사에 사용하는 물건으로는 가장 간소한 것이니 더는 것을 때에 맞게 하려는 뜻이다[禮太牢八簋六瑚 少牢四簋 特牲二簋 又周八簋 殷六瑚 夏四璣 虞兩敦 二簋者 黍稷而已 其物最薄 損之時義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손(損)	단(象)	우안 (又案)	『공자가어(孔子家語)』에 “공자께서 『주역(周易)』을 읽다가 손괘(損卦)와 익괘(益卦)에 이르자 탄식하면서 ‘스스로 손해를 보려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스스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라고 했다.” 또 『회남자(淮南子)』에도 이 말이 있다[家語孔子讀易 至損益 喟然而歎曰自損者益 自益者缺 又淮南子亦有斯言].
	초구 (初九)	안(案)	옛날에 ‘일을 완료함’으로써 ‘일을 끝마침’으로 삼았는데 ‘준(竣)’이라는 것은 물러선다는 것이다. 공을 이루면 떠나고 다시 머물지 않는 것이다. ‘퇴(退)’ 자는 ‘간(艮)’ 자리부터 나온 것이니 또한 이러한 뜻이다. 『국어(國語)』에서 관중이 “유사(有司)는 일을 마치고 나서야 물러나는 것이다”고 했다. 우번본(虞翻本)에서는 ‘이사(已事)’를 ‘사사(祀事)’로 썼다. 순상본(荀爽本)에는 ‘천(湔)’을 ‘전(顛)’으로 썼다[古以事爲竣事 竣者退立也 成功則去 不復留也 退字從艮 亦此義也 國語管仲曰 有司已於事而竣 虞翻本已事作祀事 荀爽本湔作顛].
	육삼 (六三)	안(案)	천지(天地)는 둘로써 인운(綱綱)하고 남녀도 둘로써 구정(構精)한다. 둘이면 서로 믿지만 셋이면 서로 의심하는 법이니, 부부(夫婦) 사이나 친구끼리 교제하는 때에도 모두 이러한 뜻이 있다[天地以兩而綱綱 男女以兩而構精 兩則相孚 三則相疑 凡夫婦之際 朋友之交 皆有此義].
	육사 (六四)	안(案)	손괘(損卦)는 태괘(泰卦)로부터 왔다. 태괘(泰卦)의 건(乾)의 말[馬] 또한 겹고 누린 병에 걸렸다. 추이(推移)하여 손괘(損卦)가 되면 그 질병을 덜어내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이와 같다[卦自泰來 泰之乾馬 亦有玄黃之疾 移之爲損 則損其疾也 故其變如此].
		안(案)	손괘(損卦)와 익괘(益卦) 두 괘에서 ‘익지(益之)’, ‘혹익지(或益之)’, ‘막익지(莫益之)’, ‘불손익지(弗損益之)’라고 한 것은 모두 괘획(卦畫)의 왕래를 논한 것이지, 지적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십봉지귀(十朋之龜)’를 어떤 사람에게 더한다는 것은 아니다[損益二卦 凡言益之或益之莫益之弗損益之 皆論卦畫之往來 非有所指 非以十朋之龜 益之於某人也].
	육오 (六五)	안(案)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 “원귀(元龜)는 길이가 1척2촌으로 대패(大貝) 10봉(朋)이 된다. 공귀(公龜)는 길이가 9촌으로 장패(壯貝) 10봉(朋)이 된다. 후귀(侯龜)는 길이 7촌이고 요패(小貝) 10봉(朋)이 된다. 자귀(子龜)는 길이가 5촌으로 소패(小貝) 10봉(朋)이 된다”고 했다. 두 개의 패(貝)가 봉(朋)이 되는데 네 가지 등급의 패(貝)는 모두 두 매(枚)를 서로 묶어서 ‘일봉(一朋)’이라고 한다. 이 『역경』에서 말한 ‘십봉지귀(十朋之龜)’는 곧 『서경』, 『주서(周書)』 「대고(大誥)」에 말하는 ‘큰 보배인 거북[大寶龜]’이다. 『시경』에서는 “나에게 많은 재물[百朋]을 하사하였다”라고 했다[班固食貨志 元龜長尺二寸 爲大貝十朋 公龜九寸 爲壯貝十朋 侯龜七寸 爲小貝十朋 子龜五寸 爲小貝十朋 凡兩貝爲朋 四等之貝 皆以二枚相次 謂之一朋 此經之云十朋之龜 卽周書所謂大寶龜也 詩云錫我百朋].

괘명 (卦名)	괘효 (卦文)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익(益)	상구 (上九)	학포 (學圃)	상구(上九)가 이미 변하여 간(艮)의 오두막이 마침내 훼손되니 집이 없는 상(象)이다[上之既變 艮廬遂毀 无家之象也].
	대전 (大傳)		‘익(益)’은 덕(德)이 넉넉한 것이다. 익(益)은 크게 넉넉하면서도 배롭지 않는다. 더함으로써 이로우를 흥기시킨다[益 德之裕也 益長裕而不設 益以興利].
	주자 (朱子)		위의 양(陽)을 덜어서 아래의 음(陰)에 더한다[損上之陽 益下之陰].
	용안 (鏞案)		익괘(益卦)는 비괘(否卦)로부터 왔다. 아래는 텅 비어 있고 위는 꽉 차 있다. 덜어서 보태니 왕도(王道)로써 하는 정치이다. 손괘(損卦)와 익괘(益卦) 둘은 모두 군주의 것을 덜어서 백성에게 더한다. 다만 손괘(損卦)는 자신의 것을 덜어내는 자가 내괘(內卦)에 있는데, 이 익괘(益卦)는 도움을 받는 자가 내괘(內卦)에 있기 때문에 이름을 세운 것이 다르다. 촉재(蜀才)와 간보(干寶)와 우번(虞翻)과 순상(荀爽)의 『역(易)』은 모두 ‘익괘(益卦)가 비괘(否卦)로부터 왔다’고 했다[卦自否來 下虛上實 損以益之 王政也 損益二卦 皆損君以益民 特以損卦損己者在內 此卦受益者在內 故立名不同也 蜀才于寶虞翻荀爽之易 皆云卦自否來].
	초구 (初九)	안(案)	『설괘전』에서 진(震)은 “발을 움직이는 것이 된다”고 했다. 발을 가는 사람도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象)이 있다[說卦傳曰震爲作足 耕者舉趾 有是象也].
	안(案)		『주례(周禮)』 「추관(秋官)」에 ‘대행인(大行人)’과 ‘소행인(小行人)’이라는 직책이 있다. 춘추시대에 중형씨(中行氏)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관직으로써 성씨를 삼았다. ‘중행(中行)’이란 사신(使臣)이다[周禮秋官 有大行人小行人 春秋之時 有中行氏古者以官爲氏 中行者使臣也].
	육삼 (六三)	우안 (又案)	『주례(周禮)』 「추관(秋官)」의 전서(典瑞)의 직책에 “진규(珍圭)는 수령을 징계하고 심한 기근을 구휼하는 것이다”고 했다. 정현(鄭玄)은 “왕이 사람을 시켜 제후를 징계할 때 심한 기근이 든 나라이면 규(圭)를 주어 보내 왕명(王命)을 전했다으니 지금 사자(使者)가 부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예기(禮記)』에 “대부(大夫)가 ‘규(圭)’를 가지고 사신(使臣)으로 가는 것은 거듭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고 했는데 고공용규(告公用圭)는 대개 이러한 예(禮)를 가리킨다[周禮典瑞之職 珍圭以徵守 以恤凶荒 鄭玄云王使人徵諸侯 凶荒之國則授圭以往致王命 如今使者持節 禮記曰大夫執圭以使 所以申信也 告公用圭 蓋指此禮也].
	우안 (又案)		『주례(周禮)』 「지관(地官)」 「사도(司徒)」에 ‘대비하여 쌓아 두었던 것’으로 심한 기근을 대처하였으며, 「춘관(春官)」 「종백(宗伯)」에 황례(荒禮)로서 흉년과 전염병을 애도했다. 위를 덜어서 아래에 더하는 것은 기근을 구휼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역사(易詞)도 이와 같다[地官 以委積待凶荒 宗伯以荒禮哀凶札 損上益下 莫大乎振荒 故易詞如此].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익(益)	육삼 (六三)	우안 (又案)	순구가는 진(震)을 ‘옥(玉)’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 효(爻)는 정괘(井卦) 상구(上九)와 더불어 모두 건(乾)이 추이(推移)한 것이기 때문에 ‘구(圭)’라고 하고 ‘옥(玉)’이라고 한다[荀九家以震爲玉 然此爻與鼎上九 皆乾移 故曰圭玉].
	상구 (上九)	안(案)	구본(舊本)에서는 ‘편사(偏辭)’의 ‘편(偏)’ 자를 대부분 ‘편(偏)’으로 썼다. 우번(虞翻)은 “‘편(偏)’을 두루 펼친다”고 했다. 이것은 형태가 비슷하여 생긴 착오이다[舊本偏辭之偏 多作偏 虞翻曰偏 周布也 此形誤也].
		안(案)	비괘(否卦)의 때에는 건(乾)과 곤(坤)이 그 짝이 된다. 추이(推移)하여 익괘(益卦)가 되면 진(震)과 손(巽)이 그 짝이 된다. 이것이 이른바 “사꺾 사람을 정하고 나서 구한다”는 것이다. 임괘(臨卦)의 때에는 태(兌)와 곤(坤)이 그 짝이 될 수 없으며, 추이하여 준괘(屯卦)가 되어도 진(震)과 감(坎)은 그 짝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이른바 ‘사꺾 상태도 없는데 구한다’는 것이다 [否之時 乾坤其配也 移之爲益 震巽其配也 此所謂定其交而求也 臨之時 兌坤非其配 移之爲屯 震坎非其配 此所謂无交而求也].
괘(夫)		서괘 (序卦)	‘괘(夫)’는 척결함이다[夫者決也].
		잡괘 (雜卦)	‘괘(夫)’는 척결함을 뜻하는데, 강(剛)이 유(柔)를 척결하니 군자(君子)의 도(道)는 자라나게 되고, 소인(小人)의 도(道)는 근심스럽다[夫決也 剛決柔也 君子道長 小人道憂也].
		용안 (鋪案)	‘괘(夫)’는 터진 것이다. ‘부(缶)’자와 ‘괘(夫)’자가 합쳐져 ‘결(缺)’자가 되었고, ‘수(水)’와 ‘괘(夫)’자가 합쳐져 ‘결(決)’자가 되었고, ‘옥(玉)’자와 ‘괘(夫)’자가 합쳐져서 결(玦)이 된다. ‘의(衣)’자와 ‘괘(夫)’자가 합쳐서 ‘매(袂)’자가 되었고, ‘심(心)’과 ‘괘(夫)’자가 합쳐져 ‘쾌(快)’자가 되었으니 그 뜻이 한결같다. 괘괘(夫卦)는 충만함을 형상하고 있지만 오직 태(兌)의 입이 미미하게 이지러져 있으니 이것이 괘(卦)가 괘(夫)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이다. 그 뜻으로 본다면 곤(坤)의 음(陰)이 충만하여 안팎이 없는데, 복괘(復卦) 이래로 양(陽)이 안에서 충실하고 음이 밖으로 물러나 마치 단단한 쇠나 돌을 던져 웅덩이를 메움으로써 연못의 물이 저절로 넘쳐흐르는 듯한 모습이니 이것이 이른바 ‘강이 음을 척결한다’라는 것이다. 넘치는 것이 그치지 않으면 연못은 반드시 말라 버릴 것이니 ‘마를 건(乾)’자는 건괘(乾卦)에서 가차(假借)된 것이다 [夫者缺也 缶夫爲缺 水夫爲決 玉夫爲玦 衣夫爲袂 心夫爲快 其義一也 卦形充滿 而唯兌口微缺 此其所以得名也 以其義則坤陰充滿 無內無外 自復以來 陽自內實 陰自外退 有若投金石以實洿澤 而澤水自決 此之謂剛決柔也 決之不已 澤必乾涸 乾涸之乾 所以假借於乾卦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괘(夫)	구이 (九二)	안(案)	괘괘(夫卦)는 성대하고 충만함의 괘이다. 군자의 도리는 경계하여 충만함을 보존하기 때문에 괘사(卦詞)와 효사(爻詞)에 모두 이러한 뜻이 있다[夫者盛滿之卦也 君子之義 警戒以持滿 故卦詞爻詞 皆有此意].
		우안 (又案)	이(離)의 태양이 태(兌)의 바다 아래로 들어가니 또한 ‘한밤중’의 상이다. 그런데 우씨(虞氏)의 『역(易)』에서 감(坎)을 ‘야(夜)’로 보았다. 순상본(荀爽本)에는 ‘척(惕)’을 ‘석(錫)’으로 썼고, 정현(鄭玄)은 ‘막(莫)’ 자를 글자 그대로 읽는데, 모두 잘못된 것이다[離日入於兌海之底 亦莫夜之象也 然虞氏易以坎爲夜 荀爽本惕作錫 鄭玄讀莫如字 皆謬矣].
	구삼 (九三)	안(案)	정현본(鄭玄本)에는 ‘구(頤)’를 ‘구(顙)’로 썼고 ‘광대뼈’로 풀이했다. 정자는 ‘광대뼈’라고 했다[鄭玄本 頤作顙 夾面也 程子曰顙骨].
		학포 (學圃)	괘괘(夫卦)의 하나의 음(陰)이 홀로 가서 밖에 있는데 구삼(九三)이 이미 변하여 마침내 감(坎)의 비를 만나니 또 그 상(象)이다[夫之一陰 獨行在外 三之既變 遂逢坎雨 亦其象也].
	구사 (九四)	안(案)	정현본(鄭玄本)에는 ‘차(次)’를 ‘자(趲)’로 썼고 ‘갑자기’로 풀이했다. 마용(馬融)은 “물러나고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고 했다. ‘자(且)’ 자는 어떤 곳에 ‘저(趲)’ 자로 되어 있는데 이정조(李鼎祚)의 주(註)에는 ‘머뭇거림[趲趲]’으로 되어 있다[鄭玄本 次作趲 倉卒也 馬融曰却行不前也 且一作趲 李鼎祚註作趲趲].
	구오 (九五)	안(案)	우씨(虞氏) 『역(易)』에서는 ‘현륙(覓陸)’을 ‘완목(莞睦)’이라고 읽었다. 촉재본(蜀才本)에서는 ‘육(陸)’을 ‘목(睦)’으로 썼다. 순상(荀爽)은 “육(陸)은 또한 풀의 이름이다”고 했다. 『설문(說文)』에서는 “현(覓)은 산양이다”고 했다. 총괄해 보건대 ‘현(覓)’이라는 풀은 잎이 적고 뿌리가 깊으니 이 괘(卦)와 같은 상(象)이 있다[虞氏易 覓陸讀作莞睦 蜀才本 陸作睦 荀爽曰陸亦草名 說文曰覓山羊 總之覓之爲草 葉小而根深 有此卦之象].
구(姤)		서괘 (序卦)	‘구(姤)’는 만남이다[姤者遇也].
		잡괘 (雜卦)	‘구(姤)’는 만남인데 유(柔)가 강(剛)을 만나는 것이다[姤遇也 柔遇剛也].
		용안 (鑄案)	‘구(姤)’라는 것은 ‘왕비[女后]’이다. 진(震)은 임금이 되고 손(巽)은 왕비이다. 복괘(復卦)에서 하나의 양(陽)이 처음 생겨나서 곤(坤)의 나라에 주인이 있고, 구괘(姤卦)에서 하나의 음(陰)이 처음 생겨나서 건(乾)의 군주에게 왕비가 있으니 구괘(姤卦)는 복괘(復卦)의 짝이다. 그러므로 옛날로부터 훈고(訓詁)에 ‘우(遇)’라고 하고, ‘후(逅)’라고 하고, ‘구(溝)’라고 하고 ‘구(媾)’라고 한 것은 이유 없이 말한 것은 아니다. 또 ‘만남’이라는 것은 이미 이별했다가 다시 상봉하는 것이다. 복괘(復卦) 이래로 음(陰)이 양(陽)에게 밀림을 당하여 감히 되돌아보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구(姤)		용안 (繡案)	지 못하는데 지금은 그 음(陰)이 안으로 되돌아가 여러 양(陽)과 더불어 서로 마주 하고 있으니 이것을 일러 ‘음(陰)이 양(陽)을 만난다’고 했다. 정현본(鄭玄本)에서는 ‘구(姤)’를 ‘구(遘)’로 썼고, 석경(石經)에도 ‘구(遘)’로 썼으며, 명(明)나라 진왕본(晉王本)에서는 ‘구(媾)’로 썼다. ‘해후(邂逅)’의 ‘후(逅)’자도 또한 ‘구(姤)’자의 전주(轉注)이다[姤者 女后也 震爲人主 巽者女后也 復一陽之始生 而坤國有主 姤一陰之始生 而乾君有后 姤者復之配也 故古來詁訓 日遇日逅日遘日媾 非無謂也 又遇者 既別而重逢也 自復以來 陰被陽驅 不敢回顧 今反在內 與陽相對 此之謂柔遇剛也 鄭玄本 姤作遘 石經亦作遘 明晉王本作媾 邂逅之逅 亦姤字之轉注也].
		안(案)	‘니(柅)’는 구본(舊本)에서는 혹 ‘이(柅)’로, 혹 ‘니(柅)’로, 혹 ‘니(柅)’로, 혹 ‘니(尼)’로 쓰기도 했다. 혹은 “‘금니(金柅)’는 나무 이름이다”라고 했는데 오직 한(漢)나라 유학자들만이 ‘니(柅)’자를 ‘수레를 멈추는 나무’로 풀이했다. 건(乾)은 큰 수레가 되지만, ‘니(柅)’는 수레를 멈추는 것이지 수레를 묶는 것이 아니다. 그 묶는 것은 건(乾)의 말[馬]이다[柅舊本或作栢 或作綱 或作拏 或作尼 或日金柅木名 唯漢儒訓柅爲止車木 乾爲大車 然柅以止車 非以繫車 其所繫者乾馬也].
	초육 (初六)	우안 (又案)	대축괘(大畜卦) 육오(六五)에서 또한 손(巽)을 ‘거세한 돼지[豮豕]’로 여겼다. 감위(坎位)는 가운데가 강(剛)이라서 곧 돼지의 상(象)이 있는데, 양(陽) 하나가 적기 때문에 ‘거세한 돼지[豮豕]’라고 하고 양(陽) 하나가 많기 때문에 ‘여윈 돼지[羸豕]’라고 한다. 소축괘(小畜卦)와 대축괘(大畜卦)에는 본래 육축(六畜)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두 괘의 효사에 말과 소와 양과 돼지 등을 많이 사용하니 이 구괘(姤卦)의 ‘거세한 돼지[豮豕]’ 또한 분명히 소축괘(小畜卦)의 물상이다[大畜六五 亦以巽爲豮豕 蓋以坎位中剛 便有豕象 以少一陽 故謂之豮豕 以多一陽 故謂之羸豕也 小畜大畜 本有六畜之義 故兩卦爻詞 多用馬牛羊豕之等 此卦羸豕 明亦小畜之物也].
	구이 (九二)	안(案)	순상본(荀爽本)에서는 ‘포(包)’를 ‘포(胞)’로 썼는데 잘못이다[荀爽本包作胞 謬矣].
	구사 (九四)	안(案)	『서경』 「홍범(洪範)」에 “가만히 있으면 길하고, 일을 하면 흉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말하는 ‘일을 일으키면 흉하다’도 또한 이러한 뜻이다[洪範云用靜吉 用作凶 此云起凶 亦斯義也].
	구오 (九五)	학포 (學圃)	곤괘(坤卦)와 구괘(姤卦)는 ‘왕비[女后]’의 괘이다. 그러므로 모두 ‘밝은 덕을 품음’이라고 한 것이다[坤姤女后之卦也 故皆云含章].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채(萃)		서괘 (序卦)	‘채(萃)’라는 것은 모임이다[萃者聚也].
		용안 (鋪案)	<p>‘채(萃)’자와 ‘취(聚)’자는 해성(諧聲)이다. 채괘(萃卦)는 관괘(觀卦)와 소과괘(小過卦)로부터 왔다. 두 번의 추이(推移)를 겪으면서 네 개의 획이 서로 왕래했지만 두 개의 양이 서로 모여서 끝내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채괘(萃卦)라고 이름 붙여진 까닭이다. 소과괘(小過卦)의 때에는 곤(坤)의 음(陰)들 사이에 두 개의 강(剛)이 가로막고 있어 서로 모이지 못했지만 삼효(三爻)가 이미 상승하면서 아래로 이내 모이니 또한 그것이 채괘(萃卦)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이다. 또 채(萃)라는 것은 도적이 모여드는 것이다. 풀(艸) 가운데 무리가 있으면 그 글자가 ‘채(萃)’가 된다. 그러므로 『상서(尙書)』 「주서(周書)」에 “못의 덩불 속에 모였다”는 것도 한 ‘도적이 모인 것’을 ‘채(萃)’로 삼은 것이다. 소과괘(小過卦)는 큰 도적이다. 역새풀과 대나무가 위아래로 울창한데 험난하고 해롭게 서로 모여서 곤(坤)의 백성을 어지럽히니 이것이 이른바 ‘추포(萑蒲)의 도적떼’이다. 추이(推移)하여 채괘(萃卦)가 되면 국경 밖으로 도적을 몰아내지만 여전히 다시 거세게 서로 모여 옛날과 마찬가지로 도적질을 하니 이것이 ‘채(萃)’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상전(大象傳)」에 “병기를 수리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대비한다”고 한 것도 아마도 이러한 의도일 것이다. 채괘(萃卦) 여섯 효(爻)에서 모두 무구(无咎)를 말한 것은 천하의 악(惡)에서 큰 도적보다 심한 경우는 없지만 진실로 그것을 고칠 수 있다면 또한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인이 선(善)으로 옮기는 길을 넓게 열어 놓아 그 스스로 새롭게 되도록 한 까닭이다[萃聚諧聲也 卦自觀小過來再經移易 四相往來 而二陽相聚 終不相離 此萃之所以名也 小過之時 坤陰之間 兩剛梗之 不得相聚 三之既升 下乃成聚 亦其所以名萃也 又萃者盜之萃也 草中有萃 其文爲萃 故周書曰萃淵藪 亦以盜聚爲萃也 小過者大盜也 萑葦蒼莩 上下藪蔚 而險毒相聚 以亂坤民 此所謂萑蒲之盜也 移之爲萃 驅之出境 而猶復悍然相聚 依然爲盜 非萃而何 大象傳曰除戎器 戒不虞 蓋此義也 此卦六爻 皆言无咎 蓋以天下之惡 未有甚於大盜 而苟能改之 亦无咎之人也 此聖人所以廣開遷善之路 使其自新也].</p>
	단(象)	안(案)	<p>‘왕가유묘(王假有廟)’라는 것은 신(神)과 인간이 모여서 합하는 것이다. ‘이견대인(利見大人)’이라는 것은 군주와 신하가 모여서 합하는 것이다. 괘덕(卦德)은 본래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양호괘(兩互卦)의 점(占) 또한 이와 같다[王假有廟 神人之萃合也 利見大人 君臣之萃合也 卦德本萃 故兩互之占如此].</p>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채(萃)	단(象)	우안 (又案)	‘채형(萃亨)’의 형(亨) 자는 구본(舊本)에서 혹은 이 글자가 없기도 하는데, 오직 왕필본(王弼本)과 양숙본(王肅本)에만은 이 글자가 있다. 정자는 “잘못 들어간 글이다”고 했다[萃亨之亨 舊本或無此字 唯王弼王肅本有之 程子曰義文].
		학가 (學稼)	양호괘(兩互卦)가 아니라면 “임금이 종묘에 이르렀으니 대인(大人)을 만나 보는 것이 이롭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없다[不以兩互 則王假有廟 利見大人 不可解].
		학포 (學圃)	양호괘(兩互卦)가 아니라면 채괘(萃卦)에 건(乾)의 아버지가 없어서 효도할 데가 없을 것이며, 또한 건(乾)의 손(巽)이 없어서 천명(天命)도 없을 것이다[不以兩互 則卦無乾父 無所致孝也 亦無乾巽 未有天命也].
	초육 (初六)	안(案)	부씨본(傅氏本)에서는 ‘악(掇)’을 ‘악(渥)’으로 썼는데 발음으로 인한 착오다[傅氏本掇作渥 聲誤也].
		학포 (學圃)	‘호(號)’자와 ‘소(笑)’자는 협운(叶韻)이다[號笑叶韻].
	육이 (六二)	안(案)	‘악(禴)’이라는 것은 ‘악(祔: 봄에 행하는 제사)’인데 참작하여 간략하게 함을 의미한다. 구본(舊本)에서는 악(禴)을 혹 ‘악(禴)’으로 썼는데 ‘악(禴)’은 ‘악(淪)’과 통하니 나물을 삶아 제사하는 것이다. 『예기』 「왕제(王制)」에서는 봄제사를 ‘악(祔)’이라고 했고, 『주례』에서는 “여름제사를 올린다”고 했는데 봄과 여름에는 때에 맞는 제물이 드물고 적으니 힘써 간략함을 따르는 것이다. 왕필은 ‘악(禴)’을 봄제사로 여겼다[禴者祔也 酌損之義也 舊本禴或作禴 禴與淪通 淪菜之祭也 王制春祭曰祔 周禮以禴夏享 蓋以春夏時物鮮薄 務從約畧也 王弼以禴爲春祭].
	육삼 (六三)	학가 (學稼)	양보한 것은 양보한 것인데 양보하고서 위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인색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로 가면서 양보하였다”라고 한 것이다[讓則讓矣 讓而之上 所以吝也 故曰上巽].
	구사 (九四)	정자 (程子)	위로는 군주에 가깝고 아래로는 백성에 가깝다. 채괘(萃卦)는 지금 비괘(比卦)가 되니 바로 이 뜻이 있다[上比君 下比民 卦今爲比 正有此義].
	상육 (上六)	안(案)	‘재(齎)’는 ‘자(資)’와 통하기 때문에 자서(字書)에서는 그것을 ‘탄식하는 소리’라고 했다. 우변본(虞翻本)에는 ‘재자체이(齎資涕洟)’로 썼는데 우변은 ‘재(齎)’자를 ‘자본과 재물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부의(賻儀)’라고 여겼으니 그 뜻은 옳지 않다[齎與資通 故字書謂之歎聲 虞氏本作齎資涕洟 仲翔云齎持資財 以作賻 其義非也].
	승(升)	잡괘 (雜卦)	채괘(萃卦)는 모이는 것이고 승괘(升卦)는 내려오지 않는 것이다[萃聚而升不來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승(升)		오징 (吳澄)	취괘(萃卦)는 관괘(觀卦)의 사효(四爻)가 상효(上爻)로 간 것을 주로 했으며, 승괘(升卦)는 임괘(臨卦)의 삼효(三爻)가 초효(初爻)로 온 것을 주로 한 것이다. 상승한 것은 ‘왕(往)’이 되고 하강한 것은 ‘내(來)’가 되니 『잡괘전(雜卦傳)』의 ‘불래(不來)’는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다[萃以觀之 四往為主 升以臨之 三來初為主 升上爲往 降下爲來 不來 謂升而不降也].
		용안 (鏞案)	승괘(升卦)는 임괘(臨卦)로부터 왔다. 두 개의 양(陽)이 이미 자라났으니 이치상 마땅히 태괘(泰卦)가 될 것이다. 과연 하나의 강(剛)이 또 와서 삼위(三位)에 거처하니 “이것이 진실로 세 개의 양이 태괘(泰卦)가 된 것인가?”라고 하면서 그 뒤를 돌아보니 이것은 이내 초효(初爻)의 하나의 강(剛)이 상승한 것이다. 이것을 일러 ‘승(升)’이라고 한다. 또 승괘(升卦)는 소과괘(小過卦)로부터 왔다. 대감(大坎)의 당(堂)에서 곤(坤)의 신하들이 화합하지 못하고 절반은 당(堂) 위에 있고, 절반은 당(堂) 아래에 있다. 추이(推移)하여 승괘(升卦)가 되면 하나의 음(陰)이 갑자기 상승하여 곤(坤)의 무리들이 모두 오르니 이것을 ‘승(升)’이라고 말한다. 또 당(堂)에 오르는 예(禮)는 사양한 이후에 이내 오르는 것이다. 승괘(升卦)에는 손(巽)의 사양함 때문에 ‘승(升)’이 되는 까닭이다. 모여서 합하는 괘가 하나가 아닌데 홀로 ‘취(萃)’라고 이름 붙인 것은 연못과 땅이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이다. 상승하는 괘는 하나가 아닌데 홀로 ‘승(升)’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땅 가운데에서 나무가 자라남에 그 형세가 반드시 상승하기 때문이다[卦自臨來 二陽既長 理應爲泰 果然一剛又來 以居三位 是真三陽之爲泰乎 反顧其後 斯乃初一剛之升者也 此之謂升也 又自小過來 大坎之堂 坤臣未合 半在堂上 半在堂下 移之爲升 則一陰遽升 坤朋畢躋 此之謂升也 又凡升堂之禮 讓而後乃升也 卦以巽讓 所由升也 萃合之卦非一 而獨以名萃者 澤與地密附也 升上之卦非一 而獨以名升者 地中生木 其勢必升也].
		단(象)	『춘추전(春秋傳)』에 진(晉)나라 제후가 초(楚)나라를 정벌하려고 점을 쳐서 그 괘로 복괘(復卦)를 만났는데 “남쪽 나라가 오그라든다[南國蹙]”라고 했으니 또한 하괘(下卦)를 남쪽으로 여긴 것이다[春秋傳晉侯伐楚之筮 其卦遇復日南國蹙 亦以下卦爲南也].
	구이 (九二)	학가 (學稼)	취괘(萃卦)가 곤괘(坤卦)로 변하는 것과 승괘(升卦)가 겸괘(謙卦)로 변하는 것은 모두 소를 잡는 괘이다. 점괘(漸卦)와 귀매괘(歸妹卦)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별도로 손(巽)과 진(震)의 상(象)을 취하기 때문에 특별히 아래에 ‘내(乃)’ 자를 쓴 것이다[萃之困 升之謙 皆殺牛之卦 漸歸妹亦然 而別取巽震之象 故特下乃字].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승(升)	육오 (六五)	안(案)	장형(張衡)의 「사현부(思玄賦)」에는 건(乾)을 ‘계단[階]’으로 여겼는데, 옛날에 계단은 반드시 세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乾)의 세 개의 양(陽)이 계단이 된다. 진(震)은 동쪽이 되고 태(兌)는 서쪽이 되는데 손(巽)으로써 사양하고 이(離)로써 예의(禮義)을 이루니 ‘승계(升階)’의 상(象)이다[張衡思玄賦以乾爲階 古者階必三等 故乾三陽爲階也 震東兌西 巽以讓之離以成禮 升階之象也].
	상육 (上六)	안(案)	군자의 도리는 백성과 더불어 이로우를 다투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문중(臧文仲)에게 인(仁)하지 못한 세 가지가 있는데 여섯 관문을 폐지한 것이 그 첫 번째이고, 첩(妾)에게 배를 짜게 한 것이 두 번째였다. 맹헌자(孟獻子)는 “수레를 끄는 말을 기르는 사람은 답이나 돼지를 살피지 않는다”고 했는데 모두 이러한 의미이다. 소인(小人)이 어두운 곳으로 올라가서 여전히 이익을 증식시키고 한다면 해로움이 곧(坤)의 백성에 미치기 때문에 경계함이 이와 같다[君子之義 不與民而爭利也 故臧文仲有不仁者三 廢六關其一也 妾織布其二也 孟獻子曰 畜馬乘 不察於鷄豚 皆此義也 小人冥升 猶欲殖利 則害及坤民 故戒之如此].
		우안 (又案)	『예기(禮記)』 「월령(月令)」의 ‘소식(消息)’에 대한 주(注)에 “양이 생겨나는 것은 ‘식(息)’이 되고 음(陰)이 사라지는 것은 ‘소(消)’가 된다”고 했다. ‘소(消)’라는 것은 쇠하여 없어지는 것이고, 식(息)은 낳아서 자라는 것이다[月令消息注曰陽生爲息 陰死爲消 消者衰滅也 息者生長也].
		우안 (又案)	하늘이 어둡게 되는 것은 위에서 덮기 때문이다. 간(艮)이 어둡게 되는 것은 위에 있는 강(剛) 때문이다. ‘명(冥)’은 ‘먹(暮)’이니 사물에 먹(暮)이 있으면 안이 어둡기 때문에 ‘혼(昏)’ 또한 ‘명(冥)’이라고 한다[天之爲冥 以上覆也 艮之爲冥 以上剛也 冥者暮也 物有暮則內暗 故昏亦謂之冥].
곤(困)		잡괘 (雜卦)	정괘(井卦)는 통하는 것이고 곤괘(困卦)는 서로 만나는 것이다[井通而困相遇也].
		대전 (大傳)	곤괘(困卦)는 덕(德)의 분별이다. 곤괘(困卦)는 곤궁하면서도 형통하는 것이다. 곤궁함으로써 원한을 적게 한다[困德之辨也 困窮而通 困以寡怨].
		정자 (程子)	‘곤(困)’이라는 것은 고달프고 궁핍하다는 의미이다. 물이 연못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연못이 말라서 물이 없는 상(象)이다[困者德乏之義 水在澤下 枯涸无水之象].
		용안 (鑄案)	곤괘(困卦)는 비괘(否卦)로부터 왔다. 막혀 있을 때는 세 개의 양이 밖으로 물러날 적에 비록 그 길을 잃을지라도 또한 호연(浩然)히 떠나간다. 추이하여 곤괘(困卦)가 되면 한 사람을 잡고서 내려오니 두 음(陰)이 그 한 사람을 둘러싸고 하나의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곤(困)	단(象)	용안 (鋪案)	음(陰)을 보내 오르게 하니 두 사람도 둘러싸인다. 이에 건(乾)의 세 개의 강(剛)이 모두 여러 소인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니 이것은 천하의 곤궁(困窮)한 경지이다. ‘곤(困)’이라는 글자는 ‘목(木)’이 ‘구(口)’ 속에 있는 것을 형상한다. 건(乾)의 세 개의 강(剛)은 본래 모두 진(震)의 ‘목(木)’이다. 음(陰)으로 나무를 둘러싸니 그괘상(卦象)이 ‘곤(困)’이 아니겠는가? 음(陰)의 성격은 본래 모가 난 것이니 또한 ‘구(口)’의 상(象)이다. 정괘(井卦)는 시운(時運)이 본래 태평하니 이러한 상이 없는 것이다[卦自否來 否塞之時 三陽外遯 雖失其路 亦浩然而逝矣 移之爲困 則執一人而下之 兩陰圍之 遣一陰而升之 兩人被圍 於是乾之三剛 都被羣小人圍擯 此天下之困境也 困之爲字 象木在口中 乾之三剛 本皆震木也 以陰圍木 其象非困乎 陰德本方 亦口象也 井則時運本泰 無此象也].
		안(案)	우번은 “곤괘(困卦)는 비괘(否卦)로부터 왔다”고 했다. 순상은 “이 괘는 비괘(否卦)에 근본 하는데 양이 하강하여 험난함이 되고 음이 상승하여 기쁨이 된다”고 했다. 주이(推移)함에 사승(師承)이 있는 것이 이와 같다. 호병문(胡炳文)은 “강(剛)과 유(柔)가 건(乾)과 곤(困)에서 이효(二爻)와 상효(上爻)로 왕래하였다”고 했다[虞翻云卦自否來 苟爽云此本否卦 陽降爲險 陰升爲悅 推移之有師承如此 胡炳文云剛柔自乾坤往來於二與上].
		주자 (朱子)	감(坎)의 강건함이 태(兌)의 유약함에 가려진 것이다[坎剛爲兌柔所揜].
	초육 (初六)	안(案)	자서(字書)에 나무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근(根)’이라고 하고, 땅 위로 나오는 것을 ‘주(株)’하고 한다. 손(巽)의 나무는 땅속으로 들어가 있으니 그 상(象)이 ‘근(根)’이 되고, 진(震)의 나무는 땅 위로 나와 있으니 그 상이 ‘주(株)’가 된다. 육덕명본(陸德明本)에서는 ‘목(木)’을 ‘출(尢)’로 썼는데 형태의 유사성으로 인한 잘못이다[字書木入地曰根 出地曰株 巽木入地 其象爲根 震木出地 其象株也 陸德明本木作尢形誤也].
		학가 (學稼)	육육(初六)의 ‘목(木)’자와 ‘곡(谷)’자와 ‘적(覿)’은 협운(叶韻)이다. 구이(九二)에서 ‘식(食)’과 ‘사(祀)’도 협운(叶韻)이다[六木谷覿叶韻 二與食祀叶韻].
	구이 (九二)	안(案)	정현본(鄭玄本)에서는 ‘불(紱)’을 ‘불(韜)’로 썼는데, ‘불(茆)’과 통하니 폐슬(蔽膝)을 의미한다. 『좌전(左傳)』에서 말했던 ‘불(覿)과 정(珽)’이다. 『설문(說文)』에서는 “천자는 적불(赤紱)을 차고, 제후는 주불(朱紱) 착용한다”고 했다. 총괄해 보건대 조 회나 제사할 때 예복으로 치마 아래에 장식하는 것이다[鄭玄本紱作韜與茆通 卽蔽膝也 左傳所云覿珽也 說文曰天子赤紱 諸侯朱紱 總之爲朝祭之服 裳下之飾也].
		우안 (又案)	곤괘(困卦)는 옥사(獄事)에 대해 점을 치면 흉(凶)하지만, 벼슬에 대해 점을 치면 길(吉)하다. 괘(卦)의 이름이 곤(困)이 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불길(不吉)’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困之爲卦 以之筮獄則凶 以之筮仕則吉 不可以卦名爲困 而繫云不吉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곤(困)		안(案)	우중상(虞仲翔)은 “육삼(六三)이 간(艮)의 산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돌에 곤경을 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예괘(豫卦) 육이(六二)에도 또한 감(坎)을 돌[石]로 보았다. 「설괘전(說卦傳)」에서는 “간(艮)은 소석(小石)이 된다”고 했다[虞仲翔曰三在艮山下 故困于石 然豫六二 亦以坎爲石 說卦云艮爲小石].
		우안(又案)	순구가는 감(坎)을 ‘질려(蒺藜)’로 보았는데 옳지 않다. 감(坎)은 본래 풀이 아니다[荀九家坎爲蒺藜 非矣 坎本非草].
		학가(學稼)	태(兌)는 날카로움이 되니 돌조각과 질려(蒺藜)의 가시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까닭이다[兌則爲銳 石角蒺藜之所以傷人也].
	육삼(六三)	안(案)	곤괘(困卦)의 육삼(六三)은 음(陰)으로써 양(陽)의 자리에 거처하였는데 본래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변상(變象)이 이와 같다. 효사(爻詞)의 물상(物象)이 비록 변체(變體)를 적용한 것이지만 만약 그 소이연(所以然)의 이치로 본다면 또한 반드시 본괘(本卦)의 덕(德)과 본위(本位)의 당부(當否)에 근본 하니 이것이 또한 『주역(周易)』을 읽는 대요(大要)이다[困之六三 以陰居陽 本非其位 故其變象如此也 爻詞物象 雖用變體 若其所以然之理 則又必由本卦之德 及本位之當否 此又讀易之大要也].
		춘추전(春秋傳)	최처(崔杼)가 당강(棠姜)을 처로 맞이하고자 그것에 대해 점을 쳤는데 곤괘(困卦)가 대과괘(大過卦)로 변해 가는 것을 얻었다. 진문자(陳文子)는 “지아비는 바람을 따르고 바람은 아내를 떨어뜨리니 장가가서는 안 된다. ‘곤우석(困于石)’이라고 한 것은 나아가더라도 건너지 못하는 것이고, ‘거우질려(據于蒺藜)’라는 것은 믿는 것에 다치는 것이다. ‘입우기궁불견처흥(入于其宮不見妻凶)’이라는 것은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고 했다[崔杼欲娶棠姜 筮之遇困之大過 陳文子曰夫從風 風隕妻 不可娶也 困于石 往不濟也 據于蒺藜 所恃傷也 入于其宮 不見妻凶 無所歸也].
	구사(九四)	안(案)	음식과 수레와 의복은 백성들이 크게 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효(爻)에서 괴로움과 험난함을 만나는 것은 항상 이러한 일로 말미암은 것이니 성인(聖人)이 경계한 것이다. 『한서(漢書)』 「여복지(輿服志)」에 “진(震)나라 제도에 금근거(金根車)라는 것이 있는데, 상나라의 수레[商輅]에 근거한 것이다”고 했다[飲食車服 生民之所大欲也 故諸爻之遇困阨 常由此事 聖人之戒也 漢書輿服志云秦制有金根車 本商輅也].
		우안(又案)	곤괘(困卦)의 구사(九四)는 본래 마땅한 자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변하여 감(坎)이 되어도 또한 부당위(不當位)의 상(象)을 취한 것이니 이는 역례(易例)이다. 구본(舊本)에는 ‘서(徐)’를 ‘도(荼)’로 썼고, 혹은 ‘여(余)’로 쓰기도 했다[困之九四 本不當位 故變而爲坎 亦取不當位之象 此易例也 舊本徐作荼 或作余].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곤(困)	구사 (九四)	학포 (學圃)	이효(二爻)는 명에로움이 많고, 삼효(三爻)는 흉(凶)함이 많고, 사효(四爻)는 두려움이 많고, 오효(五爻)는 공적이 많다는 것을 이 괘에서 증명할 수 있다[二多譽 三多凶 四多懼 五多功 於此卦可驗也].
	구오 (九五)	안(案)	구본(舊本)에서는 ‘의월(剝月)’을 ‘얼울(皃疏)’로 썼고, 경방본(京房本)에는 ‘월(月)’을 ‘회(劓)’로 썼다. 정현(鄭玄)은 “‘의월(剝月)’은 마땅히 ‘예울(倪仍)’로 써야 한다”고 했다[舊本剝月作皃疏 京房本則作劓 鄭玄云剝月當作倪仍].
		학가 (學稼)	태(兌)의 ‘탈(脫)’과 이(離)의 ‘복(福)’은 모두 곤괘(困卦)의 본래 상(象)이다. 그러므로 그 점(占)이 이와 같은 것이다[兌脫 離福 皆困之本象也 故其占如此].
	상육 (上六)	안(案)	얼울(皃疏)은 높고 험난한 모습인데, 혹 ‘예얼(剝皃)’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예울(剝杻)’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얼울(皃疏)’이라고 한다. 허신(許慎)은 『설문(說文)』에서 “‘얼울(皃疏)’은 불안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총괄해 보건대 간(艮)의 산이 험난한 형상임을 말한다[皃疏高險貌 或作剝杻 或作剝杻 通作皃疏 許慎云皃兀危不安也 總之謂艮山皃疏之象].
정(井)	대전 (大傳)		정괘(井卦)는 덕(德)의 자리다. 우물은 그 자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옮겨 간다. 우물로써 바를을 변별한다[大傳曰 井德之地也 井居其所而遷 井以辨義].
	정자 (程子)		손(巽)은 들어감이다. 나무로 만든 그릇이 물 아래로 들어가니 우물을 걷는 형상이다[巽入也 木器入於水下 汲井之象也].
	용안 (鑄案)		정괘(井卦)는 태괘(泰卦)로부터 왔다. 곤(坤)의 읍(邑) 안에 건(乾)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니 우물이 없을 수 없다. 추이(推移)하여 정괘(井卦)가 되면 감(坎)의 자리에 거둬 감(坎)의 샘이 자리하여 그 자리를 잃지 않았고 물이 곧 옮겨 가는 것이니 이것이 「계사전(繫辭傳)」에서 이른바 “우물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옮겨 간다”고 한 것이다. 우물의 덕(德)은 그 자리를 바꾸지는 않지만 그 은택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군자가 경(敬)에 거처하여 의로움을 옮기고 그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백성에게 은택을 입게 하는 것은 이러한 덕(德)으로부터 취함이 있다. 또 정괘(井卦)는 환괘(渙卦)로부터 교역(交易)된 것이다. 환괘(渙卦)의 때에는 감(坎)의 샘이 위아래에 있고 손(巽)의 두레박이 위에 있다. 교역(交易)하여 정괘(井卦)가 되면 두레박의 줄은 물 밑으로 들어가서 감(坎)의 물을 위로 올리니 우물의 상이다. 그러나 또한 상괘(上卦)인 감(坎)의 물은 위로 길어 낸 것에 불과한 것이고, 대감(大坎)이 아래에 있으니 이것이 ‘정천(井泉)’이다[卦自泰來 坤邑之內 乾人聚居 不可以無井也 移之爲井 則於坎之位 仍位坎泉 不失其居 而水則有遷 茲所謂井居其所而遷也 井之爲德 不改其居 而膏澤四散 君子居敬 以徒義 不失其身 而民被其澤 有取於是也 又井者渙之交也 渙之時 坎泉在下 巽繻在上 交之爲井 則桔槔之繻 入於水底 而坎水上出 井之象也 然且上坎之水 不過是汲出者也 大坎在下 是井泉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정(井)	단(象)	안(案)	여러 학자들은 곧바로 ‘병(甁)’을 ‘부(缶)’로 풀이했는데 옳지 않다. ‘병(甁)’이라는 물건은 아래가 크고 위가 작아서 입이 있는 것이 마치 태(兌)와 같다. 태(兌)라는 것은 물병이다. 소자첨(蘇子瞻)은 ‘홀(汔)’ 자를 ‘조(燥)’ 자로 풀이했는데 또한 근거하는 것이 있다. 우번(虞翻)은 “정괘(井卦)는 태괘(泰卦)로부터 왔다. 건(乾)이 곤(坤)의 오효(五爻)를 단절하기 때문에 ‘개읍(改邑)’이고, 초효(初爻)는 옛날 우물이 되기 때문에 ‘불개정(不改井)’이다”고 했다. 순상(荀爽)은 “음(陰)이 와서 초효(初爻)에 거처하니 ‘무상(无喪)’이 되고, 중(中)을 잃으니 ‘무득(无得)’이 된다”고 했다. 또 “양(陽)이 가서 오효(五爻)에 있으니 우물이 되고, 음(陰)이 와서 아래에 있으니 또한 우물이 된다”고 했다. 촉재본(蜀才本)에서는 ‘리(羸)’를 ‘루(累)’로 썼다 [諸家直訓甁爲缶 非也 甁之爲物 下大上小 有口如兌 兌者甁也 蘇子瞻訓汔爲燥 亦有所本矣 虞翻曰卦自泰來 乾折坤五故改邑 初爲舊井故不改井 荀爽曰陰來居初爲无喪 失中爲无得 又云陽往居五爲井 陰來在下亦爲井 蜀才本羸作累].
		초육(初六)	『상의(象義)』에 “북방에서는 도르래의 굴대를 일러 ‘금(禽)’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다. 닭이나 오리 등의 무리들은 모두 우물가에 본래 있는 것이다[象義云 北方謂轆轤之軸曰禽 此曲解也 雞鶩鳬鴨之醜 皆井畔之所本有也].
	구이(九二)	안(案)	순상본(荀爽本)에서는 ‘석(射)’을 ‘야(耶)’로 썼다. 『자하전(子夏傳)』의 주에서는 ‘부(鮒)’ 자를 새우나 두꺼비로 풀이하였다. 정형(程迥)은 달팽이로 여겼으며, 서기(徐幾)는 개구리의 부류로 여겼다. 지금 우물 바닥에는 실제로 붕어가 있고, 우물이 허물어지면 물고기가 드러나는데 어쩌서 이렇게 억지를 쓰는지 모르겠다. 좌태충(左太冲)이 『오도부(吳都賦)』에서 “비록 다시 황하에서 잉어를 낚을지라도 계곡의 우물에서 붕어를 쏘아서 잡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했다. 육전(陸佃)은 “‘부(鮒)’는 작은 고기인데 서로 나아가니 ‘즉(鰓)’이라고 이름하고, 서로 붙어 다니니 ‘부(鮒)’라고 이름한다”고 했다[荀爽本射作耶 子夏傳注鮒訓作蝦蟆 程迥以爲蝸牛 徐幾以爲蛙屬 今井底實有鮒魚 井毀則魚露 不知何故猜疑如是也 左太冲吳都賦云雖復臨河而釣鯉 無異射鮒於井谷 陸佃曰鮒小魚 相即而行名鰓 相附而行名鮒].
		정전(程傳)	‘석(射)’ 자는 쏘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만(溪蠻) 지방의 풍속에 지금도 물고기를 활로 쏘아서 잡는데 중국(中國) 고대의 풍속도 또한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역사(易詞)가 이와 같다[射注也 然溪蠻之俗 至今射魚 中國古俗亦然 故易詞如此].

괘명 (卦名)	괘호 (卦文)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정(井)	구삼 (九三)	안(案)	‘설(澮)’은 우물을 다스리는 것이니 풀이나 나뭇가지의 오물을 씻어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손(巽)의 나무가 지금 소멸하니 바로 이러한 글자의 상(象)과 부합한다. 『사기(史記)』 「굴원전(屈原傳)」에서 “정설불식(井澮不食)”이라는 것을 인용한 것도 ‘설(澮)’을 오물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본 것이다[澮治井也 謂澮去其艸木之汚穢也 巽木今滅 正合字象 屈原傳井澮不食 去汙之意].
	상육 (上六)	안(案)	‘정수물막(井收勿幕)’은 백성을 기른다는 의미이다. ‘유부원길(有孚元吉)’은 제사에 대해 집친 것이다. 그 적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물막(勿幕)’으로써 길(吉)함을 삼고, 여기에서는 손괘(巽卦)의 강(剛)으로써 길(吉)을 삼았으니 하나에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 순상본(荀爽本)에서는 ‘수(收)’를 ‘추(飮)’로 썼고, 간보본(干寶本)에는 ‘물(勿)’을 ‘망(罔)’으로 썼다[井收勿幕 養民之義也 有孚元吉 祭祀之占也 其用不同 故彼以勿幕爲吉 此以巽剛爲吉 不可拘也 荀爽本收作飮 干寶本勿作罔].
혁(革)		잡괘 (雜卦)	‘혁(革)’은 옛날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革去故也].
		용안 (鋪案)	‘혁(革)’이라는 것은 불로써 쇠를 녹이는 것이다. 혁괘(革卦)는 둔괘(遯卦)와 대장괘(大壯卦)로부터 왔다. 건(乾)의 강한 쇠의 타고난 재질이 변하지 않았는데 추이(推移)하여 혁괘(革卦)가 되면 이(離)의 불로써 쇠를 불리고 태(兌)의 물로써 식힘에 창과 무기는 예리하게 자르고 용기(戎器)도 날카롭다. 이것이 『상서(尙書)』 「홍범(洪範)」에 이른바 “쇠는 따르고 바뀐다[金從革]”라는 것이니 옛날 것을 없앤다는 의미이다. 또 가족에서 털을 제거하는 것을 ‘혁(革)’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짐승이 털을 가는 것도 ‘혁(革)’이라고 하는데, 『요전(堯傳)」에서 이른바 ‘희혁(希革)’이라고 했다. 둔괘(遯卦)와 대장괘(大壯卦)의 때에는 손(巽)의 머리털이나 진(震)의 체모(體毛)에 별다른 무늬가 없는데 추이(推移)하여 혁괘(革卦)가 되면 여름에는 털이 빠지고 가을에는 털이 생겨나서 머리털과 체모가 크게 변함에 이(離)의 무늬가 뚜렷하게 드러나니 변혁(變革)의 의미이다. 성인이 이것을 본받아 변혁을 상황에 맞게 진행하니 명령을 내리는데 백성들이 믿지 않음이 없고 말을 하는 데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음이 없으니 혁괘(革卦)의 시의(時義)이다[革者 以火而鎔金也 卦自遯大壯來 乾之剛金 天質未變 移之爲革 則鍛之以離火 淬之以兌水 戈兵利斷 戎器銛銳 此洪範所謂金從革也 去故之義也 又皮去毛曰革 故獸退毛謂之革 堯典所謂希革也 遯大壯之時 巽髮震毛 質而无文 移之爲革 則夏而希革 秋而毛飮 髮毛大變 離文炳然 變革之義也 聖人以之 變革隨宜 命而民莫不信 言而民莫不悅 革之時義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혁(革)	육이 (六二)	안(案)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고친 이후에야 오래갈 수 있다. 은(殷)나라 사람들은 자주 도움을 옮겨서 그 나라가 이내 밋났고, 주(周)나라 사람들은 편안함에 빠져서 쇠약해지고 떨쳐 일어나지 못했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송(宋)나라 이래로 세상에 나라를 도모하는 자들은 왕안석(王安石)과 여혜경(呂惠卿)을 경계하여 구법(舊法)을 답습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삼고, 감히 변법(變法)을 말하지 않으니 슬프도다 그 잘못이여 [治國之法 革而後可久也 殷人屢遷 厥國乃光 周人狃安 衰微不振 此其驗也 自宋以來 懲於王呂 世之謀國者 因循爲能 不敢言變法 噫 其誤矣!]
	구삼 (九三)	안(案)	『주례(周禮)』에서는 “말의 뱃대끈과 가슴걸이 끈은 세 번 둘러 감아 만든다”고 했고, 『의례(儀禮)』 「사상례(士喪禮)」에서는 “말의 가슴걸이 끈은 세 번 둘러 감아 만든다”고 했는데 하해(何楷)가 이것을 끌어다가 풀이하였으니 그 뜻은 옳지 않다 [周禮樊纓三就 士喪禮馬纓三就 何楷引之爲詁 其義非也].
	구사 (九四)	안(案)	단사(彖辭)에서 ‘회망(悔亡)’이라고 한 것은 바뀐 것이 모두 합당하기 때문이다. 구사(九四)에서 ‘회망(悔亡)’이라고 한 것은 여섯 자리가 모두 합당하기 때문이다. 변혁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면 후회가 없는 것이다 [彖之悔亡 以所革皆當也 此之悔亡 以六位皆當也 變革當理 則無後悔也].
	구오 (九五)	학포 (學圃)	‘병연(炳然)’이라는 것은 남방과 이(離)의 불의 문양이다 [炳然者南方離火之文].
	상육 (上六)	안(案)  학가 (學稼)	동일하게 건(乾)의 물상이지만 구오(九五)는 대인(大人)이 되고 상육(上六)은 군자(君子)가 되는 것은 둔괘(遯卦)라는 한 괘 안에 군자와 소인이 함께 있기 때문이니 소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군자(君子)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同是乾物 而五爲大人 六爲君子者 遯一卦之內 君子小人皆有 故對小人而名之曰君子也].  둔괘(遯卦)라는 것은 겹쳐서 대손(大巽)이 되는데 숨어 있다가 변하는 것이니 표범이 된다 [遯者兼巽也 隱而變者爲豹].
정(鼎)		서괘 (序卦)	사물이 바뀌는 것은 술만 같은 것이 없다 [革物者莫若鼎].
		잡괘 (雜卦)	‘정(鼎)’은 새로운 것을 취하는 것이다 [鼎取新也].
		정자 (程子)	아래에 세워진 것은 발이 되고 가운데 가득 채워진 것은 배이니 물건을 받아 가운데 두고 있는 형상이다. 위로 마주 보고 있는 것은 술귀이고 그 위에 가로로 뻗어 있는 것은 ‘현(鉉)’이니 ‘정(鼎)’의 형상이다 [下植爲足 中實爲腹 受物在中之象 對峙于上者耳也 橫亘乎上者鉉也 鼎之象也].

괘명 (卦名)	괘효 (卦文)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정(鼎)		용안 (鋪案)	‘정(鼎)’이란 것은 희생을 담아 올리는 데 사용하는 그릇이다. 옛날에 가마솥으로 희생을 삶아서 정(鼎)에 담아 올리고, 주격으로 그것을 꺼내 희생을 접시에 차려 올렸다. 정(鼎)에 있는 남은 국물은 다섯 가지 맛을 갖추어 나물국을 끓여서 국 그릇에 담아 올렸다. 제사나 연회는 그 예(禮)가 동일하다. 태뢰(太牢)에는 아홉 가지 정(鼎)이나 일곱 가지 정(鼎)을 차리고, 소뢰(少牢)에는 다섯 가지 정(鼎)을 차리고, 특생(特牲)은 세 가지 정(鼎)을 차리고, 특돈(特豚)은 한 가지 정(鼎)을 차리는데 정(鼎)이 중심이 되어 변(邊)과 두(豆)와 궤(簋)와 형(鉶)은 모두 정(鼎)을 보고서 차이를 두었으니 정(鼎)의 중요함이 이와 같다. 정괘(鼎卦)는 대장괘(大壯卦)로부터 왔다. 진(震)의 상제가 위에 있고, 건(乾)의 임금이 제사를 주관하니 음식을 장만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괘(鼎卦)는 둔괘(遁卦)로부터 왔다. 건(乾)의 손님이 위에 있고 손(巽)의 주인이 대접하니 음식을 장만하지 않을 수 없다. 추이(推移)하여 정괘(鼎卦)가 되면 손(巽)으로 깨끗하게 하고 이(離)로 예(禮)를 갖추니 이것은 그릇을 담는 뜻이다. 괘(卦)의 모양이 정(鼎)과 비슷하니 이것이 괘(卦)에 이름이 붙여진 뜻이다. ‘정(鼎)’ 자는 눈이 허벅다리 위에 있는 것을 형상하니 이(離)의 눈과 손(巽)의 허벅다리가 결합한 것이다[鼎者 升牲之器也 古者烹牲以饗 升之于鼎 出之以匕 薦之用俎 餘滂在鼎 調和五味 以爲芼羹 薦之用鉶 祭祀燕饗 其禮同也 大牢九鼎七鼎 小牢五鼎 牲牲三鼎 特豚一鼎 鼎爲之網 邊豆簋鉶 皆視鼎而爲差 鼎之重如是也 卦自大壯來 震帝在上 乾王主祭 不可無烹飪也 又自遯來 乾賓在上 巽主致養 不可無烹飪也 移之爲鼎 則巽以潔之 離以成禮 此制器之義也 卦形似鼎 此名卦之義也 鼎字象目在股上 卽離巽之合也].
	초육 (初六)	안(案)	‘정(鼎)’이라는 것은 기물(器物)이다. 기물이 있으면 이에 기물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이와 같은 것이다[鼎者器也 有器 斯有主器者 故其占如是].
	구이 (九二)	안(案)	이것은 정괘(鼎卦)가 여괘(旅卦)로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괘(旅卦)가 정괘(鼎卦)로 변한 경우 또한 ‘끝내 허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此爲鼎之旅 故旅之鼎 亦云終无尤].
		학가 (學稼)	『의례(儀禮)』 「향사례(鄉射禮)」에서 “손님을 ‘우(耦)’라고 하는데 ‘우(耦)’라는 것은 ‘구(仇)’이다”고 했다[鄉射禮謂賓爲耦 耦者仇也].
	구삼 (九三)	안(案)	『한서(漢書)』 「오행지(五行志)」에 “정(鼎)은 귀[耳]를 잡고 옮긴다”고 했다. 귀가 바뀌게 되면 옮기는 것이 오색해진단다. 『사기(史記)』에 “평 한 마리가 정(鼎) 위에 올라가서 올었다”고 했으니 평 또한 정(鼎)에 담아 올린 것이다[漢書五行志云鼎以耳行 耳革則行塞 史記云有雉升鼎而雉 雉亦鼎實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정(鼎)	구사 (九四)	안(案)	경방(京房)은 『역전(易傳)』에서 “광대뼈에 형벌하는 것을 ‘옥(鬪)’이다”고 했고, 정사농(鄭司農)의 『주례(周禮)』 주(注)에서는 “옥주(屋誅)는 삼족(三族)을 멸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정현본(鄭玄本)에서는 ‘악(渥)’을 ‘옥(鬪)’으로 썼다. 왕필은 “‘형악(形渥)’은 젖은 모양이다”고 했는데, 주자(朱子)는 “만약 ‘형악(形渥)’이라고 한다면 다만 사람이 몸이 축축하게 젖은 것이 될 뿐이다”고 했으며, 정자(程子)는 “‘형악(形渥)’은 얼굴이 붉어지고 땀을 흘리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총괄해 보건대 공자(孔子)가 “미치지 않음이 드물다”고 했는데 ‘미친다[及]’라는 것은 형벌의 화(禍)에 미치는 것이다. 매색(梅賾)이 위조한 『상서(尙書)』에 “신하가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그에게 묵형(墨刑)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기형옥(其刑鬪)’이라고 말한 것은 이 글의 예(例)이다. ‘옥(鬪)’이라는 것은 집안에서 주살(誅殺)하는 것으로 대신(大臣)을 공격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처형하지 않는 것이다. 호병문(胡炳文)은 “초육(初六)은 정(鼎)에 아직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다리를 뒤집어서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데, 구사(九四)는 이미 정(鼎)에 음식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다리가 부러져서 음식물이 쏟아지는 것이다”고 했다[京房易傳云刑在頤爲鬪 鄭司農周禮注云屋誅 謂夷三族 鄭玄本渥作鬪 王弼云形渥 濡濡之形也 朱子曰若作形渥 却只是澆濕渾身 程子曰形渥 謂赭汗也 總之孔子曰鮮不及矣 及者及於刑禍也 梅書曰臣下不匡 其刑墨 此云其刑鬪 卽此文例也 鬪者屋誅也 敬大臣 故不殺於市 胡炳文云初未有鼎實 故顛趾而出否 四已有鼎實 故折足而覆餗].
	육오 (六五)	안(案)	『설문(說文)』에서는 “‘현(鉉)’은 정(鼎)을 드는 도구이다”고 했고, 『주례(周禮)』에서는 “그것을 정(鼎)이라고 한다”고 했다. ‘정(鼎)’과 ‘경(局)’은 같은 것으로 나무로 정(鼎)에 끼우는 것이다. 속세에서는 ‘현(鉉)’을 ‘정(鼎)’의 귀라고 여기는데 매우 잘못된 것이다[說文云鉉舉鼎具 周禮謂之鼎 鼎與局同 以木貫鼎也 俗以鉉爲鼎耳 大誤也].
	상구 (上九)	안(案)  우안 (又案)  학가 (學稼)	대유괘(大有卦) 상구(上九)에서도 또한 “길(吉)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했는데 어진 사람을 숭상하기 때문이다. 지금 건(乾)의 큰 덕(德)이 지극히 낮은 곳에서 일어나 지극히 높은 곳에 올랐으니 ‘대길(大吉)’이 아니겠는가[大有上九 亦云吉无不利 以尙賢也 今乾之大德 起於至卑 升於至高 不大吉乎!]  순구가의 『역(易)』에 “우정(牛鼎)은 1곡(斛)을 담고, 양정(羊鼎)은 5두(斗)를 담고 시정(豕鼎)은 3두(斗)를 담는데 천자(天子)는 황금으로 꾸미고, 제후(諸侯)는 백금으로 꾸미고, 대부(大夫)는 구리로 꾸미고, 사(士)는 쇠로 꾸민다”고 했다[九家易云牛鼎受一斛 羊鼎五斗 豕鼎三斗 天子飾黃金 諸侯白金 大夫銅 士鐵].  옥(玉)이라는 물건은 ‘현(鉉: 들막대)’을 만들기에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쇠로 된 ‘현(鉉)’을 옥(玉)으로 장식하는 것이다[玉之爲物 不中爲鉉 必金鉉而玉飾矣].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진(震)		서괘 (序卦)	‘진(震)’은 움직임이다[震者動也].
		잡괘 (雜卦)	‘진(震)’은 일어남이다[震起也].
		용안 (鋪案)	건(乾)이 화(火)를 둘러싸서 부딪쳐 일어나게 하면 ‘뇌(雷)’가 되고 화(火)가 건(乾)을 뒤흔들어서 풀어 흩어지면 ‘풍(風)’이 된다. 이것이 이른바 ‘우레로써 움직이고 바람으로써 흩어진다’는 것이다. 그 변화의 근본 원인이 비록 같을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우레는 강(剛)하고 바람은 유(柔)하니 이것이 이른바 강(剛)이 안에 있는 것이 진(震)이 된다는 말이다. 중괘(中卦)로써 본다면 진괘(震卦)는 임괘(臨卦)로부터 왔다. 임괘(臨卦)는 대진(大震)이다. 또 진괘(震卦)는 소과괘(小過卦)로부터 왔다. 소과괘(小過卦)는 두 개의 진(震)인데, 추이(推移)하여 진괘(震卦)가 되면 또 두 개의 진(震)을 이루니 이것이 단사(彖詞)의 뜻이다[乾包火而激發之則爲雷 火撓乾而披散之則爲風 此所謂雷以動之 風以散之也 其所以變化之本雖同 其性則雷剛而風柔 此所謂剛在內者爲震也 以重卦則卦自臨來 臨者大震也 又自小過來 小過者兩震也 移之爲震 又成兩震 此彖詞之義也].
	단(象)	안(案)	『귀장역(歸藏易)』에는 ‘진(震)’을 ‘리(𩇛)’로 썼다. 순상본(荀爽本)에서는 ‘혁혁(𩇛𩇛)’을 ‘색색(𩇛𩇛)’으로 썼다. 『설문(說文)』에서는 “‘혁혁(𩇛𩇛)’과 ‘색색(𩇛𩇛)’을 모두 두려워하는 모양을 의미한다”고 했으니 그 뜻이 통한다[歸藏易震作𩇛 荀爽本𩇛𩇛作𩇛𩇛 說文云𩇛𩇛𩇛𩇛 皆云恐懼貌 其義通也].
		우안 (又案)	오유청(吳幼淸)은 ‘진래(震來)’와 ‘소언(笑言)’의 두 구절을 초구(初九)의 효사(爻詞)에서 뒤섞여 나온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 뜻은 잘못된 것이다[吳幼淸以震來笑言二句爲初九爻詞之錯出者 其義謬矣].
		우안 (又案)	‘비(匕)’라는 것은 주걱이니 정(鼎)에 있는 고기를 얹어서 조(俎)에 올리는 것이다. 『시경(詩經)』에서 “대추나무 주걱이 구부정하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창(鬯)’이라는 것은 술이다. 검은 기장으로 빚어서 울금(鬱金)으로 조화시킨 것을 ‘창(鬯)’이라고 한다[匕者匕也 所以載鼎肉而升之於俎也 詩云有捄棘匕 是也 鬯者酒也 秬黍以釀之 鬱金以和之曰鬯].
	육이 (六二)	주자 (朱子)	“‘억(億)’은 상세하지 않다”고 했다. 오유청(吳幼淸)은 “‘억(億)’은 노름에 쓰이는 돈이다”고 했는데 옳지 않다. 반드시 진괘(震卦) 육오(六五)와 더불어 참고해서 보아야 한다[億 未詳 吳幼淸曰億賭錢 非也 須與六五參看].
		안(案)	『의례(儀禮)』 「사상례(士喪禮)」의 주(注)에 “패(貝)는 수산물이다”고 했다. 『한서(漢書)』 「식화지」에서 ‘대패(大貝)’와 ‘장패(壯貝)’와 ‘요패(玄貝)’와 ‘소패(小貝)’는 모두 두 매(枚)씩을 하나의 단위로 삼았다[士喪禮注 貝水物也 漢志大貝壯貝玄貝小貝 皆以二枚相次].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진(震)	육삼 (六三)	안(案)	마융(馬融)과 육적(陸績)이 모두 ‘소소(蘇蘇)’를 두려워하는 모양으로 여겼는데 옳지 않다[馬融陸績 俱以蘇蘇爲恐懼貌 非矣].
	구사 (九四)	안(案)	순상본(荀爽本)에서는 ‘수(遂)’를 ‘대(隊)’로 썼는데 ‘대(隊)’와 ‘추(墜)’는 통한다[荀爽本遂作隊 隊與墜通].
	육오 (六五)	안(案)	『춘추전』에 따르면 제사(祭祀)에는 모두 ‘유사(有事)’라고 한다[春秋傳凡祭祀 皆云有事].
간(艮)		서괘 (序卦)	‘간(艮)’은 그침이다[艮者止也].
		잡괘 (雜卦)	‘간(艮)’은 그침이다[艮止也].
	용안 (鑄案)		혼돈(混沌)이 이미 열려, 곤(坤)이 감(坎)을 에워싸니 연못이 되고 감(坎)이 곤(坤)을 깎아내리니 산이 된다. 산(山)은 땅에서 솟은 것이기 때문에 곤(坤)의 위에 솟은 것이 간(艮)이 된다. 군자의 도(道)는 아래로부터 배워서 위에 도달하니 그치지 않을 수 없는 데에서 그친다. 양(陽)은 진(震)에서 일어나 중간인 감(坎)을 지나서 간(艮)에 이르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친다. 만약 소장의 형세로써 말하면 음(陰)은 손(巽)에서 시작하여 간(艮)에서 성대해지고 곤(坤)에서 순수해지니 8괘에 간(艮)이 있는 것은 마치 중괘(重卦)에 박괘(剝卦)가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간(艮)’이라는 것은 소인(小人)의 도(道)이다. 하(夏)나라 『역(易)』은 간괘(艮卦)를 머리로 삼았다. 끝나면 시작하는 것은 하늘의 운행이다. 앞길이 이미 막혀 있으니 물러날 수는 있지만 나아갈 수는 없다. ‘간(艮)’이라는 것은 물러나는 것이다. 나뭇가지가 아래로 향하다가 무성하게 우거지게 되면 되돌아오니 간(艮)은 뿌리이다. 곤(坤)의 땅에 한계가 없는데 경계를 지어 영역을 정하니 간(艮)은 한계가 된다. 유(柔)가 이미 커진 것을 강(剛)으로 이에 그것을 끊으니 간(艮)은 절제함이다. 멈추어서 가지 않으니 간(艮)은 거스르는 것이다. 막혀서 통하지 않으니 간(艮)은 원망함이다. 중괘(重卦)로써 보면 간괘(艮卦)는 관괘(觀卦)로부터 왔다. 관(觀)은 대간(大艮)이다. 우번(虞翻)은 “간괘(艮卦)는 관괘(觀卦)의 오효(五爻)가 삼효(三爻)로 간 것이다”고 했다[混沌既闢 坤圉坎爲澤 坎剝坤爲山 山隆於地 故坤之上隆者爲艮也 君子之道 下學而上達 止於其所 不得不止也 陽起於震中於坎至於艮 則無可復進 故止也 若以消長之勢 則陰始於巽盛於艮 純於坤 八卦之有艮 猶重卦之有剝也 故艮者小人之道也 夏易以艮爲首 終則有始 天行也 前路既窮 有退無進 艮者退也 枝條向下 反於蓍鮮 艮者根也 坤土无疆 界以域之 艮者限也 柔之既長 剛乃截之 艮者節也 止而不行 艮者俱也 塞而不通 艮者恨也以重卦則卦自觀來 觀者大艮也 虞翻云艮爲觀五之三].

괘명 (卦名)	괘호 (卦文)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간(艮)	단(象)	안(案)	우중상(虞仲翔)은 “간괘(艮卦)는 등[背]이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간(艮)으로 등[背]을 삼았다면 또 어째서 ‘간기배(艮其背)’라고 하는 것인가? ‘간기배(艮其背)’와 ‘행기정(行其庭)’이란 문구가 대응하니 마땅히 집의 북쪽 뒤를 말한다. 또 우중상(虞仲翔)은 “감(坎)은 숨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고 했다[虞仲翔云艮爲背 然既以艮而爲背 又何以艮其背乎 文與庭對 當是堂北之背也 又仲翔云坎爲隱伏 故不見其人].
		초육(初六)	순상(荀爽)은 ‘지(趾)’를 ‘지(止)’로 썼다. 옛날 글자로는 서로 통한다[荀爽本趾作止 古字通也].
	육이(六二)	안(案)	『시경』의 주(註)에 “장단지는 발의 움직임에 따른다”고 했다. 여러 역학자들이 이것으로써 『역』을 해석하니 소략하다[詩註云腓隨足動 諸家以此解易 疏矣].
		우안(又案)	육덕명본(陸德明本)에는 ‘중(拯)’을 ‘승(承)’으로 썼는데 잘못이다. ‘중(拯)’과 ‘승(承)’, ‘승(拯)’은 본래 통한다[陸德明本拯作承非也 拯拯拏本相通].
		학가(學稼)	고괘(蠱卦)는 수괘(隨卦)의 반대괘(反對卦)이기 때문에 그 상(象)이 서로 통한다[蠱者隨之反對也 故其象相通].
	구삼(九三)	안(案)	‘인(夤)’이라는 것은 밋줄이다. 『회남자(淮南子)』에 “구주(九州)의 밖에 팔인(八夤)이 있고 팔인(八夤)의 밖에 팔굉(八紘)이 있다”고 했는데 ‘굉(紘)’이라는 것은 큰 버리이다. ‘인(夤)’이라는 것은 중간 버리이다. 또 ‘인(夤)’은 가장자리를 꾸민다[緣]는 것이다. 이내 마융(馬融)은 “인(夤)은 등뼈를 끼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구본(舊本)에는 혹 ‘인(夤)’ 자로 되어 있고, 혹 ‘신(腎)’ 자로 되어 있고 혹은 ‘신(呻)’ 자로 되어 있다. ‘인(夤)’ 자와 ‘인(夤)’ 자는 서로 가깝기 때문에 옮기다가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등골이 이미 갈라졌다면 죽은 지 이미 오래된 것인데 어느 겨를에 마음을 태울 것인가[夤者維也 淮南子曰九州之外有八夤 八夤之外有八紘 紘者大綱也 夤者中綱也 又夤緣也 乃馬融曰夤夾脊骨 舊本或作夤 或作腎 或作呻 夤夤相近 故轉輾致誤也 脊膂既裂 死已久矣 暇薰心哉?]
		우안(又案)	한유(漢儒)들은 ‘한(限)’을 ‘요과(腰胯)’로 보았는데 후유(後儒)들은 ‘요안(腰眼)’으로 보았다. 아마도 여러 효가 가까이 신체로부터 상(象)을 취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견강부회한 것이다. 그러나 상괘(上卦)와 하괘(下卦)에 네 개의 음(陰)이 있고, 가운데 한 개의 강(剛)이 가로지르고 있으니 바로 지경(地境)의 상(象)이 있다. 반드시 왜곡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漢儒以限爲腰胯 後儒謂之腰眼 蓋以諸爻多近取諸身 故牽強如此 然上下四陰 中橫一剛 正有疆域之象 不必曲解].
	육오(六五)	안(案)	장청자(張淸子)는 “보(輔)는 턱인데 말이 말미암아 나오기 때문에 ‘말에 순서가 있다’는 것이다. 함괘(咸卦)의 상육(上六)을 마땅히 참고해서 보아야 한다. 우번본(虞翻本)에서는 서(序)를 부(孚)로 썼는데 잘못이다”고 했다[張淸子云輔頰 言之所由出也 故言有序 咸上六宜參看 虞翻本序作孚 誤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점(漸)		서괘 (序卦)	‘점(漸)’은 나아감이다[漸者進也].
		잡괘 (雜卦)	‘점(漸)’은 여자가 시집감이니 남자가 기다려서 가는 것이다[漸女歸 待男行也].
		주자 (朱子)	아래에서 그치고 위에서 공손하니 급격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 여자가 시집가는 상(象)이 있다[止於下而巽於上 爲不遽進之義 有女歸之象].
		용안 (鑄案)	점괘(漸卦)는 비괘(否卦)로부터 왔다. 비괘(否卦)의 때에는 군자(君子)의 도(道)가 소멸되어서 건왕(乾王)의 덕(德)을 곤(坤)의 백성이 두루 미치지 못한다. 추이(推移)하여 점괘(漸卦)가 되면 강(剛)이 안으로 들어옴에 문명으로 다스림이 밝게 빛나서 마치 물이 점점 적시는 것처럼 곤(坤)의 백성이 귀화하니 이것이 이른바 ‘점(漸)’이다. 또 ‘점(漸)’과 ‘잠(潛)’과 통한다. 비괘(否卦)의 때에 군자(君子)가 숨어서 잠겨 있었는데 지금 하나의 강(剛)은 먼저 돌아와 두 개의 강(剛)이 밖에 있어서 손(巽)으로 사양하고 기꺼이 나아가려 하지 않으니 이것이 점진(漸進)하려는 뜻이다[卦自否來 否之時 君子道消 乾王之德 坤民不濡 移之爲漸則剛反乎內 而文治貴然 如水漸漬 坤民歸化 此之謂漸也 又漸潛通 否之時 君子隱潛 今一剛先歸 二剛在外 巽讓而不肯進 此漸進之義也].
	단(象)	안(案)	우번(虞翻)은 “오효(五爻)는 외체(外體)의 중(中)이다”고 했는데 잘못이다[虞翻曰五在外體之中 謬矣].
		주자 (朱子)	“‘지(之)’ 자는 의심하건대 연문이거나 혹 ‘점(漸)’ 자인 듯하다”고 했다. 지금 경문(經文)을 생각해 보건대 ‘지(之)’ 자에 의미가 있는 듯하다[之字疑衍 或是漸字 今案經文 之字有味].
	육이 (六二)	안(案)	『한서』에서 역사(易詞)를 인용하여 ‘반(盤)’을 ‘반(般)’으로 썼고, 배인(裴駟)의 주(註)에서는 “반(般)을 물가의 언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풀이한 경우가 없다[漢書引易詞 盤作般 裴駟註云般 水涯堆 然古無是訓也].
		학포 (學圃)	중부괘(中孚卦)의 때에는 노력하지 않고 먹기만 하여 큰 배만 헛되게 부르니 이것이 ‘소포(素飽)’이다[中孚之時 不勞而食 大復徒飽 是素飽也].
	구삼 (九三)	학가 (學稼)	기러기가 지금 물을 잃었기 때문에 그 점이 길하지 못한 것이다[鴻今失水 故其占不吉].
	육사 (六四)	안(案)	『춘추전』에 “환공의 사당의 서까래에 조각을 했다”고 했다. 소(疏)에 “서까래의 모난 각(角)을 ‘각(桷)’이라고 한다”고 했다. 점괘(漸卦)에 감(坎)의 궁(宮)이 있으니 사효(四爻)와 이효(二爻)가 그 서까래이다. 그러나 기러기는 지붕에 오르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각(桷)’자는 마땅히 평평하고 반듯하여 둥글지 않은 나무이다[春秋傳刻桓宮桷 疏曰椽方曰桷 卦有次宮 四與二其桷也 然鴻非登屋之物 當是平正不圓之木也].

괘명 (卦名)	괘호 (卦文)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점(漸)	구오 (九五)	학포 (學圃)	「설괘전」의 방위(方位)에 의거하면 간(艮)은 동북(東北)에 있으니 반드시 세 궁(宮)을 거쳐야만 비로소 이(離)의 잉태함을 만나는 것도 또한 3년 동안에 아이를 배지 못한 상(象)이다[據說卦方位 艮在東北 須歷三宮 始逢離孕 亦三歲不孕之象].
	상구 (上九)	안(案)	호원(胡瑗)은 ‘구(逵)’를 ‘운로(雲路)’로 여겼는데 예전부터 전하는 훈고(訓詁)에는 이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 제방에서 반석에 이르고, 육지로부터 나무에 이르러서 언덕에까지 이르기 그 지위가 점점 높아진다. 그러므로 호원(胡瑗)은 ‘구(逵)’를 이와 같이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넓은 길 위에 기러기가 높이 날고 있으니 반드시 ‘운로(雲路)’로 풀이할 필요가 없다[胡氏以逵爲雲路 古來詁訓无此據也 自干而磐 自陸而木 以至於陵 其位漸高 故胡公訓逵如是 然衢路之上 鴻則高飛 不必訓之爲雲路也].
		학포 (學圃)	‘구(逵)’는 옛날에는 ‘구(逵)’로 썼다. 그 글자는 ‘구(九)’ 자로부터 나왔으니 경읍(京邑)의 큰 네거리 길이다[逵古作逵 其字從九 京邑之大衢也].
귀매 (歸妹)		잡괘 (雜卦)	‘귀매(歸妹)’는 여자의 끝마침이다[歸妹 女之終也].
		용안 (鋪案)	‘귀매(歸妹)’라는 것은 형이 누이를 시집보내는 것이다. 귀매(歸妹卦)는 태괘(泰卦)로부터 왔다. 태괘(泰卦)의 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고, 진(震)의 형과 태(兌)의 누이가 그 안에 품어져 있다. 추이(推移)하여 귀매(歸妹卦)가 되면 부모가 모두 돌아가셔서 진(震)의 형과 태(兌)의 누이는 신체가 분리되어 각각 독립되니 이러한 상황에서 누이를 시집보내는 것이다. 태(兌)의 여자는 안에 있는데 간(艮)의 사위가 이르니 기쁘게 모임으로써 예(禮)에 합치하고 감(坎)으로써 돌아가니 혼인(婚姻)의 상(象)이다. 그러한 의미로써 본다면 태괘(泰卦)는 천지(天地)가 서로 사귀는 것인데 지금 천기(天氣)와 지체(地體)가 서로 함께 섞이게 되니 사귀어 결혼하는 상(象)이다. 여러 주석가들이 『역』을 해설함에 있어서 모두 진(震)의 남자를 태(兌)의 여자에게 짝지었는데, 그 짝이 될 수 없다. 인륜을 상하게 하고 이치를 어그러뜨림을 다 말할 수 없다[歸妹者 以兄而嫁妹也 卦自泰來 泰之時 父母俱存 震兄兌妹 在其懷中 移之爲卦 則父母俱沒 震兄兌妹 分體各立 於是乎嫁之矣 兌女在內 艮婿外至 嘉會以合禮 坎以歸之 婚姻之象也 以其義則泰者 天地之交也 今又天氣地體 互相交與 交媾之象也 諸家說易 皆以震男配于兌女 非其配也 傷倫悖理 不可說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귀매 (歸妹)		우안 (又案)	이 괘(卦)는 비록 귀매(歸妹)로 이름이 붙여졌지만 그 사실상이 괘에서 형으로서 누이를 시집보내는 것은 만 가지 상(象) 가운데 한 개의 상(象)에 불과하다. 반드시 귀매(歸妹)가 본래의 상(象)이 되고 다른 상(象)이 모두 객(客)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천하(天下)의 온갖 일을 점칠 때에 모두 이러한 괘의 이치를 만나는 것이 있는데, 어찌 귀매괘(歸妹卦)의 상(象)을 다하여 점을 칠 것인가? 성인이 우연히 그것을 이름 붙였을 뿐이다[此卦 雖以歸妹爲名 其實以兄嫁妹 於此卦不過爲萬象之中一象 未必歸妹爲本象 而他象皆客也 筮天下之萬事 皆有遇此卦之理 豈得盡以歸妹之象占之乎 聖人偶以名之爾].
	단(象)	안(案)	단사(彖詞)에서 누이를 시집보내는 것에 대한 점(占)을 말하지 않은 것은 누이를 시집보내는 것이 여러 가지 상(象) 가운데 하나의 상(象)에 불과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귀매괘(歸妹卦)의 사(詞)에 ‘행역(行役)’으로써 점을 칠 수도 있고, 전쟁과 정벌을 점칠 수도 있으며, 천하의 온갖 일을 점칠 수도 있다. 이것이 누이를 시집보내는 것을 말하지 않은 까닭이다[彖詞 不言嫁妹之占者 明嫁妹不過爲萬象之一象 歸妹之詞 可以筮行役 可以筮征伐 可以筮天下之萬事 此所以不言嫁妹也].
	초구 (初九)	안(案)	주공(周公)의 효사(爻詞)가 이와 같은 것은 괘(卦)에 정해진 상(象)이 없어서 오직 변화를 좇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혹 정체(正體)로써 취하고, 혹 반합(辟合)으로서 취하고 혹은 본괘(本卦)의 변상(變象)으로써 취하고 혹은 괘(卦)의 본상(本象)으로써 취하니 중형으로 출입함에 끌려 가로막힘이 없으며, 육허(六虛)를 두루 유행함에 변화(變化)가 무상(無常)하고, 팔괘(八卦)가 서로 섞여서 바람과 천둥이 북소리를 내는 오묘함이 여기에서 다한 것이다. 공자께서 매번 주공의 재능을 찬미하시니 오호라 그 믿음이어! 지금의 『역(易)』은 죽은 법(法)이 아니겠는가[周公之詞如是者 卦無定象 唯變所適 或以正體 或以辟合 或取本卦之變象 或取之卦之本象 縱橫出入 无所牽礙 周流六虛 變化不常 而八卦相盪 風霆鼓發之妙 於是乎盡之矣 孔子每言周公之才之美 嗚呼 其信矣 今易非死法乎?]
	구이 (九二)	안(案) 학가 (學稼)	‘태(兌)’라는 것은 서방의 그윽하고 어두운 땅이다. 그러므로 역례(易例)에 태(兌)는 유(幽)가 된다[兌者西方幽昧之地 故易例兌爲幽]. 주공(周公)이 여기에서 누이를 시집보내는 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즉 ‘결본(缺本)’의 경우에 해당된다[周公於此 不言嫁妹之象者 卽所以缺本也].
	육삼 (六三)	안(案)	주진(朱震)은 “『사기』 「천관서(天官書)」에서는 수녀(須女)의 네 별자리가 천첩(媵妾)의 상(象)이다. 『자하전(子夏傳)』과 맹희역(孟喜易)에서도 모두 ‘수(須)’를 잉첩(媵妾)의 이름으로 여겼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다. ‘수(須)’는 만발이다[朱震云 天官書須女四星 媵妾之象 子夏傳孟喜易 皆作媵妾之名 謬矣 須者女兄也].

괘명 (卦名)	괘호 (卦文)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육오 (六五)		안(案)	‘태(兌)’라는 것은 건(乾)의 입이 터진 것이다. 건(乾)이 곧 옷이 되니 옷의 입구가 터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소매가 되겠는가? ‘간(艮)’이라는 것은 본래 선(善)한 상태를 뜻하니 이른바 ‘양지(良知)’와 ‘양능(良能)’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혼란받지 않았는데도 잘 달리는 것을 ‘양마(良馬)’라고 하고, 거름을 하지 않았는데도 비옥한 것을 ‘양전(良田)’이라고 한다[兌也者 乾口之坼者也 乾則爲衣 衣口之缺 非卽謂袂乎 良者本善也 如所謂良知良能也 不習而驟 謂之良馬 不糞而肥 謂之良田].
		우안 (又案)	환왕(桓王)이 백희(伯姬)를 시집보냈으며, 오(吳)나라가 누이를 시집보내는 것을 주관하였는데, 후세에 또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마도 제을(帝乙)의 당시에 실제 누이를 시집보내는 일이 있었던 것 같다[桓王下姬 吳主嫁妹 後亦有之 疑帝乙當時 真有嫁妹之事].
		학포 (學圃)	태괘(泰卦)는 중부괘(中孚卦)로부터 왔다. 하괘(下卦)인 태(兌)는 본래 태(兌)이고 상괘(上卦)인 태(兌)는 개조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해어진 소매가 되는 이유이다[兌自中孚來 下兌本兌也 上兌改造者也 此其所以爲敝袂也].
상육 (上六)		안(案)	머리에 이고 광주리에 담은 실상을 정현(鄭玄)은 ‘치미(糴米: 기장과 쌀)’라고 했다. 만약 그렇다면 궤(簋)이지 광주리가 아니다. 『정전(程傳)』에서는 ‘절인 채소와 것갈’이라고 했다. 만약 그렇다면 두(豆)이지 광주리가 아니다. 호병문(胡炳文)은 “진(震)에 빈 광주리의 상(象)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천하의 광주리는 모두 비어 있는 것이다. 『서경(書經)』에서는 “검은 비단과 누런 비단을 광주리에 담는다”고 했으며, 『시경(詩經)』에서는 “광주리를 받들어 폐백을 올린다”고 했으니 광주리의 속의 실상은 폐백이다. 정현본(鄭玄本)에서는 ‘광(簠)’을 ‘광(匡)’으로 썼다. 『춘추전』에 진(晉)나라 현공이 백희(伯姬)를 진(秦)나라로 시집보내는 것에 대해 점(占)을 쳐서 이 효(爻)를 만났다. 사소(史蘇)가 점을 쳐서 “불길(不吉)합니다. 그 점사(占辭)에 ‘선비가 양을 찢았는데도 또한 피가 나오지 않고 여자가 광주리를 받들어도 또한 하사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귀매괘(歸妹卦)가 규괘(睽卦)로 변하는 경우에도 오히려 서로 돕는 경우가 없습니다”라고 했다[承筐之實 鄭玄以爲糴米 若然簋也 非筐也 程傳以爲菹醢 若然豆也 非筐也 胡炳文云震有虛筐象 若然天下之筐皆虛也 書曰筐厥玄黃 詩云承筐是將 筐簠之實幣也 鄭玄本筐作匡 春秋傳晉獻公筮嫁伯姬于秦 遇此爻 史蘇占之日不吉 其繇曰土剋羊 亦无盭也 女承筐 亦無貺也 歸妹之睽 猶无相也].
		안(案)	두예(杜預)의 주(注)에 “이(離)는 중녀(中女)가 되고 진(震)은 장남(長男)이 되는 까닭에 ‘사녀(士女)’라고 칭한다”고 했는데 크게 잘못된 것이다. 본래 그 짝이 아닌데 어찌 ‘사녀(士女)’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杜氏注云離爲中女 震爲長男 故稱士女大謬也 本非其配 何得云士女?]



괘명 (卦名)	괘효 (卦文)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상육 (上六)	학포 (學圃)	규괘(睽卦)는 반목(反目)을 상징하는 괘(卦)이기 때문에 그 점이 이와 같다[睽者反目之卦也 故其占如此].
		서괘 (序卦)	‘풍(豐)’은 크다는 것이다[豐者大也].
		잡괘 (雜卦)	‘풍(豐)’은 연고가 많은 것이다[豐多故也].
		용안 (鑄案)	‘풍(豐)’이라는 것은 그릇의 이름이니 서직(黍稷)을 담는 것이다. 네 되[升]를 ‘두(豆)’라고 하고, 세 두(豆)를 ‘곡(穀)’이라고 하고, 1곡(穀)을 담는 것을 ‘궤(簋)’라고 하니 ‘풍(豐)’이라는 것은 ‘궤(簋)’이다. 『주례』 「고공기(考工記)」에 “옹기를 만드는 사람이 궤(簋)를 만들 때 1곡(穀)을 담도록 하고, 두(豆)를 세 번 채우면 1곡(穀)을 이룬다”는 것이 이것이다. 『의례(儀禮)』 「향음주례(鄉飲酒禮)」에 술그릇을 ‘풍(豐)’이라고 했으니 그 답는 것도 동일하다. ‘풍(豐)’이라는 글자는 두 개의 봉(丰)이 높이 솟은 것을 형상한 것이다. 고문(古文)에 ‘풍(豐)’으로 썼으며, ‘봉(丰)’ 자는 풀이 무성한 것이다. 또한 ‘𦍋’로 썼으니 풍(豐)의 제기가 가득 찬 것을 ‘봉(丰)’이라고 한다. ‘두(豆)’ 자와 ‘두(頭)’ 자는 더불어 통하니 양을 헤아리는 그릇 위에 서직(黍稷)이 가득 담긴 것을 형상한 것이다. 한 해가 크게 풍년이 되면 곡식이 되는 그릇 두곡(斗斛)에 서직(黍稷)이 풍성하기 때문에 ‘풍(豐)’이라고 한다. 괘상(卦象)으로써 말하면 하괘(下卦)인 이(離)는 두(豆)가 되고 상괘(上卦)의 진(震)은 서직(黍稷)이 되니 그릇에 풍성한 것이다. 풍괘(豐卦)는 태괘(泰卦)로부터 왔다. 태괘(泰卦)의 때에는 진(震)의 벼이삭과 태(兌)의 가을이니 이미 풍성한 모양이다. 추이하여 풍괘(豐卦)가 되면 이(離)의 두(豆) 위에 서직(黍稷)이 풍부하고 가득하다. 풍괘(豐卦)는 풍년의 괘이다. 괘(卦)의 형태와 자(字)의 형태가 본래 서로 많이 비슷하다[豐者器名 所以盛黍稷也 四升爲豆 三豆爲穀 受穀爲簋 豐者簋也 考工記旅人爲簋 實一穀 豆實三而成穀者 是也 鄉飲酒禮酒器曰豐 其所受同也 豐之爲字 象兩丰隆高 古文作𦍋 丰者丰盛也 亦作𦍋 豐滿曰丰也 豆與頭通 象量器之上 黍稷盛滿也 歲大熟則斗斛之上 黍稷豐隆 故名之曰豐 以卦象則下離爲豆 上震爲黍稷 於器爲豐也 卦自泰來 泰之時 震嫁兌秋 已有穰穰之象 移之爲豐 則離豆之上 黍稷隆滿 豐年之卦也 卦形字形 本相酷似].
	단(象)	안(案)	이(離)의 자리로써 날[日]을 점치는 법이 자주 역사(易詞)에 보인다. 해괘(解卦)는 초효(初爻)로부터 옮기기 때문에 해괘(解卦)의 단사(象詞)에서 ‘숙길(夙吉)’이라고 한 것이다. 진괘(震卦)는 이효(二爻)로부터 옮기기 때문에 풍지진(豐之震)에서 ‘일중견말(日中見沫)’라고 했다. 이괘(履卦)는 움직여서 삼효(三爻)에 있기 때문에 건지리(乾之履)에서 ‘석적약(夕惕若)’이라고 했다. 이것은 모두 점치는 사람이 때[時]를 점치는 법이니 미루어서 통할 수 있다[離位占日之法 屢見易詞 解自初移 故解之象曰夙吉 震自二移 故豐之震曰日中見沫 履移在三 故乾之履曰夕惕若 此皆筮家占時之法 可推而通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풍(豐)	초구 (初九)	안(案)	풍괘(豐卦)의 괘(卦) 됨은 성대하게 가득 찬 것을 경계하는 데 있다. 두 군주가 서로 만나 즐기면서 돌아가는 것을 모르면 도둑이 빼앗으려고 생각한다. 낙읍(潞邑)의 화(禍)와 건후(乾侯)에서 패배한 것을 경계로 삼기에 졌는 것이 아니겠는가? 풍괘(豐卦)는 진(震)과 이(離)로 만들어진 것이다. 진(震)의 제후가 이(離)에서 서로 만나니 진괘(震卦)는 본래 제후가 서로 만나는 괘(卦)이기 때문에 그 점(占)이 이와 같다. 구본(舊本)에서는 ‘순(旬)’을 혹 ‘균(均)’으로 쓰기도 했고, 혹 ‘균(鈞)’으로 쓰기도 했다. 『주례』 「사도(司徒)」의 ‘공순(公旬)’을 ‘공균(公均)’이라고 주석하였으니 본래 서로 통하는 글자인 것이다[豐之爲卦 戒在盛滿 兩君相會 樂而忘反 則盜思奪之矣 潞邑之禍 乾侯之敗 非足爲戒乎 豐者震離也 震之諸侯 相見乎離 本諸侯相見之卦 故其占如此 舊本旬或作均 或作鈞 周禮公旬註作公均 本通字也].
		학가 (學稼)	「상전(象傳)」의 문례(文例)가 사괘(師卦) 초육(初六)과 같다[象傳文例 與師初六同].
	육이 (六二)	안(案)	「설괘전」에서 이(離)는 본래 해[日]가 되니 일식(日食)의 상(象)이 아닌 듯 보인다. 그러나 감(坎)은 본래 달[月]이 되지만 건(乾)은 보름달이니 이(離)의 해[日]가 건(乾)으로써 온전함을 삼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감(坎)은 귀[耳]가 되지만 감(坎)이 감(坎)의 자리에 있으면 또한 이통(耳痛)이 된다. 이(離)는 해[日]가 되지만 이(離)가 이(離)의 자리에 있으면 또 일식(日食)이 된다. 그 뜻이 동일하다[說卦離本爲日 似非日食之象 然坎本爲月 而乾爲望 離日之以乾爲全 亦猶是也 坎則爲耳 坎在坎位 又爲耳痛 離則爲日 離在離位 又爲日食 其義一也].
		우안 (又案)	『서경』에서 “일식(日食)이 일어나면 장남이 복을 올린다”고 했고, 『춘추(春秋)』에는 일식(日食)을 반드시 기록했고, 또 “복을 치며 사당에서 희생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했으니 지금 사람들이 게양이나 이변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 효사(爻詞)에서 해[日]와 달[月]과 지구가 일직선으로 된 것을 일식(日食)의 상(象)으로 삼았으니 옛날 사람들이 몰랐겠는가? 정현본(鄭玄本)에서는 ‘부(蓍)’를 ‘보(菩)’로 썼으니 작은 자리라는 의미이다. 혹자(或者)가 “서부(蓍部)’는 풀이름이다. 이것으로써 자리를 짜서 그것으로써 가렸기 때문에 마침내 ‘거적[蓍蔽]’이라는 명칭을 얻었다”고 했다. 양웅(楊雄)이 『태현경(太玄經)』에서 “복두성이 한 번 북쪽을 가리키면 만물이 텅 비게 되고 복두성이 한 번 남쪽을 가리키면 만물이 가득 차게 된다”고 했다. 만물이 더운 여름에 풍성해지고 추운 겨울에 소모되는 것은 복두성을 따라 전환하여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書云日食則警奏鼓 春秋日食必書 又鼓用牲于社 今人認爲災異 非也 今此爻詞 以日月地三直 爲日食之象 古人其不知乎 鄭玄本蓍作菩 小席也 或云蓍部艸名 以此織席 因以障蔽 遂得蓍蔽之名 楊雄太玄曰斗一北而萬物虛 斗一南而萬物盈 言萬物豐於緯夏 耗於玄冬 隨斗轉徙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풍(豐)	구삼 (九三)	안(案)	고문(古文)에는 ‘패(沛)’를 ‘벌(蒔)’로 썼으니 무릎을 가리는 것을 말한다. 왕필본(王弼本)에는 ‘패(施)’로 썼으니 깃발과 휘장을 말한다. 이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 ‘패(沛)’라는 것은 늘지를 의미한다. 또 큰 비를 ‘패(沛)’라고 한다[古文沛作蒔 謂之蔽膝 王弼本作施 謂之幡幔 於理無當 沛者澤藪也 又大雨曰沛].
		우안 (又案)	『한서(漢書)』에서는 ‘매(沫)’를 ‘매(昧)’로 썼다. 복견(服虔)은 “한 낮인데도 어둡다”라고 했으니 ‘매(昧)’라는 것은 흠비이다. 이에 『자림(字林)』에서는 “매(昧)를 복두칠성의 자루 부분 뒤쪽의 별이다”고 했다. 순구가의 『역(易)』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비록 일식(日食)의 때라도 작은 별은 낮에 볼 이치가 없으니 그 뜻이 옳지 않다. ‘매(昧)’ 자는 ‘매(沫)’ 자와 ‘매(霾)’ 자와 더불어 모두 해성(諧聲)이니 ‘매(霾)’ 자를 ‘매(昧)’라고 말하는 것은 ‘무(霧)’ 자를 ‘회(晦)’ 자라고 하는 것과 같다. 흠비를 ‘매(霾)’라고 한다[漢書沫作昧 服虔云日中而昏也 昧者霾也 乃字林云昧斗杓後星 九家易亦云 然雖日食之時 小星無晝見之理 其義非也 昧與沫霾 本皆諧聲 霾之謂昧 猶霧之謂晦也 土雨曰霾].
	육오 (六五)	안(案)	풍괘(豐卦)의 본래 상(象)은 또한 ‘와서 빛남’이기 때문에 그 사(詞)가 이와 같다[豐之本象 亦是來章 故其詞如此].
	상육 (上六)	춘추전 (春秋傳)	정(鄭)나라 공자(公子) 만만(曼滿)이 경(卿)이 되고 싶었는데 왕자(王子) 백료(伯廖)가 이 효사(爻詞)를 인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길 “3년 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고 했다. 3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1년 사이에 정나라 사람이 만만(曼滿)을 죽였다[鄭公子曼滿欲爲卿 王子伯廖引此爻以告人 曰三歲不覿 弗過之矣 間一歲而鄭人殺之].
		안(案)	『설괘전』의 방위(方位)에 진(震)으로부터 이(離)까지의 사이가 1궁(宮)인데 『좌전』에서는 1년의 간격으로써 3년으로 여겼으니 효상(爻象)에 합치하는 것 같다. 하지만 역사(易詞)를 헤아려 보면 그 예가 그렇지 않으니 준거로 삼을 수 없다[說卦方位 自震至離 間一宮也 左傳以間一歲爲三歲 似合爻象 然稽之易詞 其例不然 不可準也].
여(旅)		잡괘 (雜卦)	친한 사람이 적은 것이 ‘여(旅)’이다[親寡 旅也].
		요신 (姚信)	이 괘는 본래 비괘(否卦)로부터 온 것인데 삼효(三爻)와 오효(五爻)가 교역하여 그 본체를 떠났기 때문에 ‘객려(客旅)’라고 한 것이다[此本否卦 三五交易 去其本體 故曰客旅].
		정자 (程子)	밖에 걸려 있는 것도 나그네의 상(象)이다[麗于外 旅之象].
		장청자(張 淸子)	여괘(旅卦)는 비괘(否卦)로부터 왔다. 삼효(三爻)가 가서 오효(五爻)에 거처하여 밖에 걸려있으니 마치 사람이 그 거처할 곳을 잃고서 밖에서 객지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旅自否來 三往居五而麗於外 猶人失其所居而客於外也].

괘명 (卦名)	괘효 (卦文)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여(旅)		용안 (鑰案)	<p>‘여(旅)’라는 것은 떠나서 머무르는 것이다. 그 친족을 떠나 타지(他地)에 머무는 것을 ‘여(旅)’라고 한다. 비록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는 사람은 ‘행인(行人)’이라고 하고 머무르는 사람은 ‘여인(旅人)’이라고 한다. 여괘(旅卦)에 간(艮)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여(旅)’인 것이다. 여괘(旅卦)는 비괘(否卦)로부터 왔다. 그 친족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머무르니 그 상이 ‘여(旅)’이다. 비괘(賁卦)는 나그네의 괘가 되지 못하는데 이 여괘(旅卦)가 나그네의 괘가 되는 것은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인(主人)이 있어야 하는데 비괘(賁卦)는 주인(主人)이 없어서 나그네의 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괘(旅卦)는 비괘(否卦)로부터 왔다. 비괘(否卦)의 때에는 건(乾)의 손님이 밖에서 움에 손(巽)의 주인이 그를 영접한다. 이윽고 손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 간(艮)의 여관으로 들어가고 주인에 의탁하여 식사를 맡기니 그 상(象)이 ‘여(旅)’이다. 선유들 가운데 순상(荀爽)과 공영달(孔穎達)과 촉재(蜀才)의 무리들은 이 여괘(旅卦)를 설명하면서 아울러 추이(推移)를 주로 하였다. 그러나 간혹 하나의 음(陰)을 나그네로 여기는데 옳지 못하다. 공자(孔子)가 ‘단전(彖傳)’에서 ‘소형(小亨)’의 뜻을 해석하여 “유(柔)가 밖에서 중(中)을 얻었다”고 했으나 하나의 음(陰)을 나그네로 여긴 것은 아니다. 강(剛)이 그 종족을 떠나서 두 개의 강(剛)이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 적은 것이 ‘여(旅)’이다”라고 했다[旅者 離而止也 離其親族 止於他邦 曰旅也 雖在他邦 行者爲行人 止者爲旅人 卦有艮止 所以旅也 卦自否來 離其親族 止於他邦 其象旅也 賁不爲旅 而此獨爲旅者 旅寓之人 必有主人 賁无主人 无以爲旅也 卦自否來 否之時 乾賁外至 巽主迎之 既而賓離其位 入就良次 依於主人 以寄其食 其象旅也 先儒如荀爽孔穎達蜀才之倫說此卦 並主推移 然或以一陰爲旅人 非也 孔子於彖傳 爲釋小亨之義 斯云柔得中乎外 非以一陰爲旅人也 剛離其族 兩剛相依 故曰親寡旅也].</p>
	초육 (初六)	안(案)	<p>일설에는 ‘사(斯)’가 떠남이고 나눔이다. 『시경(詩經)』 「진풍(陳風)」에 “도끼로 쪼개도다”라고 했다. ‘소(所)’는 다니거나 머무르는 장소이다. 정시(鄭詩)에서 “공이 거처하는 곳에 바치도다”라고 했다. 『한서(漢書)』에서 수레를 두는 곳을 ‘행재소(行在所)’라고 했으니 ‘사기소(斯其所)’라는 것은 그 거처를 떠난다는 것이다. 괘상(卦象)으로 말한다면 간(艮)의 문(門)이 각각 빗장을 잠그고 이(離)의 담장이 각각 막으니 그 거처를 떠난다. 그러나 ‘취재(取災)’라는 두 글자를 또한 해독(解讀)하기 어렵다. 왕보사(王輔嗣)는 “나그네의 상황이 불안하여 친한 일을 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것은 또한 ‘사(斯)’ 자로써 구(句)를 끊은 것인데 잘못된 것이다[一說斯 離也分也 詩云斧以斯之 所者行居之處也 鄭詩曰獻于公所 漢書車駕所在曰行在所 斯其所者析厥居也 以卦象則艮門各局 離垣各防 析其居也 然取災二字又難讀 王輔嗣云寄旅不安 爲斯賤之役 此又以斯字絕句 非也].</p>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여(旅)	육이 (六二)	안(案)	‘차(次)’ 자는 ‘발사(爻舍)’이기 때문에 갑(坎)은 곧 궁(宮)이 되고 간(艮)은 곧 차(次)가 된다[次字爻舍也 故坎則爲宮 艮則爲次].
	구삼 (九三)	안(案)	여괘(旅卦)의 본래 상(象)에 오두막이 있고 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하면 ‘그 숙소를 불사르는 것’이 된다[旅之本象 有廬有火 故其變爲焚其次].
	구사 (九四)	안(案)	여러 학자들의 『역(易)』에서 ‘자부(資斧)’를 ‘제부(齊斧)’라고 썼다. 장궤(張軌)는 “‘제부(齊斧)’는 누런 도끼이다”고 했고, 우희(虞喜)의 『지림(志林)』에서는 “‘제(齊)’는 ‘재(齎)’로 써야 한다”고 했는데, 모두 잘못이다. ‘자(資)’자와 ‘제(齊)’자는 본래 서로 통하니 ‘자성(棗盛)’을 혹 ‘자성(資盛)’으로 쓰기도 하고, 혹 ‘자성(齎盛)’으로 쓰기도 한다[諸家易資斧作齊斧 張軌云齊斧者 黃鉞也 虞喜志林云齊當作齎 皆非也 資與齊本相通 棗盛或作資盛 或作齎盛].
		우안 (又案)	‘괘(夬)’라는 것은 터지는 것이다. 마음이 터지는 것을 ‘쾌(快)’라고 하고, 물이 터지는 것을 ‘결(決)’이라고 한다. 태(兌)의 덕(德)은 본래 터집이기 때문에 태(兌)는 곧 ‘괘(夬)’가 된다[夬者決也 心夬爲快 水夬爲決 兌之德本決 故兌則爲快].
	육오 (六五)	안(案)	여러 학자들이 모두 “이(離)는 화살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 역사(易詞)에 있어서는 건(乾)이 모두 화살이 된다. 「대전(大傳)」에 “건(乾)은 그 움직임이 곧다”고 했다[諸家皆云離爲矢 然其在易詞 乾皆爲矢 大傳曰乾其動也直].
		우안 (又案)	주자(朱子)는 이 효(爻)에서 여(旅)를 평으로 여겼으니 「설괘전(說卦傳)」을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朱子於此爻 旅爲雉 說卦不可廢也].
	상구 (上九)	안(案)	「잡괘전」에서 “동인(同人)은 친함이다”라고 하고 “친한 사람이 적은 것이 ‘여(旅)’이다”고 했다. 그러므로 동인(同人)은 먼저 울다가 뒤에 웃게 되지만 여인(旅人)은 먼저 웃다가 뒤에 울게 된다[雜卦傳曰同人親也 親寡旅也 故同人先咷後笑 旅人先笑後咷].
		우안 (又案)	한(漢)나라 성제(成帝)가 허황후(許皇后)에게 보고하는 조서에 “5월 경자일(庚子日)에 새가 그 둥지를 불태운 것이 태산(太山) 지역에 있었다”고 했다. 『역경(易經)』에 “새가 그 둥지를 태우니 흉할 것이다[鳥焚其巢 凶]”고 했으니 임금의 백성 위에 거처하는 것은 마치 새가 둥지에 머무는 것과 같으며, 백성이 그 군주를 잃음은 마치 소가 그 털을 잃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혹자는 “‘역(易)’을 ‘장(場)’으로 읽는다”고 했으니 그 뜻은 잘못된 것이다[漢成帝報許皇后詔云五月庚子 鳥焚其巢 太山之域 易曰鳥焚其巢凶 言王者處民上 如鳥之處巢也 百姓喪其君 若牛亡其毛也 或說易讀作場 其義非也].

괘명 (卦名)	괘호 (卦文)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여(旅)	상구 (上九)	학포 (學圃)	손괘(巽卦) 상구(上九)를 읽지 않는다면 ‘득기자부(得其資斧)’가 대과지정(大過之井)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기 어려울 것이다. 대장괘(大壯卦) 육오(六五)를 읽지 않으면 상우우역(喪牛于易)이 이괘(履卦)를 교역에서 유래한 것을 반드시 깨닫기 어려울 것이다. 『역』에서 이리저리 쉬어서 참조해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에는 이와 같음이 있다[不讀巽上九 則得其資斧之爲大過之井 必難悟也 不讀大壯六五 則喪牛于易之爲頤之交 必難悟也 易貴參伍 有如是矣].
손(巽)		서괘 (序卦)	‘손(巽)’은 들어감이다[巽者入也].
		잡괘 (雜卦)	태(兌)는 드러남이고 손(巽)은 엎드림이다[兌見而巽伏也].
		정자 (程子)	하나의 음(陰)이 두 개의 양(陽) 아래에 있으니 손(巽)이 되는 까닭이다[一陰在二陽之下 所以爲巽].
		용안 (鋪案)	팔괘(八卦)의 소장(小腸)의 순서는 진(震)에서 시작하여 태(兌)에 이르고, 건(乾)으로부터 시작하여 손(巽)에 이른다. 팔괘(八卦)에 태(兌)와 손(巽)이 있는 것은 마치 중괘(重卦)에 괘괘(大卦)와 구괘(姤卦)가 있는 것과 같다. ‘손(巽)’이라는 것은 태(兌)의 반대이다. 태(兌)의 때에는 하나의 음이 강(剛)을 올라타니 그 상(象)이 불순(不順)하다. 뒤집어서 손(巽)이 되면 유(柔)가 이내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순종하고 사양하니 ‘손(巽)’이라는 것은 겸손함이다. 음(陰)이 밖으로부터 오니 손(巽)은 들어감이고, 강(剛)이 이내 위에 있으니 손(巽)은 엎드림이다. 전문(篆文)에 ‘손(巽)’ 자는 두 개의 ‘파(巴)’ 자가 ‘기(丌)’ 자 위에 있는 것이다. ‘파(巴)’ 자는 용사(龍蛇)이니 두 개의 ‘파(巴)’ 자는 두 양(陽)이다. ‘기(丌)’ 자는 두 발을 의미한다. 중손(重巽)의 괘(卦)는 또 둔괘(遯卦)로부터 왔다. 둔괘(遯卦)는 겸획(兼畫)의 대손(大巽)이다[八卦消長之序 自震而兌 自乾而巽 八卦之有兌巽 猶重卦之有夬姤 巽者兌之反也 兌之時 一陰乘剛 其象不順 反之爲巽 則柔乃卑降 順而讓之 巽者遜也 陰自外來 巽者入也 剛乃在上 巽者伏也 篆文從兩巴在丌上 巴者龍蛇也 兩巴者二陽也 丌者兩足也 重巽之卦 又自遯來 遯者兼畫之大巽也].
	단(象)	안(案)	육적(陸績)은 “음(陰)이 괘(卦)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소형(小亨)’이라고 한 것이다”고 했다[陸績曰陰爲卦主 故曰小亨].
		안(案)	주자는 “신(申)은 정령스럽게 반복하는 뜻이다”고 했다. 내가 생각하건대 『서경(書經)』 『요전(堯典)』에 “거듭 희숙에게 명한다”라고 하였으니 ‘신(申)’이라는 것은 거듭함이다[朱子曰 申者丁寧反復之意 鋪謂堯典曰申命羲叔 申者重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손(巽)	구이 (九二)	안(案)	사(史)는 쓰고 기록하는 이를 관장한다. 이(離)는 곧 글[文]이므로 이(離)가 사가 되고, 그 직책은 제사지낼 때 쓰는 문서를 담당한다. 무(巫)는 제사를 담당한다[史掌書記 離則爲文 離爲史也 其職祝冊也 巫則禱禳也].
		학가 (學稼)	점(漸)은 임금이 앉고 있는 병의 명칭이다. 지괘(之卦)가 점(漸)이 되는 까닭에 그 점이 이와 같다. ‘질병(疾病)’이라는 글자는 사람이 평상에 의지해 있는 것을 형상한 것이다. ‘손재상하(巽在牀下)’는 질병의 점에 해당한다[漸者王疾之名 之卦爲漸 故其占如此 疾病爲字 象人倚牀 巽在牀下 疾病之占也].
		학포 (學圃)	괘덕(卦德)이 손(巽)이 되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모두 손(巽)이라고 한다[卦德爲巽 故凡自外而入 皆謂之巽也].
	육사 (六四)	안(案)	『공양전(公羊傳)』의 주(註)에서 “사냥하여 잡는 예(禮)에는 삼등급(三等及) 가운데 선택하여 취한다”고 하였다. 왼쪽 갈비뼈 쪽으로 쏘아서 오른쪽 어깨 쪽으로 관통하면 심장을 맞춰서 죽이는 것이니 ‘상살(上殺)’이 된다. 그것을 건두(乾豆)에 바치니 빨리 죽이기 위한 것이다. 오른쪽 귀로 관통하게 하면 배를 맞춰서 죽이는 것이니 ‘차살(次殺)’이 된다. 그것을 손님에게 바치니 죽은 지 조금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왼쪽 넓적다리를 관통하여 오른쪽으로 나오게 하면 허벅지를 맞춰서 죽이는 것이니 ‘하살(下殺)’이 된다. 그것으로서 군주의 주방을 채우는 것이니 죽는 것이 가장 더디다. 이것이 이른바 세 번째 등급의 죽임이니 옛날의 군례(軍禮)이다. 괘상(卦象)으로써 본다면 손(巽)으로서 깨끗이 하고 그 이(離)의 욕포를 갖추어서 건(乾)의 종묘에 제사하는 것이니 건두(乾豆)의 상(象)이다. 손(巽)으로써 사냥하고 태(兌)의 대접할 음식을 갖추으로써 건(乾)의 손님에게 받치니 손님에게 대접하는 상(象)이다. 손(巽)으로써 들어와서 그 태(兌)의 음식을 만들어 건(乾)의 군주에게 바치니 군주(君主)의 부역의 상(象)이다. 손괘(巽卦)는 돼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슴을 말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여우나 토끼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넓게 ‘삼품(三品)’이라고만 말하고, 사물의 명칭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구주(舊注)에서 넓적다리를 맞힌 것을 ‘차살(次殺)’로 여기고, 배를 맞힌 것을 ‘하살(下殺)’로 여겼는데 소략하다[公羊傳註田獲之禮 擇取三等 射自左髀 達於右髀者 中心死也 爲上殺以奉乾豆 爲其速死也 達右耳者中復死也 爲坎殺 以供賓客 死稍遲也 射左髀達於右髀者 中股死也 爲下殺 以充君庖 死最遲也 此所謂三品之殺 古之軍禮也 以卦象則巽以潔之 備其離腊以祭乾宗 乾豆之象也 巽以讓之 具其兌饋 以享乾賓 賓饋之象也 巽以入之 治其兌養 以供乾君 君庖之象也 巽之爲卦 匪豕匪鹿 亦非狐兔 故泛言三品 不著物名也 舊注以中髀爲次殺 以中腹爲下殺 疏矣].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손(巽)	구오 (九五)	안(案)	한(漢)나라 유학자들이 이 효(爻)를 해석함에 모두 바뀌고 변혁하는 뜻을 중심으로 해석했는데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서가(筮家)에 있어서는 날[日]을 점치는 통례로 사용했던 것이다[漢儒釋此爻 皆主更革之義 非也 此在筮家用爲占日之通例也].
	상구 (上九)	안(案)	『한서(漢書)』 「왕망전(王莽傳)」에 “왕망(王莽)이 왕심(王尋)을 파견하여 낙양(洛陽)에 주둔하게 하고, 장차 출발하려 함에 그 황색의 도끼를 잃어버리니 방양(房楊)이 ‘이것이 『역(易)』에서 이른바 그 재물과 도끼를 잃어버렸다’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문장은 이 경문의 뜻을 빌려서 ‘자부(資斧)’의 예를 아울러 든 것인데 뒤에 유학자들이 이것을 인용하여 ‘제부(齊斧)’의 설을 입증했으니 잘못이다[漢書王莽遣王尋屯洛陽 將發亡其黃鉞 房楊曰 此所謂喪其資斧者也 此借此經義 並舉資斧也 後儒引此 以證齊斧之說 謬矣].
	학가 (學稼)		가로지른 나무 밑에 다리로 버티고 있는 것, 그 상(象)이 평상이기 때문에 간(艮)은 평상이 되고 손(巽) 또한 평상이 된다[橫木之下 撐之以股 其象爲牀 故艮爲牀 巽亦爲牀].
태(兌)	서괘 (序卦)		‘태(兌)’는 기뻐함이다[兌者說也].
	용안 (鋪案)		‘태(兌)’라는 것은 벗겨 냄이다. 건(乾)은 의복이 되니 태(兌)는 건(乾)의 겉을 벗겨 낸 것이니 그 상(象)이 벗겨 냄이다. 육체가 옷을 벗는 것을 ‘탈(脫)’이라고 하고, 벌레가 껍질을 벗는 것을 ‘태(蛻)’라고 하고, 수레에서 복토를 벗기를 것을 ‘세(稅)’라고 하니 그 뜻이 같다. ‘태(兌)’라는 것은 날카로움이다. 태괘(兌卦)의 괘 뒀은 아래가 크고 위가 작아 그 상이 날카로움이다. 쇠의 윗부분이 작은 것을 ‘예(銳)’라고 하고, 나무의 윗부분이 작은 것을 ‘탈(桺)’이라고 하고, 돌의 윗부분이 작은 것을 ‘예(硲)’라고 하니 그 뜻이 같다. ‘태(兌)’라는 것은 거두어들임이다. 서방(西方)의 괘는 때로 보면 가을이 되기 때문에 태(兌)는 곧 날카로움이 되니 칼로써 벼를 베는 것이다. 태(兌)는 곧 ‘화(和)’가 되니 입으로 벼를 먹는 것이다. ‘태(兌)’라는 것은 맑게 하는 것이다. 건(乾)의 가득 찬 것을 태(兌)로써 맑게 하니 그 상(象)이 연못이다. ‘태(兌)’라는 것은 기쁨이다. 진(震)으로부터 일어나 중심에 연음이 있고, 밖의 모양이 스스로 풀려 있으니 그 상(象)이 즐거움이다. ‘태(兌)’라는 것은 말하는 것이다. 위로 터진 것이 마치 입과 같으니 담설(談說)이 나온 것이다. 중괘(重卦)로써 보면 태괘(兌卦)는 대장괘(大壯卦)로부터 왔으니 대장괘(大壯卦)는 겸태(兼兌)의 형상이다[兌者脫也 乾則爲衣 兌褫其外 其象脫也 肉脫衣曰脫 蟲脫殼曰蛻 車脫輹曰稅 其義一也 兌者銳也 兌之爲卦 下大上小 其象銳也 金上小曰銳 木上小曰稅 石上小曰硲 其義一也 兌者稅也 西方之卦於時爲秋 故兌則爲利 以刀而刈禾也 兌則爲和 以口而食禾也 兌者說也 乾之盈滿 兌以澄之 其象澤也 兌者悅也 自震而起 中心有得 外貌自解 其象悅也 兌者說也 上垢如口 談說之所出也 以重卦則自大壯來 大壯者兼兌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태(兌)	구이 (九二)	학포 (學圃)	중태괘(重兌卦)는 중손괘(重巽卦)의 반역(反易)이니, 손괘(巽卦) 구오(九五)와 태괘(兌卦) 구이(九二)에서 모두 ‘회망(悔亡)’이라고 말한 것은 반역(反易)의 괘(卦)로 이효(二爻)와 오효(五爻)가 서로 대조적인 관계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重兌者 重巽之反易也 巽之九五 兌之九二 皆云悔亡者 明反易之卦 二五相照也].
	육삼 (六三)	우번 (虞翻)	대장괘(大壯卦)로부터 와서 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흉(凶)하다 [從大壯來 失位故凶也].
환(渙)		서괘 (序卦)	‘환(渙)’은 떠남이다[渙者離也].
		잡괘 (雜卦)	환(渙)은 떠남이다[渙離也].
		정자 (程子)	환(渙)은 풀어져서 흩어짐이다. 물이 바람을 만나면 흩어진다 [渙舒散也 水遇風則渙散].
		주자 (朱子)	바람이 물 위로 다니는 형상이니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상(象)이다[風行水上 離披解渙之象].
		용안 (鑄案)	노자(老子)가 “흩어지기도 얼음이 장차 녹으려 하네!”라고 했으니 ‘환(渙)’은 얼음이 녹는 것이다. 환괘(渙卦)는 비괘(否卦)로부터 왔다. 비괘(否卦)의 때에는 북방이 매우 추워서 건(乾)의 얼음이 굳게 얼어 있는데 추이(推移)하여 환괘(渙卦)가 되면 한 조각의 건(乾)의 얼음이 곤(坤)의 따뜻한 가운데로 들어가고, 손(巽)의 바람이 유순(柔順)하여 감(坎)의 물이 흘러 움직인다. 이것이 이른바 『춘추전(春秋傳)』에서 “흩어짐이 얼음 녹는 듯하다”고 한 것이다. 호체(互體)로써 말하면 이미 간(艮)에서 끝나고 진(震)으로써 회생하니 때로 본다면 봄이다. 봄바람이 물 위에 부니 흩어지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른바 『예기(禮記)』에서 “동풍에 얼음이 녹는다”고 한 것이다. 건(乾)의 견고하게 얼어붙어 있던 것이 이에 흩어지기 때문에 ‘환(渙)은 흩어짐이다’고 한 것이다[老子曰渙若氷將釋 渙者氷釋也 卦自否來 否之時 北方嚴寒 乾氷凝固 移之爲渙 則一片乾氷 入于坤溫之中 而巽風柔順 坎水流動 此所謂渙然氷釋也 以互體則既終乎艮 震以反生 於時春也 春風吹水 有不渙乎 此所謂東風解凍也 乾之堅凝 於是乎離散 故曰渙者 離也].
	초육 (初六)	안(案)	‘환(渙)’은 봄에 얼음이 녹는 것과 같다. 봄에는 얼음이 쉽게 빠지기 때문에 그 점이 이와 같다[渙者春氷之釋也 春氷易溺 故其占如此].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환(渙)	구이 (九二)	안(案)	‘괘(几)’자와 ‘괘(机)’자는 본래 서로 통한다. 그러나 ‘괘장(几杖)’이라고 할 때의 괘(几)는 대부분 ‘괘(几)’자로 쓰지만 ‘괘조(机组)’라고 할 때의 ‘괘(机)’자는 대부분 ‘괘(机)’자로 쓴다. 구주(舊注)에서는 모두 ‘괘장(几杖)’의 ‘괘(几)’자로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분(蔞)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방본(坊本)』에서는 모두 ‘울(机)’자로 썼다. ‘울(机)’이라는 것은 도울(櫛机)이니 이것은 『초사(楚史)』의 이름이다. 내지덕(來知德)의 『역주(易注)』에서는 또 괘(机)를 나무의 명칭이라고 했다. 『설문(說文)』에서는 “단호산(單狐山)에는 괘(机)나무가 많다”고 했는데 모두 잘못된 것이다[几机本相通 然几杖之几多作几 机组之机 多作机 舊注皆作几杖之几 則蔞字何解 又坊本皆作机 机者櫛机 此楚史之名 來氏易注又作木名 說文云單狐之山多机 皆謬矣].
	육사 (六四)	안(案)	노경유(盧景裕)은 “이효(二爻)로부터 사효(四爻)에 거쳐함에 그 무리를 흠트리니 이것이 ‘환기군(渙其羣)’이라는 것이다. 지위를 얻어서 존귀한 사람을 받들기 때문에 ‘원길(元吉)’이라고 한 것이다”고 했다. 그 학설이 소략하다. 소순(蘇洵)은 “무리라는 것은 성인(聖人)이 흠트려서 천하를 합하여 하나로 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 설 또한 옳지 않다. 군자(君子)의 도(道)는 오직 소인의 무리를 흠트리는 것이 마땅하지 만 군자의 무리에 있어서는 오직 흠어질까 두려울 뿐이다. 만약 소순(蘇洵)의 설과 같다면 천하는 모두 흠어져버릴 것이고, 인주(人主)가 함께 그 공(功)을 이루는 일이 없을 것이다. 또 그 봉당과 더불어 의리(義理)를 논의함에 있어서도 합치하지 않는다[盧氏云自二居四 離其羣侶 是渙其羣也 得位承尊 故元吉 其說疏矣 蘇洵云羣者 聖人之所欲渙以混一天下者也 其說亦非矣 君人之道 唯當渙小人之羣 至於君子之羣 唯恐其渙散 若如蘇氏之說 則天下皆渙 人主罔與成厥功矣 又與其朋黨論 義理不合].
	구오 (九五)	안(案)	순구가의 『역(易)』에 “건(乾)은 머리인데 아래에서 감(坎)의 물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땀의 형상이다”고 했는데 그 설이 소략하다. 구설(舊說)에 “땀이라는 물질은 나오기는 하지만 들어가는 일이 없다. 호령(號令)함에 있어서, 시행됨이 있으면 되돌아오미 없는 것이 또한 이 땀과 같다. 괘상(卦象)으로 본다면 구오(九五)가 이미 효변(爻變)하게 되면 진(震)은 있으나 손(巽)이 없으니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九家易云乾爲首 下成坎水 是汗象 其說疏矣 舊說云汗之爲物 有出无入 號令之有行无反 亦猶是也 以卦象則五之既變 有震无巽 不可入也].
	상구 (上九)	안(案)	‘적(逖)’은 구본(舊本)에서 대부분 ‘척(愁)’으로 썼는데, 보통은 ‘척(惕)’으로 쓴다. 『한서』 「왕상전(王商傳)」에 “두려워함이 없다”고 했다[逖舊本多作愁 通作惕 漢書王商傳云無怵愁].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환(渙)	상구 (上九)	우안 (又案)	소축괘(小畜卦) 육사(六四)에 “어혈(瘀血)에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린다”고 했고, 여기에서 “그 어혈(瘀血)을 풀어 버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린다”고 했다. ‘혈(血)’자와 ‘출(出)’자는 협운(叶韻)인데도 구주(舊註)에서는 모두 ‘혈거(血去), 척출(惕出)’이라고 구(句)를 끊었는데, 그렇다면 공자가 「상전」에서 ‘환기혈(渙其血)’이라고 한 것이 잘못 읽은 것이란 말인가[小畜云有孚血 去惕出 此云渙其血 去惕出 血出 叶韻也 舊註皆云血去惕出 則孔子之云渙其血 爲誤讀乎?]
절(節)		잡괘 (雜卦)	‘절(節)’은 그침이다[節止也].
		주자 (朱子)	‘절(節)’에는 한계가 있어서 멈추는 것이다. 연못 위에 물이 있는데, 그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節)’이 된다[節有限而止也 澤上有水 其容有限 故爲節].
		용안 (鋪案)	‘절(節)’은 대나무의 마디이다. 절괘(節卦)는 태괘(兌卦)로부터 왔다. 태괘(兌卦)는 복괘(復卦)로 말미암아 시작된다. 복괘(復卦)의 때에는 푸르고 어린 대나무가 비로소 싹을 내고 죽순을 내니 임괘(臨卦)가 되고 태괘(泰卦)가 되어 그 대나무가 점점 자라게 되면 쪽 뻗어 위로 올라가 하나의 마디가 이내 이루어진다. 이것이 대나무의 마디이다. 대나무 마디의 형태는 뿌리에 가까울수록 짧고 이미 쪽 뻗으면 길고 넓으니 괘형(卦形)을 조용히 살펴보면 대나무의 진실로 살아 있는 그림이다. 또 절(節)은 부절(符節)이다. 『주례(周禮)』 「지관사도(地官司徒)」에서 장절(掌節)의 직책에 “산이 많은 나라에서는 호절(虎節)을 사용하고 연못이 많은 나라에서는 용절(龍節)을 사용한다”고 했다. 지금 진(震)의 대나무가 분할됨에 간(艮)의 부절을 밖으로 내보내고 가운데 이(離)의 믿음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서괘전(序卦傳)」에서 ‘절제하여 믿는다’라는 것이다. 또 계곡의 물이 흐르기만 하고 고이지 않는다면 한건(暎乾)의 때에는 관개(灌溉)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연못에 제방을 쌓아 그 물을 막으니 절지(節止)의 뜻이다. 노경유(盧景裕)는 “이 절괘(節卦)는 본래 태괘(泰卦)의 건(乾)의 구삼(九三)을 분리해서 상괘(上卦)인 곤(坤)의 오효(五爻)로 오르게 하고, 곤(坤)의 육오(六五)를 분리해서 하괘(下卦)인 건(乾)의 삼효(三爻)에 처하게 한 것이다”고 했다[節竹節也 卦自泰來 泰由復始 復之時 蒼莨之竹 始萌始節 爲臨爲泰 其竹漸長 則抽而上之 一節乃成 此竹節也 竹節之形 近根則短促 既抽則修闊 靜觀卦形 誠活畫也 又節者符節也 周禮掌節之職 山國用虎節 澤國用龍節 今震竹剖分 艮節出外 中成離信 此所謂節而信之也 又谿谷之水流而不滯 暎乾之時 無以灌溉 故爲之堤澤 以滯其水 亦節止之義也 盧氏曰此本泰卦 分乾九三 上升坤五 分坤六五 下處乾三].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절(節)	단(象)	안(案)	『춘추전』에 “성인달절[聖人達節]”이라고 했는데 ‘달(達)’이라는 것은 통(通)함이다.坎(坎)으로서 통하기 때문에 절(節)의 형통함인데 艮(艮)으로서 막기 때문에 ‘불가정(不可貞)’이 된다[春秋傳曰聖人達節 達者通也 坎以通之 故爲節亨 艮以塞之 故爲不可貞].
		학가 (學稼)	이괘(頤卦)의 단사(彖詞)에 ‘이정길(頤貞吉)’이라고 했으니 저기에서는 오직 기르고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길(吉)한 경우다. 여기에서는 ‘불가정(不可貞)’이라고 했으니 또한 오직 달절(達節)의 일만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頤之彖曰頤貞吉 彼唯頤養之事吉也 此云不可貞 亦唯達節之事可也].
		학포 (學圃)	환괘(渙卦)와 절괘(節卦)의 단사(彖詞)는 모두 양호괘(兩互卦)로써 상(象)을 취한 것이다. 환괘와 절괘는 반역(反易)의 괘이니 문장이 서로 대조된다[渙節之彖 皆以兩互取象 反易之卦文相照也].
	초구 (初九)	안(案)	절괘(節卦)는 태괘(泰卦)로부터 왔다. 그 시작에 있어서는 건(乾)의 군주와 곤(坤)의 신하가 각각 그 분수에 편안히 한다. 추이(推移)하여 절괘(節卦)가 되면 군주의 말이 한번 나오자 곤(坤)의 신하가 난리를 일으킨다. 이러한 때를 만나면 한마디 말이라도 긴밀하게 하지 않으면 비밀스러운 일이 모두 새어나가기 때문에 경계하기를 이와 같이 한 것이다[卦自泰來其始也 乾君坤臣 各安其分 移之爲節則君言一出 坤臣作亂 當此之時 一言不密 機事盡泄 故戒之如此].
	육삼 (六三)	안(案)	태괘(泰卦)가 추이(推移)하여 절괘(節卦)가 되는 경우와 대장괘(大壯卦)가 추이(推移)하여 수괘(隨卦)가 되는 경우는 모두 처음에는 절제하지 못하다가 끝에는 절제하기 때문에 그 점이 ‘무구(无咎)’가 된다[泰卦之移爲節 大壯之移爲需 皆始不節而終節也 故其占爲無咎].
	육사 (六四)	안(案)	사람이 능히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언어(言語)와 음식(飲食)과 안일(安逸)함이다. 그러므로 효사(爻詞)에 이 세 가지로써 경계를 삼은 것이다[人之所不能節者 言語也飲食也安逸也 故爻詞必以是三者爲戒].
중부 (中孚)		잡괘 (雜卦)	‘중부(中孚)’는 믿음이다[中孚信也].
		주자 (朱子)	‘부(孚)’ 자는 ‘조(爪)’자와 ‘자(子)’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졌으니 마치 새가 새끼를 안고 있는 형상이다. 지금의 ‘유(乳)’자도 또한 ‘부(孚)’로부터 왔다[孚字從爪從子 如鳥抱子之象 今之乳字 亦從孚].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중부 (中孚)		용안 (繡案)	<p>연괘(衍卦) 50개에는 모두 추이(推移)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거나, 가고 오는 것에는 모두 정변(情變)이 있고, 사시(四時)의 괘(卦)에 있어서도 또한 나아가고 물러나거나, 사라지고 자라남의 형세가 있다. 중부괘(中孚卦)와 소과괘(小過卦)에 이르러서는 이미 추이(推移)도 없고 또한 소장(消長)도 없기 때문에 오직 교역(交易)의 법으로써 그 변동을 살피는 것이다. 중부괘(中孚卦)는 대과괘(大過卦)가 교역한 것이다. 대과괘(大過卦)는 네 개의 강이 가운데 굳게 있으니 감(坎)의 의심이 지극히 크다. 의심하면 믿지 못하는 것이니 어떤 것에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교역(交易)하여 중부괘(中孚卦)가 되면 대리(大離)의 믿음이니 한 가운데가 확 트여 있다. 이것을 일러 ‘중부(中孚)’라고 한다. 음(邑)이 가운데 비어 있는 것을 ‘부(鄆)’라고 하고, 갈대가 가운데 비어 있는 것을 ‘부(苧)’라고 하고, 배가 가운데 비어 있는 것을 ‘포(脬)’라고 하니 ‘중부(中孚)’라는 것은 가운데가 빈 것이다. 또 두 괘는 소종래(所從來)가 없고 단지 감(坎)과 이(離)의 두 괘를 따라서 오르고 내리거나, 가고 옴으로써 다시 감(坎)과 이(離)를 이룬다. 감(坎)과 이(離)는 해와 달이다. 해의 기운은 가득 차지만 달의 초하루는 비니 윤달을 세우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소과괘(小過卦)와 중부괘(中孚卦)는 윤달의 괘(卦)라고 한다[衍卦五十 皆有推移之本 故升降往來 皆有情變 而四時之卦 亦有進退消長之勢 至於中孚小過 既無推移 亦無消長 故唯以交易之法 察其變動 中孚者 大過之交也 大過之卦 四剛中梗 坎疑極大 疑則不信 物莫能孚 交之中孚 則大離之信 洞然中虛 此之謂中孚也 邑虛中日鄆 腹虛中日脬 中孚者虛中也 又此二卦 無所從來 特從坎離二卦 升降而往來之 復成坎離 夫坎離者日月也 日之氣盈月之朔虛 非所以立閏乎 故曰小過中孚者 閏月之卦也].</p>
	단(象)	안(案)	<p>호병문(胡炳文)은 ‘돈어(豚魚)’를 ‘하돈(河豚)’이나 ‘강돈(江豚)’으로 여겼는데 잘못된 것이다. 옛날에 희생을 올릴 때 다섯 등급이 있었는데 대뢰(大牢)와 소뢰(少牢)와 특생(特牲)은 그 등급이 높은 것이다. 특돈일정(特豚一鼎)은 그 제물의 등급이 가장 낮은 것이다. 『국어(國語)』 「초어(楚語)」에서 관사보(觀射父)가 “선비는 물고기를 먹고 특돈(特豚)으로 제사 지내며, 서인(庶人)은 채소를 먹고 물고기로 제사 지낸다”고 했다. 초(楚)나라 굴건(屈建)은 “선비에게는 돈(豚)과 견(犬)으로 제사 지냈고, 서인(庶人)에게는 생선과 구운 고기로 제사 지냈으니 있다”고 했다. 돈어(豚魚)는 제사 지낼 때 희생으로 쓰는 간소한 품목이다. 만약 우매하고 둔한 동물로서 논한다면 어찌 돼지와 생선뿐이겠는가[胡炳文以豚魚 爲河豚江豚 謬矣 古者牲牢有五等 大牢小牢特牲 其厚者也 特豚一鼎 其物最薄 國語觀射父曰士食魚 祀以特豚 庶人食菜 祀以魚 又楚屈建曰士有豚犬之奠 庶人有魚炙之薦 豚魚者性羞之薄品也 若論冥頑之物 奚特豚魚哉?]</p>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중부 (中孚)	구이 (九二)	안(案)	육적본(陸績本)에는 ‘미(靡)’를 ‘미(縻)’로 썼는데 ‘미(縻)’ 자는 묶는다는 것이다. 경방본(京房本)에는 ‘마(𪔐)’ 자로 되어 있는데 ‘마(𪔐)’ 자는 분산된다는 것이다. 괘상(卦象)에 있어서 이 두 개의 뜻에 해당함이 없으니 모두 옳지 않은 것이다. 호병문(胡炳文)은 “알에서 태어난 것이 ‘부(孚)’이기 때문에 학(鶴)의 모자(母子)의 상(象)을 취한 것이다”고 했다[陸績本靡作縻 縻者繫也 京房本作𪔐 𪔐者分散也 於卦象無當兩義 皆非也 胡炳文云卵生爲孚 故取鶴母子之象].
		안(案)	중부(中孚)는 감응(感應)의 괘(卦)이다. 풍뢰(風雷) 익괘(益卦)는 동성상응(同聲相應)의 괘(卦)이다. 그러므로 그 상(象)이 우는 학이 서로 화답하는 것이 된다. 공자께서 이른바 “작하면 천리 밖에서도 호응한다”고 한 것도 또한 동성상응(同聲相應)이다[中孚者 感應之卦也 風雷益者 同聲相應之卦也 故其象爲鳴鶴相和 孔子所謂善則千里之外應之者 亦同聲相應也].
	육삼 (六三)	안(案)	이 효(爻)가 이괘(頤卦) 구삼(九三)과 더불어 그 상이 서로 같은 것은 저기에서는 중이(重離)가 되고 여기에서는 겸이(兼離)가 되어 괘덕(卦德)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此爻與離九三 其象相同者 彼爲重離 此爲兼離 卦德不殊也].
		우안 (又案)	순구가는 진(震)이 북[鼓]이 된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다. 이(離)에 북의 상(象)이 있다[荀九家以震爲鼓 非矣 離有鼓象].
	육사 (六四)	안(案)	‘월기망(月幾望)’은 가득 찬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치는 자에 있어서는 거듭 그 기약할 날을 점칠 수 있다. 소축괘(小畜卦)의 흉(凶)함은 월기망(月幾望)의 저녁에 출정(出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귀매괘(歸妹卦)의 길(吉)함은 월기망(月幾望)의 저녁에 누이를 시집보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月幾望 固爲盛滿之戒 然其在筮家 仍可以占其日期 小畜之凶 謂月幾望之夕 不可出征也 歸妹之吉 謂月幾望之夕 可以嫁妹也].
		우안 (又案)	정자는 두 마리의 말을 한 필로 여겼다. 그러나 『주례(周禮)』 「하관사마(夏官司馬)」 「교인(校人)」의 주(注)에 “네 필이면 승(乘)이 된다”고 했으니 한 마리 말이 일필(一匹)이 되는 것이다. 말을 필(匹)이라고 말하는 것은 양복(兩服)과 양참(兩駟)이 반드시 짝을 이루기 때문이니 비록 한 마리의 말이라도 또한 ‘필마(匹馬)’라고 부른 것이다[程子以兩馬爲匹 然周禮校人注四匹爲乘 一馬爲一匹也 謂馬爲匹者 兩服兩駟 必以其耦 故雖一馬亦名爲匹馬也].
	상구 (上九)	안(案)	『세설신어(世說新語)』에서 주박(朱博)이 갑자기 삼공(三公)에 오른 것을 “닭이 소리치며 하늘에 오른다”로 비유한 것도 또한 이러한 뜻이다[世說以朱博驟至三公 爲翰音登天 亦此義也].

괘명 (卦名)	괘호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소과 (小過)		잡괘 (雜卦)	‘소과(小過)’는 지나침이다[小過過也].
		정자 (程子)	작은 것이 지나친 것이요, 또 지나침이 작은 것이 된다[小者過 又爲過之小].
		용안 (鋪案)	‘소(小)’라는 것은 음(陰)이다. ‘과(過)’라는 것은 교차해서 지나가는 것이다. 소과괘(小過卦)는 이괘(頤卦)로부터 교역(交易)된 것이다. 교역하여 지나가니 네 개의 음이 서로 지나간다. 이것을 일러 ‘소과(小過)’라고 말한다. ‘과(過)’라는 것은 허물이다. 괘(卦)는 겸획(兼畫)한 감(坎)이니 감(坎)은 곧 많은 허물이다. 그러나 대과괘(大過卦)에 비교하면 오히려 적음이 되니 ‘소과(小過)’라고 하는 까닭이다. 나머지는 중부괘(中孚卦)와 대과괘(大過卦)에 보인다[小者陰也 過者交過也 卦以頤交而過之 四陰相過 此之謂小過也 過者愆也 卦爲兼坎 坎則多眚 然比之大過 猶之爲小 所以爲小過也 餘見中孚大過].
	단(象)	안(案)	『주례(周禮)』 「춘관(春官)」 「태복(太卜)」에 “태복(太卜)이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거북점을 치고 작은 일이 있으면 복점에 참여한다”고 했으니 작은 일과 큰일이란 이것을 가리킨다[周禮太卜 國大貞則作龜 小事則苴 小事大事 卽指是也].
	초육 (初六)	안(案)	우중상(虞仲翔)이 “이(離)는 그물이 된다”고 했는데 옳지 않은 것이다. 이(離)가 이미 새인데, 또 그물도 된다면 이것은 천하의 새가 그물에 뛰어든 새가 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어찌 옳겠는가? 두 개의 이(離)가 합쳐져서 그물의 뜻이 나오는 것은 바로 손(巽)의 줄 때문이니 팔괘(八卦)의 이(離)가 어찌 그물이 될 수 있겠는가[虞仲翔云離爲網罟 非矣 離旣爲鳥 又爲網罟 則是天下之鳥 無非投羅之雀 惡可乎哉 重離之爲網罟 正以其巽繩 八卦之離 安得爲網罟哉?]
	육이 (六二)	안(案)	괘덕이 본래 지나침이기 때문에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예(禮)를 논한 것이다[卦德本過 故論過不及之禮].
	육오 (六五)	안(案)	소과괘(小過卦)는 대감(大坎)이다. 감(坎)은 비[雨]가 되기 때문에 그 점(漸)이 ‘질은 구름이 끼었으나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된다[小過者 大坎也 坎則爲雨 故其占爲密雲不雨].
	상육 (上六)	안(案)	소과괘(小過卦)는 지나감이다. 그러므로 이효(二爻)와 삼효(三爻)와 사효(四爻)와 육효(六爻)에서 모두 지나가거나 만나는 것으로서 점(占)을 삼았고, 초효(初爻)와 오효(五爻)와 육효(六爻)에서도 모두 날아가는 새로써 상(象)을 삼았으니 나는 새도 역시 지나가는 것이다[小過者過也 故二三四 皆以過遇爲占 初與五六 皆以飛鳥爲象 飛鳥亦過者也].
기제 (既濟)		잡괘 (雜卦)	‘기제(既濟)’는 정해짐이다[既濟定也].

괘명 (卦名)	괘효 (卦文)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기제 (既濟)		정자 (程子)	물이 불 위에 있는 것이니 물과 불이 서로 사귀면 작용(作用)하기 때문에 기제(既濟)가 된다[水在火上 水火相交 則爲用矣 故爲既濟].
		용안 (鑄案)	‘제(濟)’라는 것은 서로 교섭하는 것이며, 그 미치지 못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불의 성질은 위로 타고르고 물의 성질은 아래로 젖어드는데 물이 불 위에 있으니 그 형세가 반드시 서로 교섭하게 된다. 건조하고 뜨거움이 너무 심하고 습하고 찬 것이 너무 심하면 물과 불이 서로 교섭하여 이지상 반드시 그 미치지 못한 것을 도와주니 이것을 ‘기제(既濟)’라고 한다. 『좌전(左傳)』에서 안영(晏嬰)의 말에 “물과 불과 소금과 매실을 가지고 생선과 고기를 삶을 때에 그 미치지 못한 것을 보충하고 그 지나친 것을 물게 하니 만약 물로써 물에 보충한다면 누가 그것을 먹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제(濟)’라는 것은 돕는다는 것이다. 또 ‘제(濟)’라는 것은 보탬이다. 기제괘(既濟卦)는 태괘(泰卦)로부터 왔다. 강(剛)이 나아가 곤(坤)을 도와서 그 가난함을 구원하니 이것을 일러 ‘제(濟)’라고 한다. 또 ‘제(濟)’라는 것은 하천을 건너는 것이다. 태괘(泰卦)의 건(乾)의 사람이 감(坎)의 하천을 건너서 곤(坤)의 육지에 이르니 이것을 일러 ‘기제(既濟)’라고 한다[濟者相涉也 又救助其不及也 火性炎上 水性潤下 水在火上 勢必相涉 燥熱太甚 濕冷太過 水火相涉 理必救助其不及 此之謂既濟也 左傳晏嬰之言曰 水火鹽梅以烹魚肉 濟其不及 以洩其過 若以水濟水 誰能食之 濟者救也 又濟者益也 卦自泰來 剛往益坤 以助其貧 此之謂濟也 又濟者涉川也 泰之乾人 涉此坎川 至于坤陸 此之謂既濟也].
	단(象)	안(案)	둔괘(遯卦)에서도 또한 “형통하고 작은 일을 처리함이 이로울 것이다”고 했는데 공자는 둔괘(遯卦)의 「단전(彖傳)」에서 “작은 일을 처리함이 이롭다는 것은 점점 자라고 있음이다”고 했다. 이 경문에서도 또한 마땅히 ‘소(小)’자를 아래 구(句)에 붙여서 읽어야 한다[遯亦日亨 小利貞 孔子曰小利貞 浸而長也 此經亦當以小字屬下句讀].
		안(案)	역례(易例)에 감(坎)은 곧 막히지 않음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궁(道窮)’이라는 것은 감(坎)의 험난함이 중첩되어 있어서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易例坎則不窮 此云道窮者 坎險重疊 不能爲通也].
	초구 (初九)	안(案)	건괘(乾卦)의 「단전(彖傳)」에서 복괘(復卦)의 하나의 양(陽)으로써 “우두머리가 많은 사물을 산출한다”고 했으니 진(震)은 우두머리이다. 명이괘(明夷卦)로부터 복괘(復卦)로 변한 경우에도 ‘그 큰 우두머리를 얻는다’고 했으니 진(震)은 우두머리가 된다. 진(震)은 건(乾)의 근본이 되니 원(元)이라는 것은 우두머리이다[乾之彖傳 以復一陽 爲首出庶物 震爲首也 明夷之復曰 得其大首 震爲首也 震爲乾元 元者首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기제 (既濟)	초구 (初九)	학포 (學圃)	태괘(泰卦)와 비괘(否卦)의 때에는 본래 건(乾)과 곤(坤)으로써 머리와 꼬리를 삼았기 때문에 기제괘(既濟卦)와 미제괘(未濟卦)에서 ‘그 머리와 꼬리를 적신다’고 했다[泰否之時 本以乾坤爲首尾 故二濟之卦 濡其首尾也].
	육이 (六二)	안(案)	‘불(弗)’이라는 것은 수레의 덮개이다. ‘점불(簞弗)’과 ‘포불(蒲弗)’과 ‘적불(翟弗)’ 등이 『시경(詩經)』과 『예기(禮記)』에 자주 보인다. 『이아(爾雅)』 「석기(釋器)」에서 “수레의 앞에 있는 것을 ‘흔(觀)’이라고 하고, 수레의 뒤에 있는 것을 ‘불(弗)’이라고 한다”고 했다. 고본(古本)에서는 ‘불(弗)’ 자가 혹 ‘불(鬚)’ 자로 되어 있고 혹은 ‘불(紱)’ 자로 되어 있고 혹은 ‘불(佛)’ 자로 되어 있다. 우중상(虞仲翔)은 “불(鬚)은 술이 많고 검은 윤기가 있는 머리털이다”고 했다. 왕보사(王輔嗣)는 “불(弗)이라는 것은 머리장식이다”고 했다. 아마도 순상(荀爽)은 ‘불(弗)’ 자를 ‘불(芾)’ 자로 잘못 알고, ‘불(紱)’ 자를 ‘불(鬻)’ 자로 바꾸어서 ‘불(鬻)’ 자를 ‘불(紱)’ 자로 잘못 알았던 것 같다. 괘상(卦象)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문자만을 좇으니 잘못됨이 심하다. 기제괘(既濟卦)는 통하지 않은 것을 구제한다. 그러므로 수(紂)와 녀(紂)와 예(曳)와 룬(輪) 등은 모두 배와 수레의 상을 적용한 것이니 ‘불(弗)’ 자가 수레의 덮개가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시경(詩經)』에서 “물결 넘쳐도 바퀴 안 적시네”라고 했으니 수레도 또한 강물을 건너는 도구이다[弗者車蔽也 簞弗蒲弗翟弗之類 屢見詩禮 爾雅曰車前謂之觀 車後謂之弗 古本弗或作鬚 或作紱 或作弗 虞仲翔曰鬚謂鬚髮也 王輔嗣曰弗者飾也 若荀氏則由弗誤芾 由芾轉鬻 由鬻誤紱 不顧卦象 唯文字是逐 誤之甚矣 既濟之卦 以濟不通也 故紂紂曳輪 皆用舟車之象 弗之爲車蔽審矣 詩云濟盈不濡軌 車亦濟川之具也].
		우안 (又案)	왕숙(王肅)은 “이효(二爻)와 오효(五爻)가 서로 응하기 때문에 ‘칠일득(七日得)’이다”고 했는데 2와 5가 합쳐져서 7이 된다는 것은 본래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하물며 진괘(震卦) 육이(六二)는 오효(五爻)와 호응하는 것이 없는데 또 어떻게 ‘칠일득(七日得)’이 되겠는가? 그 뜻이 잘못된 것이다[王肅曰 二五相應 七日得也 二五之合成七 本自無義 況震六二未有五應 又何以七日得乎 其義非也].
		학포 (學圃)	하괘(下卦)는 이(離)의 자리인데 건(乾)이 되면 이(離)가 숨겨지고 건(乾)이 되지 않으면 이(離)가 드러나게 되니 건(乾)은 그 덮개이다[下卦位離也 乾則離隱 不乾則離露 乾其蔽也].
	구삼 (九三)	안(案)	고종(高宗)은 무정(武丁)이다. 괘(卦)의 본래 상(象)으로 보면 건(乾)이 이(離)가 되었다. 이(離)는 정(丁)이 되니 이것은 무정(武丁)이다. 강(剛)은 북방을 정벌하는 것이니 ‘귀방(鬼方)을 정벌한다’고 한 것이다. 물이 장차 불을 이길 것이니 어떻게 내가 이기겠는가? 반드시 3년이 걸려서야 내가 이내 이길 것이다[高宗者武丁也 卦之本象 乾以爲離 離則爲丁 是武丁也 剛乃北征 伐鬼方也 水將克火 何以克之 須至三年 我乃克之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기제 (既濟)	구삼 (九三)	우안 (又案)	『한서』 「광형전(匡衡傳)」에 “성탕(成湯)이 다른 풍속을 교화하고 귀방을 회유하였다”고 했으며, 『후한서(後漢書)』 「서강전(西羌傳)」에서는 “은나라 왕실이 중간에 쇠퇴함에 제후들이 모두 반란을 일으켰는데, 고종(高宗)에 이르러서 서융(西戎)과 귀방(鬼方)을 정벌함에 3년 만에 이내 이겼다”고 했다. 고례(古禮)에 사람이 죽으면 “북쪽 땅에 장사 지내고 머리를 북쪽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북방의 나라를 ‘귀방(鬼方)’이라고 한다. 괘상(卦象)으로 보면 간(艮)이 ‘귀(鬼)’가 되며, 감(坎)은 북쪽이 된다[漢書匡衡傳云成湯化夷俗而懷鬼方 西羌傳云殷室中衰 諸侯皆叛 至高宗征西戎鬼方 三年乃克 古禮人死 葬於北方北首 故北國謂之鬼方 以卦象則艮乃爲鬼 坎爲北方也].
		안(案)	고본(古本)에서 ‘수(繻)’를 혹 ‘유(濡)’로 썼고 혹은 ‘유(濡)’로 썼으며 혹은 ‘수(濡)’로 썼다. 혹자는 ‘유(濡)’로 써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서』에서 ‘수(繻)’ 자가 ‘부신(符信)’으로 사용하는 비단’을 의미하니 두 조각을 맞추어서 신표(信標)를 삼은 것이다. 따라서 ‘수(繻)’ 자가 봉합(縫合)의 뜻이 된다는 것을 잘 살펴야 한다[古本繻或作濡 或作襦 或作濡 或曰當作濡 然漢書繻字符信也 合兩而爲信也 卽繻之爲縫合審矣].
	육사 (六四)	우안 (又案)	‘여(袪)’는 혹 ‘서(絮)’로 썼고, 혹 ‘여(袪)’로 썼으며, 혹 ‘여(茹)’로도 썼는데, 아마도 ‘여(袪)’와 ‘서(絮)’와 ‘녀(帀)’는 본래 동음이니 낚은 솜으로 배가 새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서개(徐鍇)는 “비단이 낚은 것이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취(臭)’라는 것은 ‘파손된 것’을 의미한다. 총괄해 보면 기제괘(既濟卦)는 본래 강물 건너는 상(象)이기 때문에 수래의 ‘불(弗)’과 배의 ‘여(袪)’는 모두 괘상(卦象)을 적용한 것이니 다른 해석은 옳지 않다[袪或作絮 或作絮 或作茹 蓋袪絮帀 本皆同音 卽敗絮之塞舟漏者也 徐鍇云帀臭也 臭者敗也 總之既濟爲卦 本是濟川之象 故車弗舟袪 皆用卦象 不可他解也].
		학포 (學圃)	혁괘(革卦)의 괘 됨은 서쪽 하늘 아래 이(離)의 태양이 마침내 지니, 하루를 끝마치는 상(象)이다[革之爲卦 西天之下 離日遂沒 終日之象也].
	구오 (九五)	안(案)	태괘(泰卦)의 양호괘(兩互卦)를 보면 상괘(上卦)가 진(震)이고 하괘(下卦)가 태(兌)이니 또한 동(東)과 서(西)이다. 곤(坤)의 소가 화살을 맞으니 동쪽에서 소를 죽인 것이다. 이(離)의 여름에 제사를 지내니 서쪽에서 약제(禴祭)를 지낸 것이다. 오효(五爻)가 변하면 동쪽 나라는 마침내 텅 비게 되니 화(福)와 복(福)이 갈라지는 것이다. 본상(本象)과 효상(爻象)이 이와 같이 묘하게 합하니 『역(易)』을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泰之兩互 上震下兌 亦東西也 坤牛受射 東殺牛也 離夏用享 西祭禴也 五之既變 東國遂空 禍福之判也 本象爻象 妙合如此 易可易言哉].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기제 (既濟)	구오 (九五)	우안 (又案)	『한서』 「교사지(郊祀志)」에서는 ‘약제(禴祭)’를 ‘약제(淪祭)’로 썼는데 나물을 데친다는 의미이다. 『주례』에서는 약(禴)을 여름제사라고 하였다. 『예기(禮記)」 「왕제(王制)」 「명당위(明堂位)」 등의 여러 편에서는 또 봄의 약(祓) 제사를 ‘약(禴)’으로 삼았다[漢書禴祭作淪祭 淪祭之意也 周禮以爲夏祭 然王制明堂位諸篇 又以春祓爲禴].
		우안 (又案)	정현(鄭玄)은 상괘(上卦)인 감(坎)을 서린(西鄰)으로 보고, 하괘(下卦)인 이(離)를 동린(東鄰)으로 보았는데 아마도 『예기(禮記)」 「제의(祭義)」에서 “달은 서쪽에 나오고 해는 동쪽에서 나온다”는 것 때문이다. 하지만 그 뜻은 매우 잘못되었다. 하물며 아래쪽 이웃이 언제 소를 잡은 적이 있던 말인가[鄭玄 以上坎爲西鄰 以下離爲東鄰 蓋以禮記月生於西 日出於東也 其義甚謬 況下鄰何嘗殺牛哉!]
		학포 (學圃)	‘명이(明夷)’라는 것은 외국(外國)이 문명화되는 것이다. 주왕(紂王)의 중국이 문왕(文王)의 오랑캐 나라만 같지 못한 것이 명이괘(明夷卦)이다[明夷者 外國文明也 紂之中國 不知文王之夷國 明夷之卦也].
	상육 (上六)	안(案)	가인괘(家人卦)는 둔괘(遯卦)로부터 왔다. 건(乾)의 머리가 또한 젖는 것이다. 그러나 기제괘(既濟卦)와 미제괘(未濟卦)는 모두 진(震)과 간(艮)으로써 머리와 꼬리를 삼은 것이다[家人 自遯來 乾首亦濡也 然二濟之卦 皆以震艮爲首尾].
		학포 (學圃)	상효(上爻)에 하나의 음(陰)이 음(陰)으로서 위에 거처하고 있으니 위태로운 것이다. 효상(爻象)은 반드시 본상(本象)에서 취한 것이다[上一陰以陰居上 所以危也 爻象必取於本象].
미제 (未濟)		서괘 (序卦)	만물을 다해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미제괘(未濟卦)로 받아서 끝마친 것이다[物不可窮也 故受之以未濟 終焉].
		잡괘 (雜卦)	미제괘(未濟卦)는 남자의 곤궁함이다[未濟 男之窮也].
		정자 (程子)	불이 물 위에 있으니 상호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제(未濟)’가 된다[火在水上 不相爲用 故爲未濟].
		용안 (鑄案)	기제괘(既濟卦)는 태괘(泰卦)로부터 왔고, 미제괘(未濟卦)는 비괘(否卦)로부터 왔다. 시운(時運)의 통함과 막힘이 같지 않기 때문에 괘(卦)의 성격이 다르다. 기제괘(既濟卦)는 육위(六位)가 모두 바른데, 미제괘(未濟卦)는 육위(六位)가 모두 어그러져 있으니 위치의 어긋남과 바름이 다르기 때문에 괘(卦)의 성격이 다르다. 위로 타오는 것이 위에 있고 아래로 젖는 것이 아래에 있다. 태양은 따뜻하게 내리쬘지 못하고 비구름은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만물이 서로 교섭하지 못하고 만물의 변화가 흥기하지 않으니 미제(未濟)가 되는 까닭이다. 감(坎)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미제 (未濟)		용안 (鏞案)	의 넷물이 안에 있고 곤(坤)의 백성이 빠지는데 그 후 앞으로 나아간 자라도 또 제방에 막혀 버려 마침내 도달하지 못하니 미제(未濟)의 상(象)이다. 『역(易)』의 도(道)는 “방소에 따라 종류별로 모이고 사물에 따라 무리가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건괘(乾卦)와 곤괘(坤卦)는 같은 종류끼리 모인 것의 극단(極端)이기 때문에 머리로 삼은 것이고, 기제괘(既濟卦)와 미제괘(未濟卦)는 무리가 나누어짐의 극단(極端)이기 때문에 끝으로 삼은 것이다[既濟自泰來 未濟自否來 時運之通塞不同 卦德以殊也 既濟六位皆正 未濟六位皆舛 位置之邪正不同 卦德以殊也 炎上者在上 潤下者在下 大陽不煦 雲雨不騰 物不相涉 萬化不興 所以爲未濟也 坎川在內 坤民墊溺 其或前進者 又被離防 不能遂達 未濟之象也 易之爲道 方以類聚 物以羣分 乾坤者類聚之極 所以爲首也 既濟未濟者 羣分之極 所以爲終也].
	단(象)	안(案)	여러 역학자들이 모두 꼬리를 여우 꼬리로 여긴다. 그러나 공자(孔子)의 「단전(彖傳)」에서도 “어린 여우가 넷물을 거의 건넜다”는 것이 하나의 구절이 되고 “그 꼬리를 적신다”는 것이 하나의 구절이 되니 두 구절이 각기 하나의 상(象)이 됨이 분명하다. 또 선유(先儒)들은 혹 “술을 마셔 머리를 적신다”는 것으로서 사람의 머리를 적시는 것으로 여기는데, 기제괘(既濟卦)와 미제괘(未濟卦)의 글이 혹 여우를 가리키고 혹 다른 짐승을 가리키고 혹 사람을 가리키니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둔괘(遯卦)의 초육(初六)의 ‘둔미(遯尾)’에서도 역시 말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분명히 말의 꼬리를 가리키니 이 기제괘(既濟卦)와 미제괘(未濟卦)는 소나 말의 꼬리가 됨은 예외가 없다. 만약 “작은 여우가 거의 건넜다[小狐汔濟]”라는 것으로서 말을 종결하지 않는다면 대축괘(大畜卦)의 “좋은 말이 달려간다[良馬逐]”와 “나는 새가 그물에 걸린다[飛鳥離之]”와 같은 종류는 또한 모두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사기(史記)』 「춘신군열전(春申君列傳)」에서는 『역』을 인용하여 “여우가 물을 건다가 물에 꼬리를 적신다”고 했다. 또 한영(韓嬰)의 『시전(詩傳)』에서는 “관직은 무엇을 이루었다는 데에서 나태해지고 질병은 조금 좋아졌을 때에 더욱 심해진다”고 하면서 이 괘사(卦詞)를 인용하여 경계하였다. 고어(古語)에 “여우가 강을 건너고자 하나 꼬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비록 여러 문장이 이와 같을지라도 지금 경문(經文)을 음미해 보니 반드시 여우꼬리는 아니다[諸家皆以尾爲狐尾 然孔子之傳 小狐汔濟爲一句 濡其尾別爲一句 明兩句各一象也 且先儒或以飲酒濡首 爲人首之濡 卽兩卦之文 或指狐或指他獸或指人也 有是理乎 遯之遯尾 亦不言馬 而明是馬尾 則此卦之爲牛馬之尾 無異例也 若以小狐汔濟 爲未了語 則如良馬逐飛鳥離之類 又皆不可讀乎 史記春申君傳引易狐涉水濡尾 又韓嬰詩傳云官怠乎宦成 病加乎小愈 引此詞以戒之 古語云狐欲渡河 無如尾何 雖諸文如此 今玩經文 必非狐尾也].

괘명 (卦名)	괘효 (卦爻)	설자 (說者)	괘의론(卦義論)
미제 (未濟)	구사 (九四)	학가 (學稼)	효사(爻詞)가 기제괘(既濟卦) 구삼(九三)과 더불어 대략적으로 같은 것은 반역괘(反易卦)에서 삼효(三爻)와 사효(四爻)가 서로 대응하기 때문이다[詞與既濟九三大同者 反易之卦 三四相照也].
	육오 (六五)	안(案)	『주례(周禮)』에서 ‘십운(十輝)’의 ‘운(輝)’ 자는 본래 ‘휘(暉)’자와 통한다. 관로(管輅)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이 ‘광(光)’이 되고 아침 햇살은 ‘휘(暉)’가 된다”고 했으니 ‘휘(暉)’는 빛의 기운이 아직 발산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周禮十輝之輝 本與暉通 管輅日日中爲光 朝日爲暉 謂光氣未散也].
	상구 (上九)	안(案)	사람이 술에 빠지는 것은 마치 말이 물에 빠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공자(孔子)는 「상전(象傳)」에서 ‘음주(飲酒)’와 ‘유수(濡首)’를 반드시 함께 거론하였는데 그 실상이 각각 하나의 상(象)이 된다. 뒤에 시인(詩人)들이 항상 술을 마시는 것을 ‘유수(濡首)’라고 하니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술에 빠지더라도 그 머리를 술 가운데 담그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다. 오직 도원량(陶元亮)이 갓巾(葛巾)으로서 술을 거르고, 다시 그것을 머리에 썼다고 하는데, 반드시 주공(周公)이 이 일을 예견하고 쓴 것은 아닐 것이다[人之沈湎于酒 如馬之蹙溺于水 故孔子之傳 飲酒濡首 必以並舉 其實各爲一象也 後來詩家 每以飲酒爲濡首 誤矣 人雖沈湎 未有蘸其首於酒中者 唯陶元亮 葛巾漉酒 還復著之 未必周公豫用此事也].
		학포 (學圃)	「설괘전(說卦傳)」에 의하면 곤(坤)은 배가 되고 이(離)는 눈이 되지만 이(離) 또한 배[腹]가 된다. 이것으로서 말한다면 건(乾)은 머리가 되고 진(震)은 다리가 되지만 진(震) 또한 머리가 됨을 또한 의심할 것이 없다[說卦坤爲腹離爲目 而離又爲腹 以此言之 乾爲首震爲足 而震又爲首 亦無疑也].

여기에 이상과 같이 다산의 괘의론(卦義論)을 중심으로 한 그의 장문의 안설(案說)을 발췌 초록한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에 몇 가지 이유를 기록해 두지 않을 수 없다.

다산이 역학에 손을 대자 한당송명의 역학을 두루 섭렵한 후 그의 역리론의 단서를 한대 순구가에서 찾아냈고 이어서 추이·물상·호체·효변의 역리사법으로 이를 확립하였다.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독역요지(讀易要旨) 및 역례비석(易例比釋)의 저술을 정리함으로써

고대역예의 입문의 길을 터놓았다. 이로써 64괘를 읽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셈이다.

이제 다산은 64괘의 각론을 다룸에 있어서 그의 보도인 역리사법으로 괘상(卦象)은 읽을 수 있지만 괄의(卦義)와 괄효사(卦爻詞)의 자의(字義)에 관해서는 그의 보도로서 요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각괘별(各卦別)로 괄효사(卦爻詞)의 공식적인 분석은 천편일률 막힘없이 서술하였지만 이에서 벗어난 문제들은 따로 안설(案說)로서 정리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저술된 안설(案說)은 그야말로 다산의 역저에 속한 부분이라 이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괄의(卦義)나 자의(字義)를 분석해 보면 그의 독역요지(讀易要旨) 인자항(認字項)에서

경전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글자의 뜻을 파악해야 한다. 여러 경전이 모두 그렇지만 『역』은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형(亨)’과 ‘정(貞)’과 ‘회(悔)’와 ‘인(吝)’ 등의 자의(字義)는 아직도 명백하지 않은 것이 많다. 또 「서괘전」과 「잡괘전」에서 말하는 괄의(卦義)는 괄(卦)의 뜻이지 글자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후세의 자서(字書)에서 이것을 아울러 수록하고서 글자의 뜻으로 삼았으니 큰 잘못이다.<sup>41)</sup>

라 했듯이 괄의(卦義)와 자의(字義)가 혼동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로써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안설(按說)을 저술하기에 이른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므로 상기(上記) 육십사괘론(六十四卦論)의

41) 『周易四箋』 卷1, II ~37, 18쪽(9~37). “欲得經旨 先認字義 諸經皆然 而易爲甚 如亨貞悔吝之等字義 尙多不白 又如序卦雜卦之言卦義者 是卦義也 非字義也 而後世字書 並錄爲字義 大謬矣”.

안설(按說)을 정리해 보면 적어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 괘명(卦名)을 중심으로 한 용안설(鑄案說)과 그 밖에 괘효사(卦爻詞)의 자구(字句)를 다룬 안설(案說) 또는 우안설(又按說)을 들 수가 있다. 전자는 소위 전래되어오는 「서괘전」과 「잡괘전」의 괘의(卦義)를 비판하여 새로운 괘의론(卦義論)을 전개한 자요 후자는 고증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놓은 자의론(字義論)이라 이를 수 있다. 임의추출 방법[64괘 중에서]에 의하여 일표(一表)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괘의론(卦義論) 용안설(鑄案說)

괘명(卦名)	괘서(序卦)	잡괘(雜卦)	설괘(說卦)	용안(鑄案)
건(乾)		강(剛)	건(健)	건건(乾健) 기(氣) 의(宜)
몽(蒙)	몽(蒙)	잡이저 (雜而著)		복(覆) 치(禪) 피(彼)
태(泰)	통(通)			내실(內實)
임(臨)	대(大)	여(與)		임연(臨淵) 진주림국(震主臨國) 대진(大震)
항(恒)	구(久)			상(常)

이는 그의 용안괘의론(鑄案卦義論)의 편린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저술은 어쩌면 십익의 열에 낀 「서괘」나 「잡괘」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64괘가 지니고 있는 본연의 괘의(卦義)를 천명해 놓은 자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기타 안설(按說)의 내용은 잡다하지만 그중에서도 자의(字義)의 고증은 다산 역학의 일단면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학가(學稼)·학포(學圃)의 참여는 그가 “무진년 가을에 나는 학포와 더불어 굴원에

있었는데 학포를 시켜 탈고하게 했으니 이것이 이른바 무진본이다 [戊辰秋 余與學圃在橘園 令圃脫稿 此所謂戊辰本也]”라 했듯이 여기서 그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64과, 384효 중 학가 46회, 학포 51회 도합 97회의 참여는 결코 적은 횟수가 아님을 짐작하게 한다. 이로써 다산 역학은 자산(茲山) 약현(若鉉)의 가세까지를 고려한다면 정씨가학(丁氏家學)이라 일러야 할는지 모른다. 이로써 다산역은 고역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 우리의 앞에 우뚝 솟아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제9장

# 다산역의 경학적 의의



이상에서 산만하게나마 대충 다산역을 중심으로 한 소위 고역을 둘러싼 한위 이래 송명에 이르는 술수학적 역학의 부장(蔽障)을 벗기고 보면 다산역은 애오라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음을 지적할 수가 있다.

## 제1절 역수학적(曆數學的) 고역(古易), 순천(順天)의 학

역의 시원은 무릇 복서로부터 비롯하였음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복서의 방법에 이르러서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잡다하지만 다산은 이를 역수학적(曆數學的)으로 간명하게 설명함으로써 순천지학(順天之學)으로서의 고역의 면모를 재정립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역리사법 중 추이지법(推移之法)은 이를 단적으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는 자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추이지법(推移之義)의 발명을 주자괘변도(朱子卦變圖)의 유의(遺義)라 하여 그의 공을 주자에게로 돌리려 하지만 그의 십이벽사시지괘(十二辟四時之卦)와 아울러 오세재윤지괘(五歲再閏之卦)의 발명은 실로 다산역의 도미(掉尾)라 이르지 않을 수 없다. 다산역이 비록 일월역(日月易)으로서의 음양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의 전개과정은 오로지 태음력(太陰曆)의 역상(曆象)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 것일까.

첫째로 이이란 유현(幽玄)한 신비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일

월처럼 뚜렷하게 우리들 앞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산은 그의 「역론」 1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옛날에 소순씨의 말에 “성인의 도(道)가 폐하지 않은 까닭은 예(禮)로써 그 도를 밝혔고, 『역』으로써 심오하게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높이 받드는 것은 그 안에 엿볼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역』을 지어 세상 사람들의 귀와 눈을 신묘하게 하자 그 도(道)가 마침내 존중되었다. 이것은 성인이 그 기틀과 권도를 사용하여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놓은 것이다”고 하였다. 안타깝도다! 소순이 이렇게 실언을 하다니!<sup>1)</sup>

라 하여 신비주의적 역학관을 극구 배격한다. 그렇다면 신비주의적 유현(幽玄)의 베일을 벗겨 버린다면 고역(古易)은 우리들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생각건대 복희와 신농과 문왕과 주공과 공자의 성스러움이 여기에 있었다. 『역』에 또한 감추어진 점이 있겠는가! 『설괘』를 지어 양과 소와 말과 돼지의 상을 비유하였고, 『십익』을 지어 추이와 왕래의 자취를 나타내었으며, 9라고 말하고 6이라고 말하여 변동과 옮김의 작용을 드러내었다. 점치는 사람이 일을 점치는 데 하사(下士)가 여덟 명이고, 서인(筮人)은 길흉(吉凶)을 판단하는 데 중사(中士)가 두 명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의 의문을 결정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인도하는 것이니 『역』에 어떤 감추어진 내용이 있겠는가!<sup>2)</sup>

1) 「易論」 1, I ~ 11, 1쪽(2 ~ 203). “昔者蘇句氏之言曰 聖人之道 所以不廢者 禮爲之明 而易爲之幽也 人之所以獲尊者 以其中有所不可窺者也 於是因而作易 以神天下之耳目 而其道益尊 此聖人用其機權 以持天下之心 噫 蘇氏於是乎失言矣”.

2) 같은 책, 2쪽(2 ~ 205). “曾謂伏羲神農文王周公孔子之聖而有是乎 且易亦何幽之有 爲之說卦 以喻其羊牛馬豕之象 爲之翼傳以著其推移往來之跡 爲之曰九而曰六 以顯其變動遷流之用 占人占其故 下士八人 筮人辨其吉凶 中士二人 以決國疑 以前民用 易亦何幽之有”.

라 하여 역이란 결코 유현한 신비역이 아니라 실사구시적 역수학(象數學)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다산의 고역은 왕필의 현담(玄談)이나 소강절의 도서학(圖書學)을 수용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르지 않을 수 없다.

다음 둘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산의 고역은 문복(問卜)이 목적이 아니라 순수천명(順受天命)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그의 「역론」 2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역』은 왜 지어졌는가? 성인이 하늘의 명령을 청하여 그의 뜻에 따르기 위해 지었다. 무릇 일이 공정한 선함에서 나와 반드시 하늘이 그를 도와 이루게 하고 복을 내릴 만한 것이라면 성인이 다시 청하지 않는다. 일이 공정한 선함에서 나왔으나 때와 형세가 이롭지 않음이 있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성인은 다시 청하지 않는다. 일이 공정한 선에서 나오지 않아 천리를 어기며 인륜의 기강을 해치는 것이면 비록 반드시 그 일이 성공하여 눈앞의 복을 얻을 지라도 성인은 다시 청하지 않는다. 오직 일이 공정한 선에서 나왔으나 성패와 화복을 거슬러 보고서 해야될 수 없을 경우에 청하는 것이다.<sup>3)</sup>

라 하여 네 가지로 분류한 청명(請命)의 길 중에서 오직 한 가지 경우만이 허용된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순천지학(順天之學: 道)으로서의 다산의 고역(古易)은 결코 문복(問卜)의 술수학이 아니라 순천(順天)의 상수학(象數學)임을 짐작하게 한다.

3) 「易論」 2, I ~ 11, 2쪽(2-205). “易何爲而作也 聖人所以請天之命 而順其旨者也 夫事之出於公正之善 足以必天之助之成 而予之福者 聖人不復請也 事之出於公正之善 而時與勢有不利 足以必其事之敗 而不能受天之福者 聖人不復請也 事之不出於公正之善 而逆天理傷人紀者 雖必其事之成 而微目前之福 聖人不復請也 唯事之出於公正之善 而其成敗禍福有不能逆觀而懸度之者 於是乎請之也”.

## 제2절 개과천선의 도

역도(易道)란 본시 길흉화복을 점치기 위한 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개과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점복이라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다산은 그의 역례비석(易例比釋) 인례(吝例)에서 이르기를

『역』이란 성인께서 잘못을 고치고 의로움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다. 공자가 “하늘이 나에게 몇 년의 수명을 빌려 주어 마침내 『역』을 배우게 한다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고 한 말이 이것을 증험한다.<sup>4)</sup>

라 하고 이어서

잘못을 고치는 것을 회(悔)라고 한다.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인(吝)이라고 한다. 회린(悔吝)이라는 것은 역가(易家)의 대의(大義)이다.<sup>5)</sup>

4) 『周易四箋』 卷1, II~37, 28쪽(9-57). “易者 聖人所以改過而遷義也 故孔子曰假我數年 卒以學易 庶無大過矣 斯可驗也”.

5) 같은 책, 같은 곳. “改過曰悔 不改過曰吝 悔吝者易家之大義也”.

라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산은 「대상전」을 각괘하(各卦下)에서 모아다가 한데 뭉쳐 일경(一經)을 만든 소이는 그것이 결코 복서와는 관계없는 순수도의론(純粹道義論)이라는 점 때문임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우부우부(愚夫愚婦)도 「대상전」에 접하게 되면 분연히 도의(道義)를 각성하여 개과천선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이르지 않을 수 없다.



### 제3절 술수학의 비판

한대에 형성된 음양오행설에서 오행설을 제외한 음양설을 일엄일조(日掩日照)의 자연현상으로 이해한 다산은 그의 역리론에서 음양을 대대원리의 --의 부호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64괘, 384획이 온통 음양의 --으로 구성되었고 그것들의 진퇴소장과 호체·효변에 의하여 취상(取象)하는 방법이 다른 아닌 음양설적 고역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대에 조성된 재이설적 술수학은 다양한 사술을 도출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에 대한 다산의 비판을 점검하면 다음과 같다. 「오학론」 5에서 술수학을 비판하여 이르기

술수학(術數學)은 학문이 아니라 혹술(惑術)이다. 한밤중에 일어나 하늘을 쳐다보고 뜰을 거닐면서 사람들보고 말하기를 “저 형혹성(熒惑星)이 심성(心星)을 침범했으니 간신(奸臣)이 군주의 권세를 끼고 나라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저 천랑성(天狼星)이 자미성(紫微星)을 범했으니, 내년에는 반드시 병란(兵亂)이 있을 것이다”, “저 세성(歲星)이 기성(箕星)의 분야에 와 있으니, 이는

우리나라가 여기에 의뢰(依賴)할 것이다” 한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탄식하면서 도선(道詵)의 비기(秘記)와 『정감록(鄭鑑錄)』의 참설(讖說)을 외우며 말하기를 “아무 해에는 병란이 반드시 일어난다” 또 “아무 해에는 옥사가 반드시 일어나며 피가 흘러서 내를 이루고 인종이 끊어질 것이다” 하며 인척과 친구들에게 전담과 가택을 팔고 부모의 분묘(墳墓)도 내버려 둔 채 깊은 산 호랑이와 표범의 굴속으로 들어가 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라고 권고한다. 또 문득 근심이 서려 얼굴빛을 바꾸면서 잠시 뜸을 들인 후 말하기를 “옛날 나의 노선생께서는 산(神)과 서로 통하였으므로 귀(鬼)를 부릴 수 있었으니, 서찰을 띄우면 밥 한 끼 먹는 사이에 이미 8백 리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편지를 뜯어 본 후 제자들을 데리고 산골 속으로 들어가 나뭇잎을 뿌리니 소매 속에 넣었다가 뿌리면 병사와 마필(馬匹)이 되어 떠들썩하였다” 하고, 행장을 풀고 그림 세 폭을 펼쳐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는 옥황(玉皇)이 진군(眞君)의 조회를 받는 모습이요, 이는 선인(仙人)이 학(鶴)을 탄 모습이요, 이는 목마른 말이 시내로 달려가는 모습이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그 혈(穴)과 향(嚮)을 알고 있다. 진실로 이 자리에 묘를 쓴다면 자손이 길운(吉運)을 만날 것이다” 한다. 그 이튿날 세수를 깨끗이 한 후 의관을 바로 하고 꿇어앉아 태극도(太極圖)·하도(河圖)·낙서(洛書)·구궁(九宮)의 수를 이야기하며 이기(理氣)·선악(善惡)·동이(同異)의 시비를 변론하니 의젓한 한 성리(性理)선생이다.<sup>6)</sup>

라 하여 술수학에 빠진 세속 성리학자[俗儒]를 묘사한 후 이어서 이  
르기를

6) 「五學論」 5, I ~ 11, 23쪽(2-247~248). “徬觀之學 非學也惑也 中夜起 瞻天步中庭以語人 日彼熒惑守心 主奸臣挾主勢以某國 日彼天狼犯紫微 明年必有兵 日彼歲星在箕分 此吾邦域之所賴也 忽歔歔語道諛秘記 鄭鑑讖說 日某年兵必起 日某年獄必興 將血流成川 人種以絕 勸其婚友 霽田宅棄墳墓 入深山虎豹之窟 以俟其難 忽愀然變色 有問而言曰 昔我老先生 能通神役鬼 書發食頃 已抵八百里 開 攜弟子入山谷 袖木葉以散之 使兵馬喧闐 忽解裝展圖三幅曰 此玉皇朝眞之形 此仙人騎鶴之形 此渴馬奔川之形 他人不知 吾獨知其穴與嚮 苟能用之 子孫其逢吉 厥明鑒 正衣冠危坐 談太極圖河圖洛書九宮之數 辨理氣善惡同異之訟 儼然一性理先生也”.

아 헛된 명예를 도적질하며 중망(重望)을 잃어지고 어리석은 대  
중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모두 이런 술수학을 하는 선  
생이다. 진정(眞正)으로 속일 줄 모르는 선비가 선왕(先王)의 도  
는 효제(孝弟)에 근본 하고 은미(隱微)한 것을 삼가야 함을 강명  
(講明)하면서 예악형정(禮樂刑政)의 글을 궁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비웃으며 “저 사람은 내일 일도 모르면서 불붙는 쉼 위에  
앉아서 시를 말하고 예를 논하니 어찌 우리와 더불어 일할 수  
있으리오. 성인은 글[糟粕]을 세상 사람에게 보이고, 그 깊은 뜻  
을 담아 스스로 쓸 수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공자는 『역』의 십  
익(+翼)을 지었고, 주자는 『참동계(參同契)』를 주해하였으나 후  
인(後人)은 그의 뜻을 알지 못하였다” 한다. 저 어리석고 지혜롭  
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술수학]만을 높이고 저것[『주역』·『참동  
계』]을 낮추면서 날로 으스스하고 비뚤어 치우친 곳으로만 줄달  
음쳐 흘러가니 장차 누가 이를 금지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sup>7)</sup>

라 하여 진유가 속유에게 밀리는 현상을 서술한 후 이어서 이르기를

천문지(天文志)와 오행지(五行志)는 역대(歷代)로 억지로 맞추려고  
하였으나 하나도 징험하지 못한 것은 성신(星辰)의 운행에는 일  
정한 도수(度數)가 있어서 서로 어지럽힐 수가 없어서이니 또 어  
찌 미혹할 것이 있겠는가. 연경(燕京)의 시장(市井)에는 환술(幻  
術)을 파는 사람이 있어 은전(銀錢) 한두 잎을 받고 재주를 피우  
지만 통역관들이 환술의 내용을 해마다 자세히 일러주니 또 어  
찌 미혹될 것인가. 서건학(徐乾學)의 『독례통고(讀禮通考)』 「장고  
(葬考)」는 풍수설을 배척하여 『주역』과 함께 할 수 없다 하였으  
니, 또 어찌 미혹될 것인가. 이렇게 미루어 생각해 본다면 저 복  
서(卜筮)·관상·성요(省耀)·두수(斗數) 등 무릇 술수로서 부연  
(敷衍)하는 것은 모두 혹술(惑術)일 뿐 학문이 아니다.<sup>8)</sup>

7) 같은 책, 같은 곳(2-248). “嗚呼 竊虛名負重望 爲衆愚所歸嚮者 悉此先生 有真正不僞之士 講明先王  
之道 本孝弟慎微隱 而究禮樂刑政之文者 則嗚之 曰彼且不明日之事 坐積薪厝火之上 談詩說禮 烏足以  
與於斯矣 聖人以糟粕示天下 留其秘以自用 故孔子作易翼 朱子注參同契 後人不知其義也 彼蒙昧不慧者  
尊此卑彼 日趨流乎幽陰邪僻之鄉 將誰與禁之”.

8) 같은 책, 같은 곳. “天文五行之志 歷世傳會 無一驗者 星行咸有定度 不可相亂 又何惑焉 燕市賣幻之人

라 하여 전면적으로 배격한다. 그러므로 진유(眞儒)의 학은 다음과 같다.

요임금도 앞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곤(鯀)을 임용하여 일을 실패했고, 순임금도 앞일을 몰랐기 때문에 남방을 순행하다가 창오(蒼梧)의 들에서 죽었고, 주공(周公)도 앞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관숙(管叔)으로 하여금 은(殷)을 감독하게 하였고, 공자도 앞일을 몰랐기 때문에 광(匡)땅에서 양호(陽虎)에게 환난을 당하여 거의 죽음을 당할 뻔하였다. 그런데 요즈음은 앞일을 모르는 것을 하나의 병통으로 여기어 반드시 앞일을 아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로 귀의하려고 하니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저 마귀를 섬기며 괴기한 것을 좋아하고 은연중 앞일을 아는 성인인 양 자처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 또 어찌 손을 잡고 함께 요·순의 문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sup>9)</sup>

라 하여 전지지술수(前知之術數)는 진유(眞儒)의 능사(能事)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산은 그의 술수학의 비판을 「오학론」에 그치지 않고 따로 『풍수집의(風水集議)』를 저술하여 그의 서두에서

풍수설(風水說)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숭상하고 믿는다. 덕의(德義)를 닦지 않고 장무(葬巫)에게 복(福)을 구하는데, 습속(習俗)이 이미 굳어져서 미혹을 깨우칠 방도가 없다. 이에 옛사람들의 뛰어난 이론을 모아 이것과 저것을 함께 실어 득실(得失)을 드러내고 그 사이에 못난 내 이론을 덧붙여 그 어두운 면을 들춰내었다. 선(善)을 즐기고 이치에 밝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보고 잘못을 깨달을 것이니, 이로 인해 (풍수설의) 사나운 물결

---

受銀一二銖 呈其技象觀歲 語人甚悉 又何惑焉 徐乾學葬考 斥風水之說 不可與易 又何惑焉 推是以往 若卜筮看相星耀斗數之等 凡以術數衍者 皆惑也 非學也”.

- 9) 같은 책, 23~24쪽(2-248~249). “堯不能前知 任鯀以敗事 舜不能前知 南巡守崩於蒼梧之野 周公不能前知 使管叔監殷 孔子不能前知 畏於匡幾不能免 今也病不能前知 必得一前知者 以爲歸 豈不惑歟 彼事魔好怪 隱然自據乎前知之聖 而莫之知恥也 又惡能攜手同歸於堯舜之門哉”.

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이 책의 내용을 믿지 않는다 해도 나를 허물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sup>10)</sup>

라 하여 풍수설을 체계적으로 비판한다.

이로써 다산역이 지니고 있는 경학적 의미는 애오라지 술수학에서 탈출하여 순천(順天) 회린(悔吝)의 학(學)으로서 정립한 데서 찾아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10) 『風水集議』, IV~24, 1쪽(13-311). “風水之說 世多崇信 不修德義 求福於葬巫 習俗已錮 無以曉惑 茲輯古人名論 甲乙並存 得失以顯 間附替說 以章其晦 庶乎樂善明理者 卽書悟妄 因有以殺其濫關歟 寧適勿信 不以罪我 又幸矣”.



제10장

# 다산 역학의 사상사적 위상





다산 역학이 고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자 우리는 거기에 따른 다산역의 철학적·사상사적 위상에 따른 관심을 저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동양철학 특히 중국철학에 있어서의 음양오행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막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산의 견해 또한 다산 역학의 사상사적 위상을 가름하는 중요한 열쇠의 하나라 이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제1절 묘합의 원리

다산은 그의 역리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음양오행설의 기본구조를 분해하여 음양설만을 수용하고 오행설을 부정한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산은 그의 『중용강의』에서

지금 살펴보건대, 음양이라는 이름은 햇빛이 비치고 가리는 데에서 생겼다. 해가 가리는 것을 음(陰)이라 하고 해가 비치는 것을 양(陽)이라고 한다. 본래 체질(體質)이 없으며 다만 밝고 어두움만 있을 뿐이어서 원래 만물의 부모가 될 수 없다. …성인이 『역』을 지을 때 음양대대(陰陽待對)로서 천도(天道)를 삼았으니 이것이 『역』의 도(道)일 따름이다. 음양이 어찌 일찍이 체질이 있었겠는가?<sup>11)</sup>

라 하여 음양을 대대관계(待對關係)의 역도(易道)로 파악하였고, 항을 달리하여 이르기를

---

11) 『中庸講義』, II~4, 1~2쪽(4~238~239). “今案陰陽之名 起於日光之照掩 日所隱曰陰 日所映曰陽 本無體質 只有明闇 原不可以爲萬物之父母…聖人作易以陰陽對待爲天道 爲易道而已 陰陽 曷嘗有體質哉”.

천도(天道)의 넓음과 큼, 물리(物理)의 오묘함과 은미함은 미루어 헤아리기 쉽지 않다. 하물며 오행(五行)은 만물 가운데 다섯 가지 물(物)에 불과하니 같은 물인데 이 다섯 가지로써 만물을 낳는다는 것은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sup>12)</sup>

라 하여 오행설은 그의 근거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의 고역에 있어서는 아예 오행설에 관하여서 가부간의 언급이 없었던 것만으로도 그의 오행설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제 음양설만을 대대원리의 역도(易道: 天道)로 이해한 다산은 이를 태극일원(太極一元)의 묘합으로 파악한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송학에 있어서의 태극이설(太極理說)에서 벗어난 그의 옥극설(屋極說)은 음양의 상수학적 이해로써 사상사적 입장에서라도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산의 옥극설[태극설]은 그것이 곧바로 이자묘합(二者妙合)의 ‘한’사상과 맥을 같이한다는 사실은 한국 사상사적 맥락에서도 극히 고무적인 사실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역학에서뿐만이 아니라 『중용』에 있어서의 성명일여(性命一如)의 성명론(性命論)이라거나 『대학』에 있어서의 신형묘합내성위인(神形妙合乃成爲人)의 사상도 한결같이 이자묘합(二者妙合)으로 그 맥이 통하고 있음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다음 오행설을 배제한 다산은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의 물질적 오원구조에 가름하여 천(天: 乾) · 지(地: 坤) · 수(水: 坎) · 화(火: 離)의 사

12) 같은 책, 3쪽(4-241). “天道浩大 物理眇隱 未易推測 況五行不過萬物中五物 則同是物也 而以五生萬不亦難乎”.

원구조로 그의 형이상학적 우주론을 정립하고 있다. 그가 「추이표직설(推移表直說)」에서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은 태초의 기운이 나뉘어 저절로 형질을 이루어서 조화와 화육을 입지 않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건(乾)과 곤(坤), 감(坎)과 이(離)는 『역』의 사정(四正)이 된다.<sup>13)</sup>

이라 한 것은 이를 두고 이른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건(乾: 天) · 곤(坤: 地) · 감(坎: 水) · 이(離: 火)는 자성형질(自成形質)이라 하여 형이학적 형질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 · ≡ · ≡ · ≡의 괘형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음양을 떠나서 존재하는 자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역(易)의 사정(四正)이란 바로 음양의 사정(四正)이기 때문임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기 때문이다. 음양대대[二元]의 옥극[一元]으로 파악되는 다산의 태극음양설은 형태학적인 형상론이 아니라 기동적(機動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그의 구육(九六)의 효변설(爻變說)이나 호체삼역(互體三易)의 물상론(物象論)이 단적으로 이를 설명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므로 다산에 있어서는 천도(天道)도 자강불식(自疆不息)할 뿐 아니라 인성도 끊임없는 내자송(內自訟)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다산 역학은 명실 공히 변화의 학인 소이가 여기에 있다.

13) 『周易四箋』 卷1, Ⅱ ~37, 5쪽(9-12). “天地水火者 溟滓之分而自成形質 不受和化者也…故乾坤坎離爲易四正”.

## 제2절 한사상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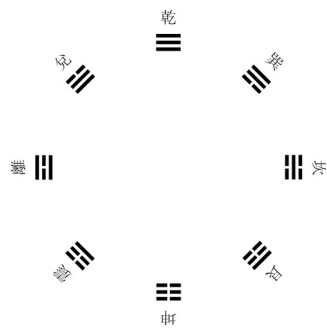
필자는 이미 『한사상의 묘맥』(思社研刊, 1986)에서 밝힌 바 있으므로 여기서의 재론은 피하고자 하거니와 어쨌든 다산의 이자묘합(二者妙合)의 사상사적 체계가 한국사상의 주맥인 ‘한’사상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흥미를 돋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바야흐로 우리 한민족뿐만이 아니라 인류사상사[文化史] 발달과정에 있어서 조성된 사유양식은 실로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이원론적, 사유양식은 실로 절대적인 스스로의 위상을 굳게 지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원론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간헐적으로 없지는 않았지만 한사상에서처럼 완벽한 묘합(妙合) 귀일(歸一)의 원리는 필자 과문의 탓일지는 몰라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단적으로 말해서 단군-화랑-원효[佛]-다산[儒]으로 이어지는 ‘한’사상의 맥락은 인류사상사에 있어서도 일대장관을 이루는 자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다산의 옥극설에 담긴 음양묘합의 상도 결코 우연만이 아님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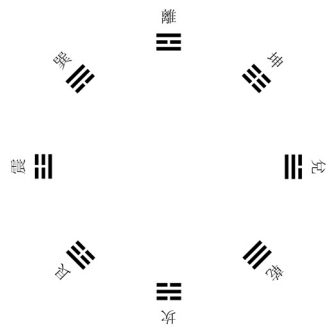
## 결 어

이제 다산 역학은 한국사상뿐만이 아니라 동양사상[陰陽說] 나아가서 인류문화[二元論]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과제를 우리들에게 안겨 주는 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산 역학은 신비주의적 복술(卜術)의 늪에서 우리들을 건져내 주는 길잡이가 된 것이다. 다산의 고역은 우리의 생활철학이요 윤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을 난해의 서(書)로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공자의 『논어』와 함께 나란히 서가에 꽂아 두어야 할 책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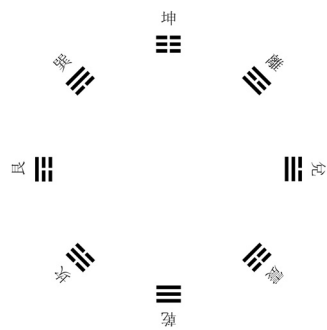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역학은 다산고역과 더불어 도서학[河圖洛書]의 새로운 제3의 적자로 간주되는 정역(正易)이 함께 병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다산고역과는 남극과 북극처럼 절대적 양극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정역은 다산이 극구 배격했던 소씨역의 후신으로서 복희(伏羲)·문왕(文王)·정역(正易) 등 삼팔괘도(三八卦圖)를 예시(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伏犧八卦圖>



<文王八卦圖>



<正易 八卦圖>



정역은 김일부(金一夫: 1826~1898)의 창안으로서 이에 대한 많은 연구업적들이 축적되어 있음을 필자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를 소개한다거나 비판할 개제는 못 되고 자못 한국역학의 입장에서 따져 볼 때 동양의 역학이 왜 한반도[韓國]에서 이처럼 양극으로 분립하기에 이르렀을까. 우연일까, 아니면 천운이 거기에 깃들여 있는 것일까. 언젠가는 이 양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양자묘합(兩者妙合)의 역사는 우리 한민족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 아닐 수 없다. 천지도수(天地度數)도 인륜적 토대 위에서서야 성사된다는 점에서 다산고역의 경학적 윤리관의 존재 의의가 있을 것이요 다산의 목민윤리(牧民倫理)도 목자로서 천지신명(天地神明)에 대한 종교적 경의심을 갖추지 않고서는 제대로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도수학(度數學)의 존재의의를 다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다산 역학은 이제 전통역학을 그의 역리사법에 의하여 새롭게 정립하였고 일부역(一夫易)은 또 다른 입장에서 전통역학을 일신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산고역이나 일부정역(一夫正易)이나 한결같이 우리 겨레의 역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양극관계만을 따지기에 앞서 이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분모는 없을 것인가. 여기서 이 과제만은 미결의 장으로 남겨 놓고 후인을 기다릴 따름이다.

## 발문

이 책을 발행하게 된 것은, <이을호 전서> 초간본이 품절되어 찾는 독자들이 많았고, 전서의 증보와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망에 따른 것입니다. 전서가 발행된 이후에도 특히 번역본에 대한 일반 독자의 수요가 많아서 『간양록』을 출간하였으며, 『한글 사서』(한글 중용·대학, 한글 맹자, 한글 논어)는 비영리 출판사 ‘올재 클래식스’가 고전 읽기 운동의 교재로 보급하였고, 인터넷에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글 논어」는 교수신문에서 ‘최고의 고전번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간 선친의 학문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생전의 행적을 기리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서세(逝世) 이듬해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선친께서는 생전에 자신의 항일활동을 굳이 내세우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영광만세운동과 관련하여 옥고를 치렀던 일들을 사후에 추증된 것입니다.

향리 영광군에서도 현창사업이 있었습니다.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사적비(事績碑)가 영광읍 우산공원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금석(金石)의 기록 또한 바라지 않으신 것을 알기에 영광군에서 주관한 사적비의 건립 역시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세 5주년 때는 ‘선각자 현암 이을호 선생의 내면세계’를 주제로 한 학술심포지엄이 영광문화원 주최로 영광군에서 열렸습니다. 그의 학문이 “한국의 사상과 역사를 새롭게 연구하고, 우리 문화의 미래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음이 알려지자,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남지회’에서는 『현암 이을호』라는 책을 간행하여 여러 곳에 보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영광군에서는 전국 도로명주소 전환 사업 시 고택(故宅) 앞 길을 ‘현암길’로 명명하였습니다.

학계에서는 전남대학교가 ‘이을호 기념 강의실’을 옛 문리대 건물에 개설하여 그곳에 저서를 전시하고, 동양학을 주제로 하는 강의와 학술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선친의 학문 활동은 일제시대 중앙일간지와 『동양의학』 논문지 등에 기고한 논설들이 그 효시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 학문의 천착은 일생 동안 몸담으셨던 전남대학교에서 이루어졌음을 기린 것입니다. 지금은 생전에 많은 정성을 기울이셨던 ‘호남의 문화와 사상’에 대한 연구도 뿌리를 내리게 되어 ‘호남학’을 정립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자학회에서 논문집 『현암 이을호 연구』를 간행하였고, 최근 출간한 윤사순 교수의 『한국유학사』에서 그 학문적 특징을 ‘한국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업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제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 학문이 하나의 논리와 체계를 갖춘 ‘현암학’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 출간이 ‘책을 통하여 그 학

문과 삶이 남기'를 소망하셨던 선친의 뜻에 다소나마 보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이 전집이 간행되기까지 원문의 번역과 교열에 힘써 준 편집위원 제위와 이 책을 출간하여준 한국학술정보(주)에도 사의를 드립니다.

2014년 첫 봄  
장자 원태 삼가 씀

## 편집 후기

2000년에 간행된 <이을호 전서>는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편찬하였었다. 따라서 다산의 경학을 출발로, 그 외연으로서 다산학 그리고 실학과 한국 사상을 차례로 하고, 실학적 관점으로 서술된 한국 철학과 국역 『다산사서(茶山四書)』, 『다산학제요』 등을 실었던 것은, 다산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적 사유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 것이었으며, 그 밖의 『사상의학』과 『생명론』은, 선생이 한때 몸담았던 의학에 관계된 저술이었다.

지금은 초간본이 간행된 지 14년의 세월이 흘러, 젊은 세대들은 원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논문의 서술방식 또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집의 간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아 이번에 <현암 이을호 전서>를 복간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의 편차는 대체적으로 선생의 학문적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간행되었던 <이을호 전서>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각 책을 따로 독립시켜 각자의 특색이 드러나도록 하

였다. 특히 관심을 기울인 것은 원문의 번역과 문장의 교열을 통하여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원문의 국역이었다. 저자는 문장의 서술과정에서 그 논증의 근거를 모두 원문으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인용문은 모두 국역하고 원문은 각주로 처리하였다. 또한 그 글의 출처와 인명들도 모두 검색하여 부기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전의 책은 그 주제에 따라 분책(分冊)하였기 때문에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두 한 책으로 엮었으나 이번 새로 간행된 전집은 다채로운 사상들이 모두 그 특색을 나타내도록 분리한 것이다. 이는 사상적 이해뿐 아니라 독자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서세 후에 발견된 여러 글들을 보완하고 추모의 글도 함께 실어서 그 학문세계뿐 아니라 선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히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이제 이와 같이 번역·증보·교열된 <현암 이을호 전서>는 선생의 학문이 한국사상연구의 현대적 기반과 앞으로 새롭게 전개될 한국 문화의 미래적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로서 손색이 없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갑오년(甲午年) 맹춘(孟春)

증보·교열 <현암 이을호 전서>복간위원회

안진오 오종일 최대우 백은기 류근성 장복동 이향준 조우진  
김경훈 박해장 서영이 최영희 정상엽 노평규 이형성 배옥영

## 『현암 이을호 전서』 27책 개요

### 1. 『다산 경학사상 연구』

처음으로 다산 정약용의 철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저서이다. 공자 사상의 연원을 밝히고 유학의 근본정신이 어디에서 발원하였는가 하는 것을 구명한 내용으로서, 유학의 본령에 접근할 수 있는 지침서이다(신국판 346쪽).

### 2. 『다산 역학 연구』(上)

### 3. 『다산 역학 연구』(下)

다산의 역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책으로서 다산이 밝힌 역학의 성립과 발전적 특징을 시대적으로 제시하고 다산이 인용한 모든 내용을 국역하였다(신국판 上, 下 632쪽).

### 4. 『다산의 생애와 사상』

다산 사상을 그 학문적 특징에 따라서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의 사상으로 재해석한 책이다(신국판 260쪽).

#### 5. 『다산학 입문』

다산의 시대 배경과 저술의 특징을 밝히고, 다산의 『사서오경(四書五經)』에 대한 해석이 그 이전의 학문, 특히 정주학(程朱學)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주제별로 서술하여 일표이서(一表: 經世遺表 / 二書: 牧民心書, 欽欽新書)의 정신으로 결실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한 책이다(신국판 259쪽).

#### 6. 『다산학 각론』

다산학의 구조와 경학적 특징, 그리고 그 철학 사상이 현대정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 상세하게 논한 저서이다(신국판 691쪽).

#### 7. 『다산학 강의』

다산학의 세계를 목민론, 경학론, 인간론, 정경학(政經學), 『목민심서』 등으로 분류하여 다채롭게 조명하여 설명한 책이다(신국판 274쪽).

#### 8. 『다산학 제요』

『대학(大學)』, 『중용(中庸)』, 『논어(論語)』, 『맹자(孟子)』의 사서(四書)는 물론 『주역』, 『시경』, 『악경』 등 모든 경서에 대한 다산의 이해를 그 특징에 따라 주제별로 해석하고 그에 대한 특징을 서술한 방대한 책이다(신국판 660쪽).



### 9. 『목민심서』

다산의 『목민심서』를 현대정신에 맞도록 해석하고, 그 가르침을 현대인들이 어떻게 수용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재구성한 책이다(신국판 340쪽).

### 10. 『한국 실학사상 연구』

조선조 실학의 특징을, 실학의 개념, 실학사상에 나타난 경학(經學)에 대한 이해, 조선조 실학사상의 발전에 따른 그 인물과 사상 등의 차례로 서술한 것이다.(신국판 392쪽)

### 11. 『한 사상 총론』

단군 사상에 나타난 ‘한’ 사상을 연구한 것이다. 단군사상으로부터 ‘한’ 사상의 내용과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근대 민족종교의 특성에 나타난 ‘한’의 정신까지, 민족 사상을 근원적으로 밝힌 책이다(신국판 546쪽).

### 12. 『한국철학사 총설』

중국의 사상이 아닌 한국의 정신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철학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이 책은 한국의 정신, 특히 조선조 실학사상에 나타난 자주정신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이는 중국의 의식이 아닌 우리의 철학 사상의 특징을 밝혔다(신국판 611쪽).

### 13. 『개신유학 각론』

조선조 실학자들의 사상적 특징, 즉 윤휴, 박세당, 정약용, 김정희

등의 사상을 서술하고 실학자들의 저서에 대한 해제 등을 모은 책이다(신국판 517쪽).

#### 14. 『한글 중용·대학』

『중용』과 『대학』을 다산의 해석에 따라 국역한 것이며, 그 번역 또한 한글의 해석만으로서 깊은 내용까지 알 수 있도록 완벽한 책이다(신국판 148쪽).

#### 15. 『한글 논어』

다산이 주석한 『논어고금주』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어』를 한글화한 책이며 해방 후 가장 잘된 번역서로 선정된바 있다(신국판 264쪽).

#### 16. 『한글 맹자』

『맹자』를 다산의 『맹자요의』에 나타난 주석으로서 한글화하여 번역한 책이다(신국판 357쪽).

#### 17. 『논어고금주 연구』

『여유당전서』에 있는 『논어고금주』의 전체 내용을 모두 국역하고, 그 사상적 특징을 보충 설명한 것이다. 각 원문에 나오는 내용과 용어들을 한(漢)나라로부터 모든 옛 주석에 따라 소개하고 다산 자신의 견해를 모두 국역하여, 『논어』에 대한 사상적 본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신국판 665쪽).

#### 18. 『사상의학 원론』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 1838~1900)가 쓴 『동의수세보원』의 원문과 번역, 그리고 그 사상에 대한 본의를 밝힌 것으로서 『동의수세보원』의 번역과 그 내용을 원론적으로 서술한 책이다(신국판 548쪽).

#### 19. 『의학론』

저자가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당시의 질병과 그 처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의학에 대한 서술이다(신국판 261쪽).

#### 20. 『생명론』

저자가 만년에 우주에 대한 사색을 통하여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의 유기체적 관계로서 형성되고 소멸된다는 사상을 밝힌 수상록이다(신국판 207쪽).

#### 21. 『한국문화의 인식』

한국의 전통문화에 나타난 특징들을 각 주제에 따라서 선정하고 그것들이 지니는 의미를 서술하였으며 또한, 우리 문화를 서술한 문헌들에 대한 해제를 곁들인 책이다(신국판 435쪽).

#### 22. 『한국 전통문화와 호남』

호남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지리 풍속 의식과 저술들을 주제별로 논한 것이다(신국판 415쪽).

23. 『국역 간양록』

정유재란 때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의 스승이 되어 일본의 근대 문화를 열게 한 강항(姜沆)의 저서 『간양록』을 번역한 것이다(신국판 217쪽).

24. 『다산학 소론과 비평』

다산의 사상을 논한 내용으로서, 논문이 아닌 조그마한 주제들로 서 서술한 내용과 그 밖의 평론들을 모은 책이다(신국판 341쪽).

25. 『현암 수상록』

저자가 일생 동안 여러 일간지 및 잡지에 발표한 수상문을 가려 모은 것이다(신국판 427쪽).

26. 『인간 이을호』

저자에 대한 인품과 그 학문을 다른 사람들이 소개하여 여러 책에 실린 글들을 모은 책이다(신국판 354쪽).

27. 『현암 이을호 연구』

현암 이을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논문집으로서 그 학문과 사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그 업적이 앞으로 한국사상을 연구하는 기반을 닦았다는 것을 밝힌 책이다(신국판 579쪽).

지은이 소개 | 현암玄庵 이을호李乙浩(1910~1998)

전남 영광에서 출생했다. 중앙고보 시절에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1837~1900)의 제자, 해초海初 최승달崔承達로부터 사상의학四象醫學을 전수받고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동의수세보원>을 번역하여 사상의학의 현대적 개척자가 됐다. 영광에서 약국을 경영하면서 민족자강운동에 앞장섰다가 체포되어 옥중에서 <여유당전서>를 접하고, 출옥 후 한국 사상과 문화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광복과 함께 사재를 염출하여 영광민립중학교를 세우고 교육 운동에 진력했다.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부임해 다산 경학 사상 연구를 기초로 조선조 사상을 탐구하고, 민족 고유의 정신으로 한국 문화의 자주성을 발견하여 한국학의 개척자가 됐다. 이러한 업적으로 “한국 사상 연구의 현대적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생의 학문은 <현암 이을호 연구>를 비롯,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계속 연구되고 있으며 <현암 이을호 전서> 27책은 광복 후 개인 문집 중 가장 많은 양과 깊이를 인정받고 있다.

## 다산역학 연구 II

©사단법인 올재

초판 발행 | 2018년 10월 31일

지은이 | 이을호

펴낸이 | 홍정욱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4길 10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http://www.olje.or.kr)

ISBN | 979-11-5993-068-3 05150